

IN

Y

P

II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

양계민

공동연구원

신현옥 박주희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 : 총괄보고서

- ▶ 책임연구원 :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신현옥(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 연구위원)
박주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문연구원)
- ▶ 연구보조원 : 정소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전 지구적 세계화와 글로벌화로 한국사회는 점차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2014년 1월 1일 현재 한국에는 156만 9,470명의 외국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대비 약 3%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앞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한국사회는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사회는 앞서 서구에서 겪었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한 편으로는 도움이 된 반면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의 강화는 미래 한국사회의 통합 및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여기고,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객관적 실태파악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다문화청소년 대상 패널을 2011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하여 올 해인 2014년까지 총 4년간 추적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여러 가지 목적 중 중요한 한 가지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 및 제시함으로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사회적으로 확산 및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 집단이 사회적 소수집단을 형성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시리즈가 수년간의 자료를 축적하여 면밀히 분석해 나간다면 최종적으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훌륭한 성장 동력으로 커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드림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종단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탐색하고, 다문화청소년 및 비(非)다문화청소년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며, 다문화청소년들이 발달 및 성장과정에서 비(非)다문화청소년과 보이는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지원방안을 도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4년도의 연구 목적은, 첫째, 4년간의 발달변화를 추적하고, 둘째, 중학교 입학이라는 학령기 이행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가정, 정책의 영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요구에 부합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년간의 종단변화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 중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교사 및 친구지지, 신체만족도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성을 나타내었고, 학습활동, 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등 학업성취관련 영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적응 양상이 중학교 입학 후에도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시기의 학교적응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은 집단이 중학교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발달하고 있었고, 반대로 지속적으로 낮았던 집단은 중학교에서도 가장 취약특성을 보여, 초등학교 시기의 건강한 발달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셋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과의 비교결과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 모두 중학교시기에 학업성취와 학교생활관련 요인에서 모두 급격히 떨어지는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고, 학년이 증가하면서 비(非)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간격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 중 가족의 지지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다섯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요인은 교우관계, 학습활동, 성적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다문화청소년의 소외 및 차별방지, 지지집단의 역량강화, 다문화친화적 환경조성 마련을 위한 총 10가지 핵심과제와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다문화청소년, 청소년발달, 종단연구, 사회통합,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0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되는 종단연구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그들의 발달변화 양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유형의 특성 및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 다문화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

2014년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4년간의 발달변화 양상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별 특성 및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중학교 입학이라는 학령기 이행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파악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가정, 정책의 영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
-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교사, 현장전문가, 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문제행동과 관련된 측면을 심층면접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요구에 부합한 정책대안 도출

2. 연구방법

○ 양적조사(패널설문조사)

중학교 1학년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 1,384가구를 대상으로 CAPI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질적조사(심층면접)

양적조사에 참여한 가구 중 어머니의 출신국가 및 청소년의 적응수준별로 35가구를 표집하여 총 70명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함

○ 요구분석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교사, 현장전문가, 다문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쳐 FGI 및 개방형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문화청소년 지원방안 및 향후 지원 방향, 현재 상황의 문제점 등을 파악 및 분석함

○ 정책분석

중앙 부처 및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국회예산처에서 분석한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예산현황,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 등을 분석함

○ 정책협의회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정책협의회를 실시함

○ 정책포럼

국회 합동으로 「다문화사회포럼」을 개최하여 국회,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일반 시민이 모두 참석한 토론회를 통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함

3. 주요결과

1) 4년간 종단변화 추이

- 학교생활적응 중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교사 및 친구지지, 신체만족도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시에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학교에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거나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반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의 방임적 태도와 집단괴롭힘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특히 학교생활과 관련된 부분 중 학습활동, 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등 학업성취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 한국인 정체성,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 수용태도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초등시기의 발달 양상 추적

- 전반적으로 초등생 기간의 발달양상이 중학교 입학 후에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면 가정의 요인,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심리·사회적응 및 정체성,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등 발달 전반에서 초등학교시기에 학교적응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은 고-고(HA) 집단의 경우 중학교에 입학해서도 거의 대부분 변인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발달하고 있었고, 반대로 저-저(LA)집단의 경우 거의 모든 영역과 변인에서 가장 취약하고 심지어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체적으로 발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한 집단임을 시사함
- 초등연령의 발달수준이 중학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연령시기의 건강한 발달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함

3) 한국아동·청소년패널과의 비교

- 한국 아동·청소년패널과의 비교 결과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 모두 중학교시기에 학업성취와 학교생활관련 요인에서 모두 급격히 떨어지는 특성을 나타냄

- 자아탄력성은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비(非)다문화패널청소년보다 높아졌고 비행행동은 더 낮아져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였음
- 학년이 증가하면서 비(非)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간격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4) 가정, 학교, 지역환경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은 전반적으로 가족의 지지와 부모의 양육태도인 것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로 비교했을 때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의 경우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중요한 요인으로 산출된 반면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은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중요한 요인으로 산출됨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요인은 교우관계, 학습활동, 성적수준이었으나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의 경우는 교우관계가 매우 중요한 반면 '상'인 집단은 학습활동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산출됨
- 학교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학교 다문화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함
- 지역사회의 다문화청소년 대상 투입예산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역시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적절성을 검증할 필요 있음

5) 심층면접 결과

- 심층면접 결과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들은 한국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고, 다문화청소년들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음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불편함과 불쾌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경우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음
- 현재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 해마다 반복되거나 일회성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어서 흥미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보다 장기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를 바람

-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사춘기에 대처하는 방법과 학업지도 등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었음

6) 요구분석 결과

- 다문화청소년 지원은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지속적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 적응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의 필요
-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 선별적 지원보다는 통합적 지원의 방향 선호
- 당사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심리사회적응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 필요
- 초등학생 대상 다수자 다문화교육의 강화 및 확대 필요
- 다문화사업 운영매뉴얼 제작 및 보급 필요
- 다문화담당교사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보장 필요
- 일반교사, 관리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강화 필요

7) 정책포럼 결과

- 현재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정책과 사업운영의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을 자립지원과에서 다문화가족정책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만 별도로 떼어서 운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간의 원활한 연계로 효율적인 정책전달과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국내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배경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심리사회 적응 프로그램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개발되어야 하고 전문성이 유지 및 발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일반 청소년과 통합적 지원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아갈 방향이지만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과 인식을 지닌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에 천천히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문제이지 갑자기 기관의 통합 등을 의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낼 수 있음
- 학교현장에서는 다문화교육의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다문화교육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일반 비(非)다문화학생과의 통합적 프로그램 운영과 다수자를 위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의 확산임
- 다문화교육은 의식적으로 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교과서나 수업자료 등에서 다문화적인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작업이 필요함
- 다문화사업의 방향이나 방법에 대한 교육 없이 학교에 예산만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 올바른 방향을 다문화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다문화사업의 방향, 학교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운영매뉴얼이 제작되고 배포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와 일반교사들의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이 매우 중요함

4. 정책제언

○ 다문화청소년의 소외 및 차별방지

핵심과제 1: 대상중심에서 서비스중심 제공방식으로의 전환

핵심과제 2: 다문화청소년의 요구특성에 근거한 지원

핵심과제 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 지지집단의 역량강화

핵심과제 4: 부모교육 및 역량강화

핵심과제 5: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 다문화역량 강화

핵심과제 6: 다문화가정 출신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 다문화 친화적 환경조성

핵심과제 7: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다수자 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개발

핵심과제 8: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조사 및 다문화윤리강령 제정

핵심과제 9: 다문화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핵심과제 10: 다문화청소년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경과	8
3. 연구절차	13
4.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4
5.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20
II. 다문화청소년의 정의와 현황	21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23
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25
III. 패널조사 및 관리	29
1. 패널조사의 개요	31
2. 표본설계	31
3. 설문구성과 조사내용	33
4. 조사방법	79
5. 패널관리	79
6. 통계품질진단	110
IV. 4년간 종단 변화 추이	117
1. 조사대상자 특성별 분포	119
2. 다문화청소년의 4년간 변화추이 비교	122
3. 요약 및 소결	148

V. 초등시기의 발달양상 추적	151
1. 초등시기의 발달양상에 따른 집단 구분	153
2. 초등시기의 발달양상에 따른 2014년 발달양상 추적	155
3. 요약 및 소결	180
VI.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와의 비교	183
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와 비교의 필요성	185
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대상자의 분포	186
3.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과 4년간 변화추이 비교	187
4. 요약 및 소결	198
VII.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의 영향 : 심리·사회적응을 중심으로	203
1. 가정환경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205
2. 학교 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210
3. 지역사회환경의 영향	219
4. 요약 및 소결	222
VIII. 질적 조사를 통한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실태	225
1. 질적조사의 배경 및 목적	227
2. 질적조사의 방법	228
3. 질적조사의 내용	234
4. 질적조사의 결과	239
5. 요약 및 소결	299

IX. 요구분석	303
1. 요구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305
2. 요구분석의 내용 및 방법	306
3. 요구분석의 결과	307
4. 요약 및 소결	348
X.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 분석	351
1. 국가 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353
2. 2014년 정부계획 성과계획평가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	359
3. 지역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현황	362
4. 국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371
XI. 결론 및 정책제언	381
1.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의 의의	383
2.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의 결론	386
3. 다문화청소년 정책 개발의 과정	387
4.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제언 개발 절차	387
5.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개발 절차별 내용 및 함의	389
6. 정책제언	398
참 고 문 헌	425

표 목 차

〈표 I-1〉 다문화중단연구의 단계별 연구목적	6
〈표 II-1〉 연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	26
〈표 II-2〉 2012~2014 다문화가족자녀의 연령별 분포	26
〈표 II-3〉 2014 다문화가족 자녀의 부모출신국별 비율	27
〈표 III-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표본설계 내역	32
〈표 III-2〉 청소년용 설문문항 구성내용	35
〈표 III-3〉 2014년도 청소년용 설문지 수정사항	37
〈표 III-4〉 2014년도 어머니용 설문문항 구성내용	59
〈표 III-5〉 2014년도 어머니용 설문문항 수정내용	60
〈표 III-6〉 2014년도 교사용 설문문항 구성내용	66
〈표 III-7〉 2014년도 교사용 설문문항 수정내용	67
〈표 III-8〉 학업중단청소년용 설문지(공통문항)	70
〈표 III-9〉 학업중단청소년용 설문지에만 해당되는 문항	71
〈표 III-10〉 학업중단청소년의 어머니용 설문지(공통문항)	76
〈표 III-11〉 학업중단청소년의 어머니용 설문지에만 해당되는 내용	77
〈표 III-12〉 조사원별 1인당 평균 담당가구수	81
〈표 III-13〉 조사원 교육 일정	82
〈표 III-14〉 조사원 간담회	90
〈표 III-15〉 실사 방법	90
〈표 III-16〉 답례품 및 명절선물에 대한 반응	92
〈표 III-17〉 교사조사	93
〈표 III-18〉 패널유지방안 관련 내용	93
〈표 III-19〉 패널에 대한 조사원 태도 및 의견	94
〈표 III-20〉 시/도별 이사 현황	95

〈표 III-21〉 시/도별 세부 이사 현황	96
〈표 III-22〉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97
〈표 III-23〉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이탈 사유	98
〈표 III-24〉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99
〈표 III-25〉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 현황(2014년 당해 신규 이탈)	100
〈표 III-26〉 월 평균 가구 소득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101
〈표 III-27〉 월 평균 가구 소득별 패널 이탈 현황(2014년 당해 신규 이탈)	101
〈표 III-28〉 가정형편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른 패널 이탈 현황(전체)	102
〈표 III-29〉 가정형편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른 패널 이탈 현황 (2014년 당해 신규 이탈)	102
〈표 III-30〉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103
〈표 III-31〉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이탈 현황((2014년 당해 신규 이탈)	103
〈표 III-32〉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 현황	104
〈표 III-33〉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 현황(2014년 당해 신규 이탈)	104
〈표 III-34〉 조사원별 이탈 현황	105
〈표 III-35〉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적용된 변수 - 종속변수	107
〈표 III-36〉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이용된 독립변수	107
〈표 III-37〉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패널이탈에 영향을 주는 특성	109
〈표 III-38〉 통계품질진단의 6차원	111
〈표 III-39〉 세부작성절차별 진단결과	113
〈표 III-40〉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114
〈표 III-41〉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요약	115
〈표 IV-1〉 조사대상 청소년의 수	119
〈표 IV-2〉 조사대상 청소년의 지역별 분포	120

〈표 IV-3〉 어머니의 출신국 분포	121
〈표 IV-4〉 아버지의 출신국 분포	122
〈표 IV-5〉 4년간 변화추이 비교의 영역	123
〈표 IV-6〉 부모 결혼상태의 변화추이	124
〈표 IV-7〉 월평균 소득수준의 변화추이	125
〈표 IV-8〉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	126
〈표 IV-9〉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	126
〈표 IV-10〉 부모양육태도의 변화추이: 감독	127
〈표 IV-11〉 부모양육태도의 변화추이: 방임	127
〈표 IV-12〉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중복응답) 변화추이	128
〈표 IV-13〉 학교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변화추이	129
〈표 IV-14〉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추이: 학습활동	130
〈표 IV-15〉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추이: 교사관계	130
〈표 IV-16〉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추이: 교우관계	131
〈표 IV-17〉 학교성적수준 변화추이	132
〈표 IV-18〉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추이	132
〈표 IV-19〉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변화추이	133
〈표 IV-20〉 성취동기 변화추이	134
〈표 IV-21〉 학업적 포부 변화추이	134
〈표 IV-22〉 자아존중감 변화추이	135
〈표 IV-23〉 자아탄력성 변화추이	136
〈표 IV-24〉 삶의 만족도 변화추이	136
〈표 IV-25〉 신체만족도 변화추이	137
〈표 IV-26〉 우울 변화추이	138

〈표 IV-27〉 사회적 위축 변화추이	138
〈표 IV-28〉 가족지지의 변화추이	139
〈표 IV-29〉 교사지지의 변화추이	140
〈표 IV-30〉 친구지지의 변화추이	140
〈표 IV-31〉 친한 친구의 수 변화추이	141
〈표 IV-32〉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변화추이	142
〈표 IV-33〉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변화추이	142
〈표 IV-34〉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변화추이	143
〈표 IV-35〉 한국인정체성 변화추이	144
〈표 IV-36〉 다문화수용성 변화추이	144
〈표 IV-37〉 이중문화 수용태도 변화추이	145
〈표 IV-38〉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추이	145
〈표 IV-39〉 키 차이(연도별)	146
〈표 IV-40〉 키 차이(성별)	146
〈표 IV-41〉 몸무게 차이(연도별)	147
〈표 IV-42〉 몸무게 차이(성별)	147
〈표 IV-43〉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추이	148
〈표 IV-44〉 4년간 종단변화 추이 결과 요약	149
〈표 V-1〉 2014년 대상자 중 군집분석 집단별 인원수	154
〈표 V-2〉 2014년 월평균 소득수준의 집단별 차이	155
〈표 V-3〉 발달양상 집단별 부 자랑스러움	156
〈표 V-4〉 발달양상 집단별 모 자랑스러움	157

〈표 V-5〉 발달양상 집단별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 느끼는 가장 어렵거나 힘든 것	157
〈표 V-6〉 발달양상 집단별 나와 어머니 사이에서 느끼는 가장 어렵거나 힘든 것	158
〈표 V-7〉 발달양상 집단별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	159
〈표 V-8〉 발달양상 집단별 부모의 양육태도: 방임	160
〈표 V-9〉 발달양상 집단별 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관심	160
〈표 V-10〉 발달양상 집단별 부모의 교육적 지원	161
〈표 V-11〉 발달양상 집단별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162
〈표 V-12〉 발달양상 집단별 학교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	163
〈표 V-13〉 발달양상 집단별 학교생활적응: 학습활동	164
〈표 V-14〉 발달양상 집단별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164
〈표 V-15〉 발달양상 집단별 학교생활적응: 교우관계	165
〈표 V-16〉 발달양상 집단별 성적수준	166
〈표 V-17〉 발달양상 집단별 성적에 대한 만족도	166
〈표 V-18〉 발달양상 집단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167
〈표 V-19〉 발달양상 집단별 성취동기	168
〈표 V-20〉 발달양상 집단별 학생이 원하는 학력 수준	168
〈표 V-21〉 발달양상 집단별 진로의식	169
〈표 V-22〉 발달양상 집단별 자아존중감	170
〈표 V-23〉 발달양상 집단별 자아탄력성	170
〈표 V-24〉 발달양상 집단별 신체만족도	171
〈표 V-25〉 발달양상 집단별 삶의 만족도	171
〈표 V-26〉 발달양상 집단별 우울	172
〈표 V-27〉 발달양상 집단별 사회적 위축	172
〈표 V-28〉 발달양상 집단별 비행경험	173

〈표 V-29〉 발달양상 집단별 가족지지	174
〈표 V-30〉 발달양상 집단별 교사지지	174
〈표 V-31〉 발달양상 집단별 친구지지	175
〈표 V-32〉 발달양상 집단별 한국인 정체성	175
〈표 V-33〉 발달양상 집단별 국가정체성	176
〈표 V-34〉 발달양상 집단별 다문화수용성	177
〈표 V-35〉 발달양상 집단별 이중문화수용태도	177
〈표 V-36〉 발달양상 집단별 문화적응스트레스	178
〈표 V-37〉 발달양상 집단별 키	178
〈표 V-38〉 발달양상 집단별 몸무게	179
〈표 V-39〉 발달양상 집단별 건강상태	179
〈표 V-40〉 발달양상 집단별 거주지인식	180
〈표 VI-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 조사대상자 수	186
〈표 VI-2〉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187
〈표 VI-3〉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과 다문화청소년 패널의 연도별 공통측정요인	188
〈표 VI-4〉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생활적응의 비교: 학습활동	189
〈표 VI-5〉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생활적응의 비교: 교우관계	190
〈표 VI-6〉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생활적응의 비교: 교사관계	190
〈표 VI-7〉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성적수준 비교	191
〈표 VI-8〉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 비교	192
〈표 VI-9〉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삶의 만족도 비교	193
〈표 VI-10〉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자아탄력성 비교	193
〈표 VI-11〉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행행동 비교	194
〈표 VI-12〉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다문화수용성 비교	195

〈표 VI-13〉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키 비교	196
〈표 VI-14〉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몸무게 비교	196
〈표 VI-15〉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비교	197
〈표 VI-16〉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소득수준 비교	198
〈표 VI-17〉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시기별 발달결과 비교 요약	200
〈표 VII-1〉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가족 요인: 전체	207
〈표 VII-2〉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가족요인 : 소득수준 ‘하’	208
〈표 VII-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가족요인 : 소득수준 ‘중’	209
〈표 VII-4〉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가족요인 : 소득수준 ‘상’	210
〈표 VII-5〉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및 성취 요인: 전체	212
〈표 VII-6〉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및 성취 요인: 소득수준 ‘하’	213
〈표 VII-7〉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및 성취 요인: 소득수준 ‘중’	214
〈표 VII-8〉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및 성취 요인: 소득수준 ‘상’	215
〈표 VII-9〉 교사 근무학교 지역별 빈도	215
〈표 VII-10〉 교사의 성별	216
〈표 VII-11〉 교사의 연령	216

〈표 VII-12〉 교사의 재직기간	216
〈표 VII-13〉 학교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계획 및 사업 유무	217
〈표 VII-14〉 학교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수준	218
〈표 VII-15〉 지역별 총 투입예산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219
〈표 VII-16〉 1인당 투입예산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	220
〈표 VII-17〉 거주지 규모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221
〈표 VII-18〉 거주지에 대한 인식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	222
〈표 VII-19〉 가정, 학교, 지역사회요인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결과 요약	223
〈표 VIII-1〉 2014 질적조사 대상자	229
〈표 VIII-2〉 2014 질적조사 유의사항	231
〈표 VIII-3〉 2014 질적조사 참여자를 위한 동의성: 학부모용	232
〈표 VIII-4〉 2014 질적조사 참여자를 위한 동의성: 청소년용	233
〈표 VIII-5〉 질적조사 내용(청소년)	235
〈표 VIII-6〉 질적조사 내용(학부모)	237
〈표 VIII-7〉 2014 심층면접 결과 요약: 가정생활	251
〈표 VIII-8〉 2014 심층면접 결과 요약: 학교생활	285
〈표 VIII-9〉 2014 심층면접 결과 요약: 정책적 지원에 대한 태도(청소년, 어머니) ..	301
〈표 IX-1〉 요구조사 방법, 대상 및 내용	306
〈표 IX-2〉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청소년	307
〈표 IX-3〉 학교나 기관에서 받은 지원 내용: 청소년	308
〈표 IX-4〉 한해에 같은 지원이 중복되어 제공된 적이 있는지 여부: 청소년 ...	309
〈표 IX-5〉 지난 한 해 동안 중복으로 제공된 지원 내용: 청소년	309

〈표 IX-6〉 지난 한 해 동안 중복으로 제공받은 내용: 청소년	310
〈표 IX-7〉 지원받았던 프로그램의 필요성: 청소년	311
〈표 IX-8〉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향: 청소년	311
〈표 IX-9〉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청소년	312
〈표 IX-10〉 자녀의 지원 경험 여부: 어머니	312
〈표 IX-11〉 다문화가족으로써 지원받은 내용: 어머니	313
〈표 IX-12〉 한 해에 같은 지원이 중복된 적이 있는지 여부: 어머니	313
〈표 IX-13〉 중복지원 제시 내용: 어머니	314
〈표 IX-14〉 중복지원 받은 내용: 어머니	315
〈표 IX-15〉 지원받은 내용의 도움 정도: 어머니	315
〈표 IX-16〉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향: 어머니	316
〈표 IX-17〉 희망하는 자녀 지원: 어머니	317
〈표 IX-18〉 자녀지도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어머니(2014)	318
〈표 IX-19〉 학교 다문화가족 대상 학부모 교육 실시 여부: 어머니(2014)	318
〈표 IX-20〉 다문화가족 대상 학부모 교육의 도움 여부: 어머니(2014)	318
〈표 IX-21〉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 교사	319
〈표 IX-22〉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교사	320
〈표 IX-23〉 지원사업의 긍정적인 측면: 교사	320
〈표 IX-24〉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의 부정적인 측면: 교사	321
〈표 IX-25〉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방향: 교사	321
〈표 IX-26〉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 교사	322
〈표 IX-27〉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 요약: 청소년	326
〈표 IX-28〉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 요약: 어머니	328
〈표 IX-29〉 FGI 실시 일시, 대상 및 내용	330

〈표 IX-30〉 FGI 면담내용	331
〈표 IX-31〉 FGI 면담내용 결과 요약	336
〈표 IX-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 일시, 대상 및 내용	339
〈표 IX-3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견수렴을 위한 질문내용	339
〈표 IX-34〉 현 재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 중인 사업	340
〈표 IX-35〉 현 재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342
〈표 IX-3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 대상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	343
〈표 IX-3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청소년 사업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찬성의견	344
〈표 IX-3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청소년 사업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	345
〈표 IX-3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점	346
〈표 IX-40〉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347
〈표 IX-41〉 요구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 요약	350
〈표 X-1〉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다문화청소년관련 계획	354
〈표 X-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다문화관련 계획	358
〈표 X-3〉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현황	361
〈표 X-4〉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총 계획인원 및 참여인원	362
〈표 X-5〉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원별 예산총액(2013~2014) ..	363
〈표 X-6〉 다문화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의 재원: 전체	363
〈표 X-7〉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평균 사업수행 개월 수	364

〈표 X-8〉 프로그램별 다문화청소년 선별 여부	364
〈표 X-9〉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자	365
〈표 X-10〉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별 대상연령	366
〈표 X-11〉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종류: 전체	367
〈표 X-12〉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종류: 초등학생	368
〈표 X-13〉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종류: 중학생	369
〈표 X-14〉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종류: 고등학생	370
〈표 X-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자녀 지원서비스 성과(2013년 기준) ...	372
〈표 X-16〉 다특다특 사업의 개요	377
〈표 X-17〉 다문화청소년 지원 전문기관 현황	379
〈표 XI-1〉 정책협의회 일시 및 면담자	389
〈표 XI-2〉 정책협의회 결과	390
〈표 XI-3〉 2011~2014 설문조사 결과	390
〈표 XI-4〉 심층면접 결과	392
〈표 XI-5〉 요구조사 결과	393
〈표 XI-6〉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394
〈표 XI-7〉 현장의견조사의 개요	394
〈표 XI-8〉 요구조사(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395
〈표 XI-9〉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업 분석 결과의 함의	396

〈표 XI-10〉 전문가 포럼 결과	397
〈표 XI-11〉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	400
〈표 XI-12〉 다문화청소년 정책 핵심과제별 추진계획	401
〈표 XI-13〉 미국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중 다문화관련 윤리기준 예시	416
〈표 XI-14〉 다문화청소년 정책 핵심과제별 추진계획	420

그림 목 차

【그림 Ⅰ-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1단계 연구의 내용요약 및 연구의 함의 ..	10
【그림 Ⅰ-2】 연도별 연구내용(2013~2017년)	13
【그림 Ⅰ-3】 2014 연구의 흐름도	14
【그림 Ⅱ-1】 연도별 국제결혼 혼인 및 이혼현황	28
【그림 Ⅲ-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모형	32
【그림 Ⅲ-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관리체계	80
【그림 Ⅲ-3】 조사원 지침서	82
【그림 Ⅲ-4】 가구 및 가구원 정보 관리시스템 화면	83
【그림 Ⅲ-5】 가구 인포시트	84
【그림 Ⅲ-6】 연하장	85
【그림 Ⅲ-7】 패널 가구 명절(설) 선물	85
【그림 Ⅲ-8】 리플렛	86
【그림 Ⅲ-9】 가구정보 알림 게시판	87
【그림 Ⅲ-10】 조사원 명절 선물	88
【그림 Ⅲ-11】 조사 물품	89
【그림 V-1】 발달특성에 따른 집단 구분	153
【그림 V-2】 네 가지 발달특성집단별 학교적응의 연도별 변화추이	154
【그림 VII-1】 가정환경요인이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한 분석틀	206
【그림 VII-2】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이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한 분석틀	211
【그림 XI-1】 본 연구의 정책제언 도출 절차	388
【그림 XI-2】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전략 및 핵심과제	399
【그림 XI-3】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지원체계	420
【그림 XI-4】 교육부의 다문화청소년 정책 추진 로드맵(공동사업 포함)	422
【그림 XI-5】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청소년 정책 추진 로드맵(공동사업 포함) ...	423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경과
3. 연구절차
4.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제 I 장
서론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14. 1. 1. 기준)」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기준 현재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156만 9,470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1,141,463명) 대비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주민의 규모가 광주광역시(1,472,910명)나 대전광역시(1,532,811명)의 인구보다도 큰 수준이다(안전행정부, 2014). 외국인주민에 포함되는 사람은 크게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나뉘는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의 동포 등이 포함되고, 한국국적취득자의 경우는 혼인귀화자와 기타사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포함된다. 즉, 한국에는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외국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으로 분류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주민 수는 2013년도의 144만 5,631명, 2012년도의 140만 9,577명과 비교해 보면 2013년도 증가폭인 2.6%에 비해 더욱 확대된 8.6%로,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자격 대상 확대, 국적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신청 증가 등에 따른 확대로 해석된다(안전행정부, 2014). 이 중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총 204,204명인데, 안전행정부 통계에 포함된 외국인주민 자녀는 외국인부모의 자녀, 외국인과 한국인부모의 자녀, 원래 한국인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이혼 후 외국인과 재혼한 가정의 자녀 등 세 가지 범주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주는 외국인과 한국인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고, 다음이 외국인부모의 자녀, 한국인부모의 자녀 순으로 되어 있고, 연령별로 보면 전체 중

1) 1장은 양계민이 작성함.

만 6세 이상의 미취학아동과 만 7세에서 12세 이하의 초등학생이 8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향후 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보다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며 한국문화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더욱 새롭고 창의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되는 한편, 이주민과 그들의 자녀,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형성되어 부당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사회통합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양계민 외, 2012).

사실상 이미 한국 사회에는 이주민, 특히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게 된 이유 중 첫째는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해 쏟아져 나온 연구결과들 때문이다. 초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결핍과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고,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들은 언어가 부족하고 학업성적이 떨어지며 학교 내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사회적 고정관념을 점차 강화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양계민, 김승경, 2010).

둘째는 정부 지원정책의 시각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은 대부분 다문화가족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소외된 집단’, ‘일반 가족과는 별개로 다루어야 하는 특별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몇몇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어있지 않고 그 효용성도 크지 않으며 다문화가족을 취약계층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나 다문화청소년이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하여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없이 전체 집단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하여 전체집단을 취약한 소외집단으로 범주화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여 한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족을 소외계층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그 결과 미래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양계민, 박주희, 2013).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위해서는 초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행동이나 결핍의 문제가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인지, 발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문화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우수한 부분은 무엇인지, 어떤 연령에서 격차가 생겨나고 어떤 연령에서 격차가 해소되는지 등 면밀한 분석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분석들은 1회성 측정에 기반한 횡단적 자료들로부터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속적 측정과 관찰을 통한 종단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양계민, 김승경,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i)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ii)객관적 특성에 근거한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iii)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시혜적인 ‘복지정책’의 시각이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강화라는 ‘청소년정책’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크게 세 가지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양계민, 박주희, 2013).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까지 5년간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추적하는 종단연구로, 2010년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과 2012년도에 2차에 걸쳐 구축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를 연속적으로 추적하는 연구이다(양계민, 박주희, 2013). 첫 번째 단계인 2010년부터 2012년도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II, III」 시리즈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들과 보이는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다문화청소년들이 발달 및 성장과정에서 비(非)다문화청소년과 격차를 보이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양계민, 김승경, 2010).

2단계 연구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되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시리즈는 앞의 1단계 연구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그들의 발달변화 양상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유형의 특성 및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기본 목적이다. 따라서 타 패널조사연구들과 달리 최종적인 연구의 목적이 단순 기초자료 생성보다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대안 도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 -1 다문화종단연구의 단계별 연구목적

단계	연도	단계별 연구의 목적
1단계	2010년 ~ 2012년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보이는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 다문화청소년들이 발달 및 성장과정에서 일반가정 청소년과 보이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
2단계	2013년 ~ 2017년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발달의 변화양상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여 그 유형의 특성 및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

※ 출처: 양계민, 박주희(2013, p.7)

2014년도는 2단계 연구의 두 번째 해로, 2013년도의 학교생활적응 중심의 발달양상분석에 이어 심리·사회적응 및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한다. 따라서 2014년도 연구의 목적을 간략히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2014년도 연구의 목적

- 첫째, 4년간의 발달변화 양상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별 특성 및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둘째, 중학교 입학이라는 학령기 이행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가정, 정책의 영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 넷째,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교사, 현장전문가, 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및 문제행동과 관련된 측면을 심층면접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요구에 부합한 정책대안을 도출한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1) 대상 및 내용의 차별성

본 연구와 유사하게 청소년 또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다. 청소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패널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패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고용패널」,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고용노동부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패널」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 본 패널조사와 동일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 발달의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주로 일반적인 청소년의 발달과정과 관련된 요인들을 다루고 있기에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의 특성과, 그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들은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패널」 역시 교육이나 학습과 관련된 요인 외에도 일상생활, 부모자녀관계, 가치관, 심리적 건강 등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고용패널」,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고용노동부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패널」의 경우는 주로 고용 및 노동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본 연구와는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여성가족부의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있는데, 전국 다문화가족 전수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귀화자,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 조사로 청소년 연령대의 9세에서 24세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 총 4,775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사의 내용은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발달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본 연구와 다르고, 또한 패널조사가 아니기에 다문화가족 자녀 개인의 발달양상을 추적하는 종단연구는 아니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타 패널조사와는 차별적인 대상과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목표의 차별성

기존의 패널조사들과 본 연구의 차별성은 본 연구의 제목인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라는 데에 나타나듯이 단순히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설문조사가 아니라 정책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타 패널조사들의 경우도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지만, 대부분 기초자료 생성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 따라서 보고서의 내용도 기초자료 생성 및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실태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단순 기초자료 생성 및 현황이나 실태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의 결과를 통해 정책제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패널조사들이 특정한 연구주제나 방향을 가지고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태와 현황조사에 목적을 두는 반면,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의 발달상 객관적 비교를 하겠다는 것,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양상을 다양성을 파악하겠다는 것, 다문화청소년들의 서로 다른 발달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겠다는 것, 다문화청소년이 주로 직면하게 되는 학교생활적응, 심리사회적응, 정체성, 진로 등의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 명확한 연구의 방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도 타 패널조사 및 다문화관련 조사와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추진경과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1단계 사업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시리즈의 연속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된 2단계 사업에 해당된다. 각 단계별 연구의 추진경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1단계 연구

1단계 연구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시리즈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모두 동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비(非)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비해 뒤떨어진 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결과들을 산출하였다. 예를 들면, 본원의 2011년도 과제였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사실상 매우 다양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부모의 출신국, 부모 중 어느 쪽이 외국인인지의 여부,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그러한 가족의 배경변인에 따라 자녀의 적응수준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외, 2011).

2012년도 과제였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I」에서는 모든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일반 한국가정 출신 청소년들보다 발달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 집단 간의 격차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는 일반 한국가정 출신 청소년들과 차이가 없거나 다문화수용성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양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양계민 외, 2012).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전체가 일반 한국가정 출신 청소년들보다 발달측면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고정관념임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단계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지원의 대상을 저소득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고, 다문화청소년만을 분리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일반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통합적 지원 속에 포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발달특성별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종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2년간의 추적조사로써는 부족하고, 초등학교 4학년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될 때까지 꾸준히 추적하여 그들의 청소년기 발달과정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기에 2013년부터 제 2단계의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연도	연도별 연구의 내용 및 합의
1차년도 (2010년)	·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이론 고찰 · 국내외 아동·청소년관련 패널연구에 대한 비교분석 · 예비설문구성 - 이론적, 경험적 타당성 마련 · 패널구축 타당화방안 연구 - PAPI, CAPI 비교 · 예비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내용 및 과정에 대한 심층면접
2차년도 (2011년)	· 예비조사 데이터 클리닝 및 결과분석 · 본조사 설문 문항 최종 선정 · 본조사 연구방법 최종 결정 · 2011년도 1차 종단연구 패널구축 · 본조사 설문실시 · 취약계층 청소년과의 비교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3차년도 (2012년)	· 2차년도 패널조사 실시 및 분석 - 종단자료 분석 · 심리적 변인 중심 · 일반가정 청소년과의 비교 · 심층면접 - 다문화가족 청소년, 학부모, 교사, 현장전문가, 공무원 · 질적연구 -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분석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2013년도 3차 종단연구 패널구축을 위한 사전작업
연구의 합의	· 다문화청소년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발달수준에 차이가 있음. :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발달수준 상이 : 소득수준이 '중' 또는 '상' 인 경우는 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발달수준에서 거의 차이가 없음. : 소득수준이 '하' 인 경우는 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발달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들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 지원의 내용과 방식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임 : 역량개발을 위한 내용 보다는 결핍의 시각에서 지원 => 보다 수요자 중심으로, 분리보다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림 1-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1단계 연구의 내용요약 및 연구의 합의
(※ 출처: 양계민 외, 2013, p.10)

2) 2단계 연구

2단계 연구인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시리즈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계획된 연구로, 연구 첫 해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청소년들이 2013년도에는 6학년에 이르고, 점차 본격적인 청소년기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로 새로이 명칭을 바꾸어 연구를 지속하게 되었다.

2013년은 2단계의 첫 번째 해이고, 패넬로는 3차년도 추적을 수행한 연구로, 3년간의 발달과정을 토대로 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학교생활적응을 중심으로 발달의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3년간 지속적으로 적응수준이 높은 집단(High Achiever), 처음에 적응수준이 낮았는데 점차 높아지는 집단(Improver), 처음에는 적응수준이 높았는데 점차 낮아지는 집단(Declining Achiever), 그리고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적응수준이 낮은 집단(Low Achiever)이라는 네 가지 유형이 산출되었고 각 유형별로 일관된 특성이 나타나 이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되고 요구부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2014년도에는 심리, 정서, 사회적응 및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2013년도의 주제인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가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사회적응 및 문제행동이기도 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이행기라는 발달특징으로 인하여 심리적 행동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도에는 패넬들 중 일부는 진학을 하지 않고 학교밖 청소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진학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내용과 절차를 포함하였다.

2015년도에는 2단계의 3차년도에 해당되고 전체적으로 5차년도 추적단계로 청소년들이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하게 되는데,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심리적 혼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 및 주변과의 심리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로 생각된다. 따라서 초등연령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정체성의 문제가 발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성상 정체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양계민, 박주희, 2013).

2016년은 패넬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것인지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따라서 진로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6년에는 진로의식이나 진로에 대한 태도, 준비도 등을 중심으로 심층분석을 하고자 한다(양계민, 박주희, 2013).

2단계의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와 결론도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에서 다루었던 기존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방안의 방향과 세부과제 등이 총정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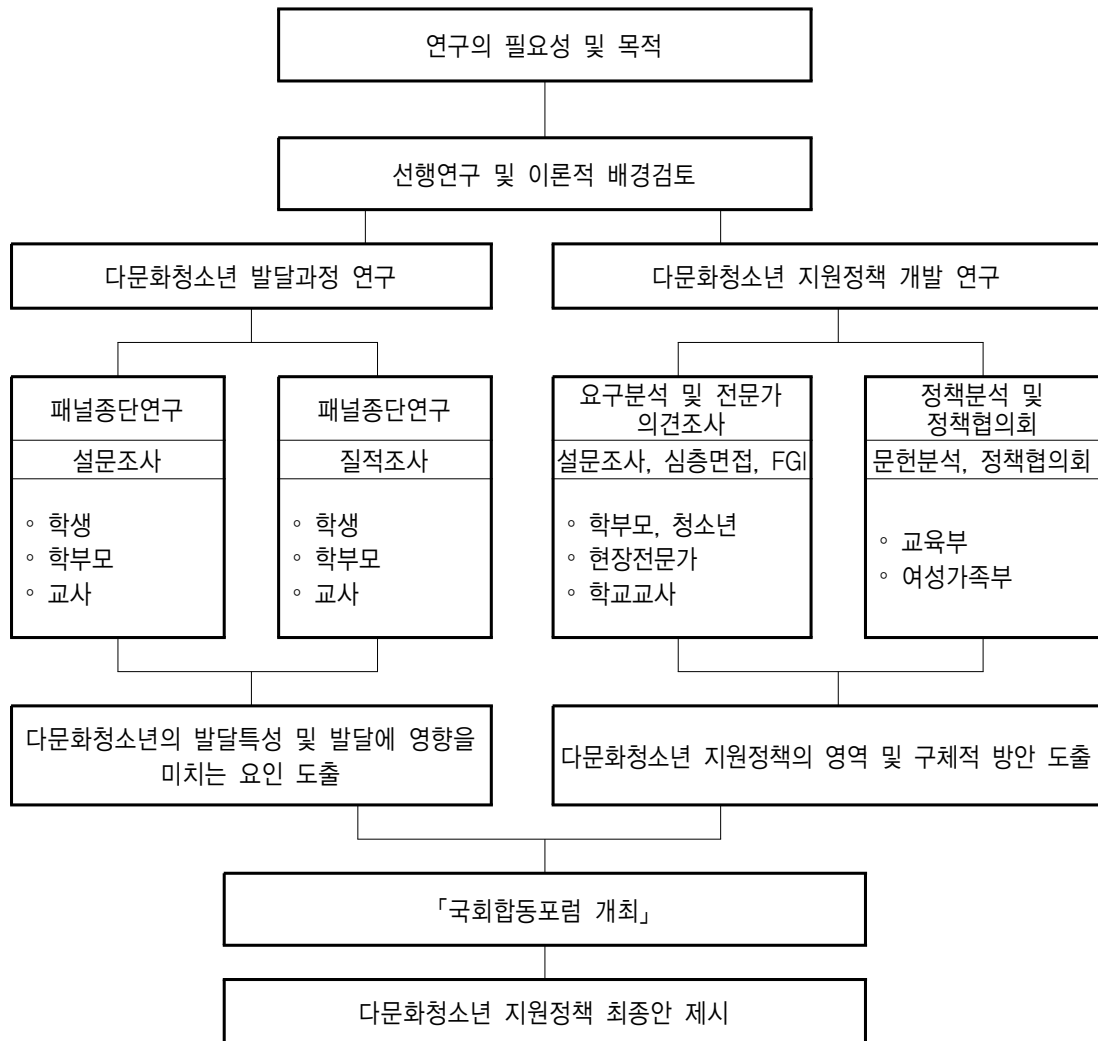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발달경로인 중고등학교 진학 청소년들 뿐 아니라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이들의 실태와 발달 및 적응수준을 분석할 것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 및 취업실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3단계 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도	연도별 연구의 내용 및 함의
1차년도 (2013년)	· 패널설문조사(3차년도 추적조사-초6) · 통계승인(승인번호: 제 40203 호) · 패널질적조사(2차년도 추적조사) ·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 중심 분석 ·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방향성 제시 · 학업 및 학교생활지원 중심 정책방안 제시
2차년도 (2014년)	· 패널설문조사(4차년도 추적조사-중1) · 학업중단 청소년용 조사 시작 · 통계품질진단 · 패널질적조사(3차년도 추적조사) · 심리, 정서, 사회적응 중심 분석 · 심리, 정서, 사회적응 중심 정책방안 제시
3차년도 (2015년)	· 패널설문조사(5차년도 추적조사-중2) · 학업중단 청소년 경로 추적 · 패널질적조사(4차년도 추적조사) · 한국인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 중심 분석 · 한국인정체성 및 이중문화정체성 중심 정책방안 제시
4차년도 (2016년)	· 패널설문조사(6차년도 추적조사-중3) · 학업중단 청소년 경로 추적 · 패널질적조사(5차년도 추적조사) · 진로의식 및 진로방안 중심 분석 · 진로의식 및 진로방안 중심 정책방안 제시
5차년도 (2017년)	· 패널설문조사(7차년도 추적조사-고1) · 학업중단 청소년 경로 추적 · 패널질적조사(6차년도 추적조사) · 종합분석

【그림 1-2】 연도별 연구내용(2013~2017년)

3. 연구절차

2014년도의 연구 내용은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1)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와 2)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개발연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졌고,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각 절차별 내용 및 방법은 아래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림 1-3】 2014 연구의 흐름도(※ 출처: 양계민 외, 2013, p.16의 수정)

4.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14년도 연구의 내용은 위의 연구절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패널설문조사와 패널심층면접조사를 포함하는 「다문화청소년 발달과정 연구」와 정책현황분석과 정책협의회, 정책제언 등을 수행하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개발연구」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청소년 발달과정 연구

(1) 패널종단연구: 설문조사

패널종단연구의 설문조사는 2011년부터 구축해 온 패널을 대상으로 배경특성, 다문화적 특성, 개인특성, 환경 특성 등 총 네 가지 영역에 따른 변인들에 대하여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기법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다문화청소년의 학교교사 등 크게 세 집단이고 이 중 패널로 구축된 집단은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이다. 학교교사의 경우 해마다 담임교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패널로 구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매년 조사대상자의 담임교사 또는 해당 학교의 다문화담당교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조사대상자들이 중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교사 설문대상을 담임교사로 한정하였다. 다문화청소년들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는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낮고, 따라서 다문화담당교사가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도에는 청소년들이 중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중도탈락가능성을 고려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발달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즉, 학업중단청소년들을 위한 설문지를 추가로 개발하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도 향후 학업중단요인을 예측하는데 활용하고자 학업중단예측을 위한 변인들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측정요인과 변인은 뒤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설문조사의 질적수준 제고와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콜로키움, 조사원 교육 및 워크숍, 통계품질진단 등을 수행하였고,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콜로키움

본 연구에서는 패널조사의 질적수준과 데이터의 타당성제고를 위하여 2회에 걸친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2014년 5월 8일 「복잡표본에서 가중치 산출」에 대하여 콜로키움을 실시하였고, 2014년 8월 14일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추정법」이라는 주제로 2차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횟수	주요내용	발표자	개최시기
1회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이계오(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자문교수)	5월 8일
2회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추정법	이계오(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자문교수)	8월 14일

② 통계품질진단

올 해는 2013년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은 본 조사에 대한 품질진단을 함으로써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가 승인통계로써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지니고 있는 한계점과 향후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보다 체계적이고 가치 있는 통계자료로써 의미를 획득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을 점검하여 본 조사에서 생산하는 통계가 정확성, 시의성, 유용성, 접근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③ 조사원 교육 및 워크샵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조사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조사의 성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조사원이기에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교육 및 워크샵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공유하고, 작년도 조사 수행 시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파악하며, 답례품에 대한 반응, 보다 효율적인 패널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조사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등 보다 성공적으로 조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횟수	지역	교육일시		조사원수	내용
1회	서울	6월 11일(수)	10시 00분	18명	■ 연구의 목적과 의의 ■ 조사 수행시 어려움 ■ 답례품에 대한 반응 ■ 효율적인 패널관리방안 ■ 자주 제기되는 질문 ■ 긴급상황에서 대처방법
2회	부산	6월 12일(목)	10시 30분	15명	
3회	대구	6월 13일(금)	10시 30분	14명	
4회	대전	6월 16일(월)	10시 30분	9명	
5회	광주	6월 18일(수)	14시 30분	14명	
6회	강원	6월 19일(목)	13시 00분	7명	
7회	제주	6월 20일(금)	14시 00분	1명	

(2) 패널종단연구: 질적조사

본 연구는 2012년부터 위의 설문조사와 더불어 질적조사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에 질적조사를 포함하게 된 이유는 설문조사의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유를 파악할 수 없고, 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고, 행위하는 것인지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한 향후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 및 사회통합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입장과 요구를 보다 심도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양계민 외, 2012). 2012년도 당시 총 19명의 어머니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작하였는데, 그 기준은 청소년들의 적응수준과 한국인정체성이었다. 2013년에는 그 중 두 쌍이 탈락하고 추가로 한 쌍이 포함되었으며, 교사 2명이 면접에 참여하였다. 2014년도에는 심층면접을 보다 풍부하게 진행하고자 2013년도까지 구축된 질적패널을 포함하여 2013년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산출된 집단, 즉, 3년간 지속적으로 적응수준이 높은 집단(High Achiever), 처음에 적응수준이 낮았는데 점차 높아지는 집단(Improver), 처음에는 적응수준이 높았는데 점차 낮아지는 집단(Declining Achiever), 그리고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적응수준이 낮은 집단(Low Achiever)의 네 가지 집단을 기준으로 선정하였고, 기존의 질적패널 대상들이 지나치게 한국, 중국, 일본에 치우쳐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어머니의 출신국을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중앙아시아 등으로 보다 다양화 하여 총 35쌍을 선정하였다.

이 두 가지 과정, 즉,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와 질적조사를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분석하고 발달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개발 연구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위의 설문조사와 질적조사는 물론 포함되고 그 외에 요구분석과 정책분석, 정책포럼 및 정책협의회를 수행하였다.

(1) 요구분석

요구분석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는데, 패널설문조사에 정책과 관련된 요구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여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대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층면접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현장전문가와 학교교사, 다문화청소년 관련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과 향후 지원 방향, 현재 상황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집단	대상	일시	조사방법
다문화 청소년	패널설문조사응답자	2014. 6월 ~ 9월	■ 설문조사 ■ 심층면접
학부모	패널설문조사응답자	2014. 6월 ~ 9월	■ 설문조사 ■ 심층면접
교사	일반초등학교 교사 2명	2014. 8. 8	■ FGI (Focus Group Interview)
	다문화교육중점학교 2명	2014. 8. 28	
	일반중학교 교사 3명	2014. 9. 16	
현장 전문가	다문화청소년 지역전문가 1명	2014. 9. 1	■ 자문회의
	다문화학생 학교지원사업 전문가 1명	2014. 9. 4	■ 자문회의
	다문화청소년 지역전문가 1명	2014. 9. 18	■ 자문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5명	2014. 9. 15 ~ 9. 19	■ 개방형 설문조사

(2) 정책분석

정책분석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부 등의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현황과, 국회예산처에서 분석한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예산현황,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 등을 분석하였으며 전국 지자체, 시도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책분석의 대상
○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제 5차 청소년 기본계획 ○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예산현황(국회예산처) ○ 중앙부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부) ○ 지자체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 시도교육청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현황

(3) 정책협의회

정책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적으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담당공무원과 정책협의회를 실시함으로써 부처의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정책의 방향과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및 자립지원과와 정책협의회를 총 3회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주요 정책협의회의 대상으로 한 이유는 물론 다른 부처에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존재하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이기 때문이다.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부처·과)	시기
1차	여가부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	4월 1일
2차	교과부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교육부(학생복지과)	4월 4일
3차	여가부청소년자립지원과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4월 9일

(4) 정책포럼

정책제언의 효용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국회합동으로 「다문화사회포럼」을 개최하였다. 정책포럼을 통해서 국회,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일반시민 등이 모두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하였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본 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한 안(案)을 보다 현실성 있는 안(案)으로 수정하고자 하였다.

포럼명	일시	장소	내용
다문화사회포럼	2014. 11. 7. 금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 (이자스민의원)	■ 국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현황 ■ 본 연구에 근거한 정책제언 ■ 정책제언에 대한 토론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

5.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본 보고서는 두 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보고서는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로 패널설문조사, 패널질적조사, 정책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보고서는 기초분석보고서로 패널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배경특성에 따라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 I: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 총괄보고서

보고서 II: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 기초분석보고서

제 II 장

다문화청소년의 정의와 현황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제 II 장 다문화청소년의 정의와 현황²⁾

1.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만 9세에서 24세의 연령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에 속하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로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아동’, ‘다문화청소년’, ‘다문화학생’ 등 다양한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가진 부정적 의미와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범주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 한다. 첫째는, 정책연구보고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한 용어가 사회적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용어자체에서 목표하는 대상을 개념화하는 데 가장 용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본 연구의 대상들이 2011년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나 2014년 현재 중학생으로 성장하였고, 향후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추적조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주요 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아동’이나 ‘자녀’ 등의 표현보다는 ‘청소년’이란 표현이 더 적합하고 일반적 개념화에 들어맞으며, 셋째는 비록 연구의 시작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본 연구의 주요 대상자는 반드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에 대한 추적을 설계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학생’이라는 교육부의 용어는 적합하지 않으며 보다 넓은 의미의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했던 1단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보다 간결하고 연구의 주요 대상을 개념화 하는 데 가장 용이한 ‘다문화청소년’으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2) 2장은 양계민이 작성함.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의 자녀에서 다문화가족이란 법적으로 어떤 범주를 칭하는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 2조 제 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 제 3조 및 제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2조 3호에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적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출생, 인지, 귀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3. 3. 23). 이 법에 근거해 보면,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크게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정의 이룬 경우, 출생당시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리고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포함되어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양계민, 박주희, 2013, p. 27).

그러나 위의 의미는 다소 협의의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청소년을 정의하게 되고,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보다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부모 중 한 쪽이 한국이 아니고 한국에서 출생한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하여 외국출신과 재혼을 하게 된 가정의 자녀도 있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재혼을 통해 가정을 이룬 후 본국에서 키우던 자녀를 입양의 형식으로 동반입국하게 되는 소위 중도입국청소년, 부모가 모두 외국출신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난민청소년 등도 모두 다문화청소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중 이주노동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의 동반입국이 불법이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논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성별, 국적, 피부색, 언어, 신분, 종교 등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존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보호권,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발달권, 나라와 지역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참여권 등 4가지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다. 그 중 특히 발달권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이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근거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주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을 '다문화청소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따라서 처음 패널구축 당시 반드시 부모 중 한 쪽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외국출신인 경우의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2011년도 기준으로 구축된 패널의 분포를 살펴보니 90% 이상이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외국출신인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구축한 패널의 대부분이 '국제결혼가정자녀'로 구성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다수가 그 대상이 되었다.

2.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조사의 주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그만큼 다문화가족 자녀의 명칭과 범위도 명확치 않고 따라서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통계자료는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와 교육부의 '다문화학생 현황조사'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데, 두 조사에서 다루는 대상과 명칭이 상이한 측면이 있다. 우선 안전행정부에서는 '외국인주민 자녀'로 칭하고 그 안에 부모가 모두 외국계 주민인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외국계주민인 경우, 그리고 생물학적 부모는 모두 한국인이거나 이혼이나 사별의 이유로 부모가 헤어지고 외국계 주민과 결혼하여 현재 한쪽 부모가 외국계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외국인주민자녀의 수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4년 7월 현재 204,20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학생'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문화학생으로 분류되는 집단은 국내출생자,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이고, 이들 범주에 속하는 '다문화가정학생'은 2014년 현재 67,80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안전행정부에서는 연령을 6세 이하, 7~12세, 13~15세, 16~18세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부 기준으로 볼 때 학령전, 초등, 중등, 고등연령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안전행정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14년 현재 6세 이하의 취학전 연령층이 121,370명(59.4%)으로 가장 많고, 7세에서 12세 사이의 초등학교 연령층이 49,929명(24.4%)으로 다음으로 많으며, 13세에서 15세의 중학교 연령층이 19,929(9.6%), 16세에서 18세

사이의 고등학교 연령층이 13,466명(5.8%)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교육부 자료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학전 연령층은 조사되어 있지 않은데, 초등학생이 48,298명으로 전체 학생의 71.2%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생이 12,523명(18.5%), 고등학생이 6,981명(10.3%)으로 나타나(교육부 내부자료, 2014), 안전행정부의 수치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통계의 경우 학교급별로 집계가 되어 있고, 대안학교와 같은 특수한 경우 학년이 섞여 있어서 정확한 연령대를 파악할 수 없고, 그 숫자가 소수인 관계로 대안학교의 통계는 제외하였다).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통계의 차이는 교육부의 경우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의 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 연령층의 숫자 차이가 큰 것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도입국청소년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차이일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 -1 연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

(단위: 명)

연도 인원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안전행정부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교육부(초·중·고재학생)	20,180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67,809

표 II -2 2012~2014 다문화가족자녀의 연령별 분포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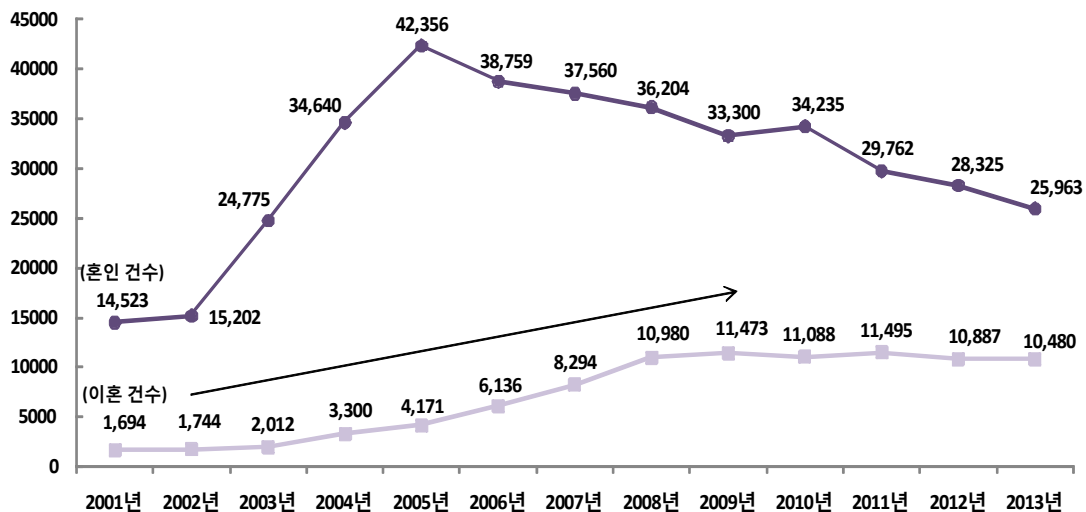
부처 연도 연령	안전행정부			교육부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6세 이하	97,078(66.5)	116,696(61.0)	121,370(59.4)	—	—	—
7~12세 (초등학교)	33,969(23.2)	45,156(23.6)	49,929(24.4)	33,792(72.0)	39,430(72.0)	48,298(71.2)
13~15세 (중학교)	10,944(7.5)	18,395(9.6)	19,929(9.6)	9,647(20.5)	11,294(20.2)	12,523(18.5)
16~18세 (고등학교)	4,080(2.8)	11,081(5.8)	13,466(6.6)	3,515(7.5)	5,056(9.1)	6,981(10.3)
전체	146,071(100)	191,328(100)	204,204(100)	46,954(100)	55,780(100)	67,802(100)

다문화가족 자녀의 부모 출신국별 비율을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4년 안전행정부 자료와 교육부 자료 모두에서 중국계, 즉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출신이 가장 많다는 점은 공통적이거나 일본과 베트남의 경우 두 자료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부 자료에서는 일본출신 학부모의 비율이 19.5%로 중국출신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안전행정부 자료에서는 8.9%로 집계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는 교육부의 경우는 16.5%이나 안전행정부 자료에서는 26.8%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두 자료 간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행정부 자료에는 학령기 이전 아동과 학교밖 청소년이 모두 포함된 자료이고, 또한 시기별로 특정 국가로부터 이주한 결혼이민자가 많아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가 동시에 학교에 입학하게 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 - 3 2014 다문화가족 자녀의 부모출신국별 비율 (단위: 명(%))

부모출신국	교육부(초·중·고 재학생)		안전행정부	
	명수	비율(%)	명수	비율(%)
일본	13,226	19.5	18,185	8.9
중국	13,992	20.6	38,824	19.0
조선족	9,340	13.8	43,890	21.5
대만	626	.9	1,892	.9
몽골	1,355	2.0	2,952	1.4
필리핀	9,696	14.3	19,568	9.6
베트남	11,217	16.5	54,737	26.8
태국	1,523	2.2	2,767	1.4
인도네시아	415	.6	755	.4
남부아시아	1,047	1.5	2,558	1.3
중앙아시아	1,351	2.0	3,579	1.8
미국	739	1.1	1,855	.9
러시아	1,094	1.6	1,319	.6
기타	2,188	3.3	11,323	5.5
계	67,809	100.0	204,204	100.0

2008년 당시 이민자 가족의 출산율이 내국인보다 높고,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중 82%가 15~49세의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결혼이주민의 수와 그로 인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설동훈, 2008), 200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추세를 보이던 국제결혼의 비율이 2006년 이후부터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서 향후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가 초기 학자들이 예측한 것만큼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도별 국제결혼의 혼인건수가 감소한 것이지 매년 일정 수준으로 국제결혼의 건수는 유지되고 있고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국제결혼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한국사회에 다문화청소년의 수가 증가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결혼이주의 역사가 점차 길어짐에 따라 이혼이나 재혼 등 다문화가족 내의 다양한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국제결혼의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청소년들이 사회적 편견과 함께 가정의 해체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한 발달과 역량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다문화청소년 집단 전체의 발달경향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 안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II -1】 연도별 국제결혼 혼인 및 이혼현황(통계청, 2014b)

제 III 장

패널조사 및 관리

1. 패널조사의 개요
2. 표본설계
3. 설문구성과 조사내용
4. 조사방법
5. 패널관리
6. 통계품질진단

제 III 장 패널조사 및 관리³⁾

1. 패널조사의 개요

본 패널조사는 2010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2012년까지 1단계 패널종단조사를 수행하였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의 2단계 패널종단조사를 3년에 걸친 패널종단조사가 계획된 연구이다. 2단계 연구 중 2013년에는 패널의 3차 종단추적이 이루어졌고, 올해인 2014년은 4차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2011년도에 구축하고 2012년과 2013년까지 추적하여 3년간 지속적으로 참여한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중간에 탈락한 가구의 경우 원하는 경우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음 구축당시에는 학교를 통하여 청소년을 접촉하였으나 현재는 이미 청소년들의 가구정보를 파악한 상태이기에 학교방문 없이 직접 가구로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교사의 경우만 학교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2014년 6월부터 8월이고, CAPI 시스템을 활용하여 응답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하고 있다. 설문지는 이미 9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2014년도 새로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만 추가로 번역작업을 수행하였다.

2. 표본설계

1) 본 조사의 조사설계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11년 구축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교육부

3) 3장은 양계민과 박주희가 작성함.

기준의 용어를 사용함)과 그들의 학부모(어머니)였다(양계민 외, 2012, p. 37). 앞의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래부터 외국인근로자 자녀나 중도입국자녀를 배제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으나 교육부 통계를 기준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한 결과 대다수가 부모 중 한쪽이 외국출신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구성이 되었고, 부모 모두 외국인 출신인 가정의 경우는 극히 일부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패널은 거의 부모 중 한쪽이 외국출신인 가정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1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표본설계 내역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① 목표 모집단 :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 ② 조사 모집단 :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 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및 학부모 ③ 표본추출틀 ·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가족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리스트 · 2011년 4월 기준, 각 지방 교육청의 학교 리스트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1,625가구(2011년도 패널구축 당시)/1,371가구(2014년 12월 기준)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① 층화 : 16개 시/도 ② 표본 추출단위(2011년 당시) · 1차(psu) : 학교 · 2차(ssu) : 학교 내 다문화가족 4학년 학생 전수 ③ 표본추출 : 확률비례추출
표본배정방식	- 비례배분법

단계	연도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1단계	2010년 (예비)	○						
	2011년 (1차)	wave1						
	2012년 (2차)		wave2					
2단계	2013년 (3차)			wave3				
	2014년 (4차)				wave4			
	2015년 (5차)					wave5		
	2016년 (6차)						wave6	
	2017년 (7차)							wave7

【그림 III-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모형(※ 출처: 양계민, 박주희, 2013, p.38)

본 연구의 패널조사명은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통계청 승인번호 40203호)'로 목표 모집단은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과 그 학부모로 조사모집단은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 중 초등학교 4학년 및 학부모이다. 표본추출 틀은 2011년 4월 기준 전국의 각 지역교육청에서 제공한 다문화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의 리스트였다. 학교를 표집틀로 한 이유는 다문화청소년의 정확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부모출신국별 통계와 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2011년 당시 전국의 1,000개 학교를 선정하였고, 각 학교별로 다문화청소년이 평균 1.8명 정도 분포하고 있어서 약 1,600명 정도를 패널로 구축하였다. 본 패널의 경우 모집단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정확한 모집단 층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어진 시도별 분포정보에 근거하여 모집단을 층화하고 조사가 종료된 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사후층화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3. 설문구성과 조사내용

1) 2014년도 설문지 구성 절차

2014년도에는 청소년들이 중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지금까지 수행했던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작성한 설문을 중학생에게 맞게 문구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 수정 및 추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가장 처음으로 기존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과 발달경로에 대해 분석하고, 다문화청소년패널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요인을 문항으로 구성하거나 기존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2) 현장전문가 자문회의

다문화청소년을 수년간 담당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두 명과 함께 자문회의를 통해 기존 문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중학연령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문항,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3) 학계전문가 자문회의

다문화분야의 학계 전문가(연구자와 교수) 두 명과 자문회의를 하여 역시 기존문항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설문지 및 학업중단예측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4) 연구진 검토회의

문헌연구와 현장전문가, 그리고 학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설문문항을 대상으로 다시 연구진회의를 거쳐서 본원의 연구진들과 조사담당연구팀이 문구를 다듬고 다른 문항과의 논리적 연결성, 로직 등을 검토하는 등 문항을 다시 다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5) 예비조사

최종적으로 검토가 끝난 설문내용으로 중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척도마다 요인분석을 하여 로딩값이 떨어지는 문항과 신뢰도 분석에서 척도-문항간 상관계수 값이 떨어지는 문항은 삭제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6) 최종문항 선정

위의 다섯 단계 절차를 거쳐서 최종문항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다문화청소년패널문항과 학업중단청소년용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7) 통계작성변경승인

최종적으로 수정된 설문지는 다시 통계작성변경승인을 신청하여 2014년 5월 19일자로 변경승인을 통보받았다.

2) 2014년도 설문구성 및 내용

(1) 청소년용 설문지

2014년도에 재구성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문항은 2013년도의 문항과 동일하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새로이 구성한 내용이다.

표 III-2 청소년용 설문문항 구성내용

영역		내용	출처
배경변인(가구원부)		· 성별, 출생년도, 가족구성원 현황, 부모의 출신국	· 연구진 작성
다문화 특성	언어 능력	· 부모의 외국인 여부	· 연구진 작성
		· 외국출신부모의 한국어 실력	· 연구진 작성
		·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 연구진 작성
		· 부모 간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 연구진 작성
		· 한국어 실력	· 연구진 작성
		· 사용가능한 외국어	· 연구진 작성
		· 외국출신 부모 나라 언어실력	· 연구진 작성
		이중 문화 경험	· 국적에 대한 인식
	· 외국출신 부모 나라 방문여부		· 연구진 작성
	· 외국출신부모 가족의 한국방문경험여부		· 연구진 작성
	· 외국출신부모 나라에 대한 관심정도		· 연구진 작성
	· 문화적응 스트레스		· 홍진주(2004)
	· 국가정체성		· 성한기(2001)
	· 이중문화수용태도		· 노충래 · 홍진주(2006)
	· 다문화수용성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 다문화가족관련 지원 경험: 지원의 중복 여부, 지원내용, 지원의 적정성, 특별지원의 필요성(*), 특별지원 방식(*)	· 연구진 작성	
	· 선호하는 지원방식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 공개여부	· 연구진 작성	
	· 향후 지원요구내용	· 연구진 작성	
개인 특성	신체	· 건강상태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 신체만족도	· 한상분(1992)
	사회· 정서· 행동	· 자아존중감	· 박난숙 · 오경자(1992)
		· 자아탄력성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 삶의 만족도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 우울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 사회적 위축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표 III-2 청소년용 설문문항 구성내용 (계속)

영역		내용	출처
개인 특성		· 비행경험(*)	· 홍상황 · 황순택(2004)
		· 학업중단 위험요인(*)	· 이자영 외(2010)
	인지	· 학교성적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 성취동기	· 김의철 · 박영신(1999)
		· 성적에 대한 만족도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 장래 희망 직업	· 연구진 작성
		· 희망 학력수준	· 연구진 작성
	진로	· 진로의식(*)	· 이기학(1997)
		· 진로의논(*)	· 최영애(2005)
환경적 특성	부모 와의 관계	· 가족의 지지	· 한미현(1996)
		· 부모에 대한 생각	· 연구진 작성
		· 부모의 양육태도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1)
		· 부모의 교육적 지원 · 기대(*)	· 김순규(2001)
	친구	· 친한 친구 수	· 연구진 작성
		· 친구의 지지	· 한미현(1996)
		· 교우관계(적응)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 이해경 · 김혜원(2001)
		· 비행친구와의 접촉(*)	· 김순규(2001)
	학교 생활	·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 연구진 작성
		·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 연구진 작성
		· 학습활동(적응)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 교사의 지지	· 한미현(1996)
		· 교사와의 관계(적응)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 연구진 작성
방과후 활동	· 방과후 학습활동, 예체능 활동(*)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지역 사회 지지망	·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 연구진 작성	
	·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 양계민 외, 2013; p.45-46 수정

위의 내용 중 2014년도에 새로이 수정한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13	문13	질문	질문	문항 워딩을 보다 자연스럽게 수정
		보기	보기	예상되는 어려운 점을 보기 내용에 추가 (10. 다문화가족 출신이라고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대하는 것)
문15	문15	질문	질문	
		보기	보기	중학교 진학 후 숙제나 과제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기 문항을 추가함 (6.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
문18	문18	질문	질문	보기 문항에 '초등학교'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나중에' 시제를 삭제함
문21 (세부 문항6)	문21	질문	질문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서 반복되어 이를 수정함 (외국인 부모님이 → 나의 부모님이)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21 (세부 문항7)	문 21	질문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7.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린다	질문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7. 나의 부모님이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린다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서 반복되어 이를 수정함 (외국인 부모님이 → 나의 부모님이)
문23 (세부 문항3)	문23	질문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3. 나는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질문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3.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에서 반복되어 이를 수정함 (외국인 부모님이 → 부모님이)
문26 (세부 문항1)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부모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1.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주시다	부모님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26 (세부 문항2)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부모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2. 부모님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시다	부모님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26 (세부 문항3)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부모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3. 부모님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해주시다	부모님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26 (세부 문항4)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부모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4.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	부모님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26 (세부 문항5)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부모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5. 부모님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많이 해주신다	부모님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26 (세부 문항6)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부모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6.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부모님께서 소유한 것(물건, 장소)들을 제공해 주신다	부모님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29	문 28	보기	1. 학교 공부나 성적을 너무 강조하는 것 2. 나의 공부를 도와주지 못 하는 것 3. 나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 4. 학교과제나 준비물을 챙겨주지 못하는 것 5. 내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혼만 내는 것	보기	1. 학교 공부나 성적을 너무 강조하는 것 2. 나의 공부를 도와주지 못 하는 것 3. 나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 4. 학교과제나 준비물을 챙겨 주지 못하는 것 5. 내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혼만 내는 것	학생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기 문항 추가 (9. 아버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6. 서로 대화가 없는 것 7. 아버지의 외모가 다른 부모들과 달라서 창피한 것 8. 아버지의 한국말이 서투른 것 9. 어려움이 없다 10. 기타		6. 서로 대화가 없는 것 7. 아버지의 외모가 다른 부모들과 달라서 창피한 것 8. 아버지의 한국말이 서투른 것 9. 아버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10. 어려움이 없다 11. 기타	
문29-1	문 28-1 보기	1. 학교 공부나 성적을 너무 강조하는 것 2. 나의 공부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 3. 나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 4. 학교과제나 준비물을 챙겨주지 못하는 것 5. 내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혼만 내는 것 6. 서로 대화가 없는 것 7. 어머니의 외모가 다른 부모들과 달라서 창피한 것 8. 어머니의 한국말이 서투른 것 9. 어려움이 없다 10. 기타	보기	1. 학교 공부나 성적을 너무 강조하는 것 2. 나의 공부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 3. 나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 4. 학교과제나 준비물을 챙겨 주지 못하는 것 5. 내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혼만 내는 것 6. 서로 대화가 없는 것 7. 어머니의 외모가 다른 부모들과 달라서 창피한 것 8. 어머니의 한국말이 서투른 것 9.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10. 어려움이 없다 11. 기타	학생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기 문항 추가 (9.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	문33	질문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질문	문항 삭제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문항이므로 삭제
		보기 1. 예 2. 아니오	보기	문항 삭제	
-	문 33-1	질문 어디에게 배웠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질문	문항 삭제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문항이므로 삭제
		보기 1.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셨다(정부·지자체 지원의 방문교사) 2. 다문화센터에 가서 배웠다 3. 종교단체에서 배웠다 4.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5. 학습지 선생님에게 배웠다(예. 한글나라, 구몬한글 등) 6. 기타	보기	문항 삭제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35-1	문 35-1	보기	1. 학원 선생님 2. 공부방 선생님 3. 청소년 수련관, 복지관, 다문 화센터 선생님 등 지역의 각 종 청소년시설 선생님 4. 이웃 어른들 5. 멘토 선생님 6.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 7. 기타	보기	1. 학원 선생님 2. 공부방 선생님 3. 청소년 수련관, 복지관, 다문 화센터 등 지역의 각종 청소년 시설 선생님 4. 이웃 어른들 5. 멘토 선생님 6.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 7. 기타	보기3에서 '선생님' 단어가 중복 언급되어 삭제	
문46	문 46	질문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작년 조사 이후 부터 지금까지' 를 '중 학교 입학 이후부터 지 금까지' 로 시점 변경	
문46-1	문 46-1	질문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다문화가 족이라고 하여 작년 조사 이후 부터 지금까지 어떤 지원들을 받았습니까? 받은 경험이 있는 지원의 종류를 모두 골라주세요.	질문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다문 화가족이라고 하여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지원들을 받았습니까? 받은 경험이 있는 지원의 종류를 모두 골라주세요.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지금까지' 로 대상 시점 변경	
		보기	1.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바우처 등) 2.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3. 놀이공원 방문 4.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 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 체험활동 5.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 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 그램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교실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기타	보기	1.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바우처 등) 2.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3. 놀이공원 방문 4.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 체험 등) 5. 특기적성 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 6.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 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 프로그램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진로지원 프로그램 15. 기타	- 보기 2,4,5,6번 위당 수정 사유: 예시가 되는 내용을 괄호로 묶어 가독성을 높임 - 보기 10번 위당 수정 사유: 보다 적절한 단 어로 수정 - 신규 보기 문항 추가 사유: 중학생임을 고려 하여 예상되는 지원 프 로그램을 항목에 추가 (14. 진로지원 프로그램)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46-2	문 46-2	질문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제공된 지원 중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이 한 해에 여러 번 중복된 적이 있습니까? 신청하지 않았던 것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질문	문 46-1에서 말한 지원 중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이 여러 번 중복되어 제공된 적이 있습니까?		- 시점 변경 : 2014년 질문지의 문46 시점을 따름 - 로직 변경 : 기존에는 문46-1과 상관없이 응답하였으나, 2014년에는 문46-1에서 응답한 내용 중 선택 가능하도록 수정(지원 받은 적이 있는 프로그램에 한해 중복 여부를 고려)
문46-3	문 46-3	보기	1.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바우처 등) 2.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3. 놀이공원 방문 4.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활동 5.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교실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기타 15. 없음	보기	1.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바우처 등) 2.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3. 놀이공원 방문 4.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5. 특기적성 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 6.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 프로그램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진로지원 프로그램 15. 기타		- 보기 2,4,5,6번 워딩 수정 사유: 예시가 되는 내용을 괄호로 묶어 가독성을 높임 - 보기 10번 워딩 수정 사유: 보다 적절한 단어로 수정 - 신규 보기 문항 추가 사유: 중학생임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항목에 추가 (14. 진로지원 프로그램)
문46-4	문 46-4	보기	1.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바우처 등) 2.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3. 놀이공원 방문 4.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활동 5.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교실		1.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바우처 등) 2.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3. 놀이공원 방문 4.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5. 특기적성 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 6.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 프로그램		- 보기 2,4,5,6번 워딩 수정 사유: 예시가 되는 내용을 괄호로 묶어 가독성을 높임 - 보기 10번 워딩 수정 사유: 보다 적절한 단어로 수정 - 신규 보기 문항 추가 사유: 중학생임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항목에 추가 (14. 진로지원 프로그램)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기타 15. 없음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진로지원 프로그램 15. 기타 16. 없음		
-	문 46-5	질문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하여 특별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질문	문항삭제		중요도가 낮아 응답 부담을 덜기 위해 삭제
		보기	1. 기분이 좋다 2.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다 3. 기분이 나쁘다	보기	문항삭제		
-	문 46-6	질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지원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까?	질문	문항삭제		중요도가 낮아 응답 부담을 덜기 위해 삭제
		보기	1. 전혀 고맙지 않다 2. 고맙지 않은 편이다 3. 고마운 편이다 4. 매우 고맙다	보기	문항삭제		
문47	-	질문	-	질문	다문화가족 자녀를 일반가정 자녀와 구별하여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한 특별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방식을 묻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예 2. 아니오		
문47-1	-	질문	-	질문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한 특별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방식을 묻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2.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게 특별지원해도 상관없다		
문49	-	질문	-	질문	학교 친구들은 내가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학교 친구들이 알고 있는지 여부 질문 후 직접 공개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 변경
		보기	-	보기	1. 알고 있다 2. 모른다		
문49-1	문 48	질문	좌동	질문	학교 친구들에게 자신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것을 직접 알렸습니까?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학교 친구들이 알고 있는지 여부 질문 후 직접 공개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 변경
		보기	좌동	보기	1. 예 2. 아니오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50	문 49	보기	1.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2.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3. 놀이공원 방문 4.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 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 체험활동 5.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 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교실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학원비 지원 15. 기타 16. 없음	보기	1. 방과 후 수업료 지원 (바우처 등) 2.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3. 놀이공원 방문 4.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 체험 등) 5. 특기적성 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 6.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 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 프로그램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학원비 지원 15. 진로지원 프로그램 16. 기타 17. 없음		- 보기 2,4,5,6번 워딩 수정 사유: 예시가 되는 내용을 괄호로 묶어 가독성을 높임 - 보기 10번 워딩 수정 사유: 보다 적절한 단 어로 수정 - 신규 보기 문항 추가 사유: 중학생임을 고 려하여 예상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항목에 추가 (15. 진로지원 프로그램)
문51 (세부분항 5-3)	문 50	질문	-	질문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_5-3.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 지난 한달 간 경험 횟수		보기5에 대한 경험 횟 수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한달 간 경험 횟수 추 가 질문
		보기	-	보기	_____회		
문51 (세부분항 11)	-	질문	-	질문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_11. 이성과 키스를 해본 적이 있다 : 경험 여부		비행행동에 대한 추가 보기 문항 구성
		보기	-	보기	1. 있다 2. 없다		
문51 (세부분항 12)	-	질문	-	질문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_12. 이성과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 : 경험 여부		비행행동에 대한 추가 보기 문항 구성
		보기	-	보기	1. 있다 2. 없다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52 (세부 문항1)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았다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52 (세부분항 2)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2.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52 (세부분항 3)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선택을 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52 (세부분항 4)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4.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긴 하지 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52 (세부분항 5)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5. 주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52 (세부분항 6)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6.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52 (세부분항 7)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7.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52 (세부분항 8)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8.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52 (세부문항 9)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9.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52 (세부문항 10)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10.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진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53	-	질문	-	질문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로 누구와 의논합니까?	진로에 대해 주로 의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가족이나 친지 2. 학교선생님 3. 지역사회 기관(지역의 청소년 관련 센터)의 선생님 4. 친구나 선배 5. 기타 6. 없음	
문54 (세부문항 1)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1. 나는 학교에서 머리, 옷, 담배 등을 규제하는 것이 싫다	학업 중단 요인 관련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54 (세부문항 2)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2. 학교를 그만두면 자유롭게 행동(술, 담배, 머리 등) 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업 중단 요인 관련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54 (세부문항 3)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3.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학업 중단 요인 관련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54 (세부문항 4)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4. 빨리 돈을 벌고 싶다	학업 중단 요인 관련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54 (세부문항 5)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5. 부모와 자주 싸운다	학업 중단 요인 관련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54 (세부문항 6)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6. 집에 들어가기 싫다	학업 중단 요인 관련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문54 (세부문항 7)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7. 내 친구 중 자퇴를 한 친구가 있다	학업 중단 요인 관련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54 (세부문항 8)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8. 내 친구 중 학교가지 말고 놀자고 하는 친구가 있다	학업 중단 요인 관련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55 (세부문항 1-1)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1-1. 학원: 참여 여부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참여 2. 미참여	
문55 (세부문항 1-2)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1-2. 학원: 1주일 간 참여 횟수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회	
문55 (세부문항 1-3)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1-3. 학원: 해당 평균 참여 시간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시간 _____분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55 (세부분항 2-1)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2-1. 개인과외: 참여 여부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참여 2. 미참여	
문55 (세부분항 2-2)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2-2. 개인과외: 1주일 간 참여 횟수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회	
문55 (세부분항 2-3)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2-3. 개인과외: 회당 평균 참여 시간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시간 ____분	
문55 (세부분항 3-1)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3-1. 그룹과외: 참여 여부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참여 2. 미참여	
문55 (세부분항 3-2)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3-2. 그룹과외: 1주일 간 참여 횟수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회	
문55 (세부분항 3-3)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3-3. 그룹과외: 회당 평균 참여 시간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시간 ____분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55 (세부문항 4-1)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4-1. 방문수업(학습지 등): 참여 여부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참여 2. 미참여	
문55 (세부문항 4-2)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4-2. 방문수업(학습지 등) : 1주일 간 참여 횟수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회	
문55 (세부문항 4-3)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4-3. 방문수업(학습지 등): 회당 평균 참여 시간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시간 _____분	
문55 (세부문항 5-1)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5-1. 인터넷강의: 참여 여부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참여 2. 미참여	
문55 (세부문항 5-2)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5-2. 인터넷강의: 1주일 간 참여 횟수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회	
문55 (세부문항 5-3)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5-3. 인터넷강의: 회당 평균 참여 시간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시간 _____분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55 (세부문항 6-1)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6-1. 방과후 학교: 참여 여부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참여 2. 미참여	
문55 (세부문항 6-2)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6-2. 방과후 학교: 1주일 간 참여 횟수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회	
문55 (세부문항 6-3)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6-3. 방과후 학교: 회당 평균 참여 시간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시간 분	
문55 (세부문항 7-1)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7-1. 청소년 수련관, 복지관 등의 학습 프로그램: 참여 여부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참여 2. 미참여	
문55 (세부문항 7-2)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7-2. 청소년 수련관, 복지관 등의 학습 프로그램: 1주일 간 참여 횟수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회	
문55 (세부문항 7-3)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7-3. 청소년 수련관, 복지관 등의 학습 프로그램: 회당 평균 참여 시간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시간 분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55 (세부문항 8-1)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8-1. 기타 학습활동 : 참여 여부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참여 2. 미참여	
문55 (세부문항 8-2)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8-2. 기타 학습활동: 1주일 간 참여 횟수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회	
문55 (세부문항 8-3)	-	질문	-	질문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얼마나 합니까?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목 학습 활동만 포함됩니다. _8-3. 기타 학습활동: 회당 평균 참여 시간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교과목 관련 과 외 학습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시간 _____분	
문56 (세부문항 1-1)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_1-1. 음악: 참여 여부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참여 2. 미참여	
문56 (세부문항 1-2)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_1-2. 음악: 1주일 간 참여 횟수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회	
문56 (세부문항 1-3)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_1-3. 음악: 회당 평균 참여 시간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시간 _____분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56 (세부문항 2-1)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2-1. 미술: 참여 여부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참여 2. 미참여	
문56 (세부문항 2-2)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2-2. 미술: 1주일 간 참여 횟수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회	
문56 (세부문항 2-3)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2-3. 미술: 회당 평균 참여 시간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시간 _____분	
문56 (세부문항 3-1)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3-1. 체육: 참여 여부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참여 2. 미참여	
문56 (세부문항 3-2)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3-2. 체육: 1주일 간 참여 횟수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회	
문56 (세부문항 3-3)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3-3. 체육: 회당 평균 참여 시간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시간 _____분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56 (세부문항 4-1)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_4-1. 과학(예, 과학로봇, 과학실험 등): 참여 여부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참여 2. 미참여	
문56 (세부문항 4-2)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_4-2. 과학(예, 과학로봇, 과학실험 등): 1주일 간 참여 횟수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회	
문56 (세부문항 4-3)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_4-3. 과학(예, 과학로봇, 과학실험 등): 회당 평균 참여 시간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시간 _____분	
문56 (세부문항 5-1)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_5-1. 봉사: 참여 여부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참여 2. 미참여	
문56 (세부문항 5-2)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_5-2. 봉사: 1주일 간 참여 횟수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회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56 (세부문항 5-3)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_ 5-3. 봉사: 회당 평균 참여 시간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 시간 _____ 분	
문56 (세부문항 6-1)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_ 6-1. 교내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참여 2. 미참여	
문56 (세부문항 6-2)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_ 6-2. 교내 동아리 활동 : 1주일 간 참여 횟수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 회	
문56 (세부문항 6-3)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_ 6-3. 교내 동아리 활동 : 회당 평균 참여 시간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 시간 _____ 분	
문56 (세부문항 7-1)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_ 7-1. 기타 활동: 참여 여부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참여 2. 미참여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56 (세부분항 7-2)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7-2. 기타 활동: 1주일 간 참여 횟수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회	
문56 (세부분항 7-3)	-	질문	-	질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학교 정규 수업 제외)을 일주일에 얼마나 합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도 포함됩니다.(단, 예체능 외에 교과목(수학, 영어 등) 관련 활동은 제외) 7-3. 기타 활동: 회당 평균 참여 시간	예체능 등의 특기적성 활동 시간을 측정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_____시간 _____분	
문57 (세부분항 1)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1.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특별한 이유없이 종종 결석을 한다	친구 및 선후배의 영향을 알아보기로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57 (세부분항 2)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2.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담배를 핀다	친구 및 선후배의 영향을 알아보기로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57 (세부분항3)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3.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술을 마신다	친구 및 선후배의 영향을 알아보기로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57 (세부 문항4)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대해 가장 잘 설명 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4.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 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적 이 있다	친구 및 선후배의 영 향을 알아보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57 (세부 문항5)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대해 가장 잘 설명 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5.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경찰서에 불려간 적이 있다	친구 및 선후배의 영 향을 알아보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57 (세부 문항6)	-	질문	-	질문	다음은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대해 가장 잘 설명 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_6.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 는 가출을 한 적이 있다	친구 및 선후배의 영 향을 알아보고자 신규 문항 추가
		보기	-	보기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2) 어머니용 설문지

어머니용 설문지의 경우도 내용적으로 크게 수정된 것은 없고, 새로이 추가된 문항이 아래의 표 중 (*)표시가 된 문항이다. 그 내용으로는 방과후교육과 관련된 내용과 자녀지도에서 느끼는 어려움, 그리고 특별지원의 필요성과 지원의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 외에는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필요하지 않게 된 문항들을 삭제하거나 중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표 III-4 2014년도 어머니용 설문문항 구성내용

영역		내용	출처
배경변인	공통	· 연령, 결혼 전 국적, 모국어, 한국 거주기간, 종교, 학력 수준, 한국 입국 전 직업, 현재 직업	· 연구진 작성
	배우자 변인	· 배우자 최종학력, 배우자 직업, 배우자의 국적, 배우자 연령	· 연구진 작성
	개인배경	· 배우자와의 결혼상태	· 연구진 작성
		· 초혼여부	· 연구진 작성
		· 한국어 수준	· 연구진 작성
개인 및 환경 특성	어머니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 자아존중감	· Rosenberg(1968)
		· 전반적 건강	· 연구진 작성
		· 심리적·신체적 건강	· 황정규(1977)
		· 일상생활 스트레스	· 김정희(1987)
		· 문화적응스트레스	· 이소래(1997)
		· 한국 내 문화적응 상태	· 연구진 작성
		·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	·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2009)
		· 문화적응 유형	· Berry(2001)
	가족특성	· 동거가족 수와 대상	· 연구진 작성
		·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지각	· 연구진 작성
		· 월평균 소득수준	· 연구진 작성
		· 주요 소득원	· 연구진 작성
	학교교육 관련특성	·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 연구진 작성
		· 자녀교육관련 주 의사결정자	· 연구진 작성
		·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 연구진 작성
		· 자녀의 학교문제나 숙제지도를 주로 하는 사람	· 연구진 작성
		· 자녀의 장래 직업의 종류에 대한 기대	· 연구진 작성
		·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정도	· 연구진 작성
	학교관련 특성	· 자녀의 성적 향상을 시키기 위한 노력	· 연구진 작성
		· 자녀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	· 연구진 작성
		· 방과후 학교 참여 여부	· 연구진 작성
		· 학교에서 실시되는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	· 연구진 작성
		· 지원프로그램의 제공 장소 선호도	· 연구진 작성
		· 학교에서의 대우	· 연구진 작성
다문화적 특성	방과후교육관 련 특성	· 학교 다문화가족 학부모 교육 경험	· 연구진 작성
		· 방과후교육 경험, 교육비, 경험한 이유, 경험하지 않은 이유(*)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양육관련 특성	· 방과후 교육의 부담 정도(*)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 자녀와 대화 시 사용언어	· 연구진 작성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 연구진 작성
		· 자녀가 배우기 바라는 언어	· 연구진 작성
		· 부모효능감	· 신숙재(1997)
		· 양육스트레스	· 이경숙 등(2008)
		· 자녀지도의 어려움(*)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관련 지원 경험, 다문화가족관련 지원 내용, 지원에 대한 태도, 지원의 적정성, 특별지원의 필요성(*), 특별지원 방식(*)	· 연구진 작성

※ 출처: 양계민 외, 2013; p. 52-53 수정

위의 내용 중 새로이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5 2014년도 어머니용 설문문항 수정내용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11 (세부 문항7)	문12	질문	귀하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_7. 학예회 또는 학습발표회 참석	질문	귀하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_7. 학생 발표회 또는 학교 축제 참석	중학교 행사에 적절한 보기 문항으로 구성
문11 (세부 문항9)	-	질문	-	질문	귀하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_9. 학교설명회 참석	중학교 행사에 적절한 보기 문항 신규 추가
		보기	-	보기	1. 전혀 하지 않는다 2. 1년에 1회 3. 1년에 2~3회 4. 1년에 4회 이상	
-	문13	질문	귀 댁은 자녀의 학교준비물을 주로 누가 챙겨줍니까?	질문	문항 삭제	자녀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문항으로 판단되어 삭제
		보기	1. 나 2. 남편 3. 시부모 4. 자녀가 직접 5. 기타	보기	문항 삭제	
-	문14	질문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1, 2, 3학년)때 한국어를 별도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배운 것을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질문	문항 삭제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문항이므로 삭제
		보기	1. 예 2. 아니오	보기	문항 삭제	
-	문 14-1	질문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질문	문항 삭제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문항이므로 삭제
		보기	1.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집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셨다(정부·지자체 지원의 방문교사) 2. 다문화센터에 가서 배웠다 3. 종교단체에서 배웠다 4.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5. 학습지 선생님에게 배웠다(예. 한글나라, 구문한글 등) 6. 기타	보기	문항 삭제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15	-	질문	-	질문	귀하가 자녀를 지도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보기	-	보기	1. 학습 관련 부분(숙제, 시험 준비 등) 2. 진로 관련 부분(진로 선택 등) 3. 생활 관련 부분(예절 교육, 인성 교육 등) 4. 성 관련 부분(2차 성장, 이성 교제 등) 5. 가족 관련 부분(부모/형제/자매 관계 등) 6. 기타
문16	문18	질문	작년 조사 이후 귀 자녀의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	귀하의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귀 자녀의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37	문39	질문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귀하의 자녀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	자녀의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지금까지 귀하의 자녀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37-1	문39-1	질문	귀하의 자녀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여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지원들을 받았습니까? 받은 경험에 있는 지원의 종류를 모두 골라주세요.	질문	귀하의 자녀가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여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지원들을 받았습니까? 받은 경험에 있는 지원의 종류를 모두 골라주세요.
		보기	1. 방과후 수업료지원(바우처 등) 2.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3. 놀이공원 방문 4.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활동 5.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교실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비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기타	보기	1. 방과 후 수업료지원(바우처 등) 2.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3. 놀이공원 방문 4.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5. 특기적성 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 6.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 프로그램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진로지원 프로그램 15. 기타

중학생 자녀 지도 시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고자 신규 문항 추가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하여 학교가 바뀐 점을 고려하여 대상 시점 변경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지금까지' 로 대상 시점 변경

학생의 중학교 진학에 따라,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지금까지' 로 대상 시점 변경

- 보기 2,4,5,6번 워딩 수정 사유: 예시가 되는 내용을 괄호로 묶어 가독성을 높임

- 보기 10번 워딩 수정 사유: 보다 적절한 단어로 수정

- 신규 보기 문항 추가 사유: 중학생임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항목에 추가 (14. 진로지원 프로그램)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37-2	문 39-2	질문	학교나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귀하의 자녀에게 제공된 지원 중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이 한 해에 여러 번 중복된 적이 있습니까? 귀하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질문	문 37-1에서 말한 지원 중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이 여러 번 중복되어 제공된 적이 있습니까?		- 시점 변경 : 2014년 질문지의 문 37 시점을 따름 - 로직 변경 : 기존에는 문37-1과 상관없이 응답하였으나, 2014년에는 문37-1에서 응답한 내용 중 선택 가능하도록 수정 (지원 받은 적이 있는 프로그램에 한해 중복 여부를 고려)
문37-3	문 39-3	보기	1. 방과후 수업료지원(바우처 등) 2.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3. 놀이공원 방문 4.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활동 5.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교실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비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기타	보기	1. 방과 후 수업료지원(바우처 등) 2.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3. 놀이공원 방문 4.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5. 특기적성 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 6.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 프로그램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진로지원 프로그램 15. 기타		- 보기 2,4,5,6번 워딩 수정 사유: 예시가 되는 내용을 괄호로 묶어 가독성을 높임 - 보기 10번 워딩 수정 사유: 보다 적절한 단어로 수정 - 신규 보기 문항 추가 사유: 중학생임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항목에 추가 (14. 진로지원 프로그램)
문37-4	문 39-4	보기	1. 방과후 수업료지원(바우처 등) 2.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3. 놀이공원 방문 4.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활동 5.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보기	1. 방과 후 수업료지원(바우처 등) 2.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3. 놀이공원 방문 4.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5. 특기적성 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 6.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 보기 2,4,5,6번 워딩 수정 사유: 예시가 되는 내용을 괄호로 묶어 가독성을 높임 - 보기 10번 워딩 수정 사유: 보다 적절한 단어로 수정 - 신규 보기 문항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7. 물질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교실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비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기타 15. 없음		7. 물질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 프로그램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진로지원 프로그램 15. 기타 16. 없음	추가 사유: 중학생 임을 고려하여 예상 되는 지원 프로그램 을 항목에 추가 (14. 진로지원 프로그램)
-	문 39-5	질문 귀하의 자녀가 다문화가족 자녀만 을 위한 특별지원을 받았을 때 어 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보기 1. 기분이 좋다 2.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는다 3. 기분이 나쁘다	질문 문항 삭제 보기 문항 삭제		중요도가 낮아 응답 부담을 덜기 위해 삭제
-	문 39-6	질문 귀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만 주 어지는 특별지원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보기 1. 전혀 고맙지 않다 2. 고맙지 않은 편이다 3. 고마운 편이다 4. 매우 고맙다	질문 문항 삭제 보기 문항 삭제		중요도가 낮아 응답 부담을 덜기 위해 삭제
문38	-	질문 - 보기 -	질문 다문화가족 자녀를 일반가정 자녀 와 구별하여 특별지원을 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 예 2. 아니오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한 특별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방식 을 묻고자 신규 문 항 추가
문38-1	-	질문 - 보기 -	질문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 십니까? 보기 1.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2.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게 특별지원해도 상관없다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한 특별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 방식 을 묻고자 신규 문 항 추가
문40	문41	보기 1. 방과 후 수업료지원(바우처 등) 2.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3. 놀이공원 방문 4.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 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 체험활동 5.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보기 1. 방과 후 수업료지원(바우처 등) 2.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3. 놀이공원 방문 4.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 체험 등) 5. 특기적성 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		- 보기 2,4,5,6번 위당 수정 사유: 예 시가 되는 내용을 괄호로 묶어 가독성 을 높임 - 보기 10번 위당 수정 사유: 보다 적 절한 단어로 수정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6.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 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교실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학원비 지원 15. 기타 16. 없음			6.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 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 프로그램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학원비 지원 15. 진로지원 프로그램 16. 기타 17. 없음	- 신규 보기 문항 추가 사유: 중학생 임을 고려하여 예상 되는 지원 프로그램 을 항목에 추가 (15. 진로지원 프로그램)
문41	-	질문	-	질문	귀하의 자녀는 중학교 입학 후, 사 교육을 포함한 방과후 교육을 받 은 경험이 있습니까?(공부, 특기적 성 포함)		자녀의 중학교 진학 에 따라 사교육 관 련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예 2. 아니오		
문41-1	-	질문	-	질문	귀하의 자녀가 중학교 입학 후 받 은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의 평균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자녀의 중학교 진학 에 따라 사교육 관 련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월평균 _____ 만원		
문41-2	-	질문	-	질문	귀하의 자녀가 중학교 입학 후,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자녀의 중학교 진학 에 따라 사교육 관 련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2.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후에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으므로 3.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4. 학교수업 보충 차원으로 5. 학교성적의 향상을 위해 6.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을 위해 7. 기타		
문41-3	-	질문	-	질문	귀 자녀의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 함) 비용은 가계에 어느 정도 부 담이 됩니까?		자녀의 중학교 진학 에 따라 사교육 관 련 문항을 추가함
		보기	-	보기	1.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2. 부담이 되지 않는 편이다 3. 부담이 되는 편이다 4. 매우 부담이 된다		
문42	-	질문	-	질문	자녀가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 을 받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 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자녀의 중학교 진학 에 따라 사교육 관 련 문항을 추가함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보기	-	보기	1. 학교수업만으로도 충분해서 2.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3.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4. 마땅한 과외교사나 학원을 찾지 못해서 5.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아도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서 6.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을 시간이 부족해서 7.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8. 기타
문D (남편)	-	질문	-	질문	귀하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저희가 귀하의 남편이나 자녀, 혹은 다른 가구원에게 연락을 하여도 괜찮으십니까?
		보기	-	보기	- 연락 가능 여부 - 성명 - 관계 - 연락처
문E (조사대상 자녀)	-	질문	-	질문	귀하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저희가 귀하의 남편이나 자녀, 혹은 다른 가구원에게 연락을 하여도 괜찮으십니까?
		보기	-	보기	- 연락 가능 여부 - 성명 - 관계 - 연락처
문E (조사대상 자녀를 제외한 다른 자녀)	-	질문	-	질문	귀하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저희가 귀하의 남편이나 자녀, 혹은 다른 가구원에게 연락을 하여도 괜찮으십니까?
		보기	-	보기	- 연락 가능 여부 - 성명 - 관계 - 연락처
문E (남편과 자녀의 다른 가구원)	-	질문	-	질문	귀하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저희가 귀하의 남편이나 자녀, 혹은 다른 가구원에게 연락을 하여도 괜찮으십니까?
		보기	-	보기	- 연락 가능 여부 - 성명 - 관계 - 연락처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될 시 연락을 해도 되는 다른 가구원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3) 교사용 설문지

교사용 설문지는 검토 결과 크게 변경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의견문항만 청소년과 어머니용설문지와 맞추어서 수정하였고 그 외에는 설문의 배열이나 등을 수정하였다.

표 Ⅲ-6 2014년도 교사용 설문문항 구성내용

영역	내용	출처
배경변인	· 성별	· 연구진 작성
	· 생년	· 연구진 작성
	· 교직경력	· 연구진 작성
	· 현재 다문화가족 학생을 맡고 있는지 여부	· 연구진 작성
	· 과거 다문화가족 학생 담임 경험	· 연구진 작성
학교정책	·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다문화가족 학생 수	· 연구진 작성
	· 현재 재직 중인 학교의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유무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 유무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타학교 기관연계 유무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연계 유무	· 연구진 작성
	· 재직 중인 학교가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 학생이나 부모대상 학교차원의 교육적 요구조사 여부	· 연구진 작성
	· 외국출신 학부모와 의사소통가능자 교내 배치여부	· 연구진 작성
학교환경	· 재직 학교 학생들의 평균 가정경제수준	· 연구진 작성
	· 재직 학교의 이중언어 능력 지원계획 수립여부	· 연구진 작성
	· 재직 학교의 다문화가족 자녀 담당교사 유무	· 연구진 작성
	· 재직 학교의 일반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유무	· 연구진 작성
	· 재직학교의 다문화가족 학부모 모임 정도	· 연구진 작성
교사특성	· 다문화관련 교사 직무연수 경험	· 연구진 작성
	· 다문화수용성	· 안상수 외(2012)
다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 현재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내용의 적정성, 효과성에 대한 지각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수혜자의 반응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지원의 필요성, 지원방식(*)	· 연구진 작성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방식(*)	· 연구진 작성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7-1	문7-1	보기	보기	보기	1. 방과후 수업료지원(바우처 등) 2.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3. 놀이공원 방문 4.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활동 5.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교실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비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기타 1. 방과 후 수업료지원(바우처 등) 2.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3. 놀이공원 방문 4.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5. 특기적성 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 6.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 프로그램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진로지원 프로그램 15. 기타 - 보기 2,4,5,6번 워딩 수정 사유: 예시가 되는 내용을 괄호로 묶어 가독성을 높임 - 보기 10번 워딩 수정 사유: 보다 적절한 단어로 수정 - 신규 보기 문항 추가 사유: 중학생임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항목에 추가 (14. 진로지원 프로그램)
문22	-	질문	-	질문	다문화가족 자녀를 일반가정 자녀와 구별하여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보기	-	보기	1. 예 2. 아니오
문22-1	-	질문	-	질문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보기	-	보기	1.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2.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게 특별지원해도 상관없다
문23	-	질문	-	질문	귀하는 국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	보기	1.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 가정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 기타

문항번호 (14년 기준)	2013년		2014년		수정내역
문24	문22	보기	보기	보기	1.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2.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3. 놀이공원 방문 4.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활동 5.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교실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학원비 지원 15. 기타(적을 것: _____) 16. 없음 1. 방과 후 수업료지원(바우처 등) 2.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3. 놀이공원 방문 4. 문화체험활동(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5. 특기적성 프로그램(체육, 음악, 미술 등) 6.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8. 대학생 멘토링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 프로그램 11. 한국어 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학원비 지원 15. 진로지원 프로그램 16. 기타 17. 특별히 필요한 것 없음 - 보기 2,4,5,6번 워딩 수정 사유: 예시가 되는 내용을 괄호로 묶어 가독성을 높임 - 보기 10번 워딩 수정 사유: 보다 적절한 단어로 수정 - 신규 보기 문항 추가 사유: 중학생임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항목에 추가 (15. 진로지원 프로그램)
-	문23	보기	보기	보기	다문화가족 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5. 기타 다문화가족 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5. 기타 문항 삭제 문항 삭제 문22~문23(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방식) 추가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함

(4) 학업중단 청소년용 설문지 작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중학교 연령에 진입하고 점차 성장하게 됨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는 주제 중 하나가 학업중단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보면, 학업중단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1% 내외이나 숫자로 볼 때는 수 만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 중단률은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률은 전체 학업중단률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중단률이 높아지는 경향성 역시 같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다문화청소년 패널의 발달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학업을 중단했을 상황을 미리 고려하여 학교가 아닌 다른 트랙으로 간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중학교에 진입하지 않은 학교밖 청소년의 발달을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을 포함하는 작업을 1차로 실시하였고, 그와 더불어 현재는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향후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학업중단의 예측요인을 파악하고자 학교에 진학한 패널들을 대상으로도 학업중단예측요인을 포함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

본 조사에서 전화관리를 실시한 결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조사대상자 전체 중 한 명이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향후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청소년의 설문문항은 기본적으로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 설문문항을 유지하되 학교와 관련된 문항을 제외하고 구성하였다. 제외된 변인들은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교우관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학습활동, 교사의지지, 교사와의 관계,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이며, 일반패널청소년들과 동일하게 제공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영역		변인	출처
배경변인		부모의 출신국	연구진 작성
다문화 특성	언어능력	외국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연구진 작성
		부모와의 의사소통시 사용 언어	연구진 작성
		부모간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연구진 작성
		한국어 실력	연구진 작성
		사용가능한 외국어	연구진 작성
		외국출신 부모 나라 언어 실력	연구진 작성
		이중문화 경험	국가에 대한 정체성
	외국출신부모 국가 방문 경험 여부		연구진 작성
	외국출신부모 가족의 한국방문 경험 여부		연구진 작성
	외국출신부모 나라에 대한 관심 정도		연구진 작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홍진주(2004)
	국가정체성		성한기(2001)
	이중문화수용태도		노총래 · 홍진주(2006)
	다문화수용성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다문화 지원정책 에 대한 태도	다문화가족관련 지원 경험: 지원내용, 지원의 필요성	연구진 작성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지원 필요성	연구진 작성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지원 방식	연구진 작성
		선호하는 지원방식	연구진 작성
	개인 특성	신체	건강상태
신체만족도			한상분(1992)
인지		성취동기	김의철 · 박영신(1999)
		장래 희망 직업	연구진 작성
		희망 학력수준	연구진 작성
사회 · 정서 · 행동		자아존중감	박난숙 · 오경자(1992)
		자아탄력성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삶의 만족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우울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사회적 위축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환경적 특성	부모와의 관계	가족의 지지	한미현(1996)
		부모에 대한 생각	연구진 작성
		부모의 양육태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친구	친한 친구 수	연구진 작성
		친구의 지지	한미현(1996)
	지역사회 지지망	개인적으로 어려운일 발생 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연구진 작성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기타		비행경험	홍상환 · 황순택(2004)
		진로인식	이기학(1997)

다음의 문항들은 학업중단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문항들로, 문항구성의 출처와 구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III-9 학업중단청소년용 설문지에만 해당되는 문항

변인	출처
학업중단 시점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이유	금명자 외(2004), 남미애(2006), 윤철경 외(2013), 윤여각 외(2002), 최영애(2005)
학업중단 당시의 계획	최영애(2005)
학업중단 시 부모 태도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시 담임교사 태도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시 상담경험	윤철경 외(2013)
학교 및 학교생활: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습부적응(수업참여)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위험 요인	이자영 외 (2010)
학업중단 이후 경험	윤철경 외(2013), 남미애(2006), 윤여각 외(2002), 최영애(2005)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 및 취업 실태 (주당, 일일 업무 시간)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 시 가장 어려운 점	남미애(2006)
학업중단 이후 겪는 어려움	최영애(2005), 오현애(2002)
중단 이후 성인 멘토(만난 어른 유무, 만난 시설)	윤철경 외(2013)
진로 의논상대	최영애(2005)
도움을 주었거나 도움 받고 싶은 상대	최영애(2005)
향후 진로 계획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이후 필요한 도움 및 서비스	최영애(2005), 오현애(2002)

■ 학업중단 이유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금명자 외(2004)의 심층면접 자료를 참고하여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한 네 가지 항목을 구성하였다. 네 가지 항목은 ‘개인적’, ‘학교 및 학업’, ‘가족’, ‘친구 및 선후배’ 관련요인이며, 각 항목별 하위문항은 금명자 외(2004), 남미애(2006), 윤여각 외(2002), 윤철경 외(2013), 최영애(2005)의 문항들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구성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개인적인 이유로는 ‘건강상의 이유’, ‘심리적 혹은 정신적 문제’,

‘특기나 소질을 살리기 위해서’, ‘노는 것이 좋아서’ 등이 포함되었으며, 학교 및 학업적인 이유로는 ‘공부나 학교가 싫어서’, ‘학교 규칙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선생님과의 갈등’, ‘규칙위반으로 인한 징계’ 등이 있다. 가족과 관련하여서는 ‘가정불화’나 ‘가정 경제사정’ 등이 학업 중단 이유에 포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친구 및 선후배 관련 이유로는 ‘친구나 선후배와의 갈등’이나 ‘따돌림’, ‘학교를 그만둔 친구를 따라서 놀고 싶어서’ 등이 있다.

■ 학업중단 당시의 계획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당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최영애(2005)가 원주시에 거주하는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교를 중단할 당시의 계획으로는 ‘취업’, ‘기술교육’, ‘대안학교’, ‘검정고시’, 실컷 놀고 싶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학업중단 시 주변인 태도

학업중단 결정 당시 해당 청소년의 부모와 교사가 어떤 태도를 나타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윤철경 외(2013)의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연구 I’에서 학업을 중단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관한 문항을 토대로 연구진이 재구성하였다. 윤철경 외(2013)의 연구에서는 5가지 예시를 통해 부모님과 선생님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시에 2문항을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반응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 학업중단 시 상담경험

학업중단청소년이 학업중단을 결정하는데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윤철경 외(2013)의 연구에서 학업중단 숙려제에 관한 질문으로 사용된 것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상담경험 및 도움 여부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학교 및 학교생활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업중단청소년의 학교생활이 어떠하였는지는 윤철경 외(2013)의 설문문항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윤철경 외(2013)의 연구에서는 일반 학업중단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습 부적응(수업참여)’, ‘훈육적 학교풍토’, ‘참여적

학교풍토, '학교규범 위반 경험' 등을 묻는 21문항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교사관계(3문항), 친구관계(4문항), 학습부적응(수업참여)(3문항)만이 본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총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조사대상 청소년의 반응태도에 따라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 학업중단 위험요인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자영 외(2010)의 연구에서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위험요인으로 선정된 50개의 문항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이자영 외(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위험요인은 각각 '교사 및 규율에 대한 갈등',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 '학교 및 학업에 대한 거부감', '무기력감 및 가정 내 갈등', '친구관계 갈등'의 5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지며 각 영역 당 7~12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학교 및 학업에 대한 거부감'을 제외한 4영역에서 영역별로 각 2문항씩 총 8문항을 선별하여 학업중단 위험요인으로 구성하였다.

■ 학업중단 이후 경험

학업중단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남미애(2006), 윤여각 외(2002), 윤철경 외(2013), 최영애(2005)의 문항들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대안교육', '점정고시', '직업기술', '아르바이트 및 취업', '취업준비', '집안일', '질병 치료', '특별히 하는 일 없음', '기타' 등 9가지 예시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경험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학업중단 이후 취업시 가장 어려운 점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경제활동(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남미애(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업중단청소년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는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 '급여를 체불하는 것', '잔일을 시키는 것', '급여를 너무 적게 주는 것',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일이 너무 힘든 것', '별로 어려운 점이 없다', '기타'로 구성되었다.

■ 학업중단 이후 겪는 어려움

학업중단청소년이 학업중단 경험 이후 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는 오현애(2002)와 최영애(2005)의 설문문항들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학업중단 이후 겪는 어려움은 주로 '나태한 생활'이나 '비행에 대한 유혹', '새로운 환경 적응 어려움' 등에 대한 생활관련 어려움과 '부모님 또는 가족과의 갈등', '친구 사귀기 어려움',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 등을 포함하는 가족·친구관련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나 상담자가 없다'는 내용들을 포함한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최대 3가지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 학업중단이후 성인멘토를 만난 경험

학업중단 이후 다양한 환경에서 고민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성인멘토를 만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윤철경 외(2013)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청소년 시설', '복지 시설', '보호시설', '상담기관', '보호 관찰소', '직업 훈련기관', '종교기관', '학원', '병원 등 치료시설', '대안 교육기관', '기타'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기관에서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있는지의 유무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 진로에 대한 의논

학업중단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주로 누구와 의논하는지,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영애(2005)의 연구에서 학업중단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주로 누구와 의논하는지를 묻는 문항과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거나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문항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학업중단청소년이 진로를 의논하고, 도움을 얻는 상대는 '가족이나 친지', '학교선생님', '지역의 청소년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기관의 선생님', '친구나 선배', '기타', '의논 상대 없음'으로 구성되었다.

■ 향후 진로계획

학업중단청소년이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윤철경 외(2013)의 학업중단청소년의 향후진로에 대한 총 10가지의 선택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철경 외(2013)의 설문문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의견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영역으로 향후 진로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 학업중단 이후 필요한 도움 및 서비스

학업중단 이후 필요한 도움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오현애(2002)와 최영애(2005)의 설문문항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오현애(2002)는 향후 원하는 도움이나 서비스를 생활관련서비스(15문항), 가족 및 친구관련 서비스(5문항), 진로관련 서비스(6문항), 교육관련 서비스(7문항)로 구분하여 총 3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최영애(2005)는 취업 지원, 기술 교육, 경제적 지원 등을 포함한 7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항들을 재구성하여 총 13가지 도움 및 서비스 영역을 산출하였으며, 영역별 내용은 ‘취업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 알선’, ‘진로관련 정보 제공이나 적성검사’, ‘진로상담’, ‘경제적 지원’,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또는 따뜻한 관심’, ‘학교에 돌아가거나 진학을 위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기초학력 지원’, ‘취미나 특기적성 교육 제공’,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 해결’, ‘관계개선’, ‘비행해동이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치료’, ‘청소년 쉼터 또는 여가를 즐길만한 공간 제공’, ‘정신적·신체적 건강문제 개선’, ‘각종 고민 상담’ 등이다. 최종선택지에는 ‘기타’와 ‘없음’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가장 필요한 도움 및 서비스를 필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5) 학업중단청소년의 학부모 설문문항

학업중단청소년 학부모 설문문항은 청소년 설문문항과 마찬가지로 일반 학부모의 설문문항에서 학교교육 및 학교와 관련된 문항을 제외하고 구성하였다. 제외된 변인은 ‘자녀의 학교 교육에 도움을 주는 정도’, ‘자녀의 학교문제나 숙제지도를 주로 하는 사람’,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정도’,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자녀의 학교생활 참여 정도’, ‘자녀의 학교 준비물 도와주는 사람’, ‘방과후 학교 참여 여부’, ‘학교에서 실시되는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대우’, ‘학교 다문화가족 학부모 교육 경험’ 등이다. 학업중단청소년 학부모와 일반 학부모 모두에게 적용된 공통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III -10 학업중단청소년의 어머니용 설문지(공통문항)

영역		변인	출처
배경 변인	공통	모국어	연구진 작성
		한국 거주기간	연구진 작성
	개인배경	한국어 공부 경험	연구진 작성
		한국어 수준	연구진 작성
		결혼상태	연구진 작성
재혼여부		연구진 작성	
개인 및 환경 특성	교육관련 특성	자녀교육관련 주 의사결정자	연구진 작성
		희망하는 자녀의 교육수준	연구진 작성
		자녀의 장래 직업의 종류에 대한 기대	연구진 작성
		지원프로그램의 제공 장소 선호도	연구진 작성
	양육관련 특성	부모효능감	신숙재(1997)
		자녀 대화시 주요사용언어	연구진 작성
		자녀와의 의사소통정도	연구진 작성
		자녀가 배우기 바라는 언어	연구진 작성
	어머니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	Rosenberg(1968)
		일상생활 스트레스	김정희(1987)
		전반적 건강	연구진 작성
		심리적·신체적건강	황정규(1977)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소래(1997)
		문화적응 유형	Berry(2001)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	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2009)
	한국내 문화적응 상태	고민상담자 존재여부	연구진 작성
		모국과 달라서 어려운 점	연구진 작성
		정체성	연구진 작성
		주로 어울리는 사람	연구진 작성
		모국음식 요리 빈도	연구진 작성
		주요 가치관	연구진 작성
		모국에 대한 자부심	연구진 작성
		말할 때 주요 사용언어	연구진 작성
		글 쓸 때 주요 사용언어	연구진 작성
다문화 적 특성	다문화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다문화가족관련 지원 경험	연구진 작성
		다문화가족관련 지원 내용	연구진 작성
		지원에 대한 태도	연구진 작성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지원 필요성 및 지원방식	연구진 작성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방식	연구진 작성
기타		자녀 지도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연구진 작성
		친자녀여부	연구진 작성
		동일아버지여부	연구진 작성
개인 및 환경 특성	가족특성	월평균소득수준	연구진 작성
		주요소득원	연구진 작성
		주관적 가정경제 수준	연구진 작성

다음의 문항은 학업중단청소년의 어머니에게만 묻는 질문사항이다. 아래의 질문은 주로 학업중단청소년용 설문지와 동일한 내용을 어머니에게 적용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어머니에게만 적용되도록 별도로 작성된 문항의 내용 및 출처는 다음과 같다.

표 III-11 학업중단청소년의 어머니용 설문지에만 해당되는 내용

변인	출처
자녀 학업 중단 이유	금명자 외(2004), 남미애(2006), 윤철경 외(2013), 윤여각 외(2002), 최영애(2005)
자녀 학업중단 시 도움	홍봉선 · 남미애(1988)
자녀 학업중단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	홍봉선 · 남미애(1988)
중퇴이후 자녀문제에 대한 노력유형	홍봉선 · 남미애(1988)
향후 진로계획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이후 필요한 도움 및 서비스	최영애(2005), 오현애(2002)

■ 자녀 학업중단 이유

학부모 설문지에서 자녀의 학업중단 이유를 묻는 문항은 학업중단청소년 설문문항에서 사용된 학업중단 이유와 동일한 내용을 사용하였다.

■ 자녀 학업중단시 도움

학업중단청소년의 부모가 자녀의 학업중단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거나, 요청했다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홍봉선과 남미애(1988)가 부산지역 중퇴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측정한 문항들을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교사’, ‘가족이나 친척’, ‘친구’, ‘자녀의 친구’, ‘청소년 전문가’, ‘기타’, ‘요청을 하였으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없음’ 중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를 모두 답하도록 하였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총 7가지 예시(‘부끄러워 이야기할 수 없어서’, ‘도움을 받을만한 일이 없어서’, ‘적합하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비밀보장이 안될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기타’) 중 하나만 답하도록 하였다.

■ 자녀 학업중단 이후 가장 어려운 점

자녀가 학업을 중단한 이후 학부모가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홍봉선과 남미애(1988)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응답대상자가 답하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자녀들 간의 관계’, ‘주변인 및 이웃과의 관계’, ‘자녀의 비행행동 증가’ 등을 포함하여 11가지로 구분하였으며, 학업 중단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을 순서대로 두 가지 답하도록 하였다.

■ 학업중단이후 자녀 문제에 대한 노력

자녀가 학업을 중단한 이후 자녀의 진로 및 생활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하고자 홍봉선과 남미애(1988)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학부모의 노력 유형으로는 ‘다른 학교로의 전학가능성을 알아보았다’, ‘검정고시 학원을 보내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려고 했다’, ‘기술학원이나 직업훈련소 등에 보내고자 했다’,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구해 주었다’, ‘타지역의 친척에게 자녀를 보냈다’,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을 받도록 했다’,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이 없다’, ‘기타’로 구성되었다.

■ 향후 자녀 진로계획

향후 학업중단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묻는 문항은 윤철경 외(2013)의 학업중단청소년 설문문항과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 학업중단 이후 필요한 도움 및 서비스

학업중단 이후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 및 서비스에 대한 문항 역시 윤철경 외(2013)의 학업중단청소년 설문문항과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4. 조사방법

2014년도 패널조사는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조사원들이 CAPI프로그램이 내장된 노트북을 들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년과 어머니 조사를 하였고 교사의 경우 청소년패널이 진학한 중학교의 해당 담임교사 30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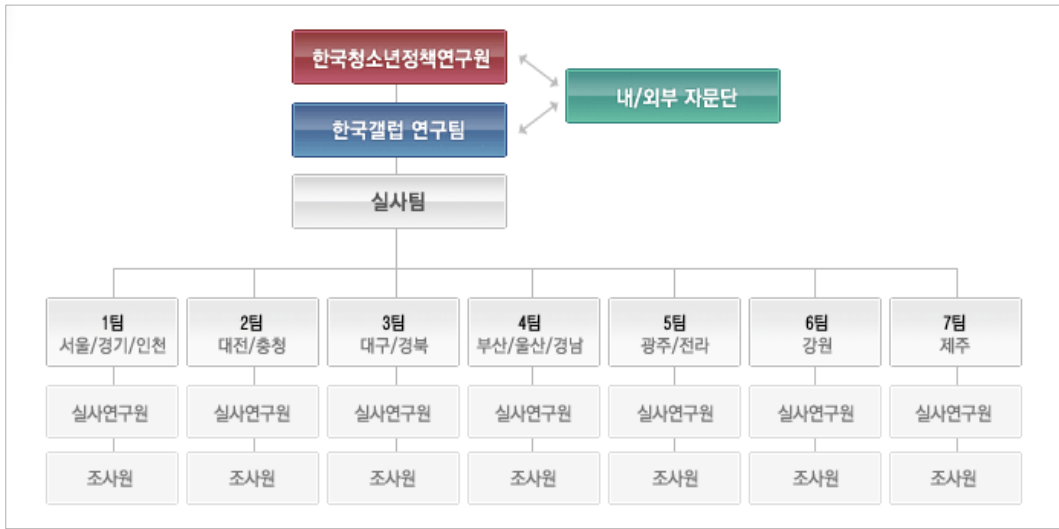
5. 패널관리

1) 패널관리 개요

패널조사가 신뢰성 있는 종단연구를 위한 자료(data)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표본의 대표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조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표본의 피로도, 이사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표본이탈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조사의 지속성과 신뢰성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패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표본의 이탈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패널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수한 집단을 추적하는 조사이기에 다문화집단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패널관리가 이루어져야만이 대표성을 지닌 질 높은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초기부터 패널관리계획과 체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패널 유지율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2) 패널관리 체계

패널관리 업무 진행은 다음의 관리 체계를 통하여 수행하였는데,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에 성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전담 연구팀 및 실사팀을 운영하고 전담 조사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III-2】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관리체계(양계민 외, 2013; p.65)

3) 패널관리 사항

(1) 패널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① 기본 실사 원칙 준수

패널조사에 앞서서 조사 수행 전 조사원 교육을 통해 조사원들이 패널과 올바르게 접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숙지해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다.

- 교육 참석과 조사 지침서 숙지를 통해 조사/패널관리의 필요성 인식
- 패널에게 신뢰감 부여
- 패널 가구의 비밀·정보 누설 금지
- 패널과 면담 시 정중한 태도 유지, 불필요한 언쟁 금지
- 강력 응답 거부자의 경우에는 실사팀 및 조사 관리자에게 보고 후 진행
- 단정한 복장과 조사원증 소지
- 응답자와의 방문 일시 및 시간 약속은 반드시 준수

※ 양계민 외, 2013; p.67

② 조사원 운용

패널조사의 특성상 조사원과 참여한 응답자 간의 친밀감 형성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초기부터 본 패널조사의 조사원을 활동하였던 조사원들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3년 참여 조사원 77명 중 2명은 직종 변경으로 인해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여 조사원 교체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기존 조사원이 담당했던 패널 가구에 전화하여 교체 조사원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구별 특이사항을 정리하여 신규 조사원에게 이관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 조사원이 지나치게 많은 가구를 담당할 경우 피로도도 문제이지만 일정 기간 내에 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관계로 조사원 1인당 평균 약 18.3가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절하여 효과적인 패널 관리를 도모하였다. 조사원별 1인당 평균 담당가구 수는 아래와 같다. 가장 적게 조사한 지역은 12가구였고 가장 많은 지역은 조사원 1인당 28.1명을 담당하였다.

표 III-12 조사원별 1인당 평균 담당가구수

실사지점	가구수	조사원 수	조사원 1인당 평균 담당가구 수
서울지점(서울/경기/인천)	505	18	28.1
부산지점(부산/울산/경남)	190	15	12.7
대구지점(대구/경북)	127	12	10.6
광주지점(광주/전북/전남)	278	14	19.9
대전지점(대전/충북/충남)	178	9	19.8
강원지점(강원)	81	6	13.5
제주지점(제주)	12	1	12.0
합계	1,371	75	18.3

③ 조사원 집체 교육

조사원들에게 조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사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며,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과 조사진행 과정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사원 교육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조사의 성실성과 진행과정의 표준화를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내용과 과정들이 자세히 수록된 조사원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조사원 지침서에 포함된 내용은 조사개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조사 준비물, 패널 관리, 설문지 작성 및 유의사항, 노트북 및 CAPI 사용 등 조사 전반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림 III-3】 조사원 지침서

교육시간은 약 3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조사개요 및 조사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패널가구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한 설명,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안, CAPI 이용법에 대해 교육하였고, 올 해 신규로 추가되는 부분 및 2013년 조사와 달라진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동일한 교육자가 75명의 조사원을 총 7개의 팀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표 III-13 조사원 교육 일정

실사지점	교육 일시	참여 조사원수	장소
서울	2014년 6월 11일(수) 오전 10시	18명	한국갤럽 본사
부산	2014년 6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15명	부산 지사
대구	2014년 6월 13일(금) 오전 10시 30분	12명	대구 지사
대전	2014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9명	대전 지사
광주	2014년 6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	14명	광주 지사
강원	2014년 6월 19일(목) 오후 1시	6명	강원리서치
제주	2014년 6월 20일(금) 오후 2시	1명	제주 실사

④ 홈페이지 운영

본 조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하였다(http://maps.gallup.co.kr). 홈페이지 내에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조사주관기관 및 실사기관, 조사결과 등을 수록하여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1차년도 조사 시점부터 사용되고 있던 조사개요, 연구진 소개, 조사설계, 조사항목 등의 내용과 더불어 홈페이지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 2차년도 조사 이후부터는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청소년들에게는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였다. 또한 현재 다문화중단조사가 실시중임을 알림으로써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⑤ 가구 및 가구원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1차년도 본조사 이후, 패널 관리를 위하여 1차년도에 수집된 패널가구의 기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가구 및 가구원의 모든 변동사항과 특이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변동사항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매 조사 시, 조사원들이 가구 및 가구원 정보를 인포시트로 출력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 가구정보									
가구 번호	0001	실사 지점	서울	담당 조사원	김현식	조사원 ID	G0001	참여/탈락	참여
우편번호	426-150	주소1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주소2	656-2번지 102호		
전화번호	031 419 6252	가구원 수	4	2011년 월 평균 소득 수준	320 만원	2011년 주요 소득원	납입	2011년 가정 형편	보통이다
어머니 성명	진수환 나파본	한국/외국	외국	설문지 언어	한국어	조사대상 자녀 성명	김민아	학생 성별	여성
조사대상 학생 수	1명	가구 특이사항							
면접원 조사대상	대상	면접원 조사대상 여부사용							
탈락사용									
2. 조사대상 자녀 학교 정보									
학교 코드	411921229	학교명	매화초등학교			학교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608번지		
3. 가구정보 변경사용									
변경사용									
4. 가구원 기본 정보									
가구원 성명	동거여부	응답자와의 관계	응답자와의 관계(기타)	조사 대상 여부	출신 국가	출신 국			

【그림 Ⅲ-4】 가구 및 가구원 정보 관리시스템 화면

MAPS(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담당 조사원/성명/ID 김현익 / G0001 담당 부서 집터										가운 조사원/ID 담당 사유	
1. 가구 정보											
가구번호		패널가/성명/성명						한국/외국		외국	
현재주소		주거주소						전화번호		411821229	
기초주소								학교코드		411821229	
학교명		무면번호 / 학교주소						가운 학교코드/학교명			
2. 가구원 정보											
연번	성명	패널가	성명	성명	생년월일	학력	종업	직업	연락처	가구원 구분	변동사항
1	본인	출생	출생	출생	1976.07.31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 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2	남편	출생	출생	출생	1965.03.07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 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3	나의 자녀	출생	출생	출생	2001.02.06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 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4	나의 자녀	출생	출생	출생	2006.07.15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 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5	시아머니	출생	출생	출생	1939.02.28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 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6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 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7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 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8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 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9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 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10										* 구분 : 1) 기존 2) 신규 3) 분가 4) 사망 5) 기타 * 변동 시기 : 년 월 * 변동 이유 :	

【그림 Ⅲ-5】 가구 인포시트

⑥ 080 수신자 부담 전화

패널가구가 경제적 부담 없이 쉽고 편하게 연구진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인 080전화(080 - 570 - 3580)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수신자부담 전화를 통해 패널가구는 자발적으로 본인의 이어나 연락처 변경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조사 관련 사항을 문의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함이었다. 이러한 패널과의 상호소통은 패널가구가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성과 기여를 인식하여 보다 충실한 패널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연구진은 패널가구가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 가구 변동 사항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향후 조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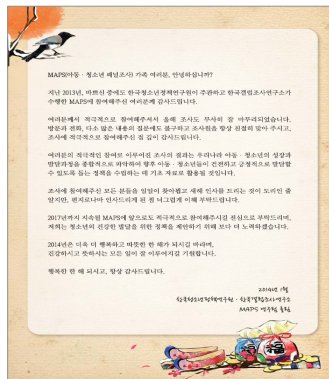
⑦ 관리조사 실시(총 2회)

본조사의 경우, 조사가 년 1회 실시되기 때문에 매 해 조사 간 간격이 길어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패널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조사이다. 따라서 각 해의 본조사 사이에 전화관리조사를 실시하여 가구 변동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가구 및 가구원 정보 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차년도

조사 시 조사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2014년)에는 조사 대상 학생들이 상급학교(중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교 배정이 끝난 4월에 전화관리조사를 1회 추가로 진행하였다(중학교 정보 파악 및 기타 정보 변경 파악). 전화관리조사에 대한 협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본조사시 획득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는데, 어머니 직업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유추하거나, 전화통화가 편한 시기를 파악하여 접촉을 하였다.

⑧ 연하장 및 명절(설) 선물 제공

본 조사에서는 전화관리조사 종료 후,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 및 새해 인사를 담은 연하장과 명절(설) 선물을 가구에 발송하여, 전년도 조사참여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새해 다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는데, 올 해에도 연초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하여 연하장과 함께 제공하면서 2014년 조사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하였다.



【그림 III-6】 연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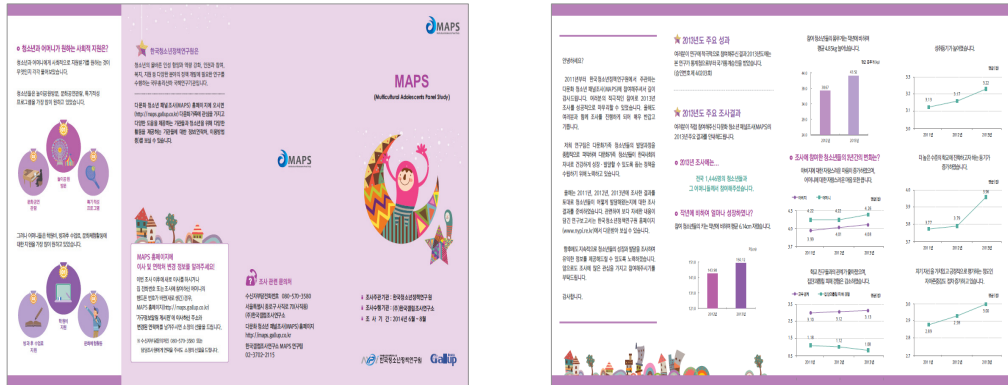


【그림 III-7】 패널 가구 명절(설) 선물

⑨ 리플렛 제작 및 배부

본 연구는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조사 참여에 대한 의미 부여를 위해 매 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조사의 목적, 기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전년도 조사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아 패널들로 하여금 본인이 참여한 조사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 홍보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구정보 변경 시

자발적 통보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가구정보 자발적 알림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어를 잘 못하는 가구를 고려하여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태국어, 대만어,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파갈로그어 등 총 10개 국어로 번역된 리플렛을 매년 제작하여 설문조사시 함께 배부하고 있다.



【그림 Ⅲ-8】 리플렛

⑩ 답례품 제공

조사 참여에 대한 유도와 함께 보다 성실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1차년도 조사 시에는 어머니에게만 상품권을 제공하였으나 2차년도에는 조사대상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도 학용품을 별도의 답례품으로 제공하였고, 3차년도부터는 학생들이 조사에 좀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도 별도의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⑪ 연락처 및 접촉 경로 확대

3차년도부터는 본조사 시, 패널가구로부터 전화가 편한 요일과 시간, 방문이 편한 요일과 시간 정보를 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고, 해당 정보를 올해 조사 시 조사원들에게 제공하여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가구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패널에게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추가로 받아 패널가구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연락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접촉이 되었을 때 전화 및 방문이 편한 요일과 시간, 추가

연락처 정보 외에 어머니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 접촉 경로를 다양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올해부터는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타 가구원 중 연락을 할 수 있는 가구원의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여 연락의 경로를 좀 더 다양화 하였다.

⑫ 이사 정보 확보 및 이사 가구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다문화패널의 경우 이사가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사가구에 대한 추적조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3차년도 본조사 이후 실시한 전화관리조사에서 패널 가구의 이사 계획 여부 및 시기를 미리 수집하여 이사시기에 전화접촉을 하여 이사 주소를 파악하여 추가 접촉경로를 확보함으로써 이사로 인한 패널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⑬ 가구 정보 변동 시 자발적 통보가구에 인센티브 제공

이탈 가구 중 ‘연락 안 됨’을 사유로 이탈한 가구는 2012년 총 33가구(23.6%), 2013년 총 45가구(23.3%), 2014년 총 68가구(26.8%)로 이탈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락이 안되어 이탈하는 가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조사 이후 이사를 가거나, 집 전화번호 혹은 어머니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변동내역을 알려주는 가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리플렛에 담아 각 가구에 안내하고 있고, 홈페이지의 가구정보 알림게시판, 수신자 부담 문의처, 담당 조사원, 담당 SV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구 변동사항을 알릴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연락두절의 이유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좀 더 강력한 유인가가 제공될 필요성을 시사하여, 내년도에는 자발적 통보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을 좀 더 강하게 인식시키고 자발적 통보자에 대한 답례품의 단가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림 III-9】 가구정보 알림 게시판

⑭ 어머니 핸드폰에 조사원 연락처 저장 및 연락 전 문자 메시지 발송

외국인 어머니들의 경우,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에 거부감이 있어 잘 받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2013년부터는 어머니 핸드폰 주소록에 조사원 연락처를 ‘한국갤럽’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양계민 외, 2013; p. 73). 실제로 전화관리 조사 시, 전화 연락 전에 문자 메시지를 먼저 발송해 주기를 희망하는 가구가 많았다. 따라서 조사원들에게 가구에 전화를 하기 전 문자 메시지를 먼저 보낼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하여 가구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하였다.

⑮ 이탈 의사를 밝힌 가구에 대한 협조 요청

어떤 가구가 이탈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1차적으로 조사원이 조사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설득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는 가구의 경우, 조사원이 해당 가구 및 이웃을 방문하여 가구 정보 파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탈 의사를 밝혀 조사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탈’로 보고된 가구 중 담당 연구원의 협조 요청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가구를 선별하여 담당 연구원이 직접 해당 가구에 전화 또는 이메일(전화가 안되는 경우)을 통하여 조사 참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⑯ 조사원 동기 부여를 위해 명절 선물 제공

패널 조사의 경우 조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올해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들에게 명절(설) 선물을 제공하면서, 본 조사 수행에 대한 감사의 인사 전달과 함께 향후 조사에 대한 관심을 부탁하였다.



【그림 III -10】 조사원 명절 선물

⑰ 조사원 안전을 위한 조사 물품 보완

본 조사에 참여하는 패널 어머니들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패널 학생들도 중학교 진학에 따라 사교육(학원 등)으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귀가 시간이 늦어져 저녁 시간대에 조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사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손전등을 추가로 구입하고, 호루라기를 제공하였다.



【그림 Ⅲ-11】 조사 물품(손전등 및 호루라기)

⑱ 조사원 모니터링 진행 및 결과 반영

2013년 본조사 이후 1차 전화관리조사 시 조사원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하여, 패널 가구로부터 각 담당 조사원에 대한 만족도, 친밀도, 개선 의견 등을 조사하였고, 개선 의견에 대하여 조사원 교육 시 내용을 전달하고, 패널 가구의 조사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⑲ 조사원 간담회 실시

올해에는 조사 전반 및 패널 관리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집하고자, 제주를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등 총 6개 실사지점에서 조사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를 통하여 조사원들이 실사시 겪는 어려움이나 향후 응답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III-14 조사원 간담회

장소	일시	참여 조사원 수(명)	비고
서울	2014. 06. 11(수)	13	-
부산	2014. 06. 12(목)	11	-
대구	2014. 06. 13(금)	12	-
대전	2014. 06. 16(월)	7	-
광주	2014. 06. 18(수)	13	-
강원	2014. 06. 19(목)	5	-

조사원들은 대부분 본 연구의 초기 조사부터 지속적으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조사원들로서 종단조사의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실사과정 및 방법, 답례품, 패널유지방안, 본 패널에 대한 조사참여자들의 태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우선 실사과정 및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패널들이 장기간 조사를 함으로 인하여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이 점차 지루해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또한 사춘기가 되어 키나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여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표 III-15 실사 방법

질문내용	조사원 의견
접촉방법	▶ 어머니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고 난 후 통화
어머니의 협조도	▶ 시 크기, 소득 수준, 학력 등의 특성에 따라 패널별로 차이가 있음 - 시골일수록 협조도가 높은 편 - 교육수준이 높은 일본 어머니들은 협조도가 낮은 편 ▶ 출신국마다 어머니의 가치관, 성격 등이 다름
학생들의 협조도	▶ 성의 있게 하는 편이나 다소 지루해함 ▶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뒷부분으로 갈수록 거부 반응이 심함 ▶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유심히 체크해야 함(그냥 찌고 넘어가진 않는지) ▶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는 민감해하는 경우가 많음. 따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재고 작성하여 주는 아이들도 있음
가구조사의 어려움	▶ 연락이 안되거나 만나기 힘들고, 밤늦게 조사가 많다는 점
친밀도 수준	▶ 1차년도 초기에 비해 점차 친밀도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는 훨씬 친밀도가 높아진 상태임
어머니 외 다른 가족의 반응	▶ 가구에 따라 다름 - 남편의 경계심이 점점 커지는 경우 - 남편 몰래 진행하는 경우 - 남편을 통해 약속을 잡는 경우 - 시어머니의 경계심이 큰 경우 등

표 III-15 실사 방법 (계속)

질문내용	조사원 의견
하루 당 조사완료 건수	▶ 평일에는 하루 1가구도 힘든 편이며, 주말에는 최대 2~3가구 정도 가능함(시간대는 주로 저녁)
1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사례 수 및 이유	▶ 2번씩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설문 문항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어머니 진행 중 학생이 나가 버리는 경우(학원, 친구 약속 등) - 패널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
조사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 언제까지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질문 ▶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질문(직접적인 혜택을 기대) ▶ 질문에서 응답한 지원을 실제로 해주는지에 대해 질문(희망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물어보는 문항 관련) ▶ 남편이 경계하는 가정의 경우 조사 결과가 어떻게 쓰이는지, 왜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물어보는지에 대해 질문
조사결과에 대한 반응	▶ 조사 결과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 결과보다는 혜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은 편
가구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의 접촉방안	▶ 방문 시도 ▶ 학생 친구를 통해 연락(다문화 패널끼리 친구인 경우) ▶ 주변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또는 직장을 통해 파악 시도 ▶ 어머니들 네트워크를 통해 연락(극소수) ▶ 학교를 통해 연락처 파악 시도(선생님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임) ▶ 마을 이장님 통해 파악
거절 시 대처방안	▶ 거절 사유 : ‘똑같은 걸 왜 또 조사를 하는지?’, ‘귀찮아서’, ‘학생이 싫어해서’ ▶ 시험기간 피해서 가고자 함(어머니가 학생 공부에 방해될까봐 예민해 하심) ▶ 설득을 진행하지만, 한 번 이탈 의사를 밝힌 가구가 쉽게 마음을 바꾸지는 않음
거절가구의 특성	▶ 아버지가 반대하는 가구 ▶ 다문화 가족을 일반가구와 분리해서 보는 것에 민감한 경우 ▶ 소득이 높은 가구 ▶ 가정 형편이 매우 안 좋은 가구 ▶ 의심(경계심)이 많은 어머니 ▶ 학력이 높은 어머니
이탈예상가구의 특성	▶ 연락이 안 되는 가구(이사) ▶ 전화를 자주한다고 싫어하는 가구 ▶ 집에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가구 ▶ 어머니 가출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 가구 ▶ 학생이 타 지역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가구

본 조사에서 제공하는 답례품과 명절선물의 효과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패널들의 반응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답례품이 적다고 생각되어 향후 패널들에 대한 답례품의 단가를 올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비해 명절에 제공하는 선물은 매우 효과가 커서 패널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선물을 보내기 위하여 전화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에 자연스럽게 패널관리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원이 직접 들고 가는 것이 아니어서 본 조사 때문에 주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사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명절에 선물을 직접 조사원이 배달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조사원의 사진을 선물에 붙여서 제공함으로써 선물을 제공하는 조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조사원이 직접 들고 가는 경우 선물 자체의 부피가 크고 무거워서 조사원들에게 무리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 조사원에게 일당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그보다는 기존과 같이 우편으로 보내되, 조사원의 사진과 감사의 카드를 동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표 III -16 답례품 및 명절선물에 대한 반응

질문내용	조사원 의견
답례품에 대한 반응	▶ 학생들이 따로 받아 좋아하지만, 중학생에게는 금액이 너무 적음 ▶ 같은 종류의 상품권으로 총 2만원을 주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음 ▶ 마트를 가지 않는 가구는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경우가 있었음
답례품에 대한 의견	▶ 가구 답례품 약소함(금액을 늘려야 함) ▶ 교사 답례품 의견 : 슬리퍼(실내용), 닥스 양말, USB
명절 선물에 대한 반응	▶ 패널 유지에 도움이 됨(가구에서 고마워 함) ▶ 선물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사원 이름/연락처 붙여주면 좋을 것 ▶ 조사원이 직접 가구에 방문하여 전달해주면 보다 더 큰 효과 있을 것 (기억할 수 있음) ▶ 선물 보낸 뒤 담당 조사원이 직접 연락하도록 하면 좋을 것(새해 인사)

교사대상 조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조는 잘 해주지만 만나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만나는 것이 힘들다는 의견이었다.

표 III -17 교사조사

질문내용	조사원 의견
교사 협조도	▶ 협조는 잘 해주시는 편임(간혹, 다문화와 관련한 지원이 너무 많다는 것에 부정적인 분들이 있음)
교사조사의 어려움	▶ 만나기가 매우 힘든 편임 - 여유 시간이 20-30분 정도 밖에 없어 시간 맞추기가 어려움 - 약속시간에 맞추어 갔는데, 갑자기 회의가 생겨 진행을 못함

그 외에 패널유지를 위한 의견을 받았을 때, 조사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전년도 조사결과를 브로셔 형태로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으나 그보다 좀 더 자세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고, 설문지의 분량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조사시점을 앞당길 필요성, 답례품 증액, 경조사비 지원 등이 패널유지를 위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현재의 조사는 CAPI로 진행되고 있는데 설문지와 달리 얼마나 남았는지 조사대상자가 알기 어려워서 지켜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매 페이지마다 설문진행율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면 덜 지켜워 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III -18 패널유지방안 관련 내용

질문내용	조사원 의견
설문이해도	▶ (학부모)이중부정문을 헛갈려 함 ▶ (학부모)특정 단어, 용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예. 동질감, 갈등) ▶ (학부모)설명을 해주면 이해하고 응답 가능한 수준임
조사 결과 책자 제공	▶ 조사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책자 제공(활용 가능한 지원 정책이 정리된 내용 포함) ▶ 3개월/6개월에 한 번씩 조사 결과 보내기
조사 기간 조정	▶ 조사 시작 시점을 앞당겨 6월 초~중순까지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현재 일정은 학생들의 시험기간과 겹침) ▶ 방학 기간에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음(학기 중엔 학생들이 바쁨)
CAPI 구성 변경 및 PAPI 도입	▶ 어머니 CAPI로 진행하는 동안 학생을 PAPI(종이조사표)로 진행하면, 가구당 소요 시간이 감소하여 패널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집에 오래 머물게 되어 눈치가 보이고, 학생들을 잡아두기 힘들 ▶ 설문지 양을 줄이거나, CAPI 구성을 덜 지루하게 변경 - 진행률 표시 - 항목이 많은 척도문항은 문항 번호를 나누거나 사이에 다른 질문이 나오도록 함
답례품 증액 및 경조사비 지원	▶ 답례품 증액 필요 ▶ 경조사비 지원(예. 입학 선물, 이사 집들이 선물 등)

패널조사를 할 때 학부모와 청소년은 서로 따로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이 어머니가 보는 것을 싫어해서 더욱 따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 패널의 경우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기관인 줄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이유로 조사원들이 기초생활수급신청 방법을 알아봐주거나 등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인 패널과의 또 다른 차이는 조사대상자들이 매우 예민하고, 다문화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봐 매우 걱정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향후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문화패널이라는 말을 드러내지 않는 등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III-19 패널에 대한 조사원 태도 및 의견

질문내용	조사원 의견
조사원의 태도	▶ 설문 작성시 같이 읽어주면서 진행하거나 체크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진행
조사진행 방법	▶ 설문을 진행할 때 가구에 따라 다르나, 학부모, 학생 따로 진행하는 편 (학생이 어머니가 보는 것을 싫어함)
패널가구의 도움 요청시 대처방법	▶ 외국에 가는 경비 지원, 교복 구매 지원 가능한지 문의 받기도 함(도움 주는 기관인 줄 아는 경우 있음) ▶ 기초 생활 수급 신청 방법 등 행정적인 절차 알아봐준 적 있음 ▶ 금전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 알아봐준다고 하면 기대를 하게 되므로, 그러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함
다문화패널 진행의 어려움	▶ 어머니, 학생 세트 조사라 시간 맞추기 힘들고, 오래 걸린다는 점 ▶ 다른 패널에 비해 경계심이 많고 예민하다는 점 ▶ 가정환경이 바뀌었을까봐(예, 어머니 가출, 이혼 등) 연락할 때 조심스러움 ▶ '다문화' 라는 말을 싫어함 ▶ 어머니들이 일을 많이 하여 특정 시간 외에는 만나기가 특히 힘들

(2) 향후 관리방안

조사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반영하기에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차년도 조사시 적용하고자 한다.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 외에 차년도 반영을 고려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향후 패널 가구에 선물 제공 시 조사원 정보 함께 발송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기관 및 조사 수행 기관명으로 발송되었을 경우, 실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본조사 참여로 인해 받은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선물 발송 시에는 담당 조사원의 이름, 사진 등이 담긴 정보를 함께 보내어, 조사원 방문 시 패널 가구의 협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리플렛 내용 보완

일부 패널 중 조사의 결과가 어디에 도움이 되며,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또한,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리플렛에 조사 결과와 활용방안을 보완하고, 실제 활용가능한 기관 및 프로그램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표 III-20 시/도별 이사 현황

시/도	가구수	이사 가구수	이사율(%)
서울	143	28	19.6
부산	58	7	12.1
대구	31	6	19.4
인천	59	9	15.3
광주	28	1	3.6
대전	15	3	20.0
울산	27	1	3.7
경기	304	36	11.8
강원	82	5	6.1
충북	59	7	11.9
충남	103	13	12.6
전북	99	11	11.1
전남	149	10	6.7
경북	96	12	12.5
경남	106	9	8.5
제주	12	4	33.3
합계	1,371	162	11.8

주) 시/도 구분은 2013년 조사 기준임

표 III -21 시/도별 세부 이사 현황

시/도 구분	이사 후																총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 사 전	서울	28															28
	부산		7														7
	대구			6													6
	인천				9												9
	광주					1											1
	대전						3										3
	울산							1									1
	경기				1				34		1						36
	강원									4			1				5
	충북										7						7
	충남											13					13
	전북												11				11
	전남													10			10
	경북														12		12
	경남												1			8	9
	제주															4	4
총합계	28	7	6	10	1	3	1	34	4	7	14	11	12	12	8	4	162

3) 이탈 패널 분석

(1)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

전체 가구 기준 이탈률은 15.6%로 나타났는데, 지역별 이탈률을 살펴보면, 제주(5가구, 33.3%), 대전(8가구, 33.3%), 광주(13가구, 31.0%) 등의 순으로 이탈률이 높은 반면, 경북의 이탈률(6가구, 5.9%)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유지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시/도별 가구수 대비	
서울	179	37	14.6	20.7	79.3
부산	74	13	5.1	17.6	82.4
대구	42	10	3.9	23.8	76.2
인천	67	12	4.7	17.9	82.1
광주	42	13	5.1	31.0	69.0
대전	24	8	3.1	33.3	66.7
울산	31	4	1.6	12.9	87.1
경기	383	79	31.1	20.6	79.4
강원	90	8	3.1	8.9	91.1
충북	74	15	5.9	20.3	79.7
충남	117	10	3.9	8.5	91.5
전북	108	9	3.5	8.3	91.7
전남	160	12	4.7	7.5	92.5
경북	101	6	2.4	5.9	94.1
경남	118	13	5.1	11.0	89.0
제주	15	5	2.0	33.3	66.7
합계	1,625	254	100.0	15.6	84.4

주1) 구축 패널 가구수는 2011년 조사 기준이므로 2014년 조사결과와 상이할 수 있음

주2) 시/도 구분은 2011년 구축 시, 시/도 기준임

(2) 이탈 패널의 원인

2014년도 이탈가구의 이탈 사유를 분석한 결과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음’이 2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유학, 이민’(15.7%), ‘바쁨’(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타 패널조사와 이탈 사유를 비교해 보면, 유학, 이민 등으로 인한 이탈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패널만의 이탈 특성을 보였다. 참고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3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의 13차년도 당해 이탈한 가구들의 이탈 사유를 보면 ‘강력 거절’이 42.0%로 가장 많고, ‘이사/추적불가’(37.1%), ‘접촉 안 됨’(18.8%)의 순으로 나타났고 해외 체류중, 이민, 병환 등을 포함한 기타는 2.1% 수준으로 나타나 다문화패널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탈 사유			가구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음	68	26.8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40	15.7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바쁨	20	7.9
		아빠가 반대함	15	5.9
		약속 후 연락피함/거절	12	4.7
		귀찮고 싫음	6	2.4
		이미 거절 의사 밝혔다함	6	2.4
		개인적인 일 말하는 것 싫음	3	1.2
		의무 아니면 하기 싫음	4	1.6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음	12	4.7
		도움 되는지 모르겠고 하기 싫음	5	2.0
		찾아오는 것 싫음	2	0.8
		다문화관련 조사 참여하기 싫음	2	0.8
		약속 피하여 방문·설득했으나 강력거절	2	0.8
		지난 번에도 학교요청으로 겨우 했다고 함	1	0.4
		혜택도 없고, 시간도 없음	1	0.4
		어머니가 거절하여 아버님께 협조 구했으나 바쁘고 집안 사정 있다며 거절	1	0.4
		이사 후 주소지 안 알려주고 연락 피함	3	1.2
		강력 거절	9	3.5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개인사정으로 거절	10	3.9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6	2.4
		남편 사망 후 거절	3	1.2
		학생이 하기 싫어함	13	5.1
		가출했다고 함	1	0.4
		학생이 친엄마에게 감(친엄마 조사 거절)	1	0.4
		어머니 가출 후 타가구원 거절	4	1.6
		아이들이 시설에 가 있음	1	0.4
		가족 간병으로 바쁨	1	0.4
		학생의 사정으로 진행 불가(기숙사, 체육부 등)	1	0.4
기타	기타	기타	1	0.4
-	-	-	254	100

(3) 이탈 가구 특성 분석

① 어머니 출신국가별 이탈율

이탈가구의 특성을 다양한 변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우선 첫째로 어머니 출신국가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본 결과 비율로 보자면 카자흐스탄이 42.9%로 가장 높았으나 이는 탈락률이 높다가 보다는 표본 자체가 7명밖에 되지 않아서 한 명의 탈락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이고 주로 한국과 중국 대만, 몽골 등의 어머니들의 이탈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출신국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출신국가별 가구수 대비
한국	67	18	7.1	26.9
중국(한족, 기타민족)	125	30	11.8	24.0
중국(조선족)	319	64	25.2	20.1
베트남	42	8	3.1	19.0
필리핀	400	55	21.7	13.8
일본	525	58	22.8	11.0
대만	7	2	0.8	28.6
몽골	8	2	0.8	25.0
태국	56	3	1.2	5.4
캄보디아	3	—	—	—
우즈베키스탄	12	2	0.8	16.7
러시아	17	5	2.0	29.4
인도네시아	9	2	0.8	22.2
카자흐스탄	7	3	1.2	42.9
말레이시아	2	—	—	—
키르기스스탄	4	—	—	—
기타	22	2	0.8	9.1
합계	1,625	254	100.0	15.6

표 III-25 어머니 출신국가별 패널 이탈 현황(2014년 당해 신규 이탈)

출신국가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출신국가별 가구수 대비
한국	52	5	6.8	9.6
중국(한족, 기타민족)	101	7	9.5	6.9
중국(조선족)	272	20	27.0	7.4
베트남	37	3	4.1	8.1
필리핀	357	16	21.6	4.5
일본	484	19	25.7	3.9
대만	7	2	2.7	28.6
몽골	6	-	-	-
태국	53	-	-	-
캄보디아	3	-	-	-
우즈베키스탄	10	-	-	-
러시아	13	1	1.4	7.7
인도네시아	7	-	-	-
카자흐스탄	4	-	-	-
말레이시아	2	-	-	-
키르기스스탄	4	-	-	-
기타	21	1	1.4	4.8
합계	1,433	74	100.0	5.2

② 월 평균 가구소득별 이탈율

월 평균 소득분위별로 이탈 사유를 살펴보면,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이탈가구가 23가구로, 이탈률이 2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100만원 미만(18가구, 25.4%), 300-400만원 미만(54가구,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 시, 신규 이탈한 가구의 경우,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8가구가 이탈하여 이탈률이 12.1%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 이탈율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III-26 월 평균 가구 소득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월 평균 가구소득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소득별 가구수 대비
100만원 미만	71	18	7.1	25.4
100-200만원 미만	441	66	26.0	15.0
200-300만원 미만	574	78	30.7	13.6
300-400만원 미만	352	54	21.3	15.3
400-500만원 미만	99	13	5.1	13.1
500만원 이상	82	23	9.1	28.0
모름/무응답	6	2	0.8	33.3
합계	1,625	254	100.0	15.6

주) 2014년 응답 기준임. 단, 2014년 탈락 가구는 2013년 응답 기준, 2013년 탈락 가구는 2012년 응답 기준, 2012년 탈락 가구는 2011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로 인한

표 III-27 월 평균 가구 소득별 패널 이탈 현황(2014년 당해 신규 이탈)

월 평균 가구소득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소득별 가구수 대비
100만원 미만	57	5	6.8	8.8
100-200만원 미만	388	16	21.6	4.1
200-300만원 미만	515	23	31.1	4.5
300-400만원 미만	314	19	25.7	6.1
400-500만원 미만	87	1	1.4	1.1
500만원 이상	66	8	10.8	12.1
모름/무응답	6	2	2.7	33.3
합계	1,433	74	100.0	5.2

주) 2014년 응답 기준임. 단, 탈락 가구는 2013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로 인한

③ 가정형편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른 이탈율

가정형편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른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아주 잘 산다'고 응답한 가구의 경우, 4가구 중 2가구가 이탈하여 이탈률이 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조사 시, 신규 이탈한 가구의 경우, '잘 사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가구 중 7가구가 이탈하여 이탈률이 16.7%로 나타났다.

표 III-28 가정형편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른 패널 이탈 현황(전체)

본인 지각 가정형편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지각 가정형편별 가구수 대비
아주 어렵다	216	32	12.6	14.8
어려운 편이다	654	77	30.3	11.8
보통이다	695	126	49.6	18.1
잘사는 편이다	51	16	6.3	31.4
아주 잘 산다	4	2	0.8	50.0
모름/무응답	5	1	0.4	20.0
합계	1,625	254	100.0	15.6

주) 2014년 응답 기준임. 단, 2014년 탈락 가구는 2013년 응답 기준, 2013년 탈락 가구는 2012년 응답 기준, 2012년 탈락 가구는 2011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로 인함

표 III-29 가정형편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른 패널 이탈 현황(2014년 당해 신규 이탈)

본인 지각 가정형편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지각 가정형편별 가구수 대비
아주 어렵다	189	9	12.2	4.8
어려운 편이다	594	21	28.4	3.5
보통이다	601	36	48.6	6.0
잘사는 편이다	42	7	9.5	16.7
아주 잘 산다	2	—	—	—
모름/무응답	5	1	1.4	20.0
합계	1,433	74	100.0	5.2

주) 2014년 응답 기준임. 단, 탈락 가구는 2013년 응답 기준임. 모름/무응답은 어머니 조사 미참여(학생만 조사 참여)로 인함

④ 어머니 직업 유무에 따른 이탈율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이탈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들이 일을 하는 경우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Ⅲ-30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직업 여부별 가구수 대비
있다	638	111	43.7	17.4
없다	987	143	56.3	14.5
합계	1,625	254	100	15.6

주) 2014년 응답 기준임. 단, 2014년 탈락 가구는 2013년 응답 기준, 2013년 탈락 가구는 2012년 응답 기준, 2012년 탈락 가구는 2011년 응답 기준임

표 Ⅲ-31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이탈 현황((2014년 당해 신규 이탈)

어머니 직업 여부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직업 여부별 가구수 대비
있다	555	32	43.2	5.8
없다	878	42	56.8	4.8
합계	1,433	74	100.0	5.2

주) 2014년 응답 기준임. 단, 탈락 가구는 2013년 응답 기준임

⑤ 어머니 학력별

어머니 학력에 따른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인 경우 패널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대학원 석사과정이었던 가구중 7개 가구(38.9%)가 이탈하였고, 대학원 박사과정이었던 가구 중에서는 2가구(33.3%)가 이탈하였다. 이 역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패널 이탈율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III-32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 현황

어머니 학력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학력별 가구수 대비
안 받았음	1	—	—	—
초등학교	30	4	1.6	13.3
중학교	132	22	8.7	16.7
고등학교	697	116	45.7	16.6
대학교(4년제 미만)	458	55	21.7	12.0
대학교(4년제 이상)	283	48	18.9	17.0
대학원 석사과정	18	7	2.8	38.9
대학원 박사과정	6	2	0.8	33.3
합계	1,625	254	100.0	15.6

주) 2014년 응답 기준임. 단, 2014년 탈락 가구는 2013년 응답 기준, 2013년 탈락 가구는 2012년 응답 기준, 2012년 탈락 가구는 2011년 응답 기준임

표 III-33 어머니 학력별 패널 이탈 현황(2014년 당해 신규 이탈)

어머니 학력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어머니 학력별 가구수 대비
안 받았음	1	—	—	—
초등학교	26	1	1.4	3.8
중학교	114	6	8.1	5.3
고등학교	606	30	40.5	5.0
대학교(4년제 미만)	417	18	24.3	4.3
대학교(4년제 이상)	250	15	20.3	6.0
대학원 석사과정	14	3	4.1	21.4
대학원 박사과정	5	1	1.4	20.0
합계	1,433	74	100.0	5.2

주) 2014년 응답 기준임. 단, 탈락 가구는 2013년 응답 기준임

(4) 조사원별 이탈 가구 분포

조사의 이탈율에 조사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조사원의 패널들이 이탈의 경향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다.

표 III-34 조사원별 이탈 현황

실사지점	조사원 id	담당 가구수	유지 가구수	이탈 가구수	유지율
서울	G0001	39	37	2	94.9
서울	G0003	22	21	1	95.5
서울	G0004	35	33	2	94.3
서울	G0006	29	27	2	93.1
서울	G0007	35	30	5	85.7
서울	G0008	40	40	—	100.0
서울	G0010	17	16	1	94.1
서울	G0011	9	8	1	88.9
서울	G0012	55	51	4	92.7
서울	G0013	26	25	1	96.2
서울	G0014	8	7	1	87.5
서울	G0015	33	30	3	90.9
서울	G0016	22	17	5	77.3
서울	G0019	49	47	2	95.9
서울	G0020	20	20	—	100.0
서울	G0021	25	20	5	80.0
서울	G0023	44	43	1	97.7
서울	G0024	29	27	2	93.1
부산	G0025	20	19	1	95.0
부산	G0026	6	6	—	100.0
부산	G0027	8	8	—	100.0
부산	G0029	25	23	2	92.0
부산	G0032	7	7	—	100.0
부산	G0033	16	16	—	100.0
부산	G0035	16	16	—	100.0
부산	G0036	18	17	1	94.4
부산	G0037	16	14	2	87.5
부산	G0040	15	15	—	100.0
부산	G0041	7	6	1	85.7
부산	G0044	5	5	—	100.0
부산	G0045	9	9	—	100.0
부산	G0046	16	14	2	87.5
대구	G0049	22	21	1	95.5
대구	G0050	11	10	1	90.9
대구	G0051	5	5	—	100.0
대구	G0052	7	6	1	85.7
대구	G0053	20	19	1	95.0
대구	G0054	7	7	—	100.0
대구	G0055	6	6	—	100.0
대구	G0058	6	6	—	100.0

표 III-34 조사원별 이탈 현황(계속)

실사지점	조사원 id	담당 가구수	유지 가구수	이탈 가구수	유지율
대구	G0059	6	5	1	83.3
대구	G0060	10	10	—	100.0
대구	G0061	22	20	2	90.9
광주	G0062	33	33	—	100.0
광주	G0063	15	15	—	100.0
광주	G0064	17	16	1	94.1
광주	G0065	10	10	—	100.0
광주	G0067	27	26	1	96.3
광주	G0069	23	21	2	91.3
광주	G0070	21	19	2	90.5
광주	G0071	31	31	—	100.0
광주	G0072	20	20	—	100.0
광주	G0073	4	3	1	75.0
광주	G0074	19	19	—	100.0
광주	G0075	22	22	—	100.0
광주	G0076	23	22	1	95.7
대전	G0077	18	15	3	83.3
대전	G0078	27	27	—	100.0
대전	G0080	20	19	1	95.0
대전	G0081	17	17	—	100.0
대전	G0082	21	21	—	100.0
대전	G0083	21	20	1	95.2
대전	G0084	21	18	3	85.7
대전	G0085	17	15	2	88.2
강원	G0086	19	19	—	100.0
강원	G0087	6	6	—	100.0
강원	G0088	8	8	—	100.0
강원	G0089	21	21	—	100.0
강원	G0090	21	20	1	95.2
강원	G0091	7	7	—	100.0
제주	G0094	12	11	1	91.7
광주	G0095	19	19	—	100.0
부산	G0097	15	15	—	100.0
대구	G0098	12	12	—	100.0
대전	G0102	23	23	—	100.0
전체	—	1,433	1,359	74	94.8

주1) 조사원별 담당 가구수는 2013년에 조사에 참여한 가구 기준임

주2) 조사원별 유지 가구수는 2013년과 2014년 조사 모두에 참여한 가구 기준임(2014년 재참여 12가구 제외)

주3) 조사원별 이탈 가구수는 2014년 신규 탈락 기준임

5) 표본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 파악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본이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wide type⁴⁾ 데이터에 대해 연차별로 주요 응답 결과 및 참여 여부 변수로 데이터를 재구성하였다. 주요 응답 특성을 독립변수로, 2차년도부터 4차년도 사이의 응답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표본이탈 모형을 구성한다.

종속변수는 패널유지 및 패널이탈을 나타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35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적용된 변수 - 종속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형태	라벨	기존		recode	
				값	내용	값	내용
종속변수	y	nominal	조사참여여부	1	유지	0	참여
				2	탈락	1	미참여

설명변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I-36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이용된 독립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형태	라벨	기존		recode	
				값	내용	값	내용
독립 변수	x1	nominal	외국인 부모 출신 국가	1	한국	1	한국
				2	중국(한족, 기타민족)	2	중국(한족, 기타민족)
				3	중국(조선족)	3	중국(조선족)
				4	베트남	4	베트남
				5	필리핀	5	필리핀
				6	일본	6	일본
				7	대만	9	기타
				8	몽골	9	기타
				9	태국	7	태국
				10	캄보디아	9	기타
				11	방글라데시	9	기타
				12	파키스탄	9	기타
				13	우즈베키스탄	9	기타

4) 다문화가족 청소년 패널조사의 데이터는 그간 조사되어온 결과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조사 결과가 wide type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I -36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이용된 독립변수 (계속)

구분	변수명	변수형태	라벨	기존		recode	
				값	내용	값	내용
독립 변수				14	러시아	9	기타
				15	캐나다	9	기타
				16	인도	9	기타
				17	인도네시아	9	기타
				18	에콰도르	9	기타
				19	카자흐스탄	9	기타
				20	말레이시아	9	기타
				21	키르기스스탄	9	기타
				22	기타	9	기타
	q29	scale	월 평균 가구소득		open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q29_2	nominal	주관적 가정형편	1	아주 어렵다	1	어렵다
				2	어려운 편이다	1	어렵다
				3	보통이다	2	보통이다
				4	잘 사는 편이다	3	잘 산다
				5	아주 잘 산다	3	잘 산다
	sido	nominal	거주 시/도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age	scale	어머니 연령		open	1	39세 이하
						2	40대
						3	50대
						4	60대 이상

표 III-36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이용된 독립변수 (계속)

구분	변수명	변수형태	라벨	기존		recode	
				값	내용	값	내용
독립 변수	occ	nominal	직업 여부	1	있다		
				2	없다		
	q25	nominal	혼인상태	1	결혼	1	결혼/동거
				2	이혼	2	이혼/별거/사별
				3	별거	2	이혼/별거/사별
				4	사별	2	이혼/별거/사별
				5	동거	1	결혼/동거

로지스틱 모형 추정결과 패널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관적 가정형편, 거주 시/도, 어머니 연령대로 나타났다. 다음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이 패널이탈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승산비(Exp(B))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표 III-37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패널이탈에 영향을 주는 특성

Parameter	β	S.E.	Wald Chi-Square	자유도	유의확률	Standardized β	Exp(B)
q29_2	0.4042	0.1247	10.5122	1	0.0012	0.1257	1.498
side 2 vs 1	-0.5787	0.3815	2.3004	1	0.1293	-0.0646	0.561
side 3 vs 1	0.1433	0.4346	0.1086	1	0.7417	0.0121	1.154
side 4 vs 1	-0.3265	0.3686	0.7843	1	0.3758	-0.0374	0.721
side 5 vs 1	0.3747	0.3999	0.8778	1	0.3488	0.0325	1.455
side 6 vs 1	0.5322	0.4948	1.1569	1	0.2821	0.0348	1.703
side 7 vs 1	-0.9055	0.5814	2.4261	1	0.1193	-0.0686	0.404
side 8 vs 1	-0.2326	0.2327	0.9988	1	0.3176	-0.0544	0.792
side 9 vs 1	-1.2862	0.443	8.4278	1	0.0037	-0.1611	0.276
side 10 vs 1	-0.0696	0.3537	0.0388	1	0.8439	-0.00799	0.933
side 11 vs 1	-1.2594	0.3887	10.5	1	0.0012	-0.1781	0.284
side 12 vs 1	-1.1854	0.4024	8.6799	1	0.0032	-0.1627	0.306
side 13 vs 1	-1.2565	0.3583	12.2977	1	0.0005	-0.2072	0.285
side 14 vs 1	-1.4398	0.4403	10.6927	1	0.0011	-0.1933	0.237
side 15 vs 1	-1.0023	0.3577	7.849	1	0.0051	-0.1428	0.367
side 16 vs 1	-0.0356	0.5844	0.0037	1	0.9514	-0.002	0.965
age	-0.9628	0.1307	54.2271	1	0.0001	-0.3135	0.382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각 변인별 확률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주관적으로 가정 형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패널이탈 확률은 1.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광역시 지역의 탈락률이 도 지역에 비해 패널이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지역별 패널이탈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전반적인 차이는 서울지역과 다른 지역의 차이인데, 서울보다 강원(0.3배), 충남(0.3배), 전북(0.3배), 전남(0.3배), 경북(0.2배), 경남(0.4배) 지역의 패널이탈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패널이탈 확률이 0.4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해에 유지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6. 통계품질진단

1) 통계 품질진단의 개요

(1) 품질진단의 의미

통계품질진단은 통계가 ‘이용자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과정으로 6가지 차원의 품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각 차원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통계청, 2014).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는 기준은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timeliness)/정시성(punctuality), 비교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 접근성(accessibility)/명확성(clarity) 등 총 6가지로 각 차원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차원	개념	향상 방안
관련성 (relevance)	- 통계자료가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 - 통계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	- 목적 명확히 설정 - 이용자 파악, 전문가 자문회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이용자의 요구 파악
정확성 (accuracy)	-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얼마나 근사하게 측정했는가의 정도 - 표본오차의 크기, 비표본오차의 정도 및 잠정치/확정치간의 차이 등의 검토를 통하여 파악	표본오차의 크기, 비표본오차의 정도 및 잠정치/확정치 간의 차이 검토
시의성(timeliness) /정시성(punctuality)	-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 -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의 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	- 사전예고제의 실시 - 사전공표일정 준수
비교성 (comparability)	-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한 정도 - 특정 통계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또는 다른 연도의 자료와 비교가 가능한 정도	- 국제적인 기준 및 분류, 평가방법 고려 - 작성주기가 부정적이거나 장기적인 경우 담당자의 변동이나 환경변화로 조사의 개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
일관성 (coherence)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의 유사한 정도	정확한 조사
접근성(accessibility) /명확성(clarity)	-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 -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수준	-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 및 보도 자료 홈페이지 게시, SMS로 속보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제공 -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 추가 - 통계작성과정, 자료이용방법,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통계 이용 상의 조건 등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 2014년 국가통계품질관리 매뉴얼, p.10-11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임.

(2) 품질진단의 필요성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는 2013년 4월 18일자로 통계작성승인이 이루어진 조사로(승인번호 제 40203호) 2010년 예비조사로 시작하여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총 4년간 1년 주기로 생산되는

조사통계이다. 본 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4조(실태조사 등)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1년 1차년도 조사 당시 1,625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이 구축되었고 2013년에는 그 중 1,432가구의 전국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1,445명과 그들의 어머니 1,41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통계청에서는 작성통계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국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품질진단을 하고 있는데, 본 조사의 경우 작성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아서 품질진단의 기준에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품질진단을 받을 경우 잘 관리되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 파악하게 되고, 양질의 통계를 생산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였다.

(3) 품질진단의 방법

본 조사가 진단대상 통계로 선정 된 후 품질관리기반, 수집자료의 정확성, 이용자 요구사항반영 실태,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등 5개 부문의 품질진단을 실시하였고 부문별로 품질의 수준을 진단 받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통계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하였다.

2) 품질진단 결과

품질진단은 위에서 제시한 총 5개 부분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각 부문에 대한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 기반 진단

본 조사의 경우 관련예산과 자원 등 물적기반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통계작성 전담연구직이 2명밖에 되지 않고, 그 중 한 명만이 정규직이며, 나머지 한 명은 통계교육 참여 경험이 전무 한 등 인적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진단받았다. 또한 조직관리의 실태 및 통계담당자의 인식 평가는 각각 40점과 38점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통계담당자가 본 통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고 전문성 또한 높으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통계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매우 적극적으로 품질진단에 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용자의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데이터가 공개되고 이를 사용해 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단해야 하는 것이 적합한 절차이나 본 연구의 경우 마이크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생산된 데이터로 간주하고 심층면담을 실시함으로써 다소 맞지 않는 기준의 적용이었다. 따라서 심층면접에서 나온 의견들 역시 적절치 않는 것들이 다수 있었으나, 그 중 본 조사의 패널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고 향후 고등학교로 진학할 것을 대비하여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14년 조사에 학업중단청소년 조사를 반영하였다.

(3)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

본 조사의 경우 세부 작성절차별로 품질을 진단한 결과 통계품질지표의 측정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한 전체 평점이 90.1점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진단되었다.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데이터 입력에 활용되는 시스템 및 매뉴얼이 잘 구비되어 있고, 통계품질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있어 '자료입력 및 처리' 및 '사후관리'가 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문서화 및 자료제공'은 3.9점으로 마이크로데이터 미제공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미링크 등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진단되었다.

표 III-39 세부작성절차별 진단결과

절차	통계작성 기획	통계 설계	자료 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관리	평점
5점척도	4.6	4.8	4.5	5.0	4.2	3.9	5.0	4.5
가중치적용	14.1	17.0	14.6	11.4	12.6	11.3	9.0	90.1

품질차원별 진단결과를 보면 6개의 품질차원 중 관련성(4.2)과 정확성(4.6), 접근성(3.7)을 제외한 시의성, 비교성, 일관성이 모두 5.0점으로 우수한 수준이고 평점은 4.5점이었다. 이는

아직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아직 관련 내부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이용자를 위한 자료이용 방법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마이크로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생각된다.

표 III-40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품질차원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	평점
5점척도	4.2	4.6	5.0	5.0	5.0	3.7	4.5

(4) 수집자료의 정확성 진단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문제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위탁기관 실사총괄 및 관리·진행자, 전산처리자 등 총 5인과 조사원 4인(서울, 경기, 충남, 대전), 응답자 2인(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대상 어머니 1인, 학생 1인) 등 총 11인을 대상으로 자료수집방법, 현장점검 및 관리체계, 조사원 관리, 응답자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받았다. 점검 결과 충분한 실사기간 확보가 필요하고, 응답자가 조사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진행률을 막대로 표시해주면 좋겠다는 의견, 답례품과 관련하여 지급방식 개선하면 좋겠다는 의견(어머니와 학생의 상품권 종류 통일 고려 등)이 있었고, 매년 전년도 결과를 리플렛에 담아서 홍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5) 통계자료서비스 진단

통계자료 서비스 진단과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데이터가 공개되었을 때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보고서에 제시한 그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차이를 크게 한 부분에 대해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올 해부터는 0을 최소값으로 하여 그림을 제시하였고, 부득이하게 간격을 극대화해야 할 때는 그림 아래에 설명을 달아서 최대한 독자의 오해가 없도록 하였다.

3) 개선방안

품질진단 결과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III -41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요약

단계	개선과제	실행방법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단기	이용자의 자료이용 편의성 제고	- 이용자를 위한 일러두기 추가 및 표본 상세정보제시 - 정확한 통계표와 그림제시 - 연구원 홈페이지와 국가 통계 포털사이트 링크	- 자료활용성 제고 - 이용자 접근성 강화	없음
	패널분석으로서의 적용방법 마련	-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제시	- 패널분석에 맞는 분석 방법의 적용으로서 정확한 결론도출 가능	없음
	자료수집 및 조사의 신뢰성 증진	- 조사위탁기관에 별도의 민간 위탁지침 제공 - 충분한 조사수행 기간 확보 - 자녀, 어머니 조사 분리 진행 - 조사 진행상황 파악이 가능한 CAPI 기능 추가	- 충분한 조사수행기간 확보로 조사의 신뢰성 증진 - 조사과정의 보완점 진단을 통한 자료수집의 정확성 향상	없음
중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 제고	통계전문 인력 확보
	조사문항 축소·조정	-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사항목 삭제 및 일부 추가	- 전체문항 조정 및 대폭 축소를 통한 조사기간 단축	없음
장기	다문화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실태 파악	- 패널 존속기간 연장(현행 Wave 7 (2017: 고1)→ Wave 10(2020: 대1)로 3개년 연장)	- 성인기 이행과정(school to work)실태파악을 통한 중단분석의 효과성 증진 - 정책활용도 제고	추가조사 3개년에 대한 예산확보

※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4정기 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통계청c, 2014), p.10

제 IV 장

4년간 종단 변화 추이

1. 조사대상자 특성별 분포
2. 다문화청소년의 4년간 변화추이 비교
3. 요약 및 소결

제 IV 장

4년간 종단 변화 추이⁵⁾

1. 조사대상자 특성별 분포

1)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

본 패널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2011년도 조사 이래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14년의 경우 남자가 676명, 여자가 708명이었다.

표 IV-1 조사대상 청소년의 수

(단위: 명)

성별 \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남	805	742	707	676
여	830	760	738	708
합계	1,635	1,502	1,445	1,384

※ 이 표는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로, 쌍둥이가 있는 가구가 포함되어 패널 유지율 설명에서 제시한 가구기준의 분포와는 차이가 있음.

2)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2011-2014)

조사대상 청소년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4년 기준으로 경기지역 청소년들이 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남(10.9%), 서울(10.5%), 경남(7.7%), 충남(7.5%) 등의 순이었다.

5) 4장은 양계민이 작성함.

표 IV-2 조사대상 청소년의 지역별 분포

빈도(%)

지역 \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	182(11.1)	157(10.5)	150(10.4)	146(10.5)
부산	74(4.5)	67(4.5)	60(4.2)	58(4.2)
대구	42(2.6)	37(2.5)	34(2.4)	31(2.2)
인천	68(4.2)	64(4.3)	63(4.4)	61(4.4)
광주	42(2.6)	35(2.3)	30(2.1)	29(2.1)
대전	25(1.5)	20(1.3)	18(1.2)	16(1.2)
울산	31(1.9)	30(2.0)	30(2.1)	27(2.0)
경기	384(23.5)	347(23.1)	330(22.8)	304(22.0)
강원	90(5.5)	85(5.7)	83(5.7)	81(5.9)
충북	75(4.6)	65(4.3)	61(4.2)	60(4.3)
충남	117(7.2)	109(7.3)	107(7.4)	104(7.5)
전북	108(6.6)	102(6.8)	100(6.9)	100(7.2)
전남	160(9.8)	153(10.2)	153(10.6)	151(10.9)
경북	102(6.2)	102(6.8)	101(7.0)	97(7.0)
경남	120(7.3)	116(7.7)	113(7.8)	107(7.7)
제주	15(.9)	13(.9)	12(.8)	12(.9)
합계	1,635(100)	1,502(100)	1,445(100)	1,384(100)

3) 조사대상자의 어머니 출신국별 분포(2011-2014)

조사대상 청소년의 어머니들의 출신국별 분포를 보면 일본출신이 전체의 3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필리핀(25.1%), 중국조선족(18.8%), 중국(6.9%), 태국(3.8%), 한국(3.7%), 베트남(2.5%) 등의 순이었다⁶⁾. 그 외 나머지 국가는 대부분 2% 미만이었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어머니 출신국별 분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패널탈락에 체계적인 요인이 개입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6) 조사대상 어머니의 분포가 2014년 현재 안전행정부 통계의 이주민자녀의 부모출신국 분포와 달라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 연구는 2011년도 패널구축 당시 교육부의 2011년도 다문화가정학생 현황을 표집틀로 활용하였기에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의 수가 포함된 안전행정부의 통계와는 맞지 않음을 알려둔다.

표 IV-3 어머니의 출신국 분포

빈도(%)

출신국 \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국	69(4.2)	57(3.8)	54(3.7)	51(3.7)
중국(한족, 기타민족)	126(7.7)	111(7.4)	102(7.1)	95(6.9)
중국(조선족)	322(19.7)	287(19.1)	276(19.1)	260(18.8)
베트남	42(2.6)	36(2.4)	37(2.6)	34(2.5)
필리핀	401(24.5)	377(25.1)	359(24.8)	347(25.1)
일본	528(32.3)	502(33.4)	488(33.8)	471(34.0)
대만	7(.4)	7(.5)	6(.4)	5(.4)
몽골	8(.5)	5(.3)	6(.4)	6(.4)
태국	56(3.4)	54(3.6)	53(3.7)	53(3.8)
캄보디아	3(.2)	3(.2)	3(.2)	3(.2)
우즈베키스탄	12(.7)	10(.7)	10(.7)	10(.7)
러시아	17(1.0)	13(.9)	13(.9)	12(.9)
인도네시아	9(.6)	8(.5)	7(.5)	7(.5)
카자흐스탄	7(.4)	5(.3)	4(.3)	4(.3)
말레이시아	2(.1)	2(.1)	2(.1)	2(.1)
키르기스스탄	4(.2)	4(.3)	4(.3)	4(.3)
기타	22(1.3)	21(1.4)	21(1.5)	20(1.4)
합계	1,635(100)	1,502(100)	1,445(100)	1,384(100)

4) 조사대상자의 아버지 출신국별 분포(2011-2014)

아버지의 출신국은 거의 대다수가 한국(96.0%)으로 각 국가별로 10명 이하, 또는 1~2명 정도밖에 없으나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꾸준히 1.3%를 유지하고 있다. 아버지 출신국 비율 역시 2011년 이래로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고, 어머니의 출신국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패널탈락률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IV-4 아버지의 출신국 분포

빈도(%)

출신국 \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한국	1,476(95.4)	1,366(95.9)	1,322(96.0)	1,267(96.0)
중국(한족, 기타민족)	5(.3)	3(.2)	3(.2)	3(.2)
중국(조선족)	1(.1)	1(.1)	1(.1)	1(.1)
베트남	2(.1)	2(.1)	2(.1)	2(.2)
필리핀	4(.3)	5(.4)	5(.4)	5(.4)
일본	22(1.4)	18(1.3)	18(1.3)	17(1.3)
대만	6(.4)	4(.3)	3(.2)	3(.2)
태국	—	—	—	1(.1)
방글라데시	1(.1)	1(.1)	1(.1)	1(.1)
파키스탄	7(.5)	7(.5)	6(.4)	5(.4)
우즈베키스탄	1(.1)	—	—	—
캐나다	3(.2)	2(.1)	2(.1)	1(.1)
인도	3(.2)	2(.1)	2(.1)	2(.2)
인도네시아	1(.1)	1(.1)	1(.1)	1(.1)
기타	15(1.0)	12(.8)	11(.8)	11(.8)
합계	1,547(100)	1,424(100)	1,377(100)	1,320(100)

※ 2011년도 기준 아버지가 비동거인 경우 정보가 없었고, 2012년도 부터는 탈락한 가구의 아버지의 수가 제외됨.

2. 다문화청소년의 4년간 변화추이 비교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의 총 3년간 변화를 추적하여 비교하였다. 2014년도에는 본 패널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학령기 이행이 청소년의 발달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고(Woolley & Grogan-Kaylor, 2006), 한국아동 청소년 패널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이희정, 조윤주, 2010)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까지의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났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가장 큰 폭으로 학교적응 수준이 떨어졌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에 근거하면 다문화청소년 역시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적응의 수준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자료 및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현상이 다문화패널에도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4년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비교의 대상은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1)가정요인, 2)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3)심리·사회적응 및 가치요인, 4)신체발달 및 건강요인으로 네 영역의 총 10개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IV-5 4년간 변화추이 비교의 영역

대영역	소영역	비교변인
1) 가정요인	(1) 가정환경	① 부모 결혼상태의 변화 ② 월평균 소득수준의 변화
	(2) 가족관계	①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② 부모 양육태도
2)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1) 학교생활	①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②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 ③ 학교생활적응: 학습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 ④ 학교성적수준 ⑤ 성적에 대한 만족도 ⑥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2) 성취 및 포부	① 성취동기 ② 학업적 포부
3) 심리·사회적응 및 정체성	(1) 심리적응	① 자아존중감 ② 자아탄력성 ④ 삶의 만족도 ③ 신체만족도 ⑤ 우울 ⑥ 사회적 위축
	(2) 사회적지지 및 네트워크	① 가족의지지 ② 교사의지지 ③ 친구의지지 ④ 친한 친구의 수 ⑤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⑥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3) 정체성	①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② 한국인정체성
	(4) 문화적응 및 다문화수용성	① 다문화수용성 ② 이중문화수용태도 ③ 문화적응스트레스
4)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1) 신체발달	① 키 ② 몸무게
	(2) 건강에 대한 인식	①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2013년도 분석의 틀과 동일하기에 양계민 등(2013)의 p.107에 제시된 표를 그대로 활용함.

1) 가정요인

(1) 가정환경

가정환경에서는 부모 결혼상태의 변화와 월평균 소득수준의 변화 등 두 개 변인을 중심으로 4년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① 부모 결혼상태

우선 부모의 결혼상태의 변화 추이를 2011년도부터 살펴보면 매우 큰 변화는 아니지만 아주 약간씩 이혼과 사별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당시 이혼가정의 수가 33가구였던 것에 비해 2012년도에 36가구(2.4%), 2013년도에도 36가구이지만 전체 응답자의 수가 줄어들어서 비율은 2.5%로 약간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39가구의 2.8%로 증가하였다. 또한 사별의 경우는 2011년과 2012년도의 32가구(2.0%), 2013년도의 35가구(2.5%), 2014년도에 38가구(2.7%)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단언하기 어려우나 경향성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혼이나 사별 등 부모의 결혼상태의 변화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IV-6 부모 결혼상태의 변화추이

빈도(%)

	2011	2012	2013	2014
결혼	1,542(94.9)	1,399(94.3)	1,333(93.5)	1,288(93.1)
이혼	33(2.0)	36(2.4)	36(2.5)	39(2.8)
별거	15(.9)	14(.9)	17(1.2)	15(.9)
사별	32(2.0)	32(2.0)	35(2.5)	38(2.7)
동거	3(.2)	3(.2)	4(.3)	4(.2)
합계	1,625(100)	1,484(100)	1,425(100)	1,384(100)

** 이 표는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수로, 쌍둥이가 있는 가구가 포함되어 패널 유지율 설명에서 제시한 가구기준의 분포와는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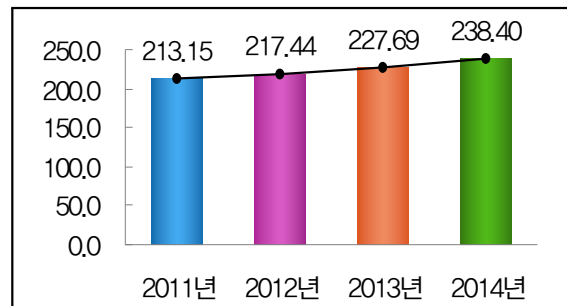
② 월평균 소득수준

월평균 소득수준은 2012년 이후 월평균 약 10만원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고, 연간 소득으로 계산하면 120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평균 소득수준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7 월평균 소득수준의 변화추이

단위 : 만원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213.15(112.60) _c	30.98***
2012	217.44(102.53) _c	
2013	227.69(105.09) _b	
2014	238.40(118.94) _a	



*** $p < .001$, Bonferroni: a)b)c

(2) 가족관계

가족관계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의 정도와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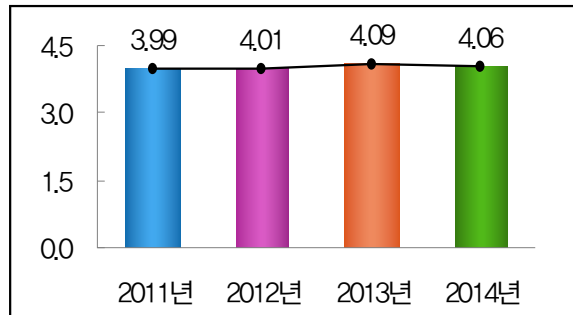
①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우선 첫째로 부모님에 대하여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각각 질문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에 대해 다문화청소년들의 응답은 2011년과 2012년이 유사한 수준이고 2013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2014년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평균적으로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99(.91) _b	5.62**
2012	4.01(.91) _b	
2013	4.09(.89) _a	
2014	4.06(.90) _{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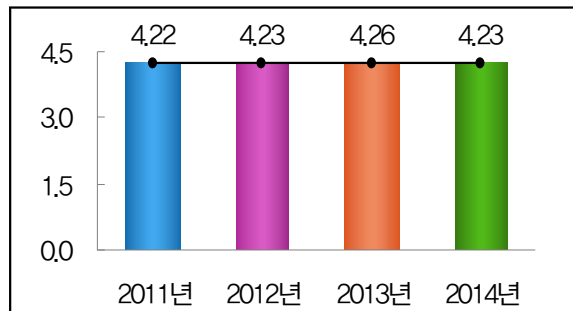
** $p < .01$, Bonferroni: a)b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해마다 약간씩의 변화가 있는 것에 비해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보다는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들이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보다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IV-9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4.22(.78)	1.35
2012	4.23(.78)	
2013	4.26(.79)	
2014	4.2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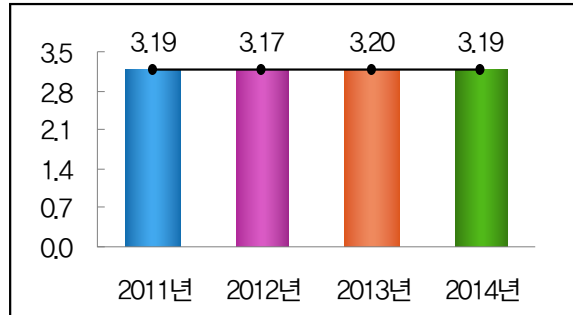
② 부모 양육태도

두 번째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감독과 방임 등 두 가지 하위 영역을 비교해 보았는데, 부모가 청소년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념인 감독의 경우 2011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4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부모양육태도의 변화추이: 감독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19(.65)	2.09
2012	3.17(.52)	
2013	3.20(.54)	
2014	3.1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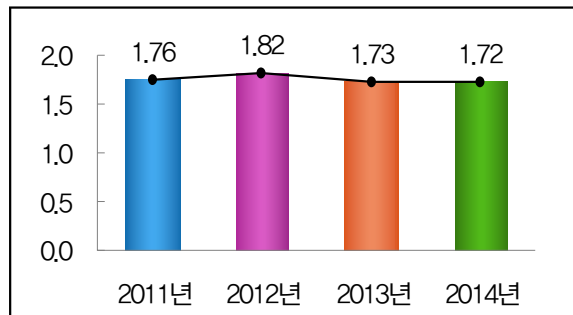


그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 중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옆에 없고 자녀의 생활에 관심이 없는 방임의 경우는 2011년에 비해 2012년 약간 상승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부모양육태도의 변화추이: 방임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1.76(.62) _{ab}	8.45***
2012	1.82(.68) _a	
2013	1.73(.62) _b	
2014	1.72(.59) _b	



*** $p < .001$, Bonferroni: a)b

2)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1) 학교생활

학교생활 영역으로는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 학교생활 적응(학습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성적 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①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

우선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은 세 가지를 답하도록 하였는데, 가장 많은 응답은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응답으로, 2014년의 경우 전체 응답의 87.9%가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을 하였고, 2011년부터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친구들이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이나 친구들이 나를 홍보는 것, 믿어주지 않는 것, 공부를 못한다고 놀리는 것 등은 응답률 자체도 적지만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생활에서 교우들 간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IV-12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어려운 점(중복응답) 변화추이

빈도(%)

내용	2011	2012	2013	2014
별 어려움이 없다	1,323(70.7)	1,309(79.8)	1,301(83.8)	1,282(87.9)
나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	66(3.5)	61(3.7)	42(2.7)	32(2.2)
친구들이 나를 홍보는 것	68(3.6)	44(2.7)	38(2.4)	18(1.2)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72(3.8)	51(3.1)	36(2.3)	15(1.0)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56(3.0)	35(2.1)	29(1.9)	24(1.6)
공부를 못한다고 놀리는 것	59(3.2)	39(2.4)	29(1.9)	19(1.3)
친구들이 나에게 욕설을 하는 것	78(4.2)	40(2.4)	27(1.7)	17(1.2)
친구들이 나를 때리는 것	69(3.7)	19(1.2)	10(.6)	10(.7)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놀리는 것	25(1.3)	12(.7)	9(.6)	2(.1)
친한 친구가 없는 것	34(1.8)	15(.9)	22(1.4)	17(1.2)
기타	22(1.2)	15(.9)	9(.6)	23(1.6)
합계	1,872(100)	1,640(100)	1,552(100)	1,459(100)

② 학교공부에서 어려운 점

다음으로 학교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역시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증가하던 추세가 2014년 들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는 응답이 2014년 들어서 거의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비록 응답률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과거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학습의 수준이 올라가고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함에 따라 학습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 지고 동시에 중학교 수준의 문제에 대해 마땅히 물어볼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학교공부에서의 어려움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중학교 연령의 다문화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이 매우 필요한 부분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IV-13 학교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변화추이

빈도(%)

내용	2011	2012	2013	2014
별 어려움이 없다	1,103(67.5)	1,121(74.6)	1,138(78.8)	935(67.6)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125(7.6)	109(7.3)	105(7.3)	77(5.6)
공부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102(6.2)	62(4.1)	74(5.1)	64(4.6)
내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	154(9.4)	97(6.5)	54(3.7)	47(3.4)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	94(5.7)	50(3.3)	33(2.3)	82(5.9)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	47(2.9)	48(3.2)	32(2.2)	58(4.2)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	-	-	-	97(7.0)
기타	10(.6)	15(1.0)	9(.6)	23(1.7)
합계	1,635(100)	1,502(100)	1,445(100)	1,383(100)

③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 적응은 학습활동과 교사관계, 교우관계 등 세 가지 영역에서 비교하였다.

③-1. 학교생활적응: 학습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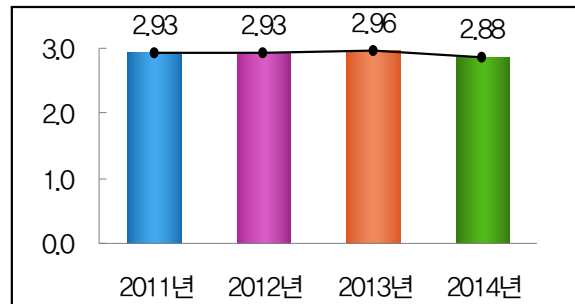
학교생활 적응 중 학습활동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4년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습활동이 갑자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위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을 알아듣기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결과와 일관된 결과로,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적응 수준이 떨어진다는 기존의 연구(이희정, 조윤주, 2010)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학교 연령을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는 학습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특성이 비(非)다문화청소년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다문화청소년과 비(非)

다문화청소년을 구분할 필요 없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다문화청소년이 비(非)다문화청소년과 구별되는 특성을 보일 경우 별도의 지원방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IV-14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추이: 학습활동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2.93(.50) _a	9.45***
2012	2.93(.49) _a	
2013	2.96(.49) _a	
2014	2.88(.52) _b	



*** $p < .001$, Bonferroni: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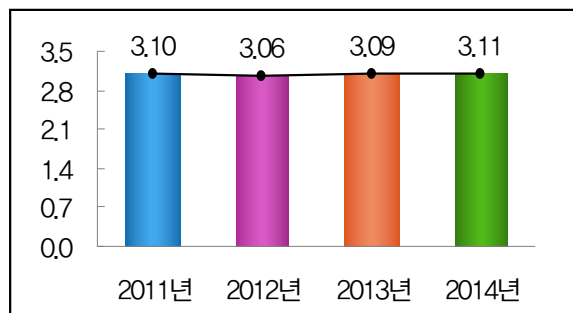
③-2.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학교생활 적응 중 교사관계의 경우는 학습활동과 달리 중학교 이행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에 약간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나 2013년인 초등 6학년 시기에 다시 상승하였고, 중학교 연령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 학습활동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IV-15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추이: 교사관계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10(.61) _a	2.78*
2012	3.06(.61) _b	
2013	3.09(.60) _a	
2014	3.11(.56) _a	



* $p < .05$, Bonferroni: a)d, a=b=c, b=c=d

③-3. 학교생활적응: 교우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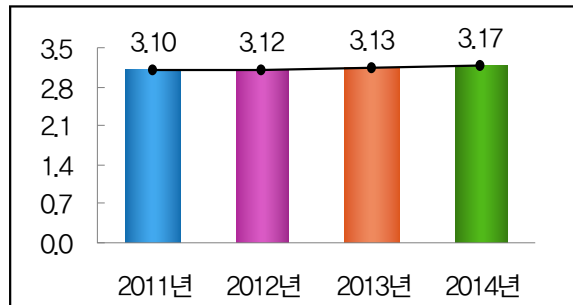
교우 관계의 경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나타난 학습활동과는 달리 교사관계나 교우관계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학교생활 적응 중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는 적응적임을 나타내었다.

표 IV-16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추이: 교우관계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10(.48) _b	7.15***
2012	3.12(.45) _b	
2013	3.13(.43) _b	
2014	3.17(.47) _a	



*** $p < .001$, Bonferroni: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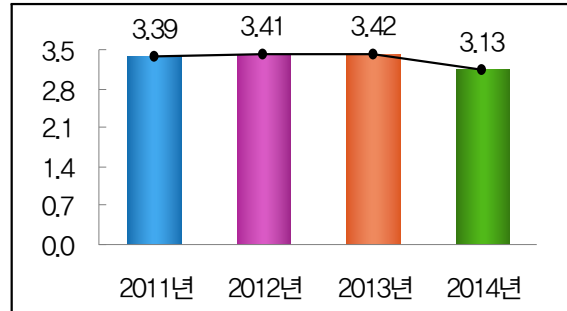
④ 학교성적수준

학교성적 수준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총 5개 과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평균값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인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4년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부분에 제시된 학습활동의 감소와도 일관된 결과로 중학교로의 이행이 특히 학습활동과 학업성취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IV-17 학교성적수준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39(.68) _a	102.27***
2012	3.41(.69) _a	
2013	3.42(.72) _a	
2014	3.13(.72) _b	

*** $p < .001$, Bonferroni: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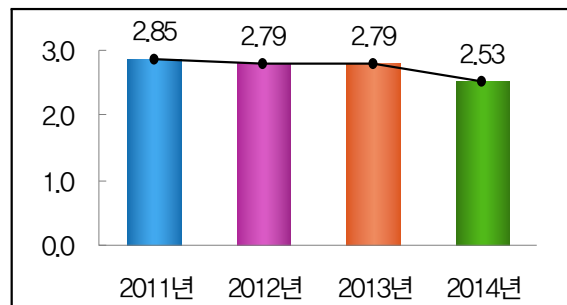
⑤ 성적에 대한 만족도

성적에 대한 만족도 역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비해 중학교에 입학한 2014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중학교로의 이행이 학교적응의 모든 측면이 아니라 학습 및 학업성취 측면에 국한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었고,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학습 측면 뿐 아니라 교사관계나 교우관계에서도 적응수준이 감소함을 보여준 결과와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IV-18 성적에 대한 만족도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2.85(.71) _a	72.43***
2012	2.79(.76) _a	
2013	2.79(.76) _a	
2014	2.53(.77) _b	

*** $p < .001$, Bonferroni: a)b

⑥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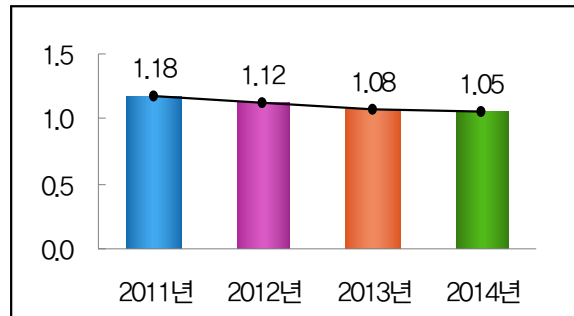
학교생활과 관련된 마지막 변인인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변화는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감소하였고, 학년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성숙해 감에 따라 학교 동료들과의 관계성이 좋아지고,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심리적 힘을 키웠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표 IV-19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1.18(.40) _a	40.08***
2012	1.12(.35) _b	
2013	1.08(.29) _c	
2014	1.05(.25) _d	

*** $p < .001$, Bonferroni: a)b)c)d



(2) 성취 및 학업적 포부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중 두 번째 요인은 성취동기와 향후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학업적 포부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성취동기와 학업적 포부수준은 향후 청소년이 진로를 결정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심리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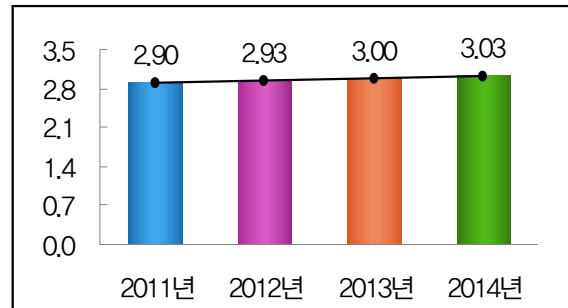
① 성취동기

성취동기는 초등학교 4학년인 2011년과 5학년인 2012년에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가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2013년 약간 증가하였고, 중학교 입학 연령인 2014년은 2013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V-20 성취동기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2.90(.52) _b	28.58***
2012	2.93(.49) _b	
2013	3.00(.43) _a	
2014	3.03(.48) _a	

*** $p < .001$, Bonferroni: a)b

② 학업적 포부

나중에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2011년도와 2012년도는 최고학력을 대학교 까지 포함하였으나 6학년인 2013년부터는 대학원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대학교까지 가겠다는 응답이 대다수였고, 초등학교 4, 5학년에는 고등학교까지만 가겠다는 비율이 약 16%대로 비교적 높았으나 2013년부터는 10%대로 감소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학업적 포부 수준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 학업적 포부 변화추이

빈도(%)

	2011	2012	2013	2014
초등학교	16(1.0)	10(.7)	6(.4)	1(.1)
중학교	32(2.0)	22(1.5)	16(1.1)	27(2.0)
고등학교	262(16.0)	252(16.8)	145(10.0)	144(10.4)
대학교	1,325(81.0)	1,218(81.1)	1,134(78.4)	1,117(80.7)
대학원	—	—	145(10.0)	95(6.9)
합계	1,635(100)	1,502(100)	1,446(100)	1,384(100)

3) 심리 · 사회적응 및 가치요인

세 번째로 심리 · 사회적응 및 가치요인을 살펴보겠다. 이 영역은 크게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지 지 및 네트워크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1) 심리적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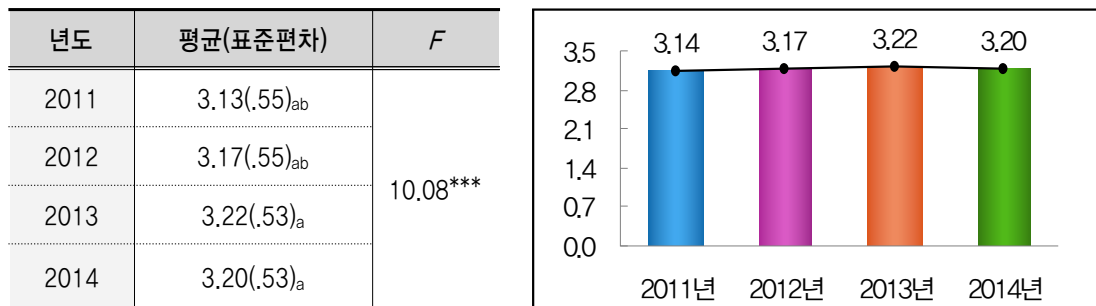
심리적 적응의 영역에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 신체 만족도, 우울 및 사회적 위축 등의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① 자아존중감

심리적응의 영역 중 첫 번째인 자아존중감은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간씩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중학교 연령인 2014년의 경우 2013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해마다 자아존중감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나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였다.

표 IV-22 자아존중감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 $p < .001$, Bonferroni: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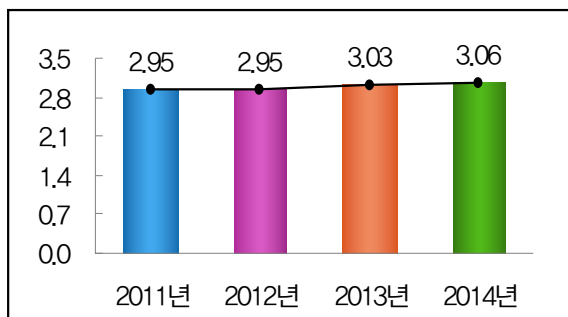
②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의 경우는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록 적은 폭이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이 긍정적임을 시사하였다.

표 IV-23 자아탄력성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2.95(.47) _c	30.57***
2012	2.95(.47) _c	
2013	3.03(.45) _b	
2014	3.06(.47) _a	

*** $p < .001$, Bonferroni: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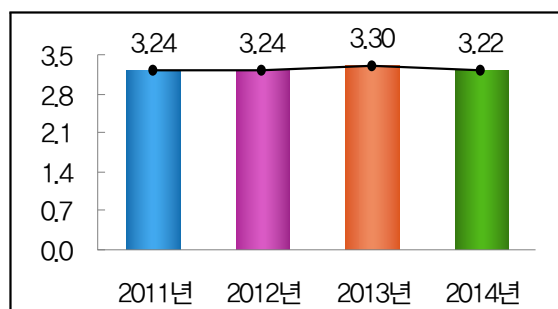
③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점차 증가하다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매우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2013년에 비해 2014년 만족도의 감소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중학교로의 이행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추후 이들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V-24 삶의 만족도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24(.59) _b	10.12***
2012	3.24(.61) _b	
2013	3.30(.57) _a	
2014	3.22(.60) _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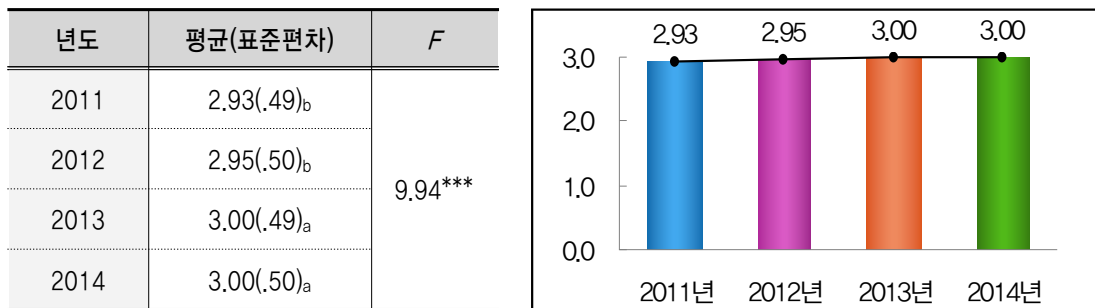
*** $p < .001$, Bonferroni: a)b

④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는 청소년기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사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학교 연령 시기에는 더욱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만족도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11년과 2012년 보다 2013년과 2014년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신체만족도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 $p < .001$, Bonferroni: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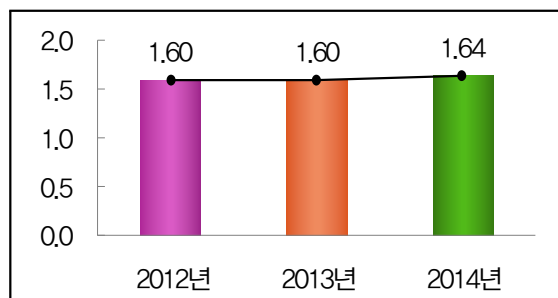
⑤ 우울

우울은 심리사회적응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2011년도에는 포함하지 않았고, 2012년도 초등학교 5학년 시기부터 측정하였는데,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과 2013년에는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중학교에 입학한 2014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적은 변화이기는 하지만 다문화청소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우울을 유발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을 유발하는 요인을 좀 더 심도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비록 적은 차이이나 점차 성장함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표 IV-26 우울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2	1.60(.52) _b	5.05**
2013	1.60(.52) _b	
2014	1.64(.54) _a	

** $p < .01$, Bonferroni: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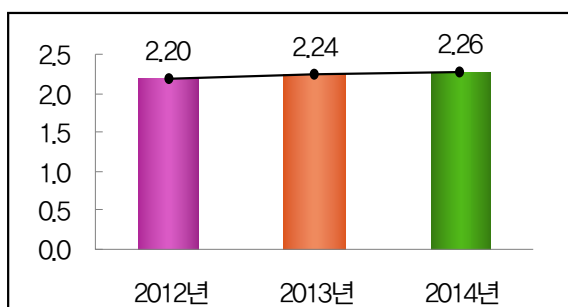
⑥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 함께 역시 심리사회적응의 수준을 파악하는 또 다른 지표이다. 사회적 위축 역시 2012년도부터 측정하기 시작하여 3년간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데,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겉으로 교사나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내면적으로는 우울을 지니고 있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청소년의 심리사회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표 IV-27 사회적 위축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2	2.20(.73) _b	5.00**
2013	2.24(.72) _{ab}	
2014	2.26(.74) _a	

** $p < .01$, Bonferroni: a)b

(2) 사회적 지지 및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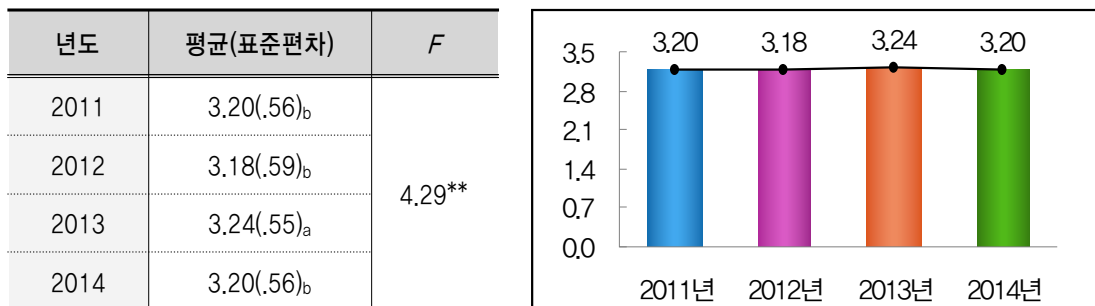
두 번째로 사회적지지 및 네트워크 요인은 가족, 교사, 친구의지지, 친한 친구의 수, 학교 안팎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① 가족의 지지

첫 번째로 다문화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가족의 지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유사한 수준이었고 2013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중학교 입학 시기인 2014년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제 가족의 지지가 감소했을 수도 있고 사춘기 시기에 부모님과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가족의 지지에 대한 지각의 수준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청소년의 심리적 지지기반 중 가장 중요한 가족의 지지에 대해 낮게 지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측면으로 생각된다.

표 IV-28 가족지지의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 $p < .01$, Bonferroni: a)b

② 교사의지지

그러나 가족의 지지에 비해 교사의 지지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와 중학교 입학시기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즉, 초등 4, 5학년과 비교하여 초등 6학년과 중학교에 이르러 교사의 지지를 지각하는 수준이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지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고 지지의 수준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지지를 약간 낮게 지각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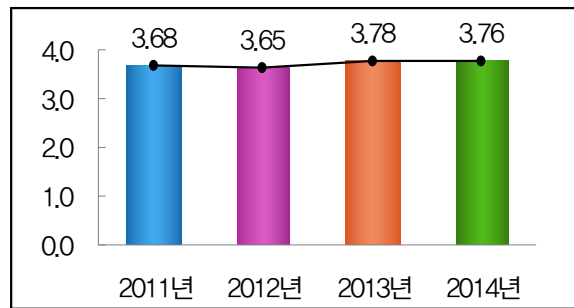
표 IV-29

교사지지의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68(.88) _b	10.96***
2012	3.65(.89) _b	
2013	3.78(.87) _a	
2014	3.76(.85) _a	

*** $p < .001$, Bonferroni: a)b



③ 친구의지지

친구의 지지는 교사의 지지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1년 초등학교 4학년 시기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 적응 중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결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만족스러운 상태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잘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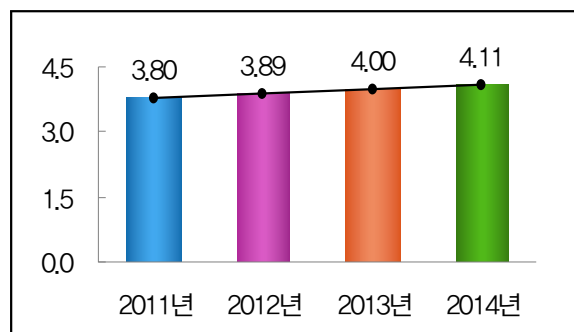
표 IV-30

친구지지의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80(.89) _d	51.79***
2012	3.89(.84) _c	
2013	4.00(.83) _b	
2014	4.11(.79) _a	

*** $p < .001$, Bonferroni: a)b)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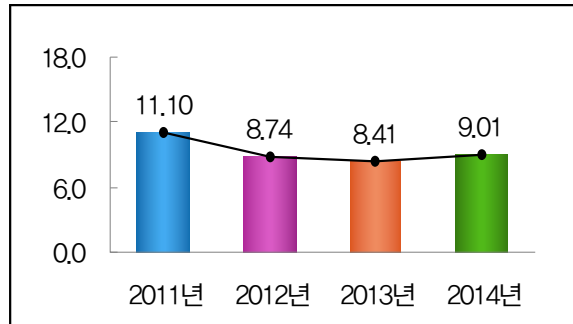
④ 친한 친구의 수

사회적 네트워크의 다른 측면으로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평균 11.1명이라고 응답을 하였으나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였고,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6학년 시기보다 1명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V-31 친한 친구의 수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11.10(18.37) _a	10.61***
2012	8.74(6.71) _b	
2013	8.41(6.78) _b	
2014	9.01(6.76) _b	



*** $p < .001$, Bonferroni: a)b

⑤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이어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아니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으나 ‘그렇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에는 ‘그렇다’는 응답과 ‘아니다’는 응답의 비율이 모두 50%수준으로 유사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로 학교 내에서 자신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심리적 지지체계는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건전한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IV-32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변화추이 빈도(%)

	2011	2012	2013	2014
예	317(19.4)	547(36.4)	623(43.1)	680(49.2)
아니오	1,318(80.6)	955(63.6)	822(56.9)	703(50.8)
합계	1,635(100)	1,502(100)	1,445(100)	1,383(100)

⑥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이어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해 낮았고, 2011년에 비해 2012년, 2013년, 2014년 모두 유사한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표 IV-33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 변화추이 빈도(%)

	2011	2012	2013	2014
예	327(20.0)	594(39.5)	583(40.3)	534(38.6)
아니오	1,308(80.0)	908(60.5)	862(59.7)	849(61.4)
합계	1,635(100)	1,502(100)	1,445(100)	1,383(100)

(3) 정체성

정체성 영역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한국과의 동일시를 표현하는 한국인정체성 등 두 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①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첫 번째는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4년간 비교한 결과, ‘한국사람’이라는 응답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약간씩 증가하다가 2014년에 이르러서 거의 유사한 수준이나 약간 감소의 경향을 보였고, 대신 ‘한국사람인 동시에 부모님 나라 사람’이라

는 응답의 비율은 약간씩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추후에도 주목해서 봐야 할 문제로, 외국의 경우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가 되면서 점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의 다문화청소년들 역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중학교 연령 이후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내용을 구성할 때 이들의 정체성을 다룰 수 있는 심리적응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정체감 혼란을 겪게 되는 시기인데, 거기에 문화적 국가적 측면에서도 정체감의 혼란을 겪게 된다면 이들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IV-34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변화추이** 빈도(%)

	2011	2012	2013	2014
한국사람	1,194(73.0)	1,107(73.7)	1,084(75.0)	1,024(74.0)
한국 사람인 동시에 부모님 나라 사람	355(21.7)	343(22.8)	344(23.8)	342(24.7)
외국인 부모 나라 사람	54(3.3)	24(1.6)	10(.7)	8(.6)
잘 모르겠다	31(1.9)	28(1.9)	7(.5)	10(.7)
기타	1(.1)	-	-	-
합계	1,635(100)	1,502(100)	1,445(100)	1,38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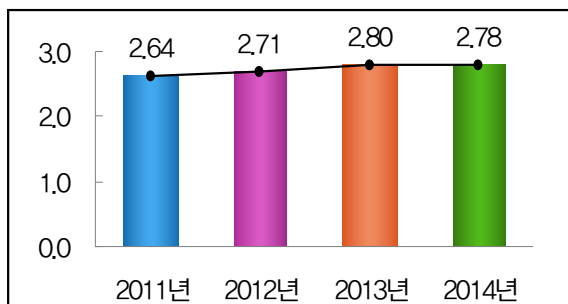
② 한국인정체성

다음으로 한국인 정체성은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을 받는 것 같다’,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관심이 많다’,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누군가 한국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다’는 등 총 4문항으로 한국과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고 있는가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을 한국과 얼마나 동일시하고 있는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초등학교 6학년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는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한국인정체성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2.64(.67) _c	19.34***
2012	2.71(.64) _b	
2013	2.80(.64) _a	
2014	2.78(.65) _a	

*** $p < .001$, Bonferroni: a)b)c

(4) 문화적응 및 다문화수용성

네 번째 영역인 문화적응 및 다문화수용성 영역에는 다문화수용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등 총 세 가지 변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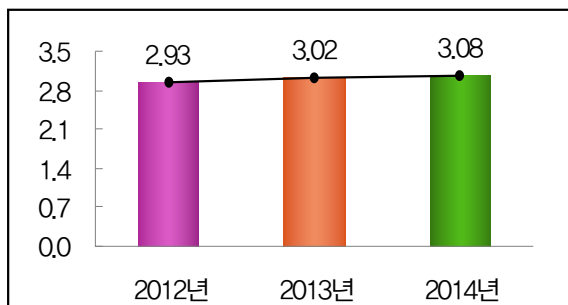
①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우위를 지닐 수 있는 변인으로 2012년부터 측정의 내용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는데,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마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6 다문화수용성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2	2.93(.57) _c	35.00***
2013	3.02(.54) _b	
2014	3.08(.55) _a	

*** $p < .001$, Bonferroni: a)b)c

② 이중문화 수용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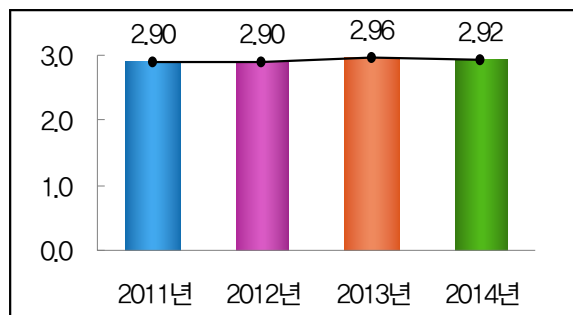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외국출신 부모 나라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둘 다 수용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에 들어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IV-37 이중문화 수용태도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2.90(.41) _b	8.93***
2012	2.90(.40) _b	
2013	2.96(.38) _a	
2014	2.92(.39) _b	

*** $p < .001$, Bonferroni: a)b



③ 문화적응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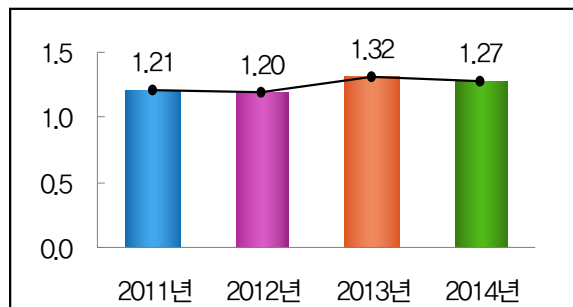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2011년과 2012년에는 동일한 수준이었다가 초등학교 6학년인 2013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표 IV-38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1.21(.36) _c	44.33***
2012	1.20(.36) _c	
2013	1.32(.39) _a	
2014	1.27(.33) _b	

*** $p < .001$, Bonferroni: a)b)c



4)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1) 신체발달

① 키

연도별 키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해마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긴 하나, 남녀 모두 전국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회적 대처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신장의 왜소함은 청소년기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향성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으로 다문화집단이 왜소한 집단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V-39 키 차이(연도별)

(단위: cm)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2	143.93(7.40) _c	4540.20***
2013	150.06(7.34) _b	
2014	156.45(7.29) _a	

*** $p < .001$, Bonferroni: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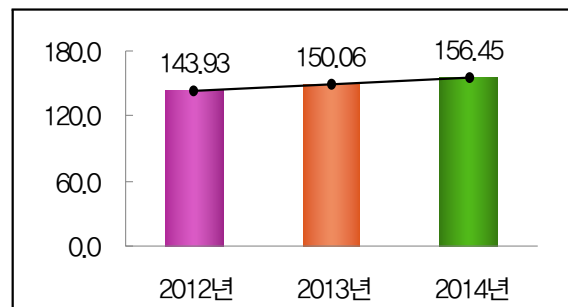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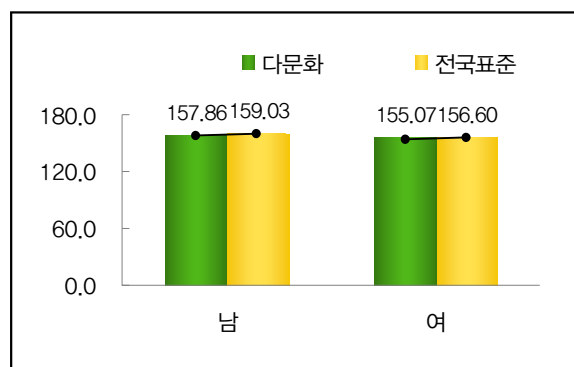


표 IV-40 키 차이(성별)

(단위: cm)

집단	다문화	전국표준
남	157.86	159.03
여	155.07	156.60

* 다문화청소년의 키는 2014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반 청소년의 키는 질병관리본부대 한소아과학회에서 편찬한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의 13~14세 신장을 기준으로 함.



② 몸무게

몸무게 역시 해마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국표준에 비해서 남녀 모두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IV-41 몸무게 차이(연도별)

(단위: kg)

집단	평균(표준편차)	F
2012	38.65(9.24) _c	2442.46***
2013	43.51(9.78) _b	
2014	48.45(10.34) _a	

*** $p < .001$, Bonferroni: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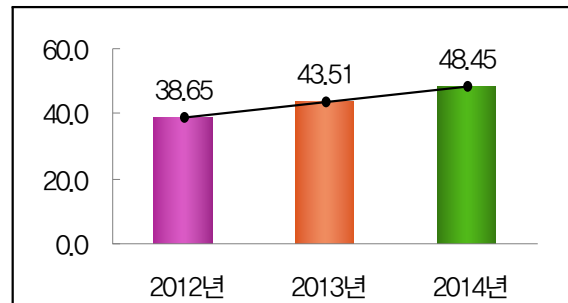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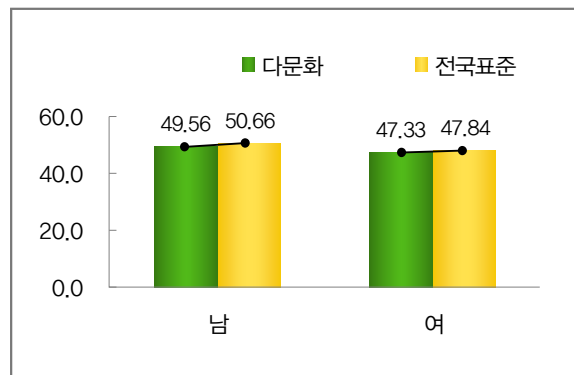


표 IV-42 몸무게 차이(성별)

(단위: kg)

집단	다문화	전국표준
남	49.56	50.66
여	47.33	47.84

※ 다문화청소년의 몸무게는 2014년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반 청소년의 몸무게는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에서 편찬한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 도표의 13~14세 체중을 기준으로 함.



(2) 건강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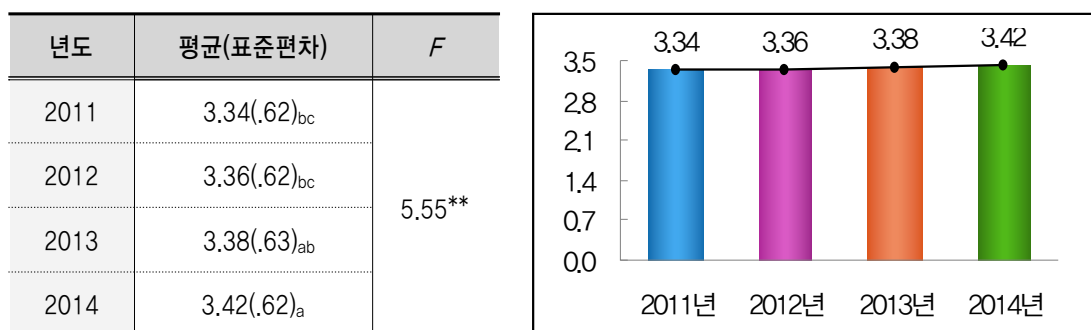
①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비교한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마다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추이

평균(표준편차)



** $p < .01$, Bonferroni: a)b)c

3.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들의 4년간 변화를 가정요인,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심리·사회적응 및 정체성 요인,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등 총 4개의 차원에서 종단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양상은 매우 다면적이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의 증가와 부정적인 측면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생활적응 중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교사 및 친구지지, 신체만족도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시에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학교에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거나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반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학업과 관련된 부분이 뒤쳐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반대로 감소추세에 있는 내용은 부모의 방임적 태도와 집단괴롭힘으로 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3년간 점차 증가하다가 중학교로의 이행과정에서 갑자기 감소한 부분인데, 특히 학교생활과 관련된 부분 중 학습활동, 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등 학업성취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 한국인 정체성,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에 입학한 것이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상 전환기이고 이러한 요인이 학업성취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시기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표 IV-44 4년간 종단변화 추이 결과 요약

구분	영역	변인
증가추세	가정요인	■ 월평균 소득수준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교우관계 ■ 학업적 포부 ■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는 반응 ■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음
	심리·사회적응 및 정체성	■ 학교 내 도움을 주는 어른 유무 ■ 교사지지, 친구지지 ■ 신체만족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 성취동기 ■ 다문화수용성 ■ 우울, 사회적 위축 ■ 이중정체성(한국사람이기도 하고 부모나라 사람이기도 함)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 키, 몸무게 ■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감소추세	가정요인	■ 부모양육태도: 방임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변화없음	가정요인	■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 부모양육태도: 감독
	심리·사회적응 및 정체성	■ 학교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중학교 시기의 감소	가정요인	■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 학교적응: 학습활동 ■ 학교성적 ■ 성적에 대한 만족도
	심리·사회적응 및 정체성	■ 삶의 만족도 ■ 한국인 정체성 ■ 문화적응스트레스 ■ 이중문화수용태도

제 V 장

초등시기의 발달양상 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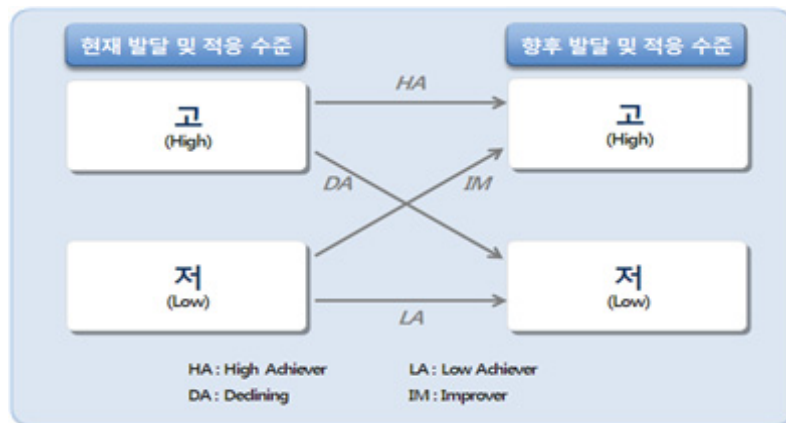
1. 초등시기의 발달양상에 따른 집단
구분
2. 초등시기의 발달양상에 따른
2014년 발달양상 추적
3. 요약 및 소결

제 V 장

초등시기의 발달양상 추적기

1. 초등시기의 발달양상에 따른 집단 구분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초등학교 4, 5, 6학년 시기의 발달양상을 군집분석을 통해 네 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 간 차이를 제시한 바 있다(양계민 외, 2013). 집단 간 구분의 틀은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적응수준을 추적하여, 지속적으로 적응수준이 높은 집단, 지속적으로 적응수준이 낮은 집단, 적응수준이 높았다가 낮아지는 집단, 반대로 낮았다가 높아지는 집단 등 네 가지 집단을 가정하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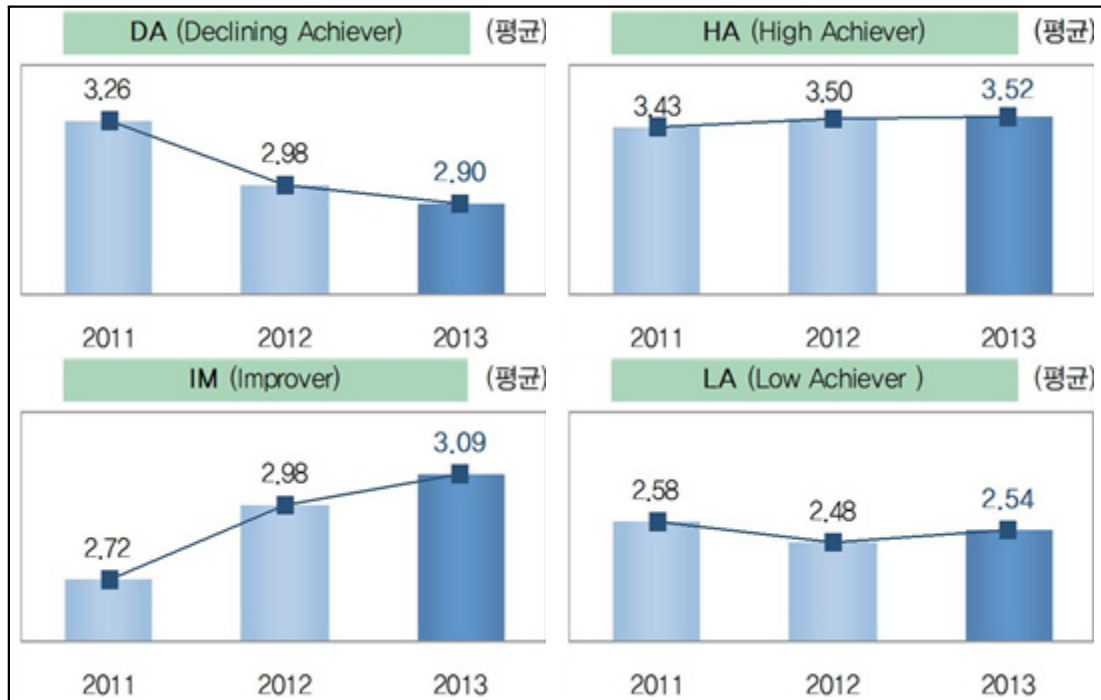


【그림 V-1】 발달특성에 따른 집단 구분(양계민 외, 2013, p.137)

그 결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네 개의 군집이 실제로 산출되었고, 네 집단에 대하여 각각 DA(Declining Achiever), HA(High Achiever), IM(Improver), LA(Low Achiever)로 명명하고 네 집단별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영역을 비교하였고, 분석 결과 네 집단간 발달양상이 뚜렷이

7) 5장은 양계민이 작성함.

나타났는데, 특히 지속적으로 학교적응 영역의 발달수준이 높은 집단은 다른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응수준이 높고, 반대로 지속적으로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집단은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차 떨어지는 집단도 위험군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그림 V-2】 네 가지 발달특성집단별 학교적응의 년도별 변화추이(양계민 외, 2013, p.138)

본 장에서는 초등학교 때의 발달양상이 중학교로의 이행기를 맞이하여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2013년도에 구분된 군집에 따라 2014년도 중학교 적응의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2014년도 조사 대상자를 군집에 따라 분류한 집단별 인원수는 아래와 같다.

표 V-1 2014년 대상자 중 군집분석 집단별 인원수

(단위: 명)

집단	고-저(DA)	고-고(HA)	저-고(IM)	저-저(LA)	합계
빈도(%)	433(30.4)	364(25.5)	414(29.1)	214(15.0)	1,425(100)

2. 초등시기의 발달양상에 따른 2014년 발달양상 추적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발달양상을 구분한 네 집단의 영향이 중학교 입학 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고자 네 집단에 따른 2014년 발달양상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분석의 틀은 가정요인,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심리·사회적응 및 정체성요인,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등 네 가지 대영역에 따라 구분하였다.

1) 가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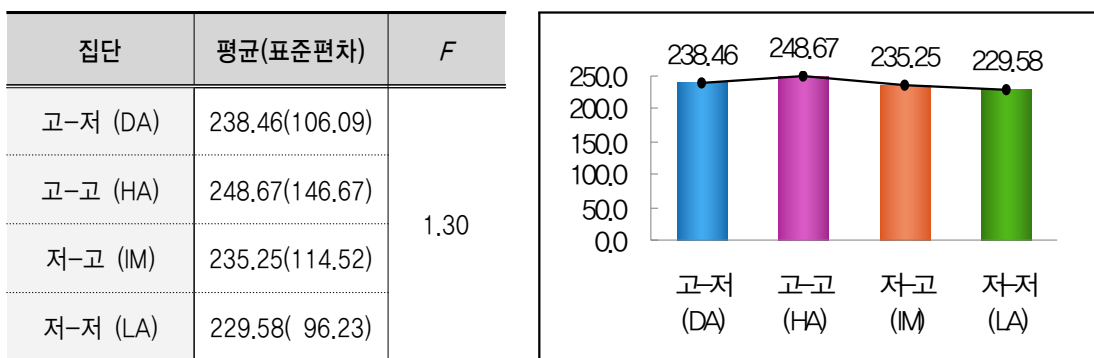
(1) 가정환경

① 월평균 소득수준

2014년 월평균 소득수준에서 네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저(LA)집단이 평균적으로 약간 낮은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2 2014년 월평균 소득수준의 집단별 차이

(단위: 만원)



이는 2013년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저-저(LA)집단의 소득수준이 평균적으로 낮고 사후검증에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F값이 유의미

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하다. 그 당시 소득수준이 청소년들에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되고, 이에 대해 종단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 여전히 불리한 조건의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2) 가족관계

① 부모에 대한 자랑스러움

①-1. 부에 대한 자랑스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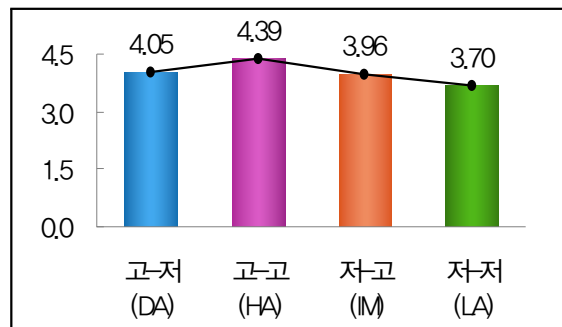
초등 발달양상에 따라 2014년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고-고(HA)집단이 가장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저-저-(LA)집단이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여 2013년의 양상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표 V-3 발달양상 집단별 부 자랑스러움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4.05(.88) _b	29.59***
고-고 (HA)	4.39(.80) _a	
저-고 (IM)	3.96(.90) _b	
저-저 (LA)	3.70(.94) _c	

*** $p < .001$, Duncan: a)b)c



①-2. 모에 대한 자랑스러움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역시 고-고(HA)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저-저(LA)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으며, 고-저(DA)집단의 평균은 저-고(IM)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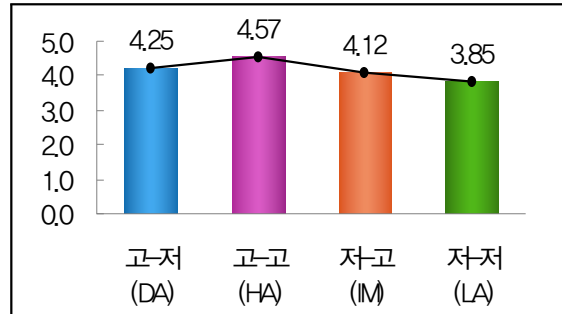
대한 자랑스러움을 아버지에게 대한 자랑스러움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V-4 발달양상 집단별 모 자랑스러움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4.25(.72) _b	43.62***
고-고 (HA)	4.57(.63) _a	
저-고 (IM)	4.12(.82) _c	
저-저 (LA)	3.85(.85) _d	

*** $p < .001$, Duncan: a)b)c)d



② 부모와의 사이에서 어렵거나 힘든 점

②-1. 아버지와 관계에서 어렵거나 힘든 점

다음으로 외국출신 부모와의 사이에서 어렵거나 힘든 점이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빈도 자체가 크지 않았다.

표 V-5 발달양상 집단별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 느끼는 가장 어렵거나 힘든 것

빈도(%)

변인	군집	고-저(DA)	고-고(HA)	저-고(IM)	저-저(LA)	합계
어려움이 없다		9(69.2)	18(75.0)	8(88.9)	3(50.0)	38(73.1)
아버지의 한국말이 서투른 것		2(15.4)	3(12.5)	1(11.1)	—	6(11.5)
아버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	1(4.2)	—	2(33.3)	3(5.8)
학교 공부, 성적 너무 강조		1(7.7)	1(4.2)	—	—	2(3.8)
나의 공부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		—	1(4.2)	—	1(16.7)	2(3.8)
기타		1(7.7)	—	—	—	1(1.9)
합계		13(100)	24(100)	9(100)	6(100)	52(100)

②-2.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렵거나 힘든 점

외국출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힘든 점의 경우는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고-고(HA) 집단의 경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저-고(IM), 다음이 고-저(DA), 저-저(LA)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이 '학교 공부나 성적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라는 응답이었는데, 이에 대한 저-저(LA)집단의 응답율이 가장 높아서 이 집단의 경우 학부모와 학업에 대한 갈등이 가장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외에 '나의 공부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 '어머니의 한국말이 서투른 것' 등에 대한 응답비율도 저-저(LA)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들이 학습관련 기대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과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표 V-6 발달양상 집단별 나와 어머니 사이에서 느끼는 가장 어렵거나 힘든 것 빈도(%)

변인	군집	고-저(DA)	고-고(HA)	저-고(IM)	저-저(LA)	합계
어려움이 없다		279(70.3)	252(77.3)	285(74.2)	121(61.1)	937(71.8)
학교 공부나 성적을 너무 강조하는 것		31(7.8)	29(8.9)	36(9.4)	25(14.1)	124(9.5)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29(7.3)	11(3.4)	17(4.4)	14(7.1)	71(5.4)
나의 공부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		19(4.8)	11(3.4)	13(3.4)	12(6.1)	55(4.2)
어머니의 한국말이 서투른 것		12(3.0)	6(1.8)	17(4.4)	10(5.1)	45(3.4)
내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혼만 내는 것		17(4.3)	11(3.4)	7(1.8)	5(2.5)	40(3.1)
나의 학교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		2(.5)	1(.3)	3(.8)	3(1.5)	9(.7)
서로 대화가 없는 것		4(1.0)	-	1(.3)	3(1.5)	8(.6)
어머니의 외모가 달라서 창피한 것		2(.5)	2(.6)	3(.8)	1(.5)	8(.6)
학교과제나 준비물을 챙겨주지 못하는 것		1(.3)	-	1(.3)	-	2(.2)
기타		1(.3)	3(.9)	1(.3)	1(.5)	6(.5)
합계		397(100)	326(100)	384(100)	198(100)	1,30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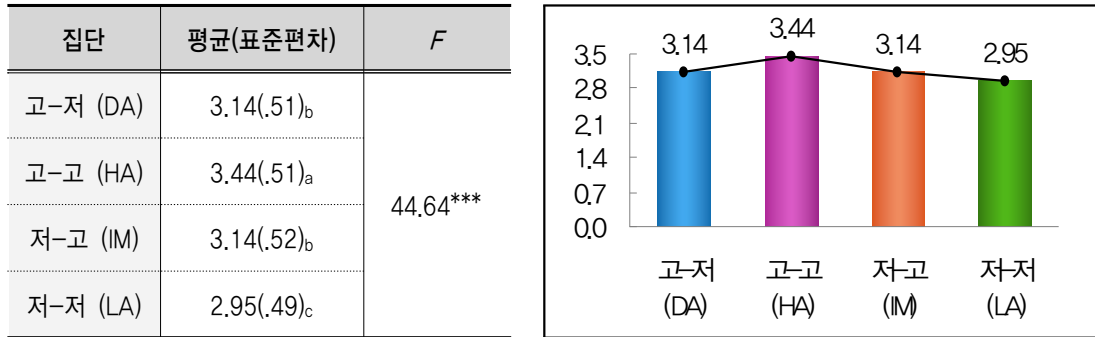
③ 부모의 양육태도

③-1.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감독과 방임 두 가지 하위영역에서 비교하였다. 우선 감독의 경우를 보면 고-고(HA)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고-저(DA)집단과 저-고(IM)집단의 평균이 동일하였으며 저-저(LA)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작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V-7 발달양상 집단별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

평균(표준편차)



*** $p < .001$, Duncan: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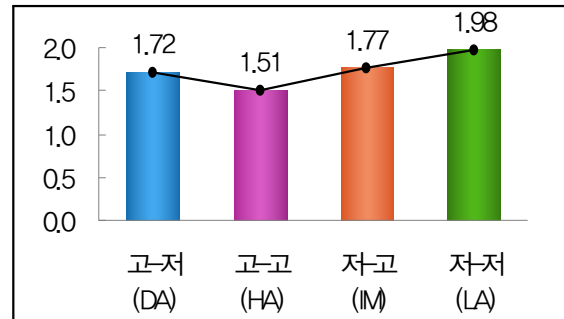
③-2. 부모의 양육태도: 방임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의 경우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고(HA)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낮았고, 저-저(LA)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저(LA)집단의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앞에서 제시된 결과와 함께 생각해 보면, 저-저(LA)집단 학부모들의 경우 학생의 학업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고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학업성취가 낮은 것에 대해 야단만 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경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은 매우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고, 자녀의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고, 부모자녀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내용에는 청소년 자체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양육과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V-8 발달양상 집단별 부모의 양육태도: 방임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1.72(.57) _b	31.16***
고-고 (HA)	1.51(.59) _c	
저-고 (IM)	1.77(.58) _b	
저-저 (LA)	1.98(.49) _a	



*** $p < .001$, Duncan: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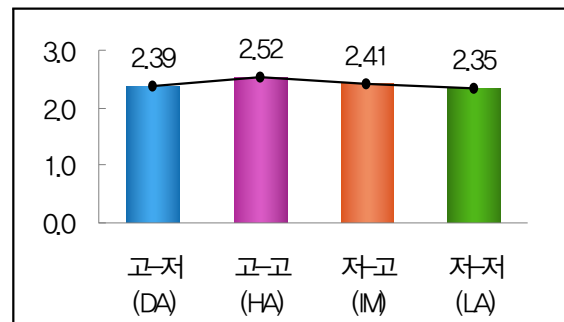
④ 부모의 자녀학업에 대한 관심도

다음으로 2014년도 부모의 자녀학업에 대한 관심도의 수준을 집단별로 비교해 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고(HA) 집단의 평균이 다른 세 집단의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집단의 경우 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표 V-9 발달양상 집단별 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관심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39(.57) _b	4.58**
고-고 (HA)	2.52(.60) _a	
저-고 (IM)	2.41(.59) _b	
저-저 (LA)	2.35(.59) _b	



** $p < .01$, Duncan: a)b

⑤ 부모의 교육적 지원

부모의 교육적 지원은 부모님이 청소년이 공부를 하라고 격려를 해주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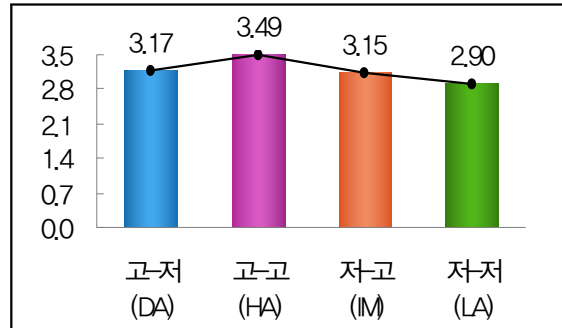
도와주거나 학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등의 내용으로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역시 고-고(HA)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고, 저-저(LA)집단은 유의미하게 낮았다.

표 V-10 발달양상 집단별 부모의 교육적 지원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17(.48) _b	68.99***
고-고 (HA)	3.49(.49) _a	
저-고 (IM)	3.15(.51) _b	
저-저 (LA)	2.90(.49) _c	

*** $p < .001$, Duncan: a)b)c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의 발달과 관련하여 부모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은 매우 결정적이며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어머니들이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해도 익숙하지 않은 교육체제와 환경으로 유능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1) 학교생활 및 학업

①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중 첫 번째로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측면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으나 역시 저-저(LA) 집단의 응답이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었고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의 경우 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과 월등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한 경우가 32사례정도 되었고, 다음이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다문화가족 출신이라고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대하는 것'등이 다음 순위로 언급되어서,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이 일반 비(非)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달리 다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한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표 V-11

발달양상 집단별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빈도(%)

변인	군집	고-저(DA)	고-고(HA)	저-고(IM)	저-저(LA)	합계
별 어려움이 없다		379(92.4)	328(94.3)	369(94.1)	179(87.3)	1,255
나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		13(3.2)	5(1.4)	7(1.8)	7(3.4)	32
친구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6(1.5)	8(2.3)	4(1.0)	6(2.9)	24
다문화가족 출신이라고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대하는 것		4(1.0)	3(.9)	8(2.0)	7(3.4)	22
공부를 못한다고 놀리는 것		3(.7)	3(.9)	8(2.0)	5(2.4)	19
친구들이 나를 홍보는 것		6(1.5)	3(.9)	4(1.0)	5(2.4)	18
친구들이 나에게 욕설을 하는 것		4(1.0)	4(1.1)	3(.8)	6(2.9)	17
친한 친구가 없는 것		6(1.5)	3(.9)	3(.8)	5(2.4)	17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 것		5(1.2)	4(1.1)	1(.3)	5(2.4)	15
친구들이 나를 때리는 것		1(.2)	1(.3)	2(.5)	6(2.9)	10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놀리는 것		1(.2)	-	1(.3)	-	2
기타		2(.5)	3(.9)	3(.8)	2(1.0)	10
합계		410	348	392	205	1,355

② 학교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

다음으로 학교공부를 할 때 어려운 점으로는 역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고-고(HA)집단의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저-저(LA)집단의 응답률이 가장 낮아서 저-저(LA)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학교공부와 관련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음을 시사하였는데, 실제로 저-저(LA)집단의 경우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고, 이어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는 응답비율도 다른 집단의 두 배 이상 되었고 고-고(HA)집단보다는 거의 세 배 이상 높았다. 또한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부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아서 저-저(LA)집단의 학업능력 부분이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표 V-12

발달양상 집단별 학교공부에서 가장 어려운 점

빈도(%)

어려운 점	군집	고-저(DA)	고-고(HA)	저-고(IM)	저-저(LA)	합계
별 어려움이 없다		267(65.1)	276(79.3)	270(68.9)	100(48.8)	913(67.4)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		35(8.5)	15(4.3)	25(6.4)	21(10.2)	96(7.1)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		17(4.1)	13(3.7)	26(6.6)	26(12.7)	82(6.1)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22(5.4)	14(4.0)	21(5.4)	18(8.8)	75(5.5)
공부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19(4.6)	11(3.2)	16(4.1)	17(8.3)	63(4.6)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		22(5.4)	8(2.3)	20(5.1)	7(3.4)	57(4.2)
내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		19(4.6)	7(2.0)	10(2.6)	11(5.4)	47(3.5)
기타		9(2.2)	4(1.1)	4(1.0)	5(2.4)	22(1.6)
합계		410(100)	348(100)	392(100)	205(100)	1,355(100)

③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 적응의 경우는 사실상 본 군집분석에 사용된 변인이기는 하지만 군집분석의 경우 전체 변인을 모두 합하여 평균을 낸 값으로 실시한 것이기에 각 영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3년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적응의 학습활동과 교사관계, 교우관계를 각각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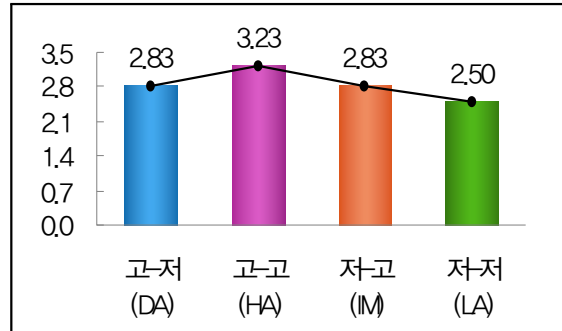
③-1. 학교생활 적응: 학습활동

학교생활 적응 중 학습활동은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명확하게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2013년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고-고(HA)집단의 평균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았고, 고-저(DA)집단과 저-고(IM)집단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저-저(LA)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집단이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발달양상 집단별 학교생활적응: 학습활동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83(.44) _b	111.99***
고-고 (HA)	3.23(.48) _a	
저-고 (IM)	2.83(.49) _b	
저-저 (LA)	2.50(.48) _c	



*** $p < .001$, Duncan: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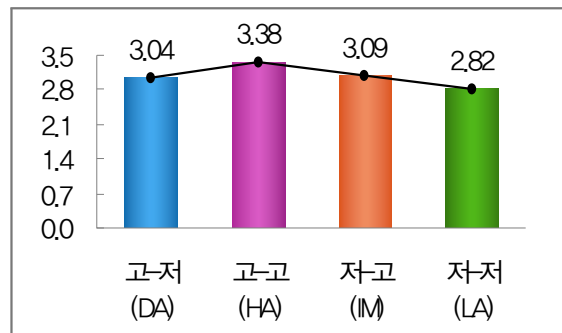
③-2.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학교생활 적응 중 교사관계의 경우도 학습활동과 마찬가지로 고-고(HA)집단의 평균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고, 저-저(LA)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습활동 뿐 아니라 교사관계에서도 저-저(LA)집단이 취약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활동이 취약함에 따라 교사관계도 같이 취약해 질 수 있고, 교우관계도 마찬가지로 취약해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즉, 학습만 지원을 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대인관계만을 지원하기 보다는 학습과 교사 및 교우관계를 함께 다루면서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의 종합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표 V-14 발달양상 집단별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DA)	3.04(.52) _b	50.61***
고-고(HA)	3.38(.57) _a	
저-고(IM)	3.09(.50) _b	
저-저(LA)	2.82(.57) _c	



*** $p < .001$, Duncan: a)b)c

③-3. 학교생활적응: 교우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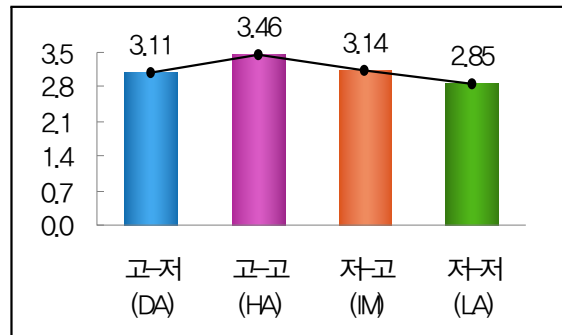
학교생활 적응 중 교우관계도 마찬가지로 고-고(HA)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다음이 저-고(IM)집단과 고-저(DA)집단의 순이었고 저-저(LA)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아서 다른 여타의 발달양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보다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V-15

발달양상 집단별 학교생활적응: 교우관계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11(.40) _b	94.57***
고-고 (HA)	3.46(.42) _a	
저-고 (IM)	3.14(.43) _b	
저-저 (LA)	2.85(.47) _c	



*** $p < .001$, Duncan: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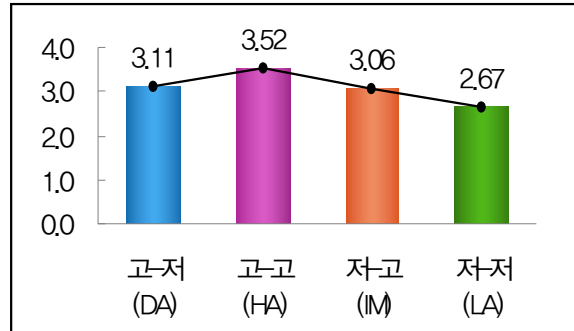
④ 성적수준

다음으로 학교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인 성적수준을 살펴보았다. 성적의 경우 물론 주관적인 응답이기는 하지만 고-고(HA)집단의 평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 저-저(LA)집단은 네 집단 중에서 월등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학습활동, 교사관계, 교우관계가 떨어지는 것 뿐 아니라 실제 학업성적의 수준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취약한 집단임을 시사하였다.

표 V-16 발달양상 집단별 성적수준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11(.62) _b	74.34***
고-고 (HA)	3.52(.71) _a	
저-고 (IM)	3.06(.69) _b	
저-저 (LA)	2.67(.65) _c	

*** $p < .001$, Duncan: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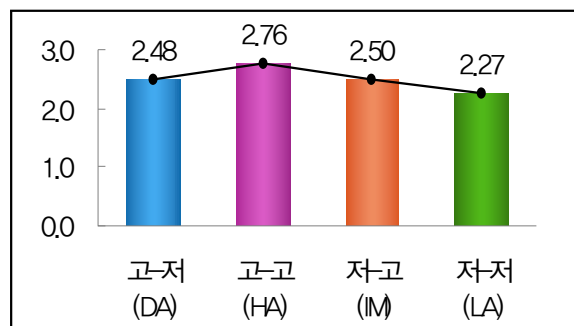
⑤ 성적에 대한 만족도

성적에 이어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주관적인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고(HA)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저-고(IM), 고-저(DA)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저-저(LA)집단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고(HA)집단의 경우 학교적응과 학업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등 학교생활에서 유능성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에서 모두 긍정적인 발달을 하고 있고, 저-저(LA)집단의 경우 학교에서 가장 소외되고 낮은 평가를 받게 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갖추고 있는 집단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경향성은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변함이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V-17 발달양상 집단별 성적에 대한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48(.70) _b	20.46***
고-고 (HA)	2.76(.80) _a	
저-고 (IM)	2.50(.75) _b	
저-저 (LA)	2.27(.76) _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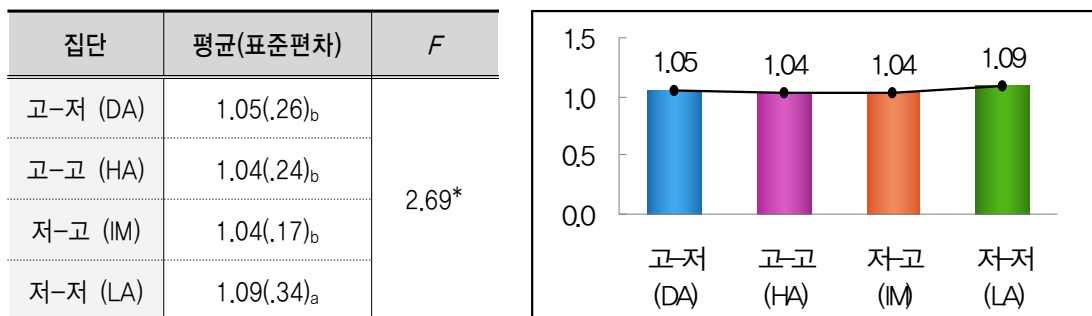
*** $p < .001$, Duncan: a)b)c

⑥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심리·사회 적응영역에서 다루어도 되지만 학교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에 보면 전반적으로 피해의 경험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저(LA)집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음을 나타내어 이들의 학교생활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V-18 발달양상 집단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평균(표준편차)



* $p < .05$, Duncan: a)b

(2) 성취, 진로 및 학업적 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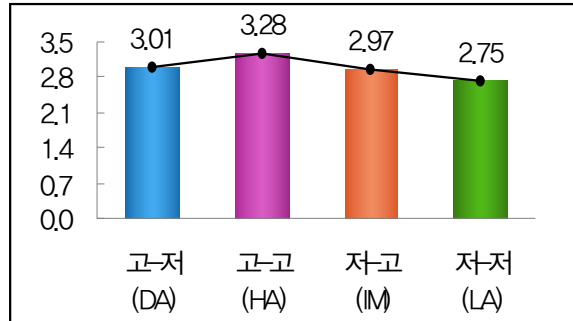
① 성취동기

성취동기의 수준이 집단별로 다른지 살펴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역시 고-고(HA)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나머지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적응을 잘하는 집단의 성취동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음을 보여주었다.

표 V-19 발달양상 집단별 성취동기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01(.41) _b	64.83***
고-고 (HA)	3.28(.47) _a	
저-고 (IM)	2.97(.46) _b	
저-저 (LA)	2.75(.45) _c	

*** $p < .001$, Duncan: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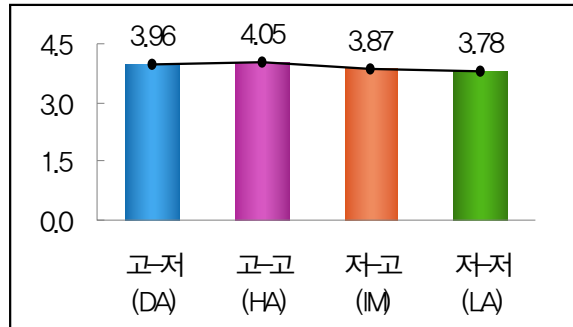
② 학업적 포부

두 번째로 학업적 포부의 경우는 집단별로 모두 차이가 있었는데, 고-고(HA)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아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저(DA)집단과 저-고(IM)집단이 순서대로 높았으며 저-저(LA)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0 발달양상 집단별 학생이 원하는 학력 수준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96(.42) _b	15.30***
고-고 (HA)	4.05(.52) _a	
저-고 (IM)	3.87(.51) _c	
저-저 (LA)	3.78(.55) _d	

*** $p < .001$, Duncan: a)b)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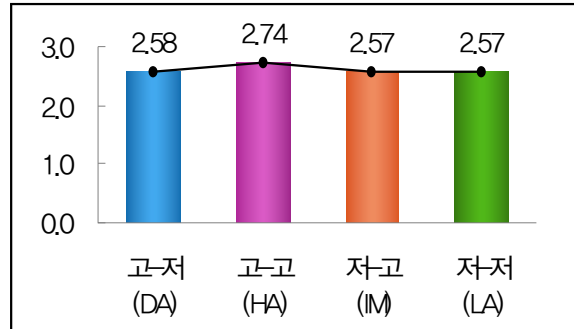
③ 진로인식

진로인식의 경우는 위의 성취동기와 마찬가지로 고-고(HA)집단이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고(HA)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나머지 세 집단의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볼 때 동일한 수준이었다.

표 V-21 발달양상 집단별 진로의식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58(.54) _b	8.59***
고-고 (HA)	2.74(.59) _a	
저-고 (IM)	2.57(.51) _b	
저-저 (LA)	2.57(.50) _b	

*** $p < .001$, Duncan: a>b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발달양상의 측면에서 다양한 집단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고-고(HA)집단만 높은 수준의 학교적응과 성취동기나 학업적 포부, 진로의식 등 미래에 대한 준비 또는 의식 등이 있고, 나머지 집단은 그러한 미래에 대한 준비나 진로의식 측면이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미래에 대해 어떤 자세로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진로가 달라지는 가능성 있는 존재이므로 가정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극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가 있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취동기, 진로의식 등을 자극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심리·사회적응 및 정체성

(1) 심리·사회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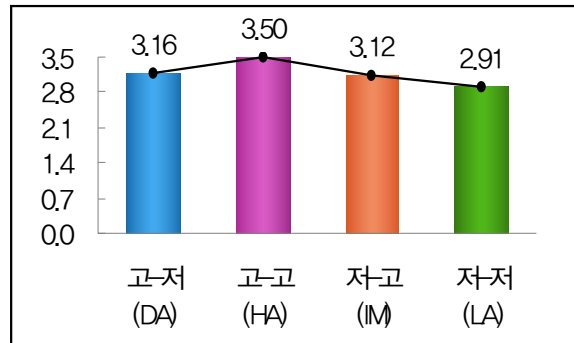
① 자아존중감

첫 번째로 중학교 입학 후 자아존중감이 초등연령기의 발달양상에 따라 다른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고(HA)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고-저(DA)집단과 저-고(HA) 집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사한 수준이었고, 저-저(LA)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13년도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표 V-22 발달양상 집단별 자아존중감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16(.50) _b	71.06***
고-고 (HA)	3.50(.48) _a	
저-고 (IM)	3.12(.51) _b	
저-저 (LA)	2.91(.49) _c	



*** $p < .001$, Duncan: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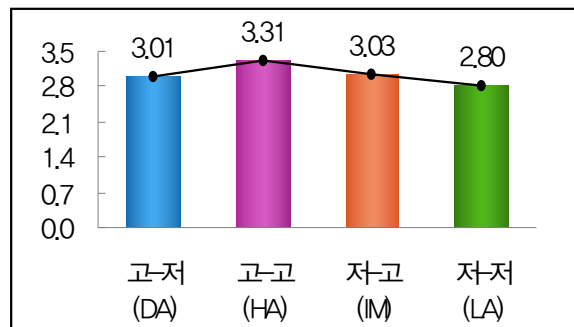
②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고(HA)집단이 가장 높고 고-저(DA)집단과 저-고(IM)집단이 높았으며, 저-저(LA)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2013년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다른 변인들에서 보인 양상과도 유사하였다.

표 V-23 발달양상 집단별 자아탄력성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01(.41) _b	65.25***
고-고 (HA)	3.31(.45) _a	
저-고 (IM)	3.03(.44) _b	
저-저 (LA)	2.80(.44) _c	



*** $p < .001$, Duncan: a)b)c

③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는 실제 신체적인 매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자신에 대한 자아상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변인이다. 특히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생김새나 피부색이 한국 가정 청소년들과 다를 경우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측정하였는데, 아래에 나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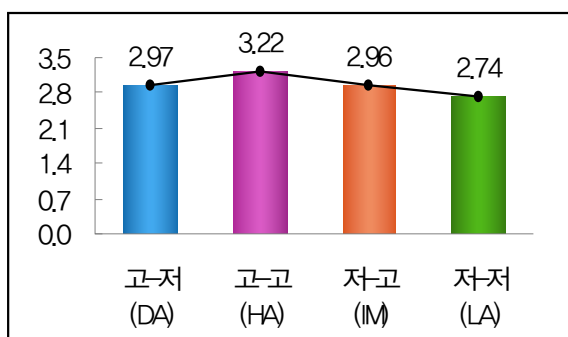
바와 같이 이 역시 고-고(HA)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저-저(LA)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저(LA)집단의 경우 외모와 관련된 자아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2013년 분석에서도 동일하여, 초등학교시기에 형성된 신체상이 중학교에 가서도 동일하게 유지됨을 보여주었다.

표 V-24

발달양상 집단별 신체만족도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97(.47) _b	46.14***
고-고 (HA)	3.22(.49) _a	
저-고 (IM)	2.96(.49) _b	
저-저 (LA)	2.74(.44) _c	



*** $p < .001$, Duncan: a)b)c

④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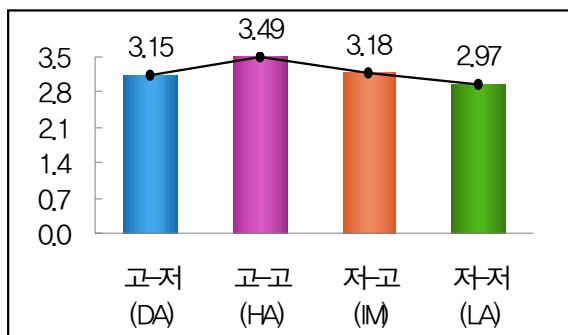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변인인 삶의 만족도의 경우도 다른 변인과 마찬가지로 고-고(HA)집단의 평균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고(IM)집단과 고-저(DA)집단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저-저(LA)집단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나타내었다.

표 V-25

발달양상 집단별 삶의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15(.55) _b	40.95***
고-고 (HA)	3.49(.54) _a	
저-고 (IM)	3.18(.61) _b	
저-저 (LA)	2.97(.61) _c	



*** $p < .001$, Duncan: a)b)c

⑤ 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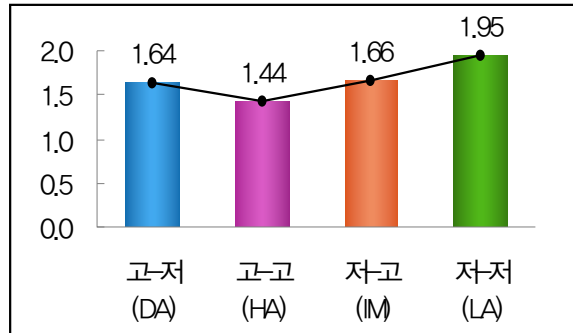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 건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우울이다. 우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저(LA)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고-고(HA)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아서 저-저(LA)집단의 심리적 어려움이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V-26

발달양상 집단별 우울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1.64(.53) _b	42.18***
고-고 (HA)	1.44(.47) _c	
저-고 (IM)	1.66(.53) _b	
저-저 (LA)	1.95(.51) _a	



*** $p < .001$, Duncan: a)b)c

⑥ 사회적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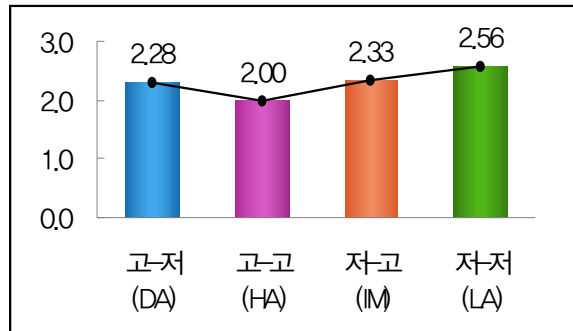
우울과 더불어 사회적 위축의 수준도 살펴보았는데,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저(LA)집단의 사회적 위축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고-저(DA)집단과 저-고(IM)집단이었으며 저-저(LA)집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7

발달양상 집단별 사회적 위축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28(.73) _b	28.63***
고-고 (HA)	2.00(.75) _c	
저-고 (IM)	2.33(.71) _b	
저-저 (LA)	2.56(.66) _a	



*** $p < .001$, Duncan: a)b)c

⑦ 비행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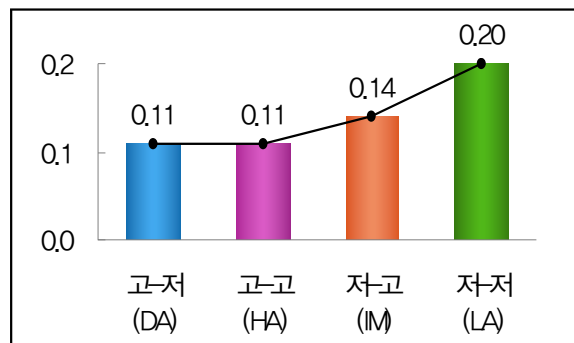
비행경험의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여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저(LA)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저(LA)집단의 경우 심리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높은 동시에 비행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표 V-28 발달양상 집단별 비행경험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11(.44) _b	1.77
고-고 (HA)	.11(.44) _b	
저-고 (IM)	.14(.52) _{ab}	
저-저 (LA)	.20(.59) _a	

Duncan: a)b



(2) 사회적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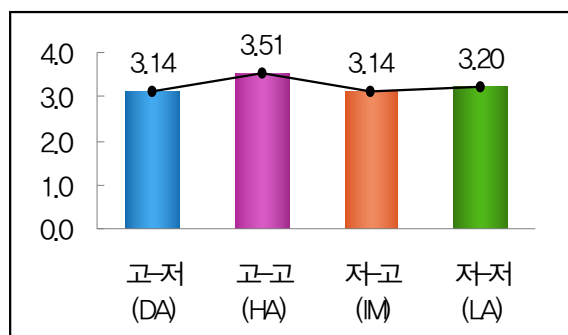
①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체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 중 하나인 가족의 지지를 비교한 결과 고-고(HA) 집단의 지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고-저(DA)집단과 저-고(IM)집단이 다음으로 높으며 저-저(LA)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상황과 마찬가지로 저-저(LA)집단의 사회적 지지체계도 다른 집단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9 발달양상 집단별 가족지지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14(.54) _b	61.11***
고-고 (HA)	3.51(.51) _a	
저-고 (IM)	3.14(.52) _b	
저-저 (LA)	3.20(.56) _c	

*** $p < .001$, Duncan: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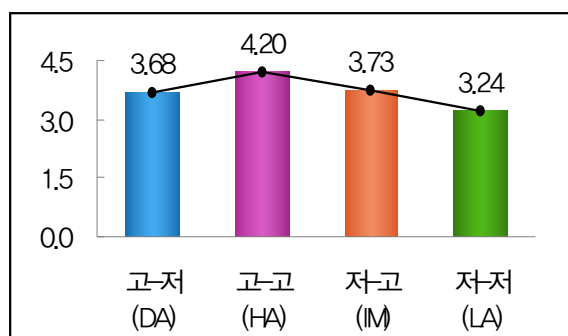
② 교사지지

교사지지 역시 고-고(HA)집단이 가장 높고 저-고(IM)집단과 고-저(DA)집단 이 다음으로 높으며, 저-저(LA)집단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여 2013년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저-저(LA)집단의 경우 초등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도 지지체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여전히 취약함을 시사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나타내었다.

표 V-30 발달양상 집단별 교사지지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68(.80) _b	65.69***
고-고 (HA)	4.20(.81) _a	
저-고 (IM)	3.73(.77) _b	
저-저 (LA)	3.24(.80) _c	

*** $p < .001$, Duncan: a)b)c

③ 친구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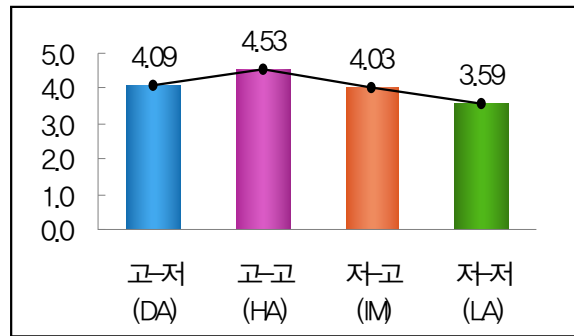
친구지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고(HA)집단이 가장 높고 저-고(IM)집단과 고-저(DA)집단 이 다음으로 높으며, 저-저(LA)집단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여 2013년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고, 전반적으로 가족의지지, 교사의지지, 친구의지지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여서 저-저(LA)집단의 취약함을 연속적으로 드러내었다.

표 V-31 발달양상 집단별 친구지지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4.09(.73) _b	73.73***
고-고 (HA)	4.53(.64) _a	
저-고 (IM)	4.03(.74) _b	
저-저 (LA)	3.59(.88) _c	



*** $p < .001$, Duncan: a)b)c

(3) 정체성

①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에서 ‘한국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한국사람인 동시에 부모님 나라 사람’이라는 응답이 집단별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고-고(HA)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한국사람인 동시에 부모님 나라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저-고(IM)집단과 저-저(LA)집단의 비율은 약간 낮아서 적응을 잘 하는 집단의 경우 부모님 나라에 대해서도 정체성을 지니는 이중정체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V-32 발달양상 집단별 한국인 정체성

빈도(%)

변인	군집	고-저(DA)	고-고(HA)	저-고(IM)	저-저(LA)	합계
한국사람		298(72.7)	254(73.0)	300(76.3)	154(75.1)	1,006(74.2)
한국 사람인 동시에 부모님 나라 사람		104(25.4)	93(26.7)	88(22.4)	47(22.9)	332(24.5)
외국인 부모 나라 사람		3(.7)	1(.3)	3(.8)	1(.5)	8(.6)
잘 모르겠다		5(1.2)	—	2(.5)	3(1.5)	10(.7)
합계		410(100)	348(100)	393(100)	205(100)	1,35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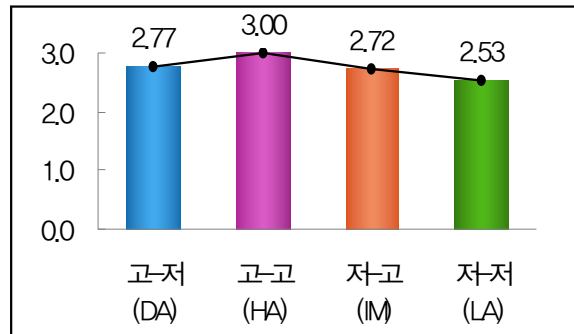
② 한국인 정체성

다음으로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동일시를 나타내는 한국인 정체성의 경우는 고-고(HA)집단이 가장 높고, 저-저(LA)집단이 가장 낮아서 위의 결과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적응을 잘하는 아이들의 경우 한국에 대한 강한 동일시를 하는 동시에 부모님 나라의 정체성도 지니는 건강한 이중문화정체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반대로 저-저(LA)집단의 경우는 한국에 대한 동일시의 정도도 낮아서 향후 청소년기 정체성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능한 높은 집단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V-33 발달양상 집단별 국가정체성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77(.61) _b	24.72***
고-고 (HA)	3.00(.71) _a	
저-고 (IM)	2.72(.61) _b	
저-저 (LA)	2.53(.63) _c	



*** $p < .001$, Duncan: a)b)c

(4) 문화적응 및 다문화수용성

① 다문화수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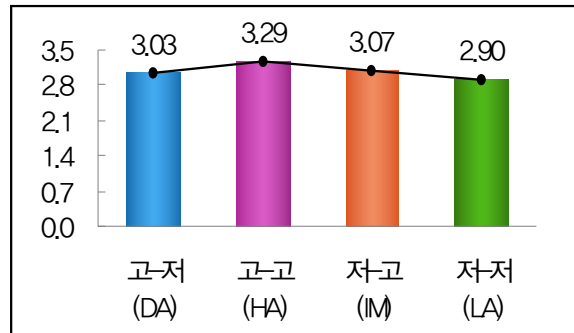
다음으로 문화적응 및 다문화수용성의 변인인 다문화수용성을 살펴본 결과 네 집단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즉, 고-고(HA)집단의 다문화수용성이 가장 높고, 다음이 저-고(IM), 고-저(DA), 저-저(LA)의 순이었다.

표 V-34 발달양상 집단별 다문화수용성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03(.52) _b	26.55***
고-고 (HA)	3.29(.58) _a	
저-고 (IM)	3.07(.52) _b	
저-저 (LA)	2.90(.50) _c	

*** $p < .001$, Duncan: a)b)c



② 이중문화수용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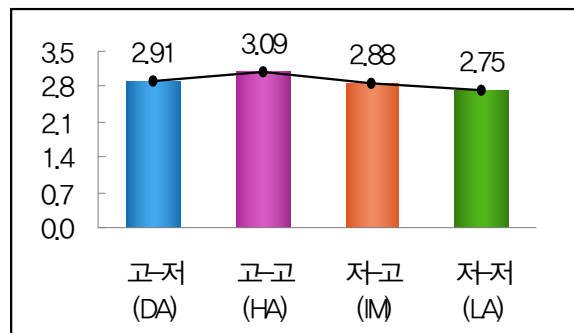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중문화수용태도도 마찬가지로 고-고(HA)집단이 가장 높고 저-저(LA)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2013년도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 양상이었다.

표 V-35 발달양상 집단별 이중문화수용태도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91(.36) _b	40.18***
고-고 (HA)	3.09(.40) _a	
저-고 (IM)	2.88(.35) _b	
저-저 (LA)	2.75(.37) _c	

*** $p < .001$, Duncan: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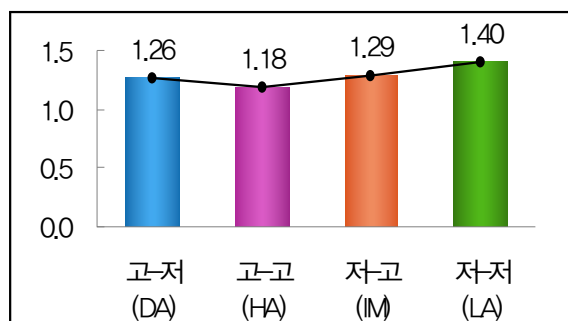
③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경우도 저-저(LA)집단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고-고(HA)집단의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으며 2013년도 초등시기의 발달양상과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V-36 발달양상 집단별 문화적응스트레스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1.26(.33) _b	20.62***
고-고 (HA)	1.18(.24) _c	
저-고 (IM)	1.29(.35) _b	
저-저 (LA)	1.40(.40) _a	

*** $p < .001$, Duncan: a)b)c

4)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1) 신체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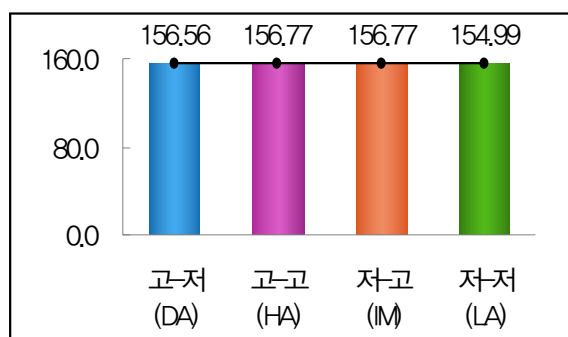
① 키

키의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저-저(LA)집단이 작은 양상으로 나타나 저-저(LA)집단의 경우 신체발달 수준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떨어지는 열악한 상황이며 2013년과 마찬가지로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 2센티미터가 작아, 이는 향후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영역으로 생각된다.

표 V-37 발달양상 집단별 키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156.56(7.14) _a	3.29*
고-고 (HA)	156.77(7.13) _a	
저-고 (IM)	156.77(7.06) _a	
저-저 (LA)	154.99(8.04) _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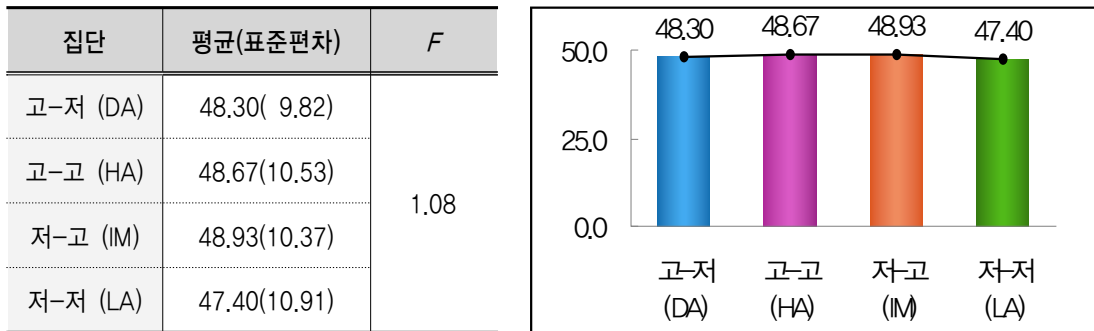
* $p < .05$, Duncan: a)b

② 몸무게

몸무게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2013년에도 동일한 상황이었으나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저(LA)집단의 평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약 1킬로그램 정도 낮아서 키와 마찬가지로 향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으로 생각되었다.

표 V-38 발달양상 집단별 몸무게

평균(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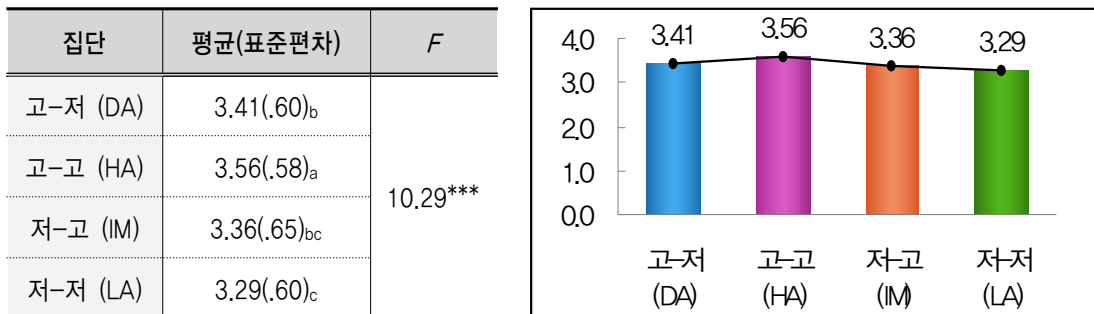
(2) 건강에 대한 인식

①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수준 역시 고-고(HA)집단이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고, 저-저(LA)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낮았다.

표 V-39 발달양상 집단별 건강상태

평균(표준편차)



*** $p < .001$, Duncan: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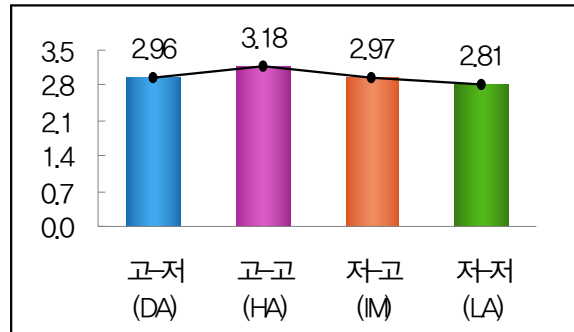
그 외 기타로 거주지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았을 때 고-고(HA)집단 청소년들이 가장 긍정적이었고, 저-저(LA)집단이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다른 변인들과 유사하였고, 2013년 결과와도 동일한 양상이었다.

표 V-40

발달양상 집단별 거주지인식

평균(표준편차)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96(.45) _b	28.14***
고-고 (HA)	3.18(.51) _a	
저-고 (IM)	2.97(.49) _b	
저-저 (LA)	2.81(.48) _c	



*** $p < .001$, Duncan: a)b)c

3.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 패널을 처음 구축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5, 6학년까지 초등생 기간의 발달양상이 중학교 시기의 발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중학교로 이행함으로 인하여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초등생 기간의 발달양상이 중학교 입학 후에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요인,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심리·사회적응 및 정체성,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등 발달 전반에서 초등학교시기에 학교적응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은 고-고(HA)집단의 경우 중학교에 입학해서도 거의 대부분 변인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발달하고 있었고, 반대로 저-저(LA)집단의 경우 거의 모든 영역과 변인에서 가장 취약하고 심지어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체적으로 발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한 집단임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 중 취약한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역량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미 적응수준이 높고 기본적인 역량을 지닌 청소년들에게는 글로벌 역량, 또는 리더십 등 보다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VI 장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와의 비교

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와
비교의 필요성
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대상자의 분포
3.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과 4년간
변화추이 비교
4. 요약 및 소결

제 VI 장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와의 비교⁸⁾

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와 비교의 필요성

본 연구는 2011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고, 조사의 목적은 종단자료를 통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양상에 대한 자료를 산출하고,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 속에서 객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비교가 필수적인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다문화청소년과 마찬가지로 4학년부터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2012년도에 이미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조사 대상자 중 다문화가정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패널조사대상자인 다문화청소년들과 공통문항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전체집단으로 비교를 하면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발달수준이 떨어지나,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그러한 격차는 저소득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가정의 소득수준이 중, 상으로 올라갈수록 두 집단의 격차가 감소하였고,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변인의 경우 다문화청소년들이 더 긍정적인 결과도 산출하여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들이 2014년 들어 전체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중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4년 동안의 종단적 자료를 구축하였기에, 올 해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과의 종단적 발달양상을 비교해 봄으로써 2012년도의 횡단적 비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양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과 다문화청소년패널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4년간의 변화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8) 6장은 양계민이 작성함.

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대상자의 분포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4년간 발달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자료와 비교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패널 중에도 다문화가정 출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출신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비교에서 제외하고 한국가정 출신 대상자들만 비교의 대상에 포함시켰다⁹⁾. 본격적으로 다문화청소년 패널과의 비교함에 앞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대상자에 대한 분포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대상자 중 스스로 ‘다문화가정 출신’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성별 분포를 보면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녀 모두 거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VI-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대상자 수

(단위: 명)

성별 \ 년도	초4	초5	초6	중1
남	1,215(52.0)	1,180(52.1)	1,167(52.6)	1,098(52.5)
여	1,122(48.0)	1,084(47.9)	1,052(47.4)	994(47.5)
합계	2,337(100)	2,264(100)	2,219(100)	2,092(100)

2)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2011-2014)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집 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의 지역별 분포에 근거하여 표집하였는데, 전국에서 경기지역 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 충북, 대구 등의 순이었다.

9)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보다 1년 먼저 자료가 수집되어 발표되는 자료이므로, 1년 전의 동일 학년과의 비교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표 VI-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빈도(%)

지역 \ 년도	초4	초5	초6	중1
서울	267(11.4)	261(11.5)	251(11.3)	239(11.4)
부산	135(5.8)	131(5.8)	137(6.2)	123(5.9)
대구	139(5.9)	138(6.1)	137(6.2)	128(6.1)
인천	116(5.0)	106(4.7)	95(4.3)	87(4.2)
광주	117(5.0)	113(5.0)	107(4.8)	104(5.0)
대전	113(4.8)	112(4.9)	110(5.0)	111(5.3)
울산	100(4.3)	98(4.3)	101(4.6)	90(4.3)
경기	386(16.5)	359(15.9)	354(16.0)	320(15.3)
강원	108(4.6)	107(4.7)	102(4.6)	101(4.8)
충북	135(5.8)	138(6.1)	138(6.2)	130(6.2)
충남	122(5.2)	121(5.3)	126(5.7)	119(5.7)
전북	132(5.6)	130(5.7)	126(5.7)	123(5.9)
전남	104(4.5)	94(4.2)	85(3.8)	82(3.9)
경북	127(5.4)	119(5.3)	116(5.2)	115(5.5)
경남	142(6.1)	144(6.4)	139(6.3)	131(6.3)
제주	94(4.0)	92(4.1)	94(4.2)	86(4.1)
세종특별시	-	-	-	1(.0)
합계	2,337(100)	2,263(100)	2,218(100)	2,090(100)

3.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과 4년간 변화추이 비교

일반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중 본 조사와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주요 비교 요인은 크게 1)학교생활 및 학업성취요인, 2)심리·사회 적응요인, 3)신체적 발달 및 건강요인 등 세 가지 영역이며 그 외 소득수준을 비교하였다. 각 영역별 자세한 비교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경우 모든 문항을 매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인에 따라 몇 년에 한 번씩 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있고, 다문화청소년 패널의

경우 모든 문항은 기본적으로 매년 측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패널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2012년도에 시작한 변인들이 있어서 두 개의 패널 중 공통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변인은 다음의 총 14개 변인이었다. 본 장에서는 두 집단의 4년간 종단자료를 비교분석 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시기×집단)을 실시하였다.

표 VI-3 한국아동·청소년 패널과 다문화청소년 패널의 연도별 공통측정요인

요인	내용	초4	초5	초6	중1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	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	○	○	○	○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	○	○	○	○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	○	○	○	○
	성적수준	-	○	○	○
	성적만족도	-	○	○	○
심리·사회 적응	삶의 만족도	○	○	○	○
	자아탄력성	○	-	-	○
	비행행동	-	-	○	○
	다문화수용성	-	○	○	○
신체적 발달 및 건강	키	-	○	○	○
	몸무게	-	○	○	○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	○	○
기타	소득수준	○	○	○	○

1)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 요인

(1) 학교생활적응: 학습활동

우선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 요인 중 학교생활적응의 학습활동에 대한 집단별 평균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와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활동에서 다문화패널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교시기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패널의 경우는 초등학교 4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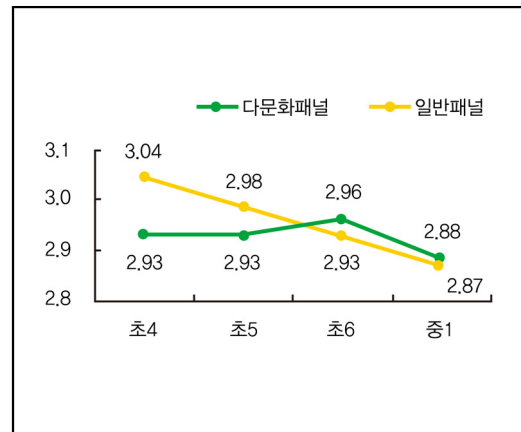
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 집단의 변화도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의 시기에는 일반패널의 평균값이 높다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다문화패널과의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¹⁰⁾. 그러나 크기의 효과도인 에타(η^2) 값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표 VI-4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생활적응 비교: 학습활동

평균(표준편차)

년도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초4	2.93(.50) _a	3.04(.50) _a
초5	2.93(.49) _a	2.98(.53) _b
초6	2.96(.49) _a	2.93(.52) _c
중1	2.88(.52) _b	2.87(.56) _d
시기	$F = 43.46^{***}$	
집단	$F = 4.52^*$	
시기×집단	$F = 19.14^{***}$	
	$\Delta\eta^2 = .013$	
	$\Delta\eta^2 = .001$	
	$\Delta\eta^2 = .006$	

* $p < .05$, *** $p < .001$, Bonferroni: a)b)c)d



※ 본 그래프는 집단간 차이를 최대화 하여 작성됨.

(2) 학교생활적응: 교우관계

두 번째로 학교생활 적응 중 교우관계는 시기별 차이는 유의미했으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기와 집단별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 모두 아주 작은 차이이기는 하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값이 약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집단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평균으로 경향을 살펴볼 때 다문화패널의 경우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에 입학한 후 교우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반패널의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약간 증가하고 중학교 입학 후 변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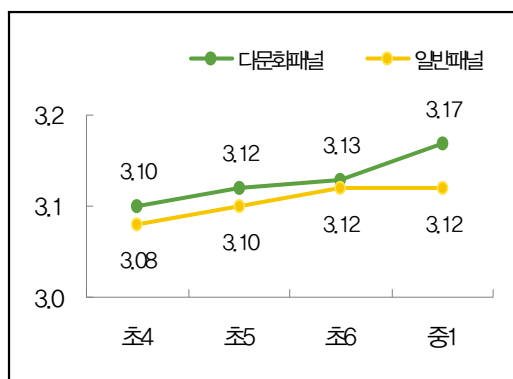
10) 일반패널과 다문화패널간의 비교를 나타낸 그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차이를 극대화 하여 제시함. 따라서 표에 제시된 평균값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

표 VI-5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생활적응 비교: 교우관계

평균(표준편차)

년도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초4	3.10(.48) _b	3.08(.48) _b
초5	3.12(.45) _b	3.10(.47) _{ab}
초6	3.13(.43) _b	3.12(.44) _a
중1	3.17(.47) _a	3.12(.42) _a
시기	$F = 13.32^{***}$	
집단	$F = 3.84$	
시기×집단	$F = 1.53$	
	$\Delta\eta^2 = .004$	
	$\Delta\eta^2 = .001$	
	$\Delta\eta^2 = .000$	

*** $p < .001$, Bonferroni: a)b



※ 본 그래프는 집단간 차이를 최대화 하여 작성함

(3)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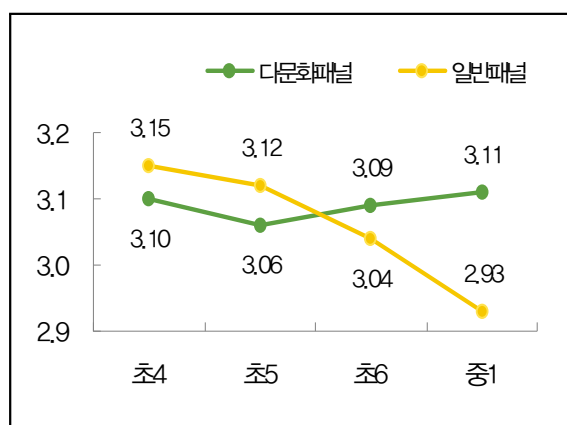
교사관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집단 모두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가 있었으나 그 양상이 조금 달랐다. 즉, 다문화패널의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에서 5학년으로 가면서 약간 감소하였다고 6학년이 되면서 증가하고 중학교에 입학 후 더 증가한 추세였으나 일반패널의 경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VI-6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생활적응 비교: 교사관계

평균(표준편차)

년도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초4	3.10(.61) _b	3.15(.65) _a
초5	3.06(.61) _{bc}	3.12(.66) _a
초6	3.09(.60) _b	3.04(.71) _b
중1	3.11(.56) _a	2.93(.64) _c
시기	$F = 19.77^{***}$	
집단	$F = 3.65$	
시기×집단	$F = 32.81^{***}$	
	$\Delta\eta^2 = .006$	
	$\Delta\eta^2 = .001$	
	$\Delta\eta^2 = .010$	

*** $p < .001$, Bonferroni: a)b)c



※ 본 그래프는 집단간 차이를 최대화 하여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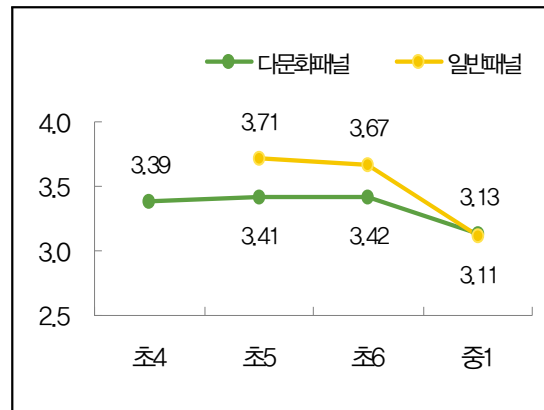
(4) 성적수준

성적수준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총 5개 과목에 대한 주관적 평정의 평균값을 가지고 비교하였는데, 일반패널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성적을 측정하지 않아서 비교할 수 없었다. 성적수준의 경우는 아래의 표와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기와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집단 모두 초등학교시기에 비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로의 이행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시기의 효과도인 에타에타(η^2)값이 .183으로 18.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VI-7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학교성적수준 비교

평균(표준편차)

년도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초4	3.39(.68) _a	—
초5	3.41(.69) _a	3.71(.73) _a
초6	3.42(.72) _a	3.67(.76) _a
중1	3.13(.72) _b	3.11(.91) _b
시기	$F = 698.87^{***}$ $\Delta\eta^2 = .183$	
집단	$F = 59.77^{***}$ $\Delta\eta^2 = .019$	
시기×집단	$F = 85.53^{***}$ $\Delta\eta^2 = .027$	

*** $p < .001$, Bonferroni: a)b

※ 본 그래프는 집단간 차이를 최대화 하여 작성됨.

(5) 성적에 대한 만족도

성적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일반패널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측정을 하지 않아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3년간만 비교하였다. 성적에 대한 만족도도 성적수준과 마찬가지로 시기와 집단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였다. 두 집단 모두 학년이 올라가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만족도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낮아졌으나 일반 패널의 경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만족도가 다문화패널에 비해 더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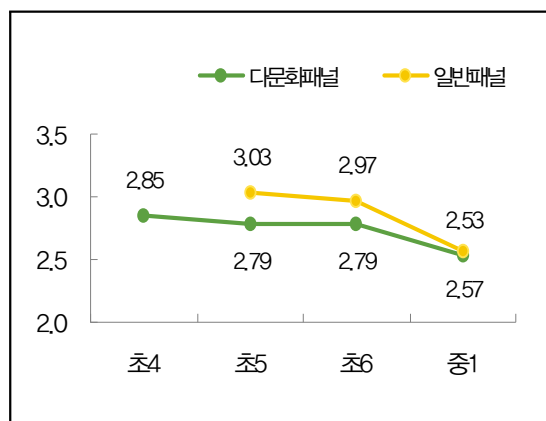
표 VI-8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성적에 대한 만족도 비교

평균(표준편차)

년도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초4	2.85(.71) _a	—
초5	2.79(.76) _a	3.03(.74) _a
초6	2.79(.76) _a	2.97(.74) _b
중1	2.53(.77) _b	2.57(.76) _c

시기 $F = 347.72^{***}$ $\Delta \eta^2 = .097$
 집단 $F = 59.57^{***}$ $\Delta \eta^2 = .018$
 시기×집단 $F = 22.65^{***}$ $\Delta \eta^2 = .007$

*** $p < .001$, Bonferroni: a)b)c



※ 본 그래프는 집단간 차이를 최대화 하여 작성됨.

2) 심리·사회적응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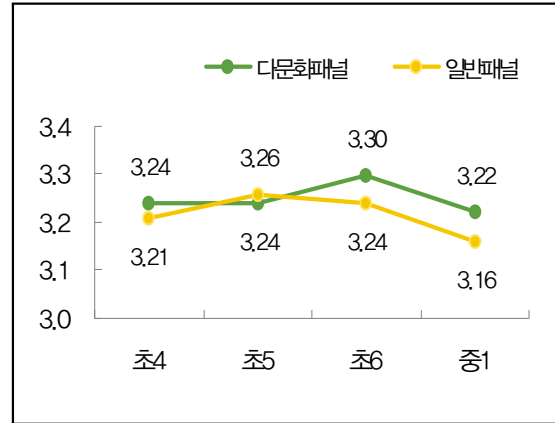
(1) 삶의 만족도

두 번째 요인인 심리·사회적응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은 삶의 만족도인데,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기별 차이와 집단간 차이, 상호작용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는데, 다문화패널의 경우 초등학교 4, 5학년에 비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일반 패널의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에 비해 5학년으로 증가하고 6학년 부터 감소하여 중학교시기에 들어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삶의 만족도는 다문화패널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업성취에 대한 압력이 더 강해지고 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는데 일반 비(非)다문화가정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 심하기 때문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VI-9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삶의 만족도 비교

평균(표준편차)

년도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초4	3.24(.59) _b	3.21(.70) _b
초5	3.24(.61) _b	3.26(.63) _a
초6	3.30(.57) _a	3.24(.67) _{ab}
중1	3.22(.60) _b	3.16(.63) _c

시기 $F = 16.47^{***}$ $\Delta\eta^2 = .005$ 집단 $F = 4.44^*$ $\Delta\eta^2 = .001$ 시기×집단 $F = 4.15^{**}$ $\Delta\eta^2 = .001$ * $p < .05$, ** $p < .01$, *** $p < .001$, Bonferroni: a)b)c

※ 본 그래프는 집단간 차이를 최대화 하여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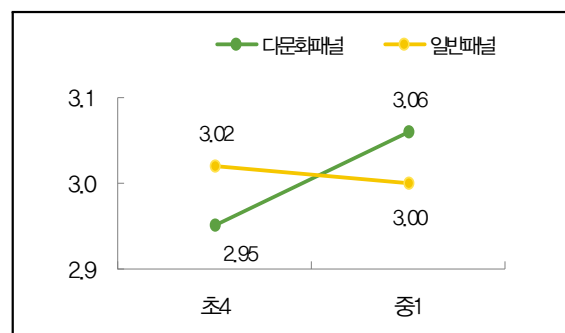
(2) 자아탄력성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은 다문화패널의 경우 매년 측정하는 문항이나 일반패널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시기와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두 번 측정이 되어 두 시기의 측정값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패널의 경우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아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일반패널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작용효과가 산출되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자아탄력성 부분에서는 더 긍정적인 발달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10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자아탄력성 비교

평균(표준편차)

년도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초4	2.95(.47) _b	3.02(.49) _a
중1	3.06(.47) _a	3.00(.45) _a

시기 $F = 24.26^{***}$ $\Delta\eta^2 = .007$ 집단 $F = .31$ $\Delta\eta^2 = .000$ 시기×집단 $F = 44.01^{***}$ $\Delta\eta^2 = .013$ *** $p < .001$, Bonferroni: a)b

※ 본 그래프는 집단간 차이를 최대화 하여 작성됨.

(3) 비행행동

비행행동의 경우도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이 공통적으로 측정한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와 중학교 1학년 시기이기에 두 시기만을 비교하였다. 사실상 비행행동의 경우는 다양한 비행행동을 얼마나 경험해 보았는지의 여부로 값이 높을수록 다양한 종류의 비행을 해 본 것이 되기에 비행의 강도에 대한 비교는 아님을 미리 알려둔다. 그러나 대부분 비행행동의 경험 횟수 자체가 거의 3회 이하로 미미한 관계로 비행행동 경험여부로 비교를 해도 해석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비행행동의 빈도 자체가 낮고 효과도도 적긴 하나, 다문화패널의 경우 초등학교시기에 비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비행행동이 감소한 반면 일반패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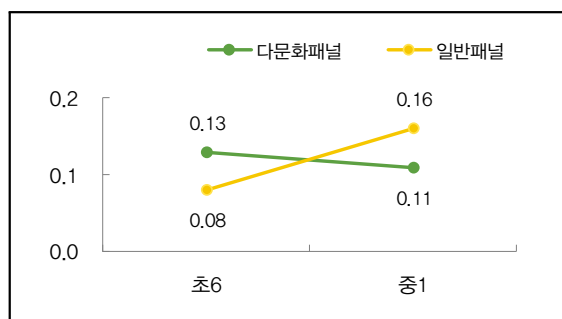
표 VI-11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행행동 비교

평균(표준편차)

년도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초6	.13(.44) _a	.08(.37) _b
중1	.11(.43) _a	.16(.60) _a

시기 $F = 9.91^{**}$	$\Delta \eta^2 = .003$
집단 $F = .00$	$\Delta \eta^2 = .000$
시기×집단 $F = 23.12^{***}$	$\Delta \eta^2 = .007$

** $p < .01$, *** $p < .001$, Bonferroni: a)b



※ 본 그래프는 집단간 차이를 최대화 하여 작성됨.

(4) 다문화수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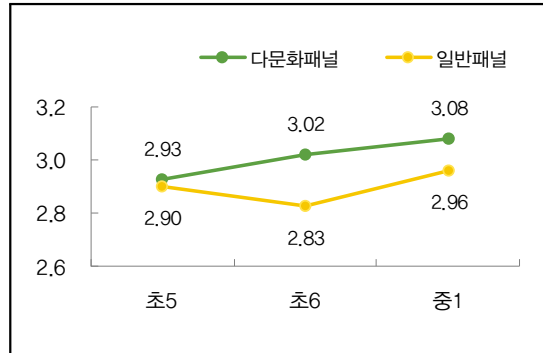
다문화수용성의 경우는 시기와 집단, 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다문화패널의 경우 학년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수용성이 점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패널에 비해 평균값이 높았는데, 일반패널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도 올라가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중학교에 이르러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수용성 측면에서도 다문화집단이 더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표 VI-12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다문화수용성 비교

평균(표준편차)

년도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초5	2.93(.57) _c	2.90(.63) _b
초6	3.02(.54) _b	2.83(.67) _c
중1	3.08(.55) _a	2.96(.59) _a
시기	$F = 44.63^{***}$ $\Delta \eta^2 = .014$	
집단	$F = 53.21^{***}$ $\Delta \eta^2 = .016$	
시기×집단	$F = 25.05^{***}$ $\Delta \eta^2 = .008$	

*** $p < .001$, Bonferroni: a)b)c



※ 본 그래프는 집단간 차이를 최대화 하여 작성됨.

4)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1) 키

우선 신체발달상황 중 키를 비교해보면 두 집단 모두 해마다 증가하여 시기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다문화패널이 일반패널에 비해 유의미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간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변화의 양상이 드러나지는 않으나 평균을 비교해 볼 때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과의 차이가 해마다 약간씩 달라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즉,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두 집단간 신장의 차이는 3.45센티미터였고, 6학년 시기의 차이는 4.16센티미터였으며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3.54센티미터로 나타나 5학년부터 6학년으로 올라갈 때 격차가 벌어졌다가 중학교에 들어와서 다시 격차가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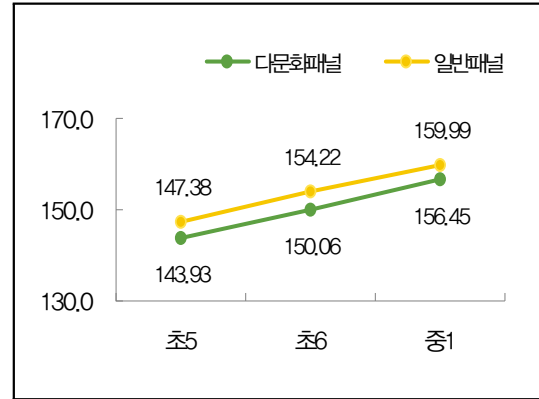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문제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집단간 발달의 차이를 논의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신체적인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인 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특정한 배경의 소수집단이 주류집단과 다른 신체적 발달을 보이고 특히 그것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기준에서 떨어질 때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체발달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정부 및 사회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표 VI-13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키 비교

평균(표준편차)

년도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초5	143.93(7.40) _c	147.38(7.43) _c
초6	150.06(7.34) _b	154.22(7.40) _b
중1	156.45(7.29) _a	159.99(7.43) _a
시기 $F = 12313.26^{***}$		$\Delta \eta^2 = .792$
집단 $F = 227.00^{***}$		$\Delta \eta^2 = .066$
시기×집단 $F = 11.75^{***}$		$\Delta \eta^2 = .004$

*** $p < .001$, Bonferroni: a)b)c



※ 본 그래프는 집단간 차이를 최대화 하여 작성됨.

(2) 몸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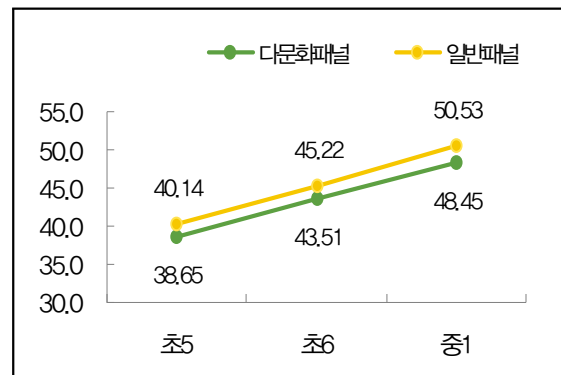
몸무게 역시 키와 마찬가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다문화패널에 비해 일반패널의 평균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로 지나치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신호일 수 있으나 청소년기의 성장과정에서 몸무게가 낮은 것은 키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좀 더 지켜보면서 미리 준비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표 VI-14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몸무게 비교

평균(표준편차)

집단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초5	38.65(9.24) _c	40.14(8.64) _c
초6	43.51(9.78) _b	45.22(9.38) _b
중1	48.45(10.34) _a	50.53(10.09) _a
시기 $F = 6412.55^{***}$		$\Delta \eta^2 = .668$
집단 $F = 29.04^{***}$		$\Delta \eta^2 = .009$
시기×집단 $F = 5.66^{**}$		$\Delta \eta^2 = .002$

** $p < .01$, *** $p < .001$, Bonferroni: a)b)c



※ 본 그래프는 집단간 차이를 최대화 하여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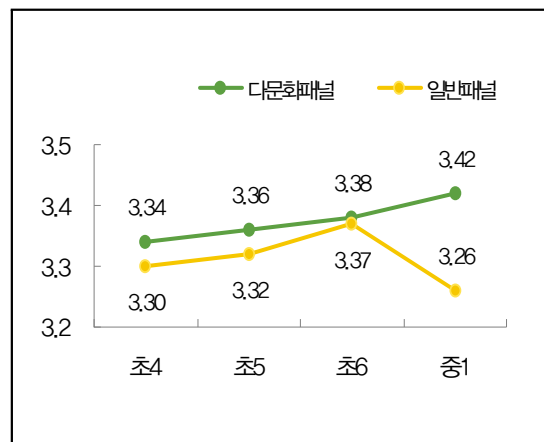
(3)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실제 건강의 수준과는 다르지만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는 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제의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 모두 4년간 측정된 변인으로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기의 주효과와 집단의 주효과, 그리고 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문화패널이 일반패널에 비해 아주 근소하게나마 평균값이 높고, 다문화패널의 경우는 해마다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값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반패널은 초등시기까지 증가하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갑자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VI-15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비교

평균(표준편차)

년도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초4	3.34(.62) _b	3.30(.62) _{bc}
초5	3.36(.62) _{ab}	3.32(.61) _b
초6	3.38(.63) _a	3.37(.61) _a
중1	3.42(.62) _a	3.26(.56) _c
시기	$F = 7.20^{***}$ $\Delta\eta^2 = .002$	
집단	$F = 15.90^{***}$ $\Delta\eta^2 = .005$	
시기×집단	$F = 12.73^{***}$ $\Delta\eta^2 = .004$	

*** $p < .001$, Bonferroni: a)b)c

※ 본 그래프는 집단간 차이를 최대화 하여 작성됨.

4) 기타: 소득수준

그 외 일반패널과 공통되는 문항인 소득수준은 월평균 소득수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는데,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단간 차이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차이를 보면 거의 해마다 15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다문화집단의 가정 경제수준이 일반 비(非)다문화가정과 보이는 격차가 매우 크며, 이러한 소득격차가 단기적으로는 청소년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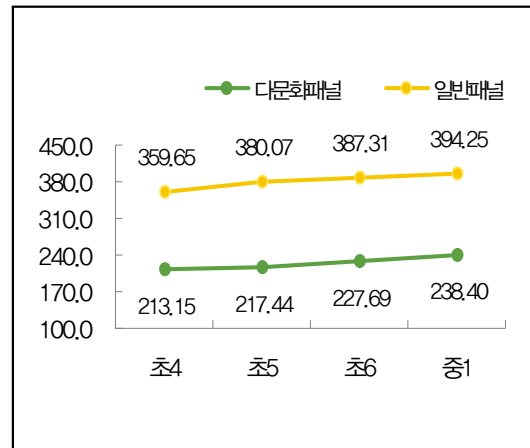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적을 수 있으나 점차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정한 배경을 지닌 소수집단이 주류집단에 비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표 VI-16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소득수준 비교

평균(표준편차)

년도	다문화패널	일반패널
초4	213.15(112.60) _d	359.65(222.64) _c
초5	217.44(102.53) _c	380.07(221.80) _{bc}
초6	227.69(105.09) _b	387.31(211.97) _{ab}
중1	238.40(118.94) _a	394.25(236.45) _a
시기	$F = 43.45^{***}$	
집단	$F = 735.53^{***}$	
시기×집단	$F = 3.27^*$	
	$\Delta \eta^2 = .014$	$\Delta \eta^2 = .192$
	$\Delta \eta^2 = .001$	

* $p < .05$, *** $p < .001$, Bonferroni: a)b)c)d



※ 본 그래프는 집단간 차이를 최대화 하여 작성됨.

4.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 본 연구의 다문화청소년패널과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의 공통측정문항을 비교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발달변화가 일반 비(非)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첫째로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이 차이를 보이는 변인과 동일한 수준인 변인을 각각 비교한 결과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에 따른 비교표로, 경향성에서 나아가 통계적 유의미성 여부에 따라 분류된 것임을 미리 알려둔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는 다문화패널이 높은 변인은 하나도 없고, 학교적응 중 학습활동, 교사관계, 자아탄력성 및 소득수준에서 다문화패널보다 일반패널이 높고, 학교적응 중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 주관적 건강은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이르러서는 주관적 건강에서 다문화패널이 일반패널보다 높아졌고, 학교적응 중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집단간 차이가 없으며 새로이 비교된 다문화수용성도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학교적응 중 학습활동, 교사관계, 소득수준, 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키, 몸무게 등 다수의 변인에서 일반패널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6학년에 이르러서는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발달양상에서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학교적응 중 교우관계와 주관적 건강과 학습활동은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과 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키, 몸무게 등에서는 일반패널이 여전히 높았고, 학교적응 중 교사관계, 삶의 만족도, 다문화수용성 등에서 다문화패널의 평균이 높았으며, 초등학교 6학년 시기부터 비교가 된 비행경험은 다문화패널의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일반패널이 높은 변인은 소득수준과 키, 몸무게 등 객관적인 환경적 신체적 요인에만 국한되었고, 비행경험의 경우 오히려 더 높아진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그 외에는 집단간 차이가 없거나 다문화패널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학습활동과 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앞에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주관적 건강, 학교적응 중 교사관계, 삶의 만족도, 다문화수용성,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다문화패널이 일반패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물론 다문화패널 조사 대상자들 사이에 많은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청소년별로 취약한 부분이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고,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볼 때 다문화청소년들이 모든 측면에서 비(非)다문화집단에 비해 떨어지고 취약할 것이고 점점 성장하면서 문제집단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다는 두려움과는 달리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들을 더 많이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17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시기별 발달 결과 비교 요약

	다문화패널이 높은 변인	일반패널이 높은 변인	집단간 차이 없는 변인
초4	-	■ 학습활동 ■ 교사관계 ■ 자아탄력성 ■ 소득수준	■ 교우관계 ■ 삶의 만족도 ■ 주관적 건강
초5	■ 주관적 건강	■ 학습활동 ■ 교사관계 ■ 소득수준 ■ 성적수준 ■ 성적만족도 ■ 키 ■ 몸무게	■ 교우관계 ■ 삶의 만족도 ■ 다문화 수용성
초6	■ 교사관계 ■ 삶의 만족도 ■ 다문화수용성 ■ 비행경험	■ 소득수준 ■ 성적수준 ■ 성적만족도 ■ 키 ■ 몸무게	■ 교우관계 ■ 주관적 건강 ■ 학습활동
중1	■ 주관적 건강 ■ 교사관계 ■ 삶의 만족도 ■ 다문화수용성 ■ 자아탄력성 ■ 교우관계	■ 소득수준 ■ 키 ■ 몸무게 ■ 비행경험	■ 학습활동 ■ 성적수준 ■ 성적만족도

두 번째로 논의할 부분은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시기별 각각의 차이가 아니라 발달의 양상에 대한 부분이다. 이번 장의 목적은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각각 비교하는 것 이외에 종단적인 변화의 추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4년간의 발달적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중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인하여 급격히 감소되는 변인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일반패널과 다문화패널이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학교생활 적응 중 학습활동, 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등 주로 학업성취와 관련된 변인과 삶의 만족도 변인이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 모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학업이 초등학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반면 학습의 내용과 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히 다문화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양상이 더 긍정적인 변인들도 발견되었는데, 비행행동과 자아탄력성이다. 비행행동의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다문화패널이 일반패널보다 많았으나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일반패널에 포함된 비(非)다문화청소년의 비행이 높아졌고, 자아탄력성의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일반패널이 더 높았는데, 중학교에 가서는 역전되어 다문화패널의 평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이 두 가지 변인에서의 종단적 변화는 다문화청소년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더 긍정적인 발달을 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과들이 자세히 분석되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VII 장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영향 : 심리·사회적응을 중심으로

1. 가정환경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2. 학교 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사회환경의 영향
4. 요약 및 소결

제 VII 장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영향 : 심리·사회적응을 중심으로¹¹⁾

이번 년도의 주제 중 하나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번 장에서는 2014년도의 횡단적 자료를 기준으로 가정환경요인과 학교요인 및 지역사회 요인의 영향을 각각 살펴보고자 하였다.

1. 가정환경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선 첫 번째로 가정환경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틀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환경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놓고, 심리·사회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였는데, 이 중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변인은 아버지교육 수준, 어머니교육수준, 부모양육태도(감독과 방임), 월평균소득수준, 가족의지지,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부모(어머니)의 자녀 학업에 대한 관심, 부모(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부모(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부모(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부모(어머니)신체적 건강, 부모(어머니)심리적 건강 등이었고, 종속변인으로 사용한 심리·사회적응 변인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그리고 사회적 위축 등 총 네 가지 변인을 사용하였다. 가정환경요인 외에도 본 장에서 심리·사회적응요인으로 보고자 한 변인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그리고 사회적 위축의 총 네 가지 변인이었다.

우선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VI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 부모 및 가족 요인은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다음이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 부모효능감, 아버지의 교육수준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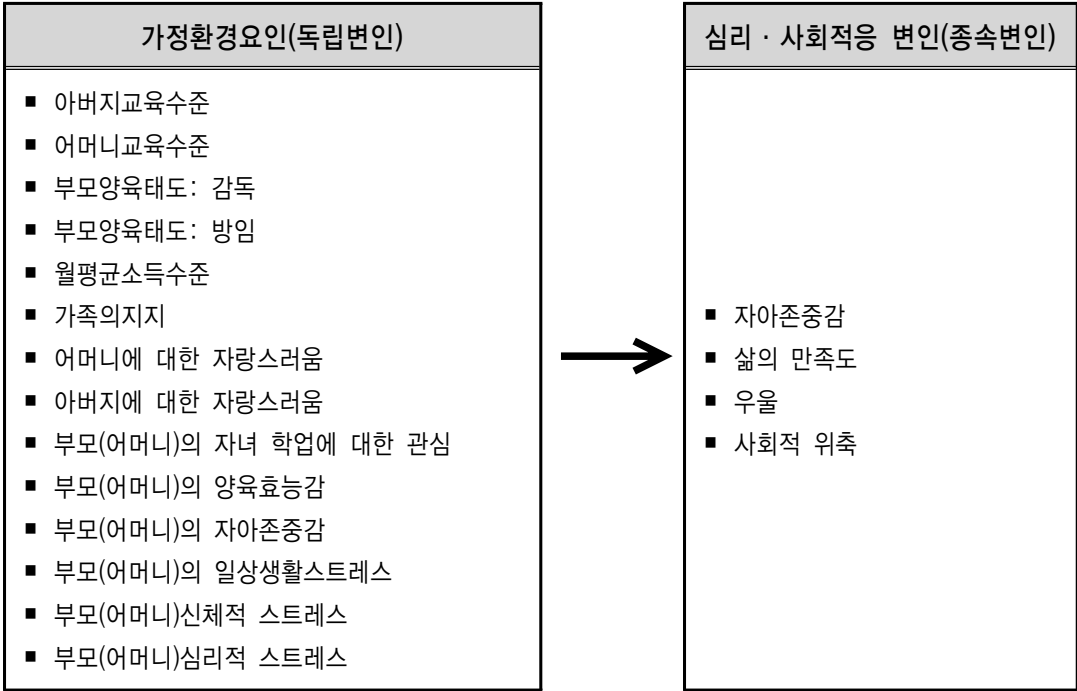
11) 7장은 양계민이 작성함.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이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역시 가족의 지지가 낮을수록 부모의 감독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방임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더 우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효능감이 낮아도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심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으나 실제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의 학업에 관심을 가질수록 더 우울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요즘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압력과 스트레스를 가늠하게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의 경우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이 감소할수록,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를 적게 느낄수록 사회적 위축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족의 지지와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Ⅶ-1】 가정환경요인이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한 분석틀

표 VII-1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가족 요인: 전체

종속 변인	독립변인	β	t	R^2	ΔR^2
자아존중감	가족의 지지	.332	11.20***	.209	—
	부모양육태도: 감독	.194	6.55***	.236	.027
	부모효능감	.073	2.96**	.241	.007
	아버지 교육수준	.070	2.88**	.246	.005
삶의 만족도	가족의 지지	.380	13.14***	.249	—
	부모양육태도: 감독	.194	6.74***	.275	.026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	-.070	-2.95**	.280	.005
우울	가족지지	-.233	-7.62***	.178	—
	부모양육태도: 감독	-.243	-8.14***	.223	.045
	부모양육태도: 방임	.128	4.91***	.238	.015
	부모의 학업관심	.075	2.98**	.241	.003
	부모 효능감	-.053	-2.05*	.244	.003
사회적 위축	부모양육태도: 감독	-.140	-4.23***	.039	—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	.096	3.50***	.049	.010
	가족의 지지	-.090	-2.71**	.055	.006

* $p < .05$, ** $p < .01$, *** $p < .001$

다문화청소년 전체를 보았을 때는 위와 같은 결과가 산출되었으나 다문화청소년들은 가정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 내 다양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인 소득수준에 따라 각각 위의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을 상, 중, 하로 분리하고, 집단마다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득수준은 2014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중 2/4분기의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1, 2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하'로, 3분위는 '중'으로 4, 5분위에 해당되는 가구는 '상'으로 분류하였다.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은 분석에 포함된 1,361명 중 1,166명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하였고, '중'인 집단은 124명으로 9.1%였으며 '상'인 집단은 71명으로 5.2%여서 본 패널에 포함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대부분이 1, 2분위에 해당되는 '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로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한 결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족의지지,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 아버지의 교육수준, 부모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역시 가족의

지지,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부모양육태도 중 감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에는 가족의지지, 부모양육태도 중 감독,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부모양육태도 중 방임, 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심이 순서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의 경우는 부모의 감독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의 지지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산출된 것은 전체 집단과 유사하나, 소득수준이 ‘하’에 속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에는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또는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가 지니는 부모상이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였다.

표 VII-2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가족요인: 소득수준 ‘하’

종속 변인	독립변인	β	t	R^2	ΔR^2
자아존중감	가족의 지지	.234	6.97***	.195	—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210	7.12***	.238	.043
	부모양육태도: 감독	.179	5.67***	.261	.023
	아버지의 교육수준	.068	2.63**	.265	.004
	부모효능감	.053	2.01*	.268	.003
삶의 만족도	가족의 지지	.291	8.91***	.239	—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222	7.72***	.280	.041
	부모양육태도: 감독	.174	5.66***	.301	.019
우울	가족의 지지	-.184	-5.35***	.172	—
	부모양육태도: 감독	-.233	-7.26***	.218	.046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153	-5.12***	.236	.018
	부모양육태도: 방임	.104	3.72***	.246	.010
	부모의 학업관심	.072	2.74**	.251	.005
사회적 위축	부모양육태도: 감독	-.158	-5.06***	.041	—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101	-3.21**	.052	.011
	아버지의 교육수준	-.076	-2.60**	.057	.005
	부모효능감	-.062	-2.06*	.061	.004

* $p<.05$, ** $p<.01$, *** $p<.001$

이에 비해 소득수준이 ‘중’인 집단은 ‘하’집단과 또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공통적으로 가족의 지지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그 중에서도 감독이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감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VII-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가족요인: 소득수준 ‘중’

종속 변인	독립변인	β	t	R^2	ΔR^2
자아존중감	가족의 지지	.316	3.34**	.230	—
	부모양육태도: 감독	.285	3.02**	.285	.055
삶의 만족도	가족의 지지	.432	4.86***	.316	—
	부모양육태도: 감독	.211	2.36*	.350	.034
	아버지의 교육수준	-.156	-2.13*	.374	.024
우울	부모양육태도: 감독	-.306	-3.27**	.230	—
	가족의 지지	-.217	-2.19*	.284	.054
	부모양육태도: 방임	.170	2.01*	.307	.023
사회적 위축	부모양육태도: 감독	-.285	-3.19**	.057	—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	.202	2.26*	.096	.039

* $p < .05$, ** $p < .01$, *** $p < .001$

다시 이번에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은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사회적 위축을 제외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우울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며 우울은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 소득수준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르고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중요한 요인인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의 실태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한 개입 등이 필요할 때 각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문화청소년들

각각이 어떤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힘들어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VII-4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가족요인: 소득수준 ‘상’

종속 변인	독립변인	β	t	R^2	ΔR^2
자아존중감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446	4.56***	.417	—
	가족의 지지	.384	3.92***	.524	.107
삶의 만족도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402	3.61**	.316	—
	가족의 지지	.309	2.78**	.386	.070
우울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448	-4.82***	.338	—
	부모양육태도: 방임	.399	4.30***	.480	.142
사회적 위축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	.312	2.73**	.09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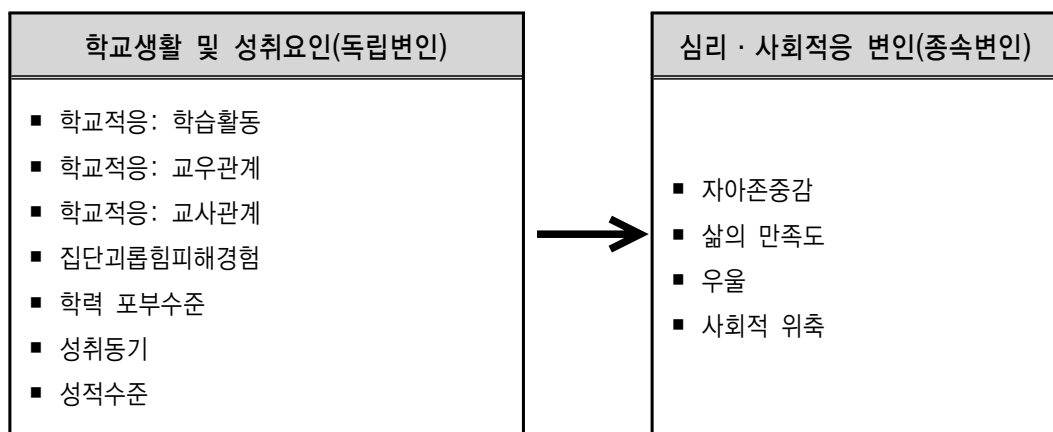
** $p < .01$, *** $p < .001$

2. 학교 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는 학교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교 요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요인이고 두 번째는 학교의 환경과 관련된 요인이다.

1) 학교생활 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교생활 요인 분석은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중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심리·사회적응 변인 중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돌린 것이다. 분석의 틀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Ⅶ-2】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이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한 분석틀

분석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선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취동기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교우관계, 학습활동, 성적수준 및 교사관계였다. 즉,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으로 학습활동과 사회적 관계, 성적수준이 모두 중요한 변인이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 요인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교우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이 학습활동, 교사관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달리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집단괴롭힘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세 번째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우관계, 학습활동,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교사관계 및 성취동기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나뉘수록, 학습활동이 부진할수록,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성취동기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우관계, 성취동기, 성적수준 및 교사관계로 이 변인들이 모두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5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및 성취 요인: 전체

종속 변인	독립변인	β	t	R^2	ΔR^2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32	12.37***	.310	—
	교우관계	.25	9.28***	.397	.087***
	학습활동	.10	3.37**	.413	.016***
	성적수준	.09	3.30**	.418	.004**
	교사관계	.07	2.83**	.421	.003**
삶의 만족도	교우관계	.31	11.13***	.274	—
	학습활동	.18	6.84***	.313	.040***
	교사관계	.18	6.88***	.334	.021***
	집단괴롭힘피해경험	-.10	-4.46***	.344	.009***
우울	교우관계	-.24	-8.23***	.213	—
	학습활동	-.24	-7.86***	.275	.062***
	집단괴롭힘피해경험	.11	4.78***	.286	.011***
	교사관계	-.09	-3.04**	.291	.005**
	성취동기	-.07	-2.37*	.294	.003*
사회적 위축	교우관계	-.19	-6.04***	.110	—
	성취동기	-.16	-5.29***	.146	.036***
	성적수준	-.11	-3.75***	.155	.009***
	교사관계	-.06	-2.01*	.158	.002*

* $p < .05$, ** $p < .01$, *** $p < .001$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역시 전체적인 경향은 보았지만 청소년의 배경특성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소득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어서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인 경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취동기, 교우관계, 학습활동, 성적수준의 순이었고, 삶의 만족도에는 교우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학습활동과 집단괴롭힘 피해경험도 영향을 미쳤으며 성취동기도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교우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활동, 집단괴롭힘피해경험, 성취동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위축에는 교우관

계, 성취동기, 성적수준, 교사관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의 경우 교우관계에 의해서 상당부분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표 VII-6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및 성취 요인: 소득수준 ‘하’

종속 변인	독립변인	β	t	R^2	ΔR^2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340	12.02***	.313	—
	교우관계	.267	9.90***	.398	.085
	학습활동	.117	3.59***	.412	.014
	성적수준	.079	2.68**	.416	.004
삶의 만족도	교우관계	.376	12.80***	.277	—
	학습활동	.173	5.50***	.310	.033
	집단괴롭힘피해경험	-.108	-4.37***	.321	.011
	성취동기	.084	2.84**	.326	.005
우울	교우관계	-.272	-9.04***	.214	—
	학습활동	-.240	-7.46***	.272	.058
	집단괴롭힘피해경험	.122	4.83***	.286	.014
	성취동기	-.088	-2.88**	.291	.005
사회적 위축	교우관계	-.208	-6.78***	.119	—
	성취동기	-.159	-4.94***	.159	.040
	성적수준	-.137	-4.37***	.174	.015
	교사관계	-.069	-2.50*	.178	.004

* $p < .05$, ** $p < .01$, *** $p < .001$

이에 비해 소득수준이 ‘중’인 집단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동기, 교우관계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우관계와 학습활동, 성적수준 등이 산출되었으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산출되었는데 학습활동이 교우관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우관계와 성취동기, 학교를 어디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학력포부의 순이었다.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과 다른 차이는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의 경우 유사한 변인들이 산출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교우관계가 중요한 변인이었다고 하면 소득수준이 ‘중’인 집단의 경우는 학습활동이 약간 더 중요하게 부각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VII-7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및 성취 요인: 소득수준 ‘중’

종속 변인	독립변인	β	t	R^2	ΔR^2
자아존중감	학습활동	.247	2.64**	.254	—
	성취동기	.271	3.02**	.324	.070
	교우관계	.216	2.50*	.357	.034
삶의 만족도	교우관계	.365	4.49***	.294	—
	학습활동	.453	4.73***	.383	.089
	성적수준	-.185	-2.15*	.406	.023
우울	학습활동	-.353	-4.00***	.237	—
	교우관계	-.268	-3.03**	.291	.054
사회적 위축	교우관계	-.287	-3.23**	.142	—
	성취동기	-.251	-2.84**	.190	.052
	학력포부	.205	2.56*	.232	.042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상’ 집단의 경우는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간략하였다. 즉,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우관계와 학습활동이 순서대로 영향을 미쳤고, 삶의 만족도에는 학습활동이, 우울에는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순서대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심플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되고, 역시 학습활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중’인 집단에 비해 학습활동의 영향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 내 집단간 가치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VII-8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 및 성취 요인: 소득수준 '상'

종속 변인	독립변인	β	t	R^2	ΔR^2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536	5.45***	.479	—
	학습활동	.288	2.93**	.538	.059
삶의 만족도	학습활동	.521	5.07***	.272	—
우울	학습활동	-.308	-2.47*	.205	—
	교우관계	-.266	-2.14*	.255	.050

* $p < .05$, ** $p < .01$, *** $p < .001$

2) 학교환경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로 학교환경에 따른 차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당시 대상 학교의 다문화정책의 수준을 조사한 바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해당 학교의 다문화지원정책에 따라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수준이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 학교환경 중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조사대상자 특성

우선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총 301명이었고, 본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대상자의 담임교사였다. 아래와 같이 전국 16개 시도지역에서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표집하였다.

표 VII-9 교사 근무학교 지역별 빈도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경기	전체
빈도(%)	30(10.0)	17(5.6)	16(5.3)	14(4.7)	9(3.0)	13(4.3)	13(4.3)	40(13.3)	301 (100)
지역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빈도(%)	17(5.6)	16(5.3)	19(6.3)	25(8.3)	23(7.6)	18(6.0)	24(8.0)	7(2.3)	

교사의 성별 분포는 여자가 전체의 70.8%였고 남자는 29.2%에 불과하여 대다수가 여자 교사였다.

표 Ⅶ-10 교사의 성별

구 분	남자	여자	전체
빈도(%)	88(29.2)	213(70.8)	301(100)

교사의 연령대는 20대가 13.3%, 30대가 32.9%, 40대가 30.9%, 50대가 22.9%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표 Ⅶ-11 교사의 연령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빈도(%)	40(13.3)	99(32.9)	93(30.9)	69(22.9)	301(100)

교사의 재직기간을 보면 5년 미만인 집단이 2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5년 이상 30년 미만인 집단이 18.9%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집단이 16.9%,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집단이 15.6%, 20년 이상 25년 미만이 13.3%,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7.3%, 30년 이상이 7.0%로 집단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표 Ⅶ-12 교사의 재직기간

구 분	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15년 미만	15년-20년 미만	20년-25년 미만	25년-30년 미만	30년 이상	전체
빈도(%)	63(20.9)	47(15.6)	51(16.9)	22(7.3)	40(13.3)	57(18.9)	21(7.0)	301(100)

(2) 학교 다문화지원정책 유무에 따른 청소년 심리·사회적응수준의 차이

본 연구에서 학교의 다문화지원정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제시한 질문은 i)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 ii)학교 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자체 지원계획이 있는지, iii)다문화전담교사가 있는지, iv)전체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지 등이었다.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그리고 사회적 위축의 네 가지 변인을 비교하였다. 301개의 학교 중 다문화학생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공되고 있다’는 응답을 한 경우가 64.1%, ‘없다’는 응답이 35.9%여서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자체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54.5%만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45.5%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세 번째로 다문화전담교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58.5%가 ‘있다’고 응답하여 거의 60%정도는 학교 내에 다문화전담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는 응답은 53.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6.2%로 거의 반반의 수준이었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성화되고 이미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진지 벌써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 정도 만이 전체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향후 확산과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표 VII-13

학교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계획 및 사업 유무

빈도(%)

구 분	있다	없다	전체
다문화학생 지원프로그램 제공 유무	193(64.1)	108(35.9)	301(100)
학교 자체 다문화학생 지원계획 수립 여부	164(54.5)	137(45.5)	301(100)
다문화전담교사 유무	176(58.5)	125(41.5)	301(100)
전체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수행 여부	162(53.8)	139(46.2)	301(100)

이렇게 학교 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수준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의 다문화지원정책의 유무에 따라 자아존중감, 삶의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 등 네 가지 심리·사회 변인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했는가 여부로, 자체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학교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자체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학교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학생 대상의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였는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체

학생 대상의 다문화교육을 실시한 학교 학생의 경우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 비해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지원 정책과 다문화교육들이 실제 다문화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히 이들의 심리·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문제로 생각된다.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작업들이 지금부터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효율로 판단된 사업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II-14 학교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수준 평균(표준편차)

독립변인	종속변인	없다	있다	t
다문화학생 지원프로그램 유무	자아존중감	3.20(.54)	3.24(.54)	.58
	삶의만족도	3.24(.60)	3.27(.60)	.53
	우울	1.65(.53)	1.64(.53)	-.13
	사회적위축	2.31(.71)	2.18(.78)	-1.55
학교 자체 다문화학생 지원계획 수립 여부	자아존중감	3.16(.50)	3.27(.57)	-1.87
	삶의만족도	3.17(.61)	3.33(.58)	-2.47*
	우울	1.65(.53)	1.63(.53)	.33
	사회적위축	2.32(.70)	2.16(.80)	1.96
다문화전담교사 유무	자아존중감	3.20(.54)	3.24(.54)	-.78
	삶의만족도	3.27(.59)	3.26(.60)	.21
	우울	1.61(.53)	1.66(.53)	-.79
	사회적위축	2.31(.77)	2.17(.75)	1.64
전체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실시 여부	자아존중감	3.17(.54)	3.27(.54)	-1.59
	삶의만족도	3.22(.60)	3.29(.60)	-1.09
	우울	1.68(.54)	1.61(.52)	1.22
	사회적위축	2.34(.75)	2.14(.75)	2.40*

*p<.05

3. 지역사회환경의 영향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은 사실상 너무 거시적인 변인이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가 산출되어도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청소년의 사업에 대한 지역 내 사회환경의 영향을 분석한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이라도 분석을 하여 경향성을 파악하고 향후 추가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예산의 총합에 따른 심리·사회적응 수준의 차이

우선 첫 번째로는 시도별 지자체, 교육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입된 2014년도 예산(이자스민의원실, 2014 내부자료)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는데, 전국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 대상 예산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다문화청소년 사업 총 투입예산을 계산하고 이를 i)10억 미만인 지역, ii)10억 ~ 20억 미만, iii)20억 ~ 30억 미만, iv)30억 이상 등 총 4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지역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수준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사회적 위축의 평균차이를 비교하였다. 다문화청소년에게 투입된 총 예산별 시도지역의 수는 집단마다 모두 5개씩이었고, 30억 이상이었던 지역은 2개 지역이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지역사회 내에서 지자체, 교육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을 모두 합한 총예산의 수준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예산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자아존중감의 경우는 네 집단 중 세 집단이 거의 비슷하였고, 30억 이상 투입된 지역 청소년의 평균값은 오히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위축은 예산투입에 따라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울의 경우는 예산투입이 30억 이상으로 가장 높았던 지역 청소년의 우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기대와 반대의 결과를 산출하였다.

표 VII-15 지역별 총 투입예산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변인 \ 예산	10억 미만	10억~20억	20억~30억	30억 이상	F
자아존중감	3.21(.48) _{ab}	3.27(.53) _a	3.21(.54) _{ab}	3.14(.54) _b	4.13**
삶의 만족도	3.18(.64)	3.25(.58)	3.26(.62)	3.17(.56)	2.38
우울	1.69(.56) _{ab}	1.55(.53) _c	1.62(.53) _{bc}	1.73(.53) _a	7.78***
사회적 위축	2.32(.72)	2.27(.74)	2.24(.78)	2.28(.70)	.38

** $p < .01$, *** $p < .001$, Duncan: a)b)c

그렇다면 지역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하여 투입되는 총 예산이 아니라 1인당 투입예산이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별 예산과 최종 참여인원으로 1인당 투입예산을 산출하고 이를 각각 50만원 미만,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으로 나누고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및 우울의 변인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산출되었으나 평균을 자세히 보면 50만원 미만인 집단의 심리·사회적응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상태에서 합리적 해석이 불가능한 결과로 예산이 가장 덜 투입된 경우 심리·사회적응 수준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1인당 투입예산이 50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비교적 비용이 덜 드는 가벼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일 수 있고, 반대로 예산이 많이 드는 경우는 심리적으로 심각한 상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예산투입의 효과라기보다는 원래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건강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이다.

표 VII-16 1인당 투입예산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변인\예산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F
자아존중감	3.26(.53) _a	3.17(.53) _b	3.20(.55) _{ab}	3.92*
삶의 만족도	3.37(.58) _a	3.25(.56) _b	3.37(.57) _a	7.64***
우울	1.58(.53) _b	1.67(.53) _a	1.62(.52) _{ab}	4.31*
사회적 위축	2.23(.76)	2.27(.74)	2.28(.76)	.44

* $p < .05$, *** $p < .001$, Duncan: a)b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예산투입에 따른 인과적 결론은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분석의 기초 자료는 전국의 지자체, 교육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스스로 작성한 내용이기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아주 면밀한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심리·사회적응 수준의 차이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3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된 지역을 살펴보니 대도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위에서 산출된 결과가 예산이라기보다는 거주지의 규모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규모에 따라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심리·사회적응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읍면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높고 다음이 중소도시, 대도시의 순이었으며, 우울은 반대로 읍면지역의 평균값이 가장 낮고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은 거주지역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위에서 예산에 따른 차이로 나타난 것은 예산 자체의 차이라기 보다는 지역 규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표 VII-17 거주지 규모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변인	예산	대도시(N=368)	중소도시(N=619)	읍면(N=396)	F
자아존중감		3.17(.52) _b	3.19(.54) _{ab}	3.26(.54) _a	3.06*
삶의 만족도		3.17(.61) _b	3.21(.58) _{ab}	3.29(.59) _a	3.76*
우울		1.66(.55) _{ab}	1.67(.53) _a	1.59(.52) _b	3.06*
사회적 위축		2.21(.70)	2.28(.75)	2.29(.76)	1.31

* $p < .05$, Duncan: a)b

3) 거주지에 대한 인식의 수준에 따른 심리·사회적응 수준의 차이

다음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거주지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총 네 개의 집단으로 수준을 나누고 그에 따른 심리·사회적응 수준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주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검증에 나타나듯이 거주지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심리적응수준과 거의 비례하여 증가 또는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청소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였다.

표 VII-18 거주지에 대한 인식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의 차이 평균(표준편차)

변인 \ 예산	최저(N=236)	저(N=646)	고(N=311)	최고(N=190)	F
자아존중감	3.05(.54) _c	3.09(.49) _c	3.31(.52) _b	3.59(.47) _a	60.83***
삶의 만족도	2.92(.62) _d	3.10(.52) _c	3.38(.58) _b	3.73(.42) _a	100.78***
우울	1.91(.55) _a	1.72(.49) _b	1.47(.51) _c	1.33(.44) _d	65.33***
사회적 위축	2.45(.71) _a	2.32(.66) _b	2.19(.80) _c	1.97(.84) _d	17.97***

*** $p < .001$, Duncan: a)b)c)d

지금까지 지역사회 환경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지역에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거주지의 규모나 거주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예산 하나만을 가지고 그 지역이 다문화친화적인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정부의 예산이 지역사회에 투입이 될 때는 지역의 규모나 인식과 상관없이 효과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지역 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가 사실상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지역사회 지원의 영향을 단순히 예산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더 면밀한 분석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대상자가 많음을 의미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지역에서 보인 관심이 실제 다문화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점검을 해 보아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

4.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요인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I-19 가정, 학교, 지역사회요인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친 영향결과 요약

방법	결과 요약 및 소결
가정환경 요인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은 전반적으로는 가족의 지지와 부모의 양육태도임. - 소득수준별로 각각 분석했을 때 소득수준이 ‘하’ 인 경우는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상’ 인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중요한 요인으로 산출됨. - 소득계층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함.
학교환경 요인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으로 교우관계, 학습활동, 성적수준 등이었으나 역시 소득수준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산출됨. - 소득수준이 ‘하’ 인 집단에서는 교우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이들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지만, 소득수준이 ‘중’ 또는 ‘상’ 으로 갈수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단순해지고, 교우관계보다 학습활동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산출됨. - 학교 다문화학생 지원정책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과정 및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함.
지역사회 환경요인	- 지역 내 투입되는 다문화청소년 지원 총 예산에 따라 해당지역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수준이 달라지는지 비교한 결과 예산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오히려 예산투입이 가장 많이 된 지역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1인당 투입비용에 의한 설명도 합리적 설명이 어려운 상태임. - 지역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즉, 대도시로 갈수록 심리·사회적응 수준이 떨어지고 읍면지역 거주자의 심리·사회적응 수준이 양호함. - 거주지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투입되는 다문화청소년지원예산이 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발전계획이 필요함.

제 VIII 장

질적 조사를 통한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실태

1. 질적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질적조사의 방법
3. 질적조사의 내용
4. 질적조사의 결과
5. 요약 및 소결

제 VIII 장

질적 조사를 통한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실태¹²⁾

1. 질적조사의 배경 및 목적

1) 질적조사의 배경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적해 온 연구로 2012년도부터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질적연구를 수행하게 된 이유는 설문조사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심도 깊은 내용을 심층면접을 통해서 파악하고 특히 패널자료를 분석했을 때 나타난 여러 결과들에 대하여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고, 행위하는 것인지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였다(양계민 외, 2012). 2012년 당시 질적조사 패널의 구축은 2011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적응수준을 고-저로 나누어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질적패널구축을 위한 예비단계였기 때문에 전국의 패널을 대상으로 확률표집을 하였다기보다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표집을 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청소년과 어머니 각각 20명씩 총 40명을 섭외를 하였으나 중간에 한 가구가 탈락을 하여 총 19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예비적인 성격을 지녔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국가를 고려하여 표집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당시 어머니의 출신국의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한족이 3명, 중국 조선족인 4명, 일본인이 7명, 한국이 3명, 대만 1명, 필리핀 1명 등이었다.

2012년도에 구축한 질적패널을 2013년도에도 조사를 하였는데, 2013년 당시에는 연구의 주제가 학교생활이었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질문을 주로 하였고 2012년 당시 질적조사에 참여했던 19명 중 한 가구가 다시 탈락하여 18가구를 조사하였고, 대신 학교 교사를 두 명 인터뷰하였다. 학교 교사는 질적조사의 대상자인 청소년의 학교 담임교사였다. 따라서 한 명이 탈락한 것을

12) 8장 중 1, 2, 3장은 양계민이 작성하였고, 4장 질적조사의 결과는 박주희가 작성함.

제외하고는 2012년도의 대상자와 동일하였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질적조사는 설문조사로부터 얻어내지 못하는 심도 깊은 이야기를 그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고, 설문조사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며, 질적종단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할 경우 해마다 청소년의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학부모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파악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고 요구부합적인 정책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질적조사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질적조사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로부터 얻어낼 수 없는 심도 깊은 이야기를 그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이해한다. 둘째,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봄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파악한다. 셋째, 위의 두 과정을 통해서 보다 현실에 기반하고 당사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며 효율적인 정책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질적조사의 방법

1) 질적조사의 대상자

2014년도의 질적연구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면담에 응했던 가구의 청소년과 어머니로 정하고 접촉하였다. 접촉과정에서 기존의 대상자가 참여를 원하지 않아서 탈락을 하게 될 경우 새로 선정하는 가구의 기준은 우선 첫째, 국가별로 다양한 출신국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를 선정하고자 하였고, 2013년도의 적응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적응수준이 다양하게 표집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어머니들의 출신국이 중국, 일본에 국한되었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다양한 국가출신 학부모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국가는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단독 국가별 인원수가 비교적 다수인 경우 한 국가당 최소 4명씩 선정하였고,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선정하였다. 한 국가당 최소 4명씩 선정한 이유는 2013년도 분석에서 도출된 적응수준이 모두 4개(고-고, 저-고, 고저, 저-저)이고 각 국가별로 수준별 청소년을 면접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최종 총 35명의 청소년과 35명의 학부모를 합하여 총 70명의 질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주로 서울경기지역 가구가 선정된 경우가 많았고 인천, 광주, 부산 지역이 각각 한 가구씩 있었다.

표 VIII-1 2014 질적조사 대상자

어머니	학생	2013발달집단	어머니 출신국가	어머니출생년도	시/도
M-1	S-1	고_고	태국	1976	경기
M-2	S-2	저_고	필리핀	1973	경기
M-3	S-3	저_저	필리핀	1979	경기
M-4	S-4	고_저	베트남	1989	부산
M-5	S-5	고_고	베트남	1988	부산
M-6	S-6	저_고	베트남	1987	경기
M-7	S-7	고_저	태국	1968	광주
M-8	S-8	고_저	필리핀	1962	경기
M-9	S-9	저_저	태국	1968	경기
M-10	S-10	고_저	중국(한족, 기타민족)	1974	경기
M-11	S-11	저_저	중국(조선족)	1970	경기
M-12	S-12	고_고	필리핀	1970	서울
M-13	S-13	저_저	베트남	1972	경기
M-14	S-14	저_저	일본	1964	경기
M-15	S-15	고_저	한국	1963	경기
M-16	S-16	고_저	일본	1964	경기
M-17	S-17	고_저	일본	1963	경기
M-18	S-18	고_저	키르기스스탄	1983	경기
M-19	S-19	고_고	한국	1973	경기
M-20	S-20	저_고	중국(조선족)	1971	경기
M-21	S-21	고_고	중국(한족, 기타민족)	1976	서울
M-22	S-22	저_저	중국(한족, 기타민족)	1971	경기
M-23	S-23	저_고	카자흐스탄	1972	서울
M-24	S-24	고_고	일본	1972	서울
M-25	S-25	저_저	한국	1975	서울
M-26	S-26	고_고	일본	1967	서울
M-27	S-27	저_고	태국	1979	경기
M-28	S-28	저_저	일본	1967	서울
M-29	S-29	고_고	러시아	1980	인천
M-30	S-30	저_저	키르기스스탄	1975	경기
M-31	S-31	저_고	중국(조선족)	1973	경기
M-32	S-32	저_고	중국(한족, 기타민족)	1971	경기
M-33	S-33	고_저	러시아	1969	경기
M-34	S-34	고_저	중국(조선족)	1962	경기
M-35	S-35	고_고	중국(조선족)	1971	경기

2) 질적조사 수행절차

질적조사 방법으로는 구조적 인터뷰(Structured Interview)를 시행했다. 구조적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와 사전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형식을 갖추어 인터뷰를 시행하는 것을 뜻한다(양계민 외, 2012). 이 경우 연구자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면접자가 파견되어 조사를 하는 방식이기에 사전에 교육이 매우 중요하였다.

(1) 면접원 대상 워크샵

질적조사에 앞서 면접원들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이번 년도 연구의 목적 및 도출해야 할 사항, 면접내용, 면접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면접원은 인류학을 기초로 한 석사과정 대학원 또는 졸업자를 활용하였고, 모두 심층면접 유경험자였다. 질적조사를 위한 면접원의 주요역할은 ①면접대상자와 연락, 면담일정 확정 ②심층면접 수행(녹음) ③면접기록지 작성 ④녹취록 작성이었다. 그 외 면접의 기본적인 사항인 면접대상자와의 전화 연락시 주의점, 라포형성방식, 면접원의 태도, 행동, 말씨 등에 대해서도 기초교육을 시행하였다(양계민 외, 2012). 이 때 이번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모든 정보와 면접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절대 비밀로 할 것을 주의시키고, 보안각서를 사전에 받음으로써 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면접과 관련된 기초교육은 아래와 같은 지침서를 제공하고 교육하였는데, 아래에 나와 있듯이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을 소개하고,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서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질적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녹음에 대한 허가를 받고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이 때 인터뷰 대상자와 면접환경, 면접 내용의 특성에 따라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자율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도록 하였고 때에 따라 학부모와 청소년의 반응을 상호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미리 적어둔다든가 하여 숙지하였다가 잊지 말고 상호 확인을 하도록 하였다.

인터뷰가 끝나면 감사의 인사를 하고 답례품을 제공하고 답례에 대한 수령증을 받도록 하였다. 답례품을 제공하고 수령증까지 받고 나면 본 연구가 종단연구이며 질적조사가 계속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여 다음 해에도 조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 면접 시작하기 전에...

- (1) 자기소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에 참여하는000입니다.)
- (2)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
- (3) 동의서 작성(1부는 청소년, 1부는 청소년정책연구원 제출)
- (4) 녹음기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고, 녹음기를 꺼내서 인터뷰 시작함.
- (5) 인터뷰가 끝나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상품권을 주고 수령증을 받음.

* 유의사항

- (1) 인터뷰 대상자와 면접 환경, 면접 내용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질문이 첨가될 수 있음. 연구를 통해 도출하려고 하는 내용에 초점을 두어 질문함.
- (2) 때에 따라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상호 대조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음. 그 때를 대비하여 질문내용과 청소년의 응답을 숙지하여 학부모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도입

- 연구의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해주면 좋겠다고 사전 설명
- (청소년의 경우) 어느 중학교에 다니는지, 학교 다니는 건 어떤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지 등의 가벼운 질문으로 라포형성

(2) 심층면접 동의서

질적연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확인하며, 좀 더 진지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심층면접 동의서를 작성하여 인터뷰에 응하기 전에 면접원들이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할 경우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심층면접 동의서 내용은 ①연구목적과 취지 ②면접내용 ③연구대상자의 역할 ④녹음 및 녹취승인 ⑤자료 수집 및 활용 방식 ⑥자료 보관 등으로 구성하였다. 동의서는 면접시 면접원이 각 2부를 준비하여, 피면접자의 친필사인을 받고 1부는 피면접자가 보관하도록 하고, 1부는 연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양계민, 2012).

동 의 서 (학부모용)

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분석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면, 면접원이 자녀양육과 교육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는 보통 2-3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2-3차례에 걸쳐 인터뷰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이야기는 모두 녹음될 것이고, 기록된 모든 인터뷰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요구하실 경우, 인터뷰에서 기록된 자료들이나 녹취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논문, 보고서 등에 인용될 수 있고, 연구의 결과물은 보고서, 학술지, 책 등의 형태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여러분의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고, 인터뷰를 통해 얻은 모든 자료들은 논문이나 보고서가 완성된 후에도 향후 5년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것입니다.

귀하가 연구에 참여에 하길 원하실 경우, 아래의 서명란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다문화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효율적인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자 서명

날짜(년/월/일)

동 의 서 (청소년용)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수행하는 연구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나 가정에서 느낀 점이나 경험들을 자세히 이야기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정책을 제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구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녹음을 하고, 글로 정리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을 작성하는데 쓰일 예정이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구보고서나 논문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고, 녹음 및 기록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것입니다.

연구자의 질문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느낌, 생각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길 원하고, 연구자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동의하면 아래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참여자 서명

날짜(년/월/일)

(3) 인터뷰 진행

심층면접의 진행은 일단 패널 설문조사가 끝난 후 전화로 인터뷰 참여를 확인하고, 동의한 가구에 한하여 다시 전화하여 면접 날짜를 잡은 후 면접 대상자가 편한 시간을 정하여 방문하였다. 면접의 장소는 녹음의 질을 고려하여 조용한 곳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되, 최대 2시간은 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지나치게 긴 시간의 면접이 면접대상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양계민 외, 2012).

(4) 인터뷰 후 과정

일단 인터뷰가 모두 끝난 후 녹음한 내용을 녹취록을 작성하여 녹음화일과 녹취록을 연구원에 보내도록 하였고, 모든 면접원들이 인터뷰를 종료한 시점에서 면접원들과 함께 제 2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차 워크숍에서는 이번 질적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 특이사항, 다음에 인터뷰를 계획할 때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동의서, 답례품확인서 등 면접대상자로부터 받은 것들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때 질적조사의 과정에서 듣게 된 정보나 내용 등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3. 질적조사의 내용

1) 청소년 대상 질적조사의 내용

청소년 대상 질적조사는 크게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영역으로 나누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심리사회적응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 외에 학교나 기타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사업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다. 청소년 대상 질적조사의 요인별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요인	조사내용
가정 생활	○ 부모님은 청소년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 사춘기 부모님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 주로 어떤 이유에서 부모님께 야단을 맞는지(부모님에 대한 감정, 태도 등을 파악) ○ 자신이 대들거나 할 때 아빠와 엄마가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 ○ 자신에 대해 부모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 엄마 아빠에게 각각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엄마 아빠가 어떻게 자신을 대해 주었으면 좋겠는지와 관련-부모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점을 파악) ○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어떤지 ○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거나 고민 있을 때 누구랑 의논하는지? (부모님, 형제, 친구, 없다 등등 - 부모님이 아닌 경우 왜 부모님과 상의를 하지 않는지) (이 때,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관계가 좋은지 파악) ○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 스트레스 푸는 방법, 가장 힘들 때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
학교 생활	○ 초등학교와 비교해서 중학교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 ○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어려운 과목 ○ 공부하기 어려운 점을 교사나 부모님께 말하고 상의한 적이 있는지 - 했다면 도움이 되었는지(부모와의 상의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 안했다면 왜 하지 않는지 ○ 성적은 좋은 편인지?(공부를 잘 못한다면 왜 그런지를 질문으로 파악 - 관심이 없는 것인지, 부모의 관심이 없는지, 사교육이 부족한지 등) ○ 나중에 커서 학교 공부는 어디까지 하고 싶은지 - 그 것을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나, 부모님과 상의해본 적이 있나 등 ○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 그 아이 외에 또 누구? (친한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 교우관계를 파악하고자 함) - 그 친구들하고는 무엇을 하며 노는지 또는 어울리는지(진짜로 친한 것인지, 친한 친구들하고는 무엇을 하는지 등 파악) ○ 왕따의 경험 ○ 교사와의 관계 ○ 방과 후 생활(그냥 집에 있는지, 방과후 학교, 학원, 청소년기관 등을 가는지,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 학원을 다닌다면 하루에 몇 시간 무슨 과목을 다니는지 ○ 시간이 있을 때 취미로 하는 것은 무엇?(게임,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얼마나 하는지 ○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해당 청소년이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거나 불편함을 겪은 경험이 있는지(그 때의 상황과 감정) - 특히 외모에서 구별이 되는 경우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 자신의 구별되는 외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만일 모른다면,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정체성에 대한 태도) - 아는 게 싫다면 왜 그런지(다문화가정 자녀로 범주화되는 것에 대한 태도) -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면(자신의 정체성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요인	조사내용
학교 생활	○ 발달양상에 따른 질문 - 고-고: 3년 동안 계속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계속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다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비해서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 고-저: 4학년 때는 학교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점점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럴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 저-고: 설문조사 한 것을 보니까 점점 더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점점 적응이 나아지고 있는지 - 저-저: 학교 다니는 것이 어떤지 질문했을 때 어떤 점이 어려운지, 왕따를 당한 경험은 없는지 등 이유를 파악함.
정책적 요구	○ 사회적으로 다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지원받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 그 중 가장 좋았던 것,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것,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제공되었던 것,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 - 그것들은 언제 받은 것인지(초등학교 때 아님 중학교 와서) - 지원기관(학교, 청소년기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 지원경로(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알려주어서 등) - 지원을 해 줄 때, 다문화가정 자녀만 별도로 지원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섞여서 지원이 되었는지? - 지원을 할 때, 다문화가정 자녀만 별도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섞여서 지원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초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중학교 때의 지원이 달라진 점이 있는지?(양적, 내용적) ○ 중학교 때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점이 필요한지?

요인	조사내용
배경 요인	(작년도 참여자의 경우 사전 정보가 있으면 반복해서 질문할 필요가 없음) ○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누구누구입니까, 자녀가 친자녀인지 여부 ○ 현재의 결혼상태(결혼, 이혼, 별거, 사별 등) ○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입국이유) ○ 어떻게 ○○아버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결혼과정, 간략히) ○ 현재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 남편과의 관계는? 시댁식구들과의 관계는? ○ (해당 자녀 이외의 다른 자녀가 있다면)형제자매간의 관계는 어떤지,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는 어떤지(이들은 모두 같은 부모에게서 낳은 아이들인지)
학교생활 및 학업관련 요인	○ 자녀가 중학교 가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나요?(도입) - 학교 공부는 잘 하나?(어떤 과목을 가장 잘하고, 어떤 과목을 가장 어려워 하는지) - 초등학교에 비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변하였나 - 학교생활을 즐거워하는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 학교친구관계는 어떤지(잘 알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 ○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에 간 일이 있는지 -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자녀가 나중에 어느 수준까지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대학교, 대학원 등) ○ 자녀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점은 - 공부라면 구체적으로 공부의 어떤 점? - 생활태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 ○ 자녀가 공부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학원에 보내는지, 공부방에 보내는지, 아무것도 못하는지 등등) ○ 자녀는 방과후 어떤 활동을 하는지(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지 파악) ○ 자녀는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 자녀의 친구들의 부모님과는 어떤지, 친하게 지내는 학부모가 있는지 - 있다면 그들과 어떤 일을 하는지(정보교환, 등) -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거나,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 그 때의 상황과 그에 따른 자녀 및 부모의 대처가 어땠는지 ○ 발달양상에 따른 질문(중요) - 고-고: 3년 동안 계속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계속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녀가 다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비해서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 고-저: 4학년 때는 학교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점점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럴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 저-고: 설문조사 한 것을 보니까 점점 더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점점 적응이 나아지고 있는지 - 저-저: 학교 다니는 것이 어떤지 질문했을 때 어떤 점을 어려워 하는지, 왕따를 당한 경험은 없는지 등 이유를 파악함.

요인	조사내용
자녀 교육 및 양육	○ 자녀와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잘 되는지 ○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지, 사춘기라서 한창 반항할 때인데, 반항하지 않는지, - 주로 반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그런 일이 자주 있는지, 언제부터 말을 듣지 않게 되었는지 ○ 자녀가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로써 어떻게 하는지 - 부모의 반응에 대해 자녀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말을 듣는지, 오히려 더 엇나가는지, 집에서 나가는지, 부모를 무시하는지 등)-(부모로써 권위를 가지고 대하는지를 파악) ○ 현재 자녀에 대해 가장 걱정되는 점 또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 자녀를 지도하기 힘들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는지 - 있다면 어떤 도움을 어디에서 받았는지 - 없다면 왜 받지 않는지(예를 들면, 정보가 없어서, 또는 예전에 받으려고 했으나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기대가 없다든가 등) ○ 사춘기 자녀의 지도를 위해 부모를 위해 또는 자녀를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자녀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 어떤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는지 - 엄마나라 또는 아빠나라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을 자녀와 함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지
정책적 요구	○ 사회적으로 다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지원받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 그 중 가장 좋았던 것,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것,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제공되었던 것,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 그것들은 언제 받은 것인지(초등학교 때 아님 중학교 와서) - 각각은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었나(학교, 청소년기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는지(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어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알려주어서 등) - 지원을 해 줄 때, 다문화가정 자녀만 별도로 떼어서 지원이 되었는가 아니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섞여서 지원이 되었는가?(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함) - 지원을 할 때, 다문화가정 자녀만 별도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섞여서 지원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초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중학교 때의 지원이 달라진 점이 있는지?(양적, 내용적) ○ 중학교 때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점이 필요한지? ○ 자녀가 한국인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어머니 또는 아버지 나라사람도 된다는 이 중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지

4. 질적조사의 결과

1) 가정생활

(1) 다문화가정자녀의 사춘기 경험과 부모의 사춘기 자녀 양육

사춘기 반항의 시작, 그러나 마음껏 반항하기는 어려움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중 11명이 중학교 진학 이후 부모님과 별다른 문제 상황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 부모님께 반항한 기억이 없거나 부모님께 화가 나더라도 혼자 삭히는 편이라고 하였으며, 일부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반항할 수 없는 경우였다. 부모님을 무서워하는 자녀들은 체벌을 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특히, 한 재혼가정 응답자의 경우, 어릴 적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가 아빠에게 맞아서 뼈가 부러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짜증 정도는 내더라도 대들거나 반항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상 심리적으로 불만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거나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제압을 당하거나, 화가 나더라도 분노의 마음을 품고 표현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면접자 : 반항하거나 엄마랑 싸운적 없어?

S-2 : 네. 그럼 더 맞아서.

면접자 : 그럼 해본 적은 있어?

S-2 : 어차피 지는 거 아니까.

면접자1: 부모님한테 대들거나 화내거나 그런 적은 있어?

S-30 : 그러면 저 죽어요.

면접자1: 왜?

S-30 : 그러면서 못 하구요 그냥 화내요 속에서

부적절한 반항과 분노조절의 어려움

반항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갈등 등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그에 대한 한 청소년의 반응은 일반적인 청소년의 행동과는 다르게 심하게 과격하고 부적절하였다. 예를 들면, 동생을 잘 돌보지 못했다고 혼내자 흥기를 들고 와서 자신을 죽여보라고 소리친 사례로 이 경우는 평소 마음속에 분노가 내재해 있었다거나 분노조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을 잘 돌보지 못했다고 야단을 맞은 것이 흥기를 들고 자신을 죽이라고 할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야단을 맞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평소의 부모자녀 관계 속에서 욕구좌절이나 분노가 쌓여 있다가 사소한 촉발요인이 분노를 갑작스럽게 유발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어머니에게 자신을 죽여보라고 칼을 들고 대든다는 것은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권위를 지니지 못하고 있고, 자녀의 격한 행동에 대하여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겠다고 흥기를 들었다는 것도 정상적인 아버지의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상황은 자녀가 평소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것은 가정 내 기능이 보통의 가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양상이 아무런 전문적 개입 없이 성인기까지 지속될 경우 심리적 문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면접자: 음~그렇구나. 혹시 너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든 적도 있어?

S-3 : 네, 전에 중1때.

면접자: 왜?

S-3 : 애들 때문에.

면접자: 애들 때문에? 뭐 어떻게 설명 좀 해줄래?

S-3 : 애들 밥 안 줬다고 엄마가 뭐라 잔소리 해가지고 짜증나서 엄마한테 대들었어요.

면접자: 대들었어? 뭐라고 했어?

S-3 : 죽여보라고

면접자: 왜? 왜? 뭐 죽여보라고, 왜 죽여보라고 그랬어?

S-3 : 몰라요, 저도.

면접자: 엄마가 죽인다고 그랬어?

S-3 : 아니요. 제가.

면접자: 근데 왜 죽여보라고 그랬어?

S-3 : 엄마가 때리려 했는데. 엄마한테 죽어 봐, 하면서 막 못 죽이지 하면서 칼 가져와서 죽여, 어찌고저찌고 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들었어요.

면접자: 대들었어?

S-3 : 네

면접자: 아빠도 있었어? 그때? 아빠는 뭐라 그랬어?

S-3 : 아빠는 아예 밖에 나가서 철 같은 거 들고 와서 저 죽이려고 그랬어요.

면접자: 왜 그렇게까지 막 화냈어, 너가?

S-3 : 몰라요.

면접자: 모르겠어?

S-3 : 네

면접자: 그때는 좀 이렇게 감정이 격했었어?

S-3 : 네

면접자: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 어?

S-3 : 몰라요.

면접자: 모르겠어?

참S-3 : 네

면접자: 그때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S-3 : 정신이 없었어요

말이 없고 대화를 하지 않는 사춘기 자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것은 10대 사춘기자녀와의 의사소통 어려움이 대표적인 요인이었다. 면접 가정 중 대다수는 자녀의 성향이 말이 없고 잦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와의 한국어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춘기 연령대 자녀와 부모와의 혼한 의사소통 성향인 것으로 보였다.

M-10 : 친구하고 잘 지내고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말이 좀 줄었어요. 원래 ○○이는 말 진짜 말썽장이처럼 맨날 말, 입만 열면 밥 먹어 아니면 말. 하루 종일 말 했었어요. 엄마, 이게. 엄마...요즘엔 말이 별로 없어요. 중학교에 가서 남자애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M-16: 자기가 친구하고 문자하고 있으면 조금 귀찮아해요. 혼자 있고 싶은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디 물건 사러 나가거나 시내에 같이 거자고 하면 같이 갈 때도 있고 시간 있으면 가요. 그때는 조금 말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의 반항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주여성 어머니

이러한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사춘기 자녀의 반항이나 그로 인한 불화가 아니라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 어머니의 양육태도라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차이 또는 한국어 능력 등 다양한 이유로 사춘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나 교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둔다는 응답이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적절한 자기통제와 사회적 기준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부모에 대한 존중감 등을 가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교육의 올바른 방법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M-10: 옛날에 ○○이 결혼 경우는 말 참 잘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말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말할 때가 많아져요.

면접자: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머니.

M-10: 제가 그래서 그냥 냅둬요. 심하게 반항하면 그냥 냅둬요.

폭력적인 가정의 문화가 자녀의 공격적 행동으로 그래도 나타나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어머니 역시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자녀에게 폭력을 많이 행사해왔고, 남편도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더라도 물건을 집어던진다는가 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환경에서 자녀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며, 이 경우는 아이가 문제라기보다는 아이가 처한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내 자녀의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각성하고, 가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 및 강좌, 가족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면접자: 반항이 좀 심한 편인가요?

M-11: 네. 심해요. 아주 심한 편입니다.

면접자: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M-11: 소리 지르고. 의자 내던지고 그래요.

면접자: 어머니 때리지는 않죠?

M-11: 근데... 좀... 우리 큰 애가 엄마아빠 손에서 크질 않아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던 면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좀 폭력적이었어요.

면접자: 친정아버지가?

M-11: 네. 친정아버지가 폭력적이어서 저도 많이 맞고 컸어요. 우리 엄마도 많이 맞고, 그걸 지켜보면서 컸기 때문에 제가 시집와서 ○○이 나중에 왔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렸을 때 상처가 누적됐다가 폭발하게 되더라구요. 손이 자꾸 올라가게 되더라구요. 가끔씩 진짜 말 안들을 때 참다참다 나도 모르게 손이 가끔씩 올라가게 해요. 심하게는 안하지만.

면접자: ○○이도 어머니한테 육체적으로 공격하거나...

M-11: 그러지는 않는데 물건을 내던져요. 애 아빠가 물건을 내던지는 그런 저기 있어요. 화가나면은.

면접자: 습관이.

M-11: 가끔씩 저 아빠가 의자 내던지고 물건도 내팽겨치고 하는 거 애가 지켜보고 나서 그대로 따라 하더라구요.

면접자: 그걸 아셨어요? 어머니.

M-11 : (고개 끄덕임) 의자도 내던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없었을 때.

면접자: 되게 놀라셨을 것 같은데. 중학교 올라와서 그랬어요?

M-11 : 네. 얼마 안됐어요. 얼마 안됐는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애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켰어야지. 엄마 아빠가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하는 거 지켜봐.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 받았어요. 그대로 따라하긴 해요.

(2) 다문화가정자녀의 가족 내 관계

고민을 꺼내놓기 어려운 상대인 부모님

고민 의논 상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족은 친구와 선생님 다음으로 나타났는데, 부모님을 포함하여 가족과 자신의 고민을 의논하는 경우는 친구 또는 선생님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은 편하지 않은 상대이고, 이해를 해주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대이고, 말을 했다가 야단을 맞거나 공감 받지 못할 것 같고,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가족 중에 고민 의논 상대로는 엄마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면접자: 부모님한테는 왜 얘기 안하는 거야?

S-17 : 제 편 안 들어주니까.

면접자: 친구는 편을 잘 들어줘? 혹시 그렇게 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 고민 있을 때?

S-17 : 네.

면접자: 어떤 일이야?

S-17 : 모르겠어요.

면접자: 엄마한테는 왜 얘기 안했어?

S-17 : 엄마한테?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면접자: 아버지도 모르시고. 너는 아버지랑 어머니 중에 누가 더 편한 것 같아?

S-7 : 둘 다 안 편해요.

면접자: 왜 또.

S-7 : 안 편해요. 둘 다. 그냥 비밀 말하기도 꺼림칙하고. 솔직히 친구가 더 편하고.

면접자: 뭘 말하는 게 꺼림칙한데?

S-7 : 음.. 몰라요. 그냥 꺼림칙해요. ㅎㅎㅎ. 아니 그냥 친구한테는 다 말 수 있는 데, 엄마한테 는 못 말하겠어요. 세대 차이가 나니까. 10대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잖아요. 줄임말도 쓰고 욕도 쓰고. 말이 통하는 데. 엄마는 줄임말 쓰면 그게 뭐냐고 하면서 물어보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말을 쓰냐고 하고.

면접자: 그럼 너는 어머니랑 대화할 때 표준어를 쓰면 되지.

S-7 : 엄마랑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엄마 보기 힘들고. 아침에 아홉시에 일어나면 엄마도 없고 밥만 덩그러니 있고. 오늘 한 달 만에 처음 본 거예요.)

힘들 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가족과 친구

그러나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는 부모님과 친구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언급되었다.

단순한 고민을 털어놓는 대상으로는 친구가 가장 편하지만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대로는 가족이 친구만큼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친구와 가족 모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대상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이야기가 잘 통하는 상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면접자: 안 풀어도 괜찮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누가 제일 의지하고 싶은 것 같아요?
힘이 될 것 같아요?

S-20 : 가족.

면접자: 가족 중에서 누구?

S-20: 엄마랑 아빠.

면접자: 네가 힘들 때 제일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 것 같아요?

S-17 : 친구.

면접자: 다음에는?

S-17 : 엄마.

(3)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정서적 상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한 결과,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은 성적(공부)과 교우관계였다. 특히 중학생이 된 이후 학업량의 증가와 사교육, 부모님의 압박, 낮은 성적, 성적 저하,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 등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이 포괄적으로 나타났다.

면접자: 최근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어떤 거야?

S-13 : 공부.

S-21 :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문제 좀 풀어볼 걸....

면접자: 1학년 올라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구나? 확실히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가 너한테 어려웠나보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좀 더 해둬야 됐구나 하는 걸...

S-21 : 다른 친구들은 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꺼 배우고 있는데 고등학교 꺼도 배우고....에휴.
저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최고의 고민의는 상대이자 힘이 되는 상대인 친구, 그리고 선생님

다문화가정자녀들이 어려운 점이나 고민이 있을 경우, 의논 상대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친구였다. 친구를 선택한 이유로는 가장 편하고 말이 잘 통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래관계가 중요한 청소년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진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해주는 상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친구는 가족과 더불어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상대이기도 했다.

면접자: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물어볼 것 같아?

S-17 : 친구.

면접자: 왜?

S-17 : 뭐가 편해서.

면접자: 친구 다음에는?

S-17 : 그냥 별로.

면접자: 부모님한테는 왜 얘기 안하는 거야?

S-17 : 제 편 안 들어주니까.

면접자: 친구는 편을 잘 들어줘? 혹시 그렇게 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 고민 있을 때?

S-17 : 네.

면접자: 어떤 일이야?

S-17 : 모르겠어요.

면접자: 엄마한테는 왜 얘기 안했어?

S-17 : 엄마한테? 그냥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면접자: 친구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

S-17 : 네!

면접자: 어떻게 친구가 도움을 줬어?

S-17 : 같이 그냥 욕하다 보면 속이 그냥 후련해지는데..

친구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의논 상대는 선생님이었다. 청소년들의 주요 고민 내용은 친구관계나 진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친구는 그다지 좋은 의논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담임선생님보다도 상담선생님과 의논한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학교마다 상담선생님이 배치되어 있어서 상담을 받기 쉬운 환경인데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상담선생님을 더 편하게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힘이 되어 주는 상대로도 선생님이 가족과 친구 다음으로 꼽혔는데, 주로 쪽지 상담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고민을 털어놓고 기운을 받은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면접자: 상담선생님이랑 상담 한건, 너만 한 거야 전부 다 한 거야?

S-18 : 전부 다 했을걸요. 한 명 씩 다 집어내서 한 것 같아요.

면접자: 무슨 얘기했어?

S-18 : 지금 말하는 것 같이 학교생활 어떠냐 이런 것 물어봤어요.

면접자: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도움이 돼?

S-18 : 도움 돼요.

면접자: 어떤 점이?

S-18 : 말하는 게 다 풀리고 속이 시원해요.

면접자: 힘들 때 도와주거나 도움 되는 사람은 누구야?

S-29 :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쪽지상담이라고 선생님한테 쪽지 써서 보내면 선생님이 답해줘요. 한번 고민했었는데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저번 생일 때 우리 반 000 때문에 힘들었었지. 그때 편지들 써서 그 편지 보면서 나도 이렇게 많은 친구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풀자.

부모님에게 가장 바라는 용돈과 가장 바라지 않는 잔소리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부모님께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가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용돈’이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활동 범위가 늘어나고 용돈의 사용처도 다양화되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놀거나 군것질을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외모에 투자하거나 관심 연예인의 굿즈(GOODS)를 구입하는 등의 소비활동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도 한다.

면접자: 얼마나 아빠한테 바라는 점 있어?

S-17 : 음.. 옷 갖고 싶어요.

면접자: 어떤 옷?

S-17 : 그냥 옷이요.

(중략)

S-17 : 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있어요! 용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면접자: 용돈을 어떻게 쓰고 싶어?

S-17 : 애들 생일선물이나 아니면 어디 놀러갈 때나 평소에 편의점에 애들이랑 많이 가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얻어먹거나 그러는데 그게 좀 미안하니까.

면접자: 엄마아빠에게 바라는 것은 있니?

S-29 : 음....일단 저는 용돈.....

면접자: 왜?

S-29 : 일단 저는 중학생이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용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6학년 때 거의 학교 끝날 때쯤 엄마랑 맨날 맨날 공부하면 일주일에 용돈 오천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딱 한번 주고 이제 안줘요. 다른 애들은 용돈을 한 달에 십만 원이라는
애들도 있고 저는 부럽거든요. 저는 갖고 싶은 것도 있는데 사지도 못하고 저거(EXO백현
브로마이드)천원인가 해 갖고 샀는데 ○○이(동생)는 계속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스티커 다 사고 싶은데 스티커가 매 주마다 오는데 스티커가 조금 밖에 없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만약에 애들이 맛있는 것 사먹을 때도 있고나도 용돈 받았으면
좋겠다.

면접자: 용돈 받으면 얼마 받고 싶어?

S-29 : 일주일에 한 오천원정도 그게 일단 최대고 최하는 일주일에 천원이라도.....

용돈 다음으로는 ‘잔소리 또는 강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많았다. 중학생이 된 자녀에게 부모로서 자녀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잔소리와 강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나 앞서 언급한 반항의 이유나 스트레스 요인으로도 언급되었듯이 잘못된 행동 또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잔소리와 강요는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세 번째로는 부모간 부부관계를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조사한 스트레스 요인에서도 부부관계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인터뷰 내용 분석에 있어서도 부부사이의 그다지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부사이의 좋지 않음은 자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임은 분명하다.

S-1 : 잘 지냈으면 좋겠다? 엄마아빠가 아빠 일하는 시간이랑 엄마 일하는 시간이랑 다르다 보니까 방학 때는 거의 못 만나요 주말 빼고 일요일 빼고. 그 주말부부 그러다 보니까 혹시 사이가 멀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게 있어요.

S-25 :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월급을 주는데 엄마가 조금 더 적게 받고 아빠가 가지시는 데 아빠는 친구들하고 술 드시니까 돈 많이 쓰고 엄마는 집세내고 장 보고 돈이 부족한데 의논하다가 자주 싸우기도 하시고.

면접자: 두 분이.

S-25 : 그래가지고 엄마는 이제 다른 공장 가려고 하시는데 아빠는 붙잡고 계시고.

면접자: 같이 일하자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계시구나. 너도 그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고 그래?

S-25 : 별로요.

면접자: 별로 그렇진 않아?

S-25 : 엄마, 아빠 싸우거나 의논하고 다투실 때는 방에서 TV 볼륨 높여놓고 컴퓨터 키고 핸드폰 하고 하니까 잘 안 들려요. 쿵쿵 거리긴 하는데 말소리는 안 들리니까. 그게 더 나아요.

면접자: 안 들리는 게 차라리 낫지.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야? 안 싸우셨으면 좋겠다?

S-25 : 네.

부부사이 관계를 언급한 위의 사례에서 비추어 볼 수 있듯이, 가정여건 때문에 부모사이의 악화될까 걱정하거나, 부부사이의 불화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이다.

(4) 가족 내 의사소통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과는 상관없는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결혼이주여성 어머니들은 한국어능력과는 별개로 가족 구성원과 의사소통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언어적인 소통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비언어적 소통 또는 자녀가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을 감안하여 소통의 수준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면접자: 엄마랑 ○○이랑 얘기할 때 의사소통 잘 되요? 말 하면 다 이해하고, 엄마가 얘기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이렇게 잘 되요?

M-13 : 그런 것 같아요.

면접자: 어머니가 한국말 못 알아듣는 것 있잖아요.

M-13 : 그래요.

면접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M-13 : 그래서 엄마 이거 이해 못해. 다시 이야기해. 설명해줘요.

면접자: 만약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M-13 : 100% 못해. 이야기 해. 애들은 알아들어.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애들은 만날 엄마 같이 있어요. 이야기해. 그래 엄마. 금방 알아요.

(5) 소결

본 연구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자녀의 가정생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중학교에 입학하여 청소년기에 접어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비(非)다문화가정자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달과정을 거친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발달과정에 수반되는 문제행동이나 상황에 다문화가정 부모가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외국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된 시점에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숙한 한국어로 인하여 자녀와의 갈등상황에서 적절하게 해결의 지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전체 가족구성원 대상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출신 어머니는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언어적·비언어적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아버지는 어머니-자녀 관계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키워야 하겠다. 자녀 또는 외국출신 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재혼가정의 자녀 지원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혼가정의 이복(부)형제들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나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향후 문제의 소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가족 단위의 가족 친화력 향상 프로그램 등 가족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의 지원기관(건강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세 번째는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상담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 고민 의논 상대나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적지 않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선생님'을 언급하였다. 또한 담임선생님 보다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위(WEE)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인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학교 또는 지역사회 지원기관에 상담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다문화가정자녀 지원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표 VIII-7 2014 심층면접 결과 요약: 가정생활

- 부모님과 별다른 트러블 없음
- 체벌이 무서워 크게 반항하지 못함
- 사소한 갈등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과 분노조절의 어려움
- 말수가 적어지고 대화를 기피함
- 사춘기의 반항과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
- 사춘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
- 주요 고민 의논상대는 친구와 선생님이며 부모님과 가족은 고민을 나누기 어려운 상대
- 가장 힘이 되어주는 상대는 부모님과 친구
-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과 교우관계
- 부모님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용돈, 가장 바라지 않는 것은 잔소리와 강요
- 어머니의 한국어 실력과는 상관없이 어머니와 의사소통 원활함

2) 학교생활

(1)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생활

초등학교에 비해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자녀들은 중학교 생활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와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 대상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녀가 중학교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초등학교 비교하여 학교생활이 훨씬 좋아졌다는 대답도 다수 있었다. 특히 중학생이 되니 책임감과 자립심이 늘어서 공부나 과제를 알아서 챙기게 되었다는 경우가 많았다.

M-7: (중학교 올라가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공부도 스스로 알아서 해요. 만약에 학원에서 숙제 있잖아요. 영어, 수학 숙제하면서 스스로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도 많이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억지로 해라해도 안 해요. 억지로 하면 더 안 돼. 그래서 그냥 나뉘. 말하면 입 아프니까 그래 말 안 해. 그래서 그냥 나뉘. 그냥 넘어가고...

M-16: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관심 없는 것처럼... 그게 이런 청소년센터에서 가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숙제하는 것도 자기가 고백고백 해요.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을 안 해도 했으니까.

중학생이 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친구 관련 요인이었다. 새롭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된 점, 친구들을 폭 넓게 사귀게 된 점, 친구들이 많아진 점 등이 그 내용으로 새롭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학교생활을 더 재미있게 느끼고 있었다.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친구 관계가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 친구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졌기 때문에 학교 적응은 물론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정도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는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는데 배우는 과목이 많아지고 학문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

면접자: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어떤 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아지고, 어떤 점이 어려워졌어요? 좋아진 점이 어떤 거예요?

S-19 : 친구를 넓게 사귀는 거.

면접자: 그것 말고는 어떤 점이 좋아요?

S-19 : 과목이 많아진 것.

S-2 : 좋다는 거는 뭐 제가 또 과학에 약간 흥미가 있어가지고요. 과학이 좀 분야가 넓어져가지고. 재밌어요. 그게.

어머니들도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이 비교적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자녀가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초등학교 때 보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M-20: 학교 안 간다는 소리는 안하니까. 방학 중에도 예비 소집일이라고 학교 간다고 그러면, 놀러도 안 갔거든요.

M-30: 표정도 많이 변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거하라 이거하라 그랬는데 중학교 막 올라가서 친구들 생겨서 그런지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저보다 일찍 일어나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확 바졌어요 방학 끝나면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학업의 어려움

반면에, 중학생이 되고나서 힘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학업에 대한 어려움과 등교하는 시간이 빨라진 것에 대한 의견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업과 관련된 요인으로서는 배우는 과목이 많아지고 배우는 내용이 어려워졌다는 것과 공부해야하는 절대적인 양이 더 많다는 것, 학원을 더 다녀야 한다는 것, 시험 보는 과목이 더 늘어나고 시험 내용도 어려워졌다는 것, 공부하는 방식이나 평가방식이 달라졌다는 것, 성적이 떨어졌다 등이 그 내용이었다. 어머니들 역시 자녀가 공부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특히 시험 기간에는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는 다문화청소년들 역시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다양한

과목과 새로운 시스템에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학업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면접자: 배우는 과목은 언제?

S-9 : 더 어려워요.

면접자: 더 어려워? 과목수도 많아 졌지?

S-9 : (고개 끄덕임) 책도 두꺼워지고

S-30: 음.. 공부가 많아요 너무. 과목이. 예전에는 음악 미술 이런 과목 시험 안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과목도 시험 봐야하고

S-33: 보통 그런 거 잘 안 보이는데 시험 기간 때, '가기 싫어', '죽고 싶다'. 그런 소리 들...(해요)

S-29: 공부하는 것만 빼면 다른 것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 응답자들이 학업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반면에 자녀의 학업 성취정도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교성적이 중간이거나 평균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녀의 성적이 평균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더구나 자녀의 성적이 평균이하라고 응답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녀의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응답자는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적 때문에 고민을 하긴 하지만 크게 걱정하는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

M-25: (성적은) 중간에서 좀 떨어지나? 저는 성적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다니는 곳에서 아홉시, 열시까지 열심히 하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나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학원을 보내줄 수 있는 입정도 아니고 학원은 못 보내주고 자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더해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녀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속상하지만 자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자녀를 온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처지가 안타깝게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속은 상하지만 자녀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자녀만을 탓하는 것이 어렵다며 자녀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자녀에 대한 지원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에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향을 종합하면, 자녀의 성적에 대해 불만족스럽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자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측면을 인정하면서 심리적으로 적당한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규율의 어려움

학업관련 이외에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등교시간이 빨라져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점이었으며, 그 밖에는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보다 자유롭지 않다거나, 벌점을 매기고 휴대폰을 구제하는 등 규율이 강화되었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친구관계에 대해 처음 만난 친구들이라 아무래도 친구관계가 어렵다는 점 역시 중학교의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이런 면은 특별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이기에 때문에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중학생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면접자: ○○이 학교 다니기 좋아? 중학생이 되니까 어때? 힘들어?

S-31 : 네

면접자: 왜 힘들어?

S-31 :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중략) 성적?

면접자: 학교에서 더 안 좋아진 점도 있어?

S-17 : 뭐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면접자: 왜?

S-17 : 뭐가 그런 것 같아요.

(2) 학업에 대한 관심도

공부에 대한 관심,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이 중위권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학생이 되고 학습해야 하는 분량은 많아진 반면 학습 내용이 어려워진 뒤에는 성적이 초등학교 때보다 하락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위권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있었으나, 초등학교 때 수준으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음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한다.

면접자: 성적은 어때?

S-34 : 중학교 와서 떨어졌어요. 과목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면접자: 너는 성적은 좀 어때? 초등학교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

S-5 : 초등학교 때보다 성적이 떨어졌어요.

면접자: 왜 떨어졌을까?

S-5 : 너무 공부하는 식이 초등학교 때랑 달라가지고.

면접자: 어떻게 다른 것 같아?

S-5 : 초등학교 때는 몇 번 보고 몇 번 외우면 외워지는데 중학교 때는 그게 잘 안되고 하니까.

(중략)

S-5 : 시험기간 때 '이번에는 점수를 올려야지.' 하고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나니까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2학기 때부터는 마음잡고 수업시간에 졸지도 않고 공부하기로 했어요.

본 연구에 참여한 자녀들의 어머니들의 인터뷰 내용도 유사하였다. 전체 참가 어머니 중 8명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확실히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거나, 공부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거나, 공부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한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은 연령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목표와 삶의 지향점이 좀 더 뚜렷해지고 책임감도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부모와 교사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수동적인 경향이 강했던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중학생이

되면서 스스로 학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M-29: 초등학교는 노는 것처럼 보고 그러다가 중학교는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자기도 갑자기 어려워니까 공부 하는 것 종종 봐요. 어려워서....

M-34: 공부 하자는 의지는 좀 더 강해졌어요. 근데 성적은 더 안 나와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하자는 의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중략) 이번에 중학교 올라와서 거의 첫 학기 시험성적이 못나왔더라고, 2학기부터 네가 성적이 얼마 정도 되면 엄마가 그 정도는 항상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열심히 했는데 초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뭘했는지는 몰라도.. 근데 성적이 못 올랐어요.

자녀의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부에 대한 의지가 높아진다고 하여도 상당히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여전히 공부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응답하였다. 중학생이 되면 학교 공부는 초등학교 시절보다 훨씬 어려워지는 반면에 관심을 분산시킬만한 외부자극이 점점 많아진다. 여학생들은 연예인과 남자에게 관심이 많아지고 남학생들은 운동과 게임에 집중하게 되는 시기이다. 발달과정에 따른 변화가 이렇다보니 학교공부는 자연스레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다. 몇몇 참여자는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이나 변함없이 자녀가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M-23: ○○이가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니까 어려울 것 같다고. 초등학교 있을 때 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보고 엄마 너무 어렵다고. 그런데 솔직히 노력이 좀 별로 없었어요. 관심이 다른 데로 좀 갔어요. 친구랑 만나고. 오빠들한테도 관심이 있고.

M-14: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공부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아예 할 생각 안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그리고 아빠가 조금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 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싫은 것 같고.

(3) 성적 및 학업에 대해 상의할 사람

공부를 잘 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름

그러나 공부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나 모델을 가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중산층 이상의 청소년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끌어줄 만한 주변의 자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여의치 않다보니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EBS 강의를 들어보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의 막연한 수준의 이야기만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 간다면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좌절감만 갖게 될 수 있을 것이 예상되며, 공부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 중 주변에서 이를 알려줄만한 또는 가이드해 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 청소년들 대상 자기주도적 공부방법등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S-27 : 네. 그런데 성적을 올리고 싶은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EBS 강의를 들으면 알 수 있대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되는지.

학업 의는 상대로 적절치 않은 부모님

학업에 대한 어려움 점을 부모님에게 물어본다거나 상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예전에는 물어본 적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 부모님 두 분 중에는 아버지에게 묻는 경우가 어머니에게 묻는 경우보다 조금 더 많았다. 아무래도 한국말이나 한국식 교육내용을 잘 모르는 어머니에게는 교과내용에 대해 묻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직장일로 바쁘기 때문에 상의하기에 적합한 대상은 아니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부하는 것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면접자: 왜? 잃어버렸을 때? (고개 끄덕임) 너가 공부하는 것 관련해서는 얼마나 아빠한테 물어보는 것 있어?

S-6 : 예전에 혹시 알까 (부모님께) 물어봤었는데... 되게 어려울 때는 오빠랑 엄마랑 나누기 몇 번 가르쳐줬던 것은 기억나고, 중 1 과정 할 때 그때 몰라서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아빠도 모른다고...

면접자: 음... 혹시 학교에서 공부하기 어려울 때, 이걸 때 누구랑 얘기를 하는 편이야?

S-8 : 친구들.

면접자: 친구들? 혹시 부모님과 상의한 적은 없어?

S-8 : 없어요.

면접자: 없어? 상의해본 적이 없는 거야?

S-8 : 했는데 모른대요.

(4) 희망 학력

막연한 대학진학의 꿈,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자녀들은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장래희망이나 진로 때문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으려면 대학 정도는 나와야 하니까’ 하는 생각으로 막연히 대학 진학을 희망하거나 OT나 MT를 가는 등 훨씬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대부분 진로에 대해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와는 상관없는 진학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과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한다가 그나마 구체적인 진학계획이었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학계획을 세운 아이들도 있었는데, 제대로 된 진로·진학 교육 대신 주변 친구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고 부모님과 진로·진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거나, 부모님도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S-22 : 대학을 안 가면 월급의 절반이 깎인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면접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학은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S-22 : 네.

면접자: 하지만 뭘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건 아직 모르겠고?

S-22 : 네.

면접자: 나중에 학교는 어디까지 가고 싶어?

S-13 : 저 대학원까지 가고 싶어요.

면접자: 뭐 공부하고 싶은데?

S-13 : 제 꿈이 성우.

면접자: 근데 성우할 건데 대학원까지 나와야 해?

S-13 : 친구 말로는 대학교 안 가고 대학원만 가도 된다는데.

면접자: 인터넷 검색 말 믿지 말고. 대학원 들어가려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야 해.

무슨 과 가고 싶은지는 생각 안 해봤어? 연기 관련 학교? 성우?

S-13 : 네.

면접자: 그렇구나. 나중에 성우가 되려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

S-13 : 친구를 통해서 조금.

면접자: 친구는 어떻게 그걸 알아?

S-13 : 같은 꿈이에요.

S-13번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장래희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인터넷 검색이나 친구들 사이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은 학제와 학교에 대한 체계도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진로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만 다니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대학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가정형편이나 성적 혹은 공부가 하기 싫어서가 주된 이유였다.

면접자: 나중에 학교는 얼마큼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있고.

S-14 : 고등학교요.

면접자: 대학교는 안 가고 싶어요? 왜?

S-14 : ...

면접자: 친구들 다 대학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S-14 : 별로 가기 싫은데.

면접자: 고등학교까지만 가면 될 것 같아요?

S-14 : 네.

자녀에 대한 교육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의 희망 학력 수준은 적어도 대학까지는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최소한 대학 간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주여성들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하지만 이왕이면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대학을 갈만한 성적이 안 될까봐, 혹은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보낼 수 없을까봐 염려하고 있었다.

M-6: 아니. 그냥.. 개는 그냥.. 뭐.. 저는 대학교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가.. 무조건 공부 못하나 잘하나 뭐 무조건 대학교 가야 그렇게 후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바라는 거예요.

M-12: 저는 애들은 대학까지 할 수 있으면 보냈으면,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생각에는 아이가 공부 잘하면 대학 보낼 수 있어. 못하면 맨날 놓고 하면은 보내지마. 혼자 알아서 해라. 남편이. 처음에는 말렸어요. 부모는 그러면은 아니지. 왜냐면 저도 아무래도 대학 가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가니까. 우리가 너무 많아서. 하지만 저는 생각에 내 아이는 대학 꼭 보내고 싶어. 잘하는 거나 못하는 거면 대학 보내고 싶어. 하고 싶으면 맨날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었어요. 돈 있는 거나 애야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일부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가 대학교 이상으로 공부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나 학업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경우였다. 자녀가 잘한다면 ‘뭐든지라도 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겠다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잔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점은 한국가정의 일반적인 어머니들과 같은 수준의 교육열로, 자신이 열심히 하기만 하면 유학까지도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M-7: (하버드) 어어어. 거기. 저는 그 옥섬이에요. 근데 거기 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해요. 왜 저 그렇게 열심히 하냐면 저 때문에. 제가 공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딸한테 끝까지, 아무리 거기 못가도 대학은 졸업해라. 그때 이후는 가든지 안 가든지 다시 생각하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이나 어디나 보내려고요. 저 생각이예요. 근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제 생각이예요.

M-11: 대학원 거기까지도. 끝까지 저는. 제가 못 푼 소원을 풀려고. 끝까지. 공부만 애들이 잘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유학까지 보내고 싶고. 다해주고 싶어요. 애들한테. 저는 공부 위주야, 근데 그건 내 마음이지 애들은 그게 아니예요.

그러나 자녀를 반드시 대학교까지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특히 자녀가 공부에 흥미가 없고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굳이 대학까지 교육시킬 필요 없이 일찌감치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였다. 또는 자녀가 원한다면 대학을 보내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강요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있었는데, 외국출신 어머니 뿐 아니라 한국인 어머니 세 명 중 두 명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명 모두 꼭 대학을 가기보다는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겠다는 것이다.

M-10: 지금 보기에는 제가 대학교까지 보내고 싶은데. 보니까 ○○이는 공부에 대한 관심도 별로 많이 안 보여요. 고등학교에 가서 전문 고등학교에 가서 기술하나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M-19: 대학교는 꼭 가면 좋긴 좋아요. 본인들만 의지만 있으면. 왜냐면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싫은데 억지로 가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은 한국가정의 일반적인 어머니들과 매우 유사한 행태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 역시 한국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가 가능한 한 많은 공부를 해서 한국사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5) 교우관계

원만한 교우관계

연구 참여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대부분 친구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친구, 같은 반 친구, 학원 친구, 센터 친구 등 친한 친구의 종류는 다양했고, 친한 친구의 수도 한 명에서부터 15명 정도까지 다양하였으며, 누구를 딱 꼬집어 가장 친하다고 말할 수 없이 모든 친구와 두루두루 친하다고 응답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어머니 인터뷰 결과에서도 친구관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발견되지 않았다. 적어도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녀가 친구관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친구들이 생일파티와 같은 특별한 행사뿐만 아니라 평소에 자주 집에 놀러오기 때문에 잘 알거나, 집에 놀러오지는 않더라도 자녀에게 평상시에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특별히 자녀에게 이야기를 듣지 못했더라도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고 친한 친구들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친한 친구가 몇 명인지도 대략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학교 교우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M-14: 다섯 명 정도는 특히 친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매일 게임 같이하는 애들이 서너 명 정도 있고. 밖에 노는 애도 있고. 같은 학교에서. 같은 여기 주변에도.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친한 친구가 매년 같은 반이 되니까. 너무 친구는 많아서.

M-29: (친한 친구가) 두 명은 확실히 같은데 왜냐하면 보는 것도 확실히 똑같은 친구들이었어요.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주 본 적은 없지만 본 적이 있어요. 학교 수업할 때 한번 보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박물관에 갈 때 친구들 얼굴이 똑같아.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 친하나 보구나.

(6) 학교에서의 불쾌한 경험

연구 참여한 다문화가정자녀 중 일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으나 왕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S-35번의 경우 본인이 아니라 같은

반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서 오히려 따돌리지 말라고 말리다가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S-15번과 S-17번의 경우 작년 교사 인터뷰에서 서로 왕따를 시킨 적이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으나, 두 사람의 기질이 맞지 않아 생긴 문제로 중학생인 현재는 같은 반이 아닌데다가 각자 반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S-28번과 S-7번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와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다문화와는 상관없이 서로 간의 마찰이 있어 비롯된 일로 지금은 다 풀고 화해했으며, S-7번은 싸운 당사자와 그 일 이후 오히려 ‘매우’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

어릴 때 놀림과 따돌림, 고학년이 될수록 줄어들

응답자들 중 일부는 초등학교 재학 중에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써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이 많았다. 어머니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듯이 필리핀 이주여성의 자녀로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S-1번과 S-2번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쯤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놀림을 받은 케이스다. 본인들은 이 일을 왕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듯 했는데, 어쨌거나 친구들과 사이에서 놀림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1번은 특히 아버지가 자신감을 가지도록 격려해주었다고 하며, 당시 사건에 대해 지금도 인터뷰 도중 눈물을 보일 정도로 매우 속상해했던 S-2번의 어머니는 놀림이 발생하자 주변 이주여성 친구들의 조언대로 같은 반 친구들을 불러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등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었다. S-2번은 현재 친구들의 놀림이나 따돌림이 학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S-7번, S-12번 역시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2학년 무렵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놀림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큰 문제가 아니었고, 이러한 놀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며, 학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놀림이 사라졌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S-7번과 S-12번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상당히 애정이 있었음에도 어머니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 크게 상처받지 않은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S-2 : 그냥 엄마가 그때는 뭐지? 좀 여러 가지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때는 제가 뭐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저를 좀 따돌렸는데. 음, 그때마다 선생님이 가끔 말리곤 했었는데. 학교 끝나고 뭐 가끔 애들이 불러서는 뭐 좀 놀리다가 억지로 다른 데 데려가 가지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았는데 뭐 뭐지? 뭐 그땐 체육 쪽엔 관심

없었으니까. 축구하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사람 한 명 모자라다고. 억지로 하고 못 하면 또 뭐라 하고. 뭐 그때는 뭐 1, 2학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면접자: 1, 2학년 때? 초등학교 때?

S-2 : 네

(중략)

면접자: 그러다가 어머니 말로는 조금 이렇게 고학년이 되면서 괜찮아졌던 것 같은데.

S-2 : 네

면접자: 그래? 그렇게 됐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애, 어때? 너 생각에는?

S-2 : 뭐 그냥 3학년 때 그 좀 착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애들이 놀렸는데, 걔 혼자 그만하라고. 막 그러가지고 개랑 같이 뭐 같이 지내면서, 좀 친해지고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애들이랑 또 얘기를 하고 놓고 그러면서 좀 이제 익숙해지니까, 근데 걔 전학가고 이제 저 혼자니까 뭐 계속 해도 애들이 뭐 이상해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S-7: 어릴 때요? 조금 어렸을 때, 놀림을 받은 적이 있는데. 2학년 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애들 그냥 장난처럼 하는 걸로 느껴지니까. 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왕따처럼 니네 엄마 막 무슨 무슨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2학년이니까 어쨌겠어요. 장난으로 하는 거지. 누구누구는 태국사람이래. 놀리면서 그냥 웃으면서 다 장난 쳤죠. 근데 올라오니깐 그게 유치하니까 장난 안 치더라고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S-11번은 중도입국청소년으로 입국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당시에는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그로 인해 원형탈모가 올 정도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 어머니 인터뷰에서 드러났으나, 정작 11-2번 본인은 중국말을 다 잊어버린 지금은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다. 친구들이 괴롭힌 적이 있지만 다 장난이었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S-23번 역시 중도입국청소년으로 초등학교 입학 당시에는 한국말을 잘하지 못했다. S-23번의 어머니는 자녀가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나, S-23번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의 놀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S-23번은 그 문제에 대해 ‘아이들이 다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초등학교 2학년이 심했고, 시간이 지나고 한국말이 완벽해진 시점부터는 그러한 문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에서의 따돌림이나 놀림은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2학년 경이 가장 심한 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당시 놀림을 받았다는 위의 학생들은 모두 학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사라졌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모르는 어린 학생들이 친구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S-11: 네. 왕따를 한 적보다 애들이 괴롭힐 때도 있고...다 장난이잖아요. 저한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반 친구들끼리 심심해서 그러는 건데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S-23 : 일단은 다문화 다니면 1, 2, 3학년은 심한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요.

면접자: 왜 이때 더 심각할 수 있어?

S-23 : 애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몰라서.

면접자: 너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S-23 : 네. 저도 많았어요.

면접자: 놀리고 이랬던 건가?

S-23 : 네.

면접자: 어떻게 그 시간을 넘겼어? 도움이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S-23 : 저는 그냥 욕했어요.

면접자: 싸웠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좀 수그러졌어?

S-23 : 네.

(중략)

면접자: 그러면 4학년이 되고 크면서 그런 문제가 없었어?

S-23 : 4학년 때부터는 아예 없었어요. 3학년 때는 조금 있었고 1학년 때는 오히려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라고 해서 괜찮았는데 2학년 때는 심했어요.

특이한 외모나 이름으로 인한 놀림의 경험

S-25번과 S-27번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불쾌한 경험이 중학생이 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S-25번의 경우 '베트남'과 이름이 주된 놀림감이었으며, S-27번은 외모가 놀림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이 점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있던 것과 달리 정작 당사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경향을 보였다. S-25번의 경우 아버지가 베트남인이기 때문에

베트남식 성과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친구들이 놀리는 것은 싫지만, 친구들이 자신을 싫어해서라기보다는 특이한 이름으로 놀리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며 본인도 다른 친구를 놀리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입장에서 싫다는 것이다. S-25번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S-25번을 가장 심하게 놀리는 친구와 가장 친하다고까지 하였다. 어머니가 이 문제를 선생님에게 상의한 이후 S-25번을 놀리던 친구들이 껌을 떼라는 벌칙을 받았고 이후 이 문제가 좀 수그러들었는데, 선생님이 심하게 처벌을 하면 오히려 자신이 일렀다는 점이 문제가 돼서 왕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살살’ 처벌해줄 것을 부탁하기까지 했다.

S-25번은 이 문제를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보다는 친구들이 자신의 입장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놀리는 행위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친구들이 S-25번을 놀릴 때 ‘다른 친구들이 재미있으라고 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확실히 다문화라는 편견이나 무시로 인한 놀림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장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배려심이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도록 교육한다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S-25: 그런 애들은 별로 안 친하고. 다른 애들은 놀리기도 하는데 안 놀릴 때는 친하게 지내요. 특히 놀리는 걸 주도하는 애하고 좀 친해요.

면접자: 진짜?

(중략)

면접자: 그런데 개는 왜 너를 놀리는 거야? 안 친한 것도 아니면서.

S-25 : 개네들은 장난삼아서 놀리는 건데 제 입장을 안 생각해주니까.

면접자: 개네도 악의가 있는 건 아니라고 너는 생각하는 거구나. 네 입장에서는 반복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고.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진지하게 이야기 해 본 적 있어?

S-25 : 밥 먹으러 가면서도 얘기를 하면은 애가 애들 재밌으라고 지가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도 재밌으니까 같이 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중략)

면접자: 친구들이 그냥 재미삼아 놀리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문화가정이라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나 혹시?

S-25 : 그냥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국사람이니까. 다른 건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국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면접자: 그런 걸 가지고 널 이상하게 보거나 이런 건 아니거구나. 그냥 장난삼아 짓궂게 이름가지고 놀리는 거구나.

S-25 : 그런데 제가 주먹가지고 하니까 애들이 말로 안하고 왜 주먹 가지고 하냐고 하는데 애들이 우선 그 입장이 되어봐야해요. 그 입장이 안 되어보면 모르는 거 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장이 안 되니까 제가 주먹으로 하고. 제가 그게 좀 서운해요. 모르니까.

이국적인 외모로 인한 놀림

S1번, S2번, S7번, S19번, S27번 등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동남아시아 출신인 몇몇은 외모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었다. 특히 피부가 까만 경우에는 어린 시절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중학생쯤 되면 피부색이나 외모로 놀리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이국적인 외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을 하고 있는 참여자는 없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외모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쓴다거나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학생인 S1번의 경우 까만 외모에 대해서 친한 친구들에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한다고 한다. 예전에 까만 피부 때문에 놀림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예외적으로 S-27번의 경우 중학생인 지금도 몇몇 친구들에 의해 ‘못 생겼다’는 외모 놀림을 받고 있었는데 S-27번은 예전에는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기는 했다.

S-1 : 1,2,3 학년 때 놀림 이런 거 많이 받았어요.

면접자: 아 그래? 어떤 놀림이었어?

S-1 : 얼굴이 까맣다

(중략)

면접자: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힘들지 않았어? 초등학교 때는?

S-1 : 힘들었는데 그중에도 친한 친구가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이런 거 지금은 아예 전 다른 나라사람이니까 내가 태국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얼굴이 까맣다 이런 거

면접자: 내가 외모가 남들이랑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학교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S-19 : 별로. 그런 얘기 잘 안하는데.

면접자: 오히려 더 좋아한다거나, 낯설어 한다거나 그런 것 있어요?

S-19 :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다른 애들처럼 대해요.

반면 피부색이 하얀 중앙아시아 출신의 경우는 오히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S-23번은 양 부모가 모두 카자흐스탄 출신으로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한국에 온 경우였는데 어머니가 고려인으로 외모가 눈에 띄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유독 하얀 피부나 큰 눈과 같은 중앙아시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S-23번의 친구들이 이러한 ‘유전자’를 오히려 부러워한다고 한다. 따라서 똑같이 다문화가정 출신이라 해도 피부색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일반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피부색에 의한 차별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차별에 대한 피해의식

다문화집단에 대한 차별의 주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다 보니 다문화로 인한 갈등이 아닌데 어머니가 과잉반응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M-24번은 자녀가 친구로부터 ‘○○이 엄마는 일본사람이잖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온 후로 그 친구의 어머니와 문자로 다투었으나 알고 보니 굳이 나설 일이 아니었다고 후회하고 있었다.

M-24: 1학년 때 학교 가서 알아본 엄마 중에서 ○○이 3학년 때 다시 만난 경우가 있어요. 엄마는 미국에서 왔다고 그랬는데요. 애는 여자인데, 그 친구가 ○○이가 장난치니까 ‘○○이 엄마는 일본 사람이잖아.’ 그랬대요. 그런데 저는 ○○이한테 들으니까 그런 차별의식을 하면 안 되겠다. 그 엄마가 미국에서 살다왔으니까 그걸 이해할텐데 왜 그럴까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딸 내미한테 그런 이야기 안하도록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애들 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엄마들이 끼어들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너무 쉽게 보낸 것 같아서. 차별하는 발언인데, 열 받아서 문자로 막 싸우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한테 그렇게 심하게는 안 했더라고요. 애도 착한 애고 반장이고. 괜히 알게 됐으니까 끼어들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다문화라는 이유로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참여자의 자녀도 일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대부분 다문화가정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라고 해서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은데다가 재혼가정이거나, 어머니가 일본이나 중국 출신일 경우 특별히 다문화적 특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놀림을 받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외모나 이름, 언어 미숙 등 다문화적 특색이 뚜렷한 경우였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외모 또는 언어로 인해 놀림을 받았던 참여자들 모두는 중학교에 와서는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고 있었다. 언어의 경우 오히려 현지 언어를 잊어버릴 정도로 한국어에 익숙해지는 데다가, 중학생쯤 되면 학생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서 외모와 같은 특징적인 문제로 친구를 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또래들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적인 장점을 동경하기도 한다. M-19번은 자녀가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환호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표현하였고, S-23번은 부모님이 모두 카자흐스탄 사람인 중도입국청소년으로 상당히 예쁘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러한 유전자를 몹시 부러워한다고 말하였다.

M-28: 초등학교도 그렇고 학교가 좀 커요. 초등학교가 좀 컸어요. 거기 다문화가정도 많았어요. 그냥 일본하고 한국인 말고도 중국, 몽골. 몽골도 많았어요. 키르기스스탄 등 여러 나라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라고 학교에서 애들이 신경 쓰거나 그런건 없어요.

M-19 : 초등학교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오히려 되게 멋있다고 하고 인기가 많다고. 그리고 누나들도 서로 환호할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아요.

면접자: 잘생겼으니까.

M-19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왜냐하면 요셉이한테만 듣는 게 아니라 둘째 딸한테도 들으니까. 같은 학교예요. 그리고 주변 시선을 봐도 옛날에 다문화를 대하는 것하고 요즘에 다문화를 대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면접자: 요새는 어떤 것 같아요?

M-19 : 외모적으로 외모 지향주의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외모를 좋게 가지고 태어난 것. 그리고 늘씬하게 태어난 것 이런 것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키 크고 얼굴도 절생기고 머리도 뚝뚝하고 애네들이 한다고만 하면 뭐든지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머리가. 저는 그 능력을 믿거든요. 사실은.

(7) 불쾌한 경험에 대한 부모의 대처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

자녀가 다문화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거나 불쾌한 경험을 겪게 되면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갈등해결에 나서는 경향을 보였다. 1번 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자녀가 강해지도록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고 한다. M-2번은 자녀에게 따돌림 문제가 발생하자 친구들을 모두 초대해서 필리핀 음식도 만들어주고, 풍선도 붙여 장식하는 등 성대한 생일파티를 열어주었다. M-2번은 필리핀 이주여성들과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다른 가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필리핀 이주여성 친구들에게 조언을 받아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한 경우다. 1번 가정과 2번 가정은 이러한 대처로 효과를 보았다. M-1번과 M-2번의 자녀는 당시 부모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친구들과의 사이가 개선되었고, 중학생인 현재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본인이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M-25번은 초등학교에서는 계속 싸우고 맞고 오는 자녀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맞지 말고 같이 때리라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M-25번은 자녀에 대한 애착심이 상당히 강한 어머니로 항상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없나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이 찡그려지고 말이 없어지는 것으로 아이가 상처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자녀에게 다문화가정이라는 멍에를 씌어준 것 같아 어머니도 속상해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말해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이름으로 인해 계속 놀림을 받고 상처 받는 자녀가 안타까운 나머지 맞서 싸우라고 말해주었으나 그 후에도 친구들의 놀림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않았다. M-25번의 자녀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사실에 그다지 불만이 없고 외국인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으나 다만 친구들이 이름으로 놀리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있었고 중학생이 된 현재도 이러한 놀림이 계속 되고 있었다.

M-1: 그때 어렸을 때는 많이 울었는데 아빠가 설명하고 얘기하고 자신감 해주고. 지금은 뭐 많이 강해졌어요. 신랑이 좀 애가 애 마음 어떻게 되나. 마음. 같이 마음.(아버지가 자녀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뜻) ○○가 이렇게 힘들어 해도 아는 그 친구가 니 이렇게 되는 거 아는 거 화내지 말고 강하게 받아. 그런 게 무슨 일 있으면 강하게 받아야 돼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설명하고 또 사람이 피부 까만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나 중에 이해할거야 피부 까만 거 예쁜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얘기 다하고.

M-2 : 그리고 또 그 친구도 한 번 우리 집 초대해서, ○○이가 '왕따, 왕따' 이렇게 해서, 필리핀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어서.

면접자: 그렇게 놀리던 친구가 집에 온 거잖아요.

M-2 : 우리 집에 왔어요.

면접자: 어머니가 ○○이한테 초대하라고 말씀 하신 거죠?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셨네요.

M-2 : 근데 우리 필리핀 엄마들 다른 집도 그런 경험 있어.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면접자: 그럼 그 모임에서 '친구들 불러라' 이런 말씀 들으신 건가요? '○○이 친구들 불러서 파티라도 해라' 라는 말을 어머니 친구 분들이 하셔서.

M-2 : 아~ 어 맞아요.

M-25: (4학년 때) 싸워가지고 얼굴이 말도 못하게 돼서 오기도 하고. 그 때는 좀 심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저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는데. 그 때는 울면서 쫓아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그냥 죽어 패!'. 누가 너 때리면 너도 때려. 누가 너한테 욕하면 너도 욕해. 우리 이렇게 참아도 아무 소용없는데. 참지마. 그냥 때려. 똑같이 해줘' 아무리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 새끼가 상처받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 그 방법 밖에 없었어요. 내 새끼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5, 6 학년 지나고. 중학교 가면 이제 때릴 수도 없잖아요. 이제 때리면 진짜 문제잖아요. 처음이니까. 밀쳐야 본전이니까. 한 번 말씀을 드려보아야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 한 거였어요.

선생님에게 문제 해결 요청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놀림이나 따돌림의 문제는 주로 선생님에게 호소하여 해결하고 있었다. M-25번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맞서 싸우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으나 중학생인 지금은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밀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상당히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선생님이 자녀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기를 살려주기 위해 애쓰고 있어서 사정이 많이 나아진 상태라고 하였다. 그렇다고 자녀에 대한 친구들의 놀림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선생님이 개입을 한다는 것도 놀림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머니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왔기 때문에 왕따와 같이 심각한 문제로 번지지 않는다고 한다. 비록 때때로 놀림감이 되기는 했지만 M-25번의 자녀는 주변에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친한 친구들이 존재했다.

면담자: 6년 내내 그랬어요?

M-25: 그렇죠. 해 바뀔 때 마다 학교에 쫓아가서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신경을 별로 안 써주시더라고요. 써주시더라도 효과는 없었고. 그래도 이번에는 그나마 선생님이 좋으신 분을 만나서. 그래도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고 나면 놀림이 싹 사다지더라고요.

면담자: 어떻게 하셨길래?

M-25: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화해서 '선생님 ○○이가 힘들어 해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통화를 하고 나면 애들이 안 그런대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사춘기라서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잘 넘어가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기를 세워주려고 모범상도 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잘 넘어 가는 것 같아요.

M-27번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다. M-27번의 자녀는 다문화라는 점과 외모로 인해 친구들과 마찰이 있었고, 결국 그런 친구들 중 한 명이 자신을 때렸다고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알게 된 선생님이 자녀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전화를 했고,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자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자녀의 학교 무단이탈에 대해 선생님은 다시 전화를 했고, M-27번은 선생님과 통화에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자녀가 평소 친구들이 놀리는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점을 알려주며 아이가 잘못된 일은 혼내시되, 이런 문제에 대해 상황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에는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상황이 매우 개선되었다고 한다. M-27번의 경우 초등학교때만 하더라도 자녀에게 싸우지 말고 참으라고 가르쳤으나, 중학생인 지금은 싫은 점은 분명히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25번이나 27번 가정처럼 문제가 지속되어온 가정의 경우에는 내적으로 참거나 인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상황의 개선과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었다.

M-27: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 와서. 저도 선생님한테 솔직히 이야기하죠. '○○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몇 일전에 친구가 놀린다고 울고불고 했어요' 그 일 있기 몇 일전에 저한테 와서 울었거든요. (중략) '○○이도 몇 일전에 계속 울었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봐주시고. ○○이가 잘못된 부분은 무조건 혼나야 해요'라고 이야기 했어요.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8) '다문화가정자녀'라는 정체성의 드러내기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은 대체적으로 해당 학생이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게 된 경위로는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거나, 선생님이 알려줬거나,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는 등 다양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다문화가정 자녀인지를 드러내는데 크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편이었다.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공개

이러한 경우는 본인이 다문화가정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친구에게 말하고 나서도 혹시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S-1번은

생후 2년을 태국에서 살다왔으며 외모적으로 상당히 까만 편이다. 초등학교 재학 당시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놀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중학교에 와서는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자신이 ‘태국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S-1번이 어머니가 태국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국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태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스스로를 외국에서 온 사람, ‘외국사람’으로 규정한 것인데 워낙 어릴 때 돌아왔기 때문에 태국에서 살던 기억이 남아있지 않았고 태국어를 할 수 있지도 않았다. 만 18세가 되어 국적을 선택할 때가 되면 한국을 선택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한국과 태국 양국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일회성의 짧은 인터뷰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S-1번이 초등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던 경험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자신의 배경을 정확히 설명하기보다는 외국 사람으로, 그리고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만 알림으로써 방어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한다.

S-1 : 네 친한 초등학교친구들은 보통 거의 다 알거든요 제가 친한 애들한테만 그렇게 말해요 그 중학교 와서 몇몇 친구들만 알고 있어요.

면접자: 알고 있어? 그게 내말은 그 우리 엄마가 태국에서 오셨다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태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S-1 : 그냥 태국사람이라고

면접자: 태국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S-1 : 저는 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 여기로 온 거라서 엄마가 태국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냥 외국사람이라고

면접자: 너도 외국 사람이라 그래?

S-1 : 한국 사람도 되고 외국 사람도 되니까 정확히 만 18살 때인가 되면 정한다던데

S-10번은 재혼가정으로 현재 어머니가 새어머니이다. S-10번은 친어머니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현재 어머니와 사이가 좋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현신적인 타인지 친한 친구들에게는 엄마가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S-10번은 자신이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친한 친구들이야 상관없지만 모두가 알게 되면 혹시라도 놀림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면접자: 혹시 친구들이, 엄마가 중국에서 오신 엄마잖아요. 중국 엄마라는 걸 알고 있나요?

S-10 : 몇 명은 알고 있어요.

면접자: ○○이가 얘기해서 아는 거예요? 걔네들이 어디서 듣고서 아는 거예요?

S-10 : 제가 말했어요.

면접자: 그렇게 얘기해서 ○○이가 불편해지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S-10 : 없어요.

면접자: 얘기한 친구들은 친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이겠네.

S-10 : 네.

(중략)

면접자: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친구들이 엄마가 중국 분이라는게 알려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알려졌어. 그냥 솔직하게 딱 드는 생각을 말
하면 돼. 잘 포장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 싫을 것 같아요? 짜증날 것 같아요?

S-10 : 아니오. 그러지는 않아요.

S-26번 역시 마찬가지다. 친한 친구들에게는 거리낌 없이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은 원치 않았는데 엄마가 일본 출신임을 알게 되면
독도 문제나 식민지 문제 등 일본과 역사적으로 결끄러운 문제가 언급될 때 괜스레 마음 상할
일이 생길까봐 걱정해서였다.

면접자: 한 학기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제일 큰 변화가 친구들 사귀
는 거라고 했잖아. 언제? 친구들 많이 사귀고 적응을 한 것 같아?

S-26 : 네.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고 멀리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
깝게 지내는 친구들은 제가 다문화가정인 걸 알아요. 보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멀리 지내는 친구들은 몰라요. '우리 엄마가 일본사람이다' 그러면 걔네
들이 가서 일본 사람들 욕할 것 아니에요. 걔네들이.

면접자: 누가? 아주 안 친한 애들?

S-26 : 네. 선생님이 가끔씩 독도 이야기 나올 때 그럴 때 우리 엄마가 일본 사람이니
까 별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면접자: 네가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다른 안 친한 애들한테는?

S-26 : 네. 그리고 또 '일본사람들은 우리 땅인데 왜' 그러면서 욕하고 그러면은 엄마
를 욕하는 것 같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 알리기

몇몇은 자신의 어머니가 외국에서 왔다는 점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자신이 다문화가정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해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인 것이다. 그 중 한명인 S-2번은 외모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점이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외국에서 오셨다는 것을 자기소개시간에 나서서 말하였다고 한다. S-2번이 직접 나서서 밝히게 된 점에는 S-2번의 배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S-2번은 과거 놀림을 받았지만 현재는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해서 불쾌한 경험을 겪는 일이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피해의식이 전혀 없었다. 또한 어머니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여성 공연팀의 무대에서 필리핀 전통 대나무 춤을 추는 등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즐거워하였지만 자신이 다문화가정자녀라는 점을 크게 의식하지도 않았고 정체성은 명확하게 한국으로 필리핀과 자신의 연대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S-2번이 거주하는 지역은 다문화가정이 많은 곳이기도 했다. 즉, 다문화에 대한 피해의식이 없고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자각이 명백하였다. 그러나 외모에서 확연히 이국적인 분위기가 풍기기 때문에 본인이 다문화가족 자녀라는 점을 숨기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S-2번의 경우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 숨길 필요도 없기 때문에 먼저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S3번 역시 본인이 먼저 정체성을 먼저 드러낸 경우인데 S-2번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관계가 끈끈하지만 한국인 정체성이 명확하고, 또한 다문화가정이 많은 안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문화와 관련해서 특별히 불쾌한 경험을 한 적도 없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피해의식이 없고 한국인 정체성이 명확한 경우 스스럼없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자신이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밝히고 있었다.

면접자: 그럼 중학교 친구들은 어머니가 필리핀에서 오신 거 다 알고 있어?

S-2 : 네

면접자: 음, ○○이가 얘기 한 거야?

S-2 : 네

면접자: 언제? 학기 초에 그런 걸 말할 기회가 있었나?

S-2 : 그냥 자기소개 할 때

면접자: 자기소개 할 때~ 아, 친구들 반응이 어땠어?

S-2 : 그때요?

면접자: 응

S-2 : 그냥 그저 그래, 뭐 그런 거요.

면접자: 그렇구나. 그 엄마가 필리핀에서 오셨다는 거를 친구들도 알아?

S-3 : 네

면접자: 아 다 알아?

S-3 : 네

면접자: 어떻게 알 게 됐어?

S-3 : 제가 말해줬어요.

면접자: 너가 말해줬어?

S-3 : 네

면접자: 어, 우리 엄마 필리핀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 해 줬어?

S-3 : 네

면접자: 음, 또 다른 게 알게 된 친구도 있어?

S-3 : 몰라요.

S4번과 S-18번 역시 어머니가 이주여성이라는 점을 거리낌없이 밝히고 있었는데 두 명 모두 친어머니가 아니고 재혼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가 된 경우였다. S4번의 형은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S4번은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어머니가 잘해주시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S-18번은 현재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고 새어머니와 유대감이 깊은 편도 아니었다. S-18번의 어머니는 S-18번이 가족 중 자신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하였으나 S-18번은 어머니가 이주여성이라는 점을 밝히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엄마가 똑똑해서 자랑스럽다고 표현하였다. S-18번의 경우 ADHD를 가지고 있었으며, 게임만 하고 싶어하는, 아직 정신적으로 덜 자란 듯 보이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더 깊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면접자: 음 그랬구나. 그러면 너가 다문화 가정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친구들은 알아?

S-4 : 알아요.

면접자: 알아?

S-4 : 네 제가 당당하게 다문화 가정인 사람 해서 딱 손들었는데요.

면접자: 근데 왜 숨기는 애들도 있을 거 같은데 너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선 쿨한?

S-4 : 상관없어요, 그냥 놀리면 죽여 버려요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 엄만데

면접자: 그래 맞아. 근데 너가 다문화가정인 사람 손들어 했을 때 애들이 조금 이상한 반응이 없었어?

S-4 : 그냥 다 쳐다보는데요.

면접자: 와서 물어보진 않았어?

S-4 : 물어봤어요. 뭐더라 엄마 어디서 왔냐고 해서 그냥 베트남 산다고 했어요.

면접자: 그러고 끝이야?

S-4 : 네

S-35번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연애를 하다가 국제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로 두 분이 함께 무역업을 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다. S-35번은 어머니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중국인인 어머니가 대만과 관련된 무역업을 하시면서 능력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때문에 어머니가 중국인임을 친구들에게 자랑한다고 하였다. 본인도 중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알았으며, 나중에 중국어와 영어를 잘해 부모님처럼 여러 나라를 상대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기도 했다.

면접자: 학교나 친구들이 엄마가 중국분 이시라는 것 알아?

S-35 : 네.

면접자: 어떻게?

S-35 : 제가 자랑했는데요.

면접자: 그래. 진짜 좋지 한국 사람은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너는 중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엄청 좋잖아.

S-35 : 네.

면접자: 사람들이 안 좋게 보거나 이런 적은 없어?

S-35 : 부러워해요.

교사에 의해 드러나기: '다문화가정 손들어'

S-24번이나 S-22번은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밝힌 경우였는데 두 명 모두 재학 중인 학교에 다문화학생이 많아서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것이 특이하다거나 주목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다행히 이 경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텐데, 학교의 교사가 공개적으로 수업시간에 손을 들어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교사교육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었다. 물론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서울사람, 충청도사람 등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까지는 일반화되지 않은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드는 것이 본인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면접자: 친구들은 ○○이가 다문화가정인 걸 언제 알았어?

S-24 : 도덕시간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배우는데, '다문화가정 손들어' 그런 식으로...

면접자: 중학교 오고 나서? 선생님이 수업하시다가 '손 들어봐' 그랬어? 그래서 손들었어?

S-24 : 네.

면접자: 혹시 부끄럽다거나 쑥스럽다거나 하지 않았어?

S-24 : 네. 그런 건 없어요.

면접자: 자랑스럽지도 않고.

S-24 : 그런 것도 아니고.

면접자: 그래서 주로 ○○이가 나가는 구나. ○○이 친구들은 ○○이랑 어머니가 중국에서 왔다는 거 알아?

S-22 : 다 알아요.

(중략)

면접자: ○○이가 친구들한테 직접 이야기 한거야?

S-22 : 그냥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면접자: 학교에서?

S-22 : 네. 이야기 해 줄 때도 있고 제가 이야기 할 때도 있고

면접자: ○○이가 이야기 안 했는데 친구들이 알 때도 있는 거네.

S-22 : 네. 가끔.

면접자: 보통은 ○○이가 이야기 하고...면접자2: ○○이가 이야기 안 했는데 친구들이
알면 어때?

S-22 : 네?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가죠.

면접자: 상관없어?

S-22 : 네.

굳이 먼저 나서서 말하지 않지만 숨기지도 않음

주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알게 된 경위 중 가장 흔한 경우는 본인이 먼저 나서서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지만 누가 물어보면 숨기지 않고 대답해준다는 것이었는데 대부분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점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S-5번은 재혼가정이기 때문에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주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알지 못했다. 다만 친한 친구들이 집에 자주 놀러오기 때문에 새어머니를 보고 외국인이라고 물어보면 맞다고 대답해준다고 한다. 새어머니와 사이가 좋기는 하지만 재혼가정인 탓인지 본인이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다.

S-5 : 그냥 딱히 그냥 물어보는 것은 없고 엄마 보면 외국 사람이라고 물어보고 그냥
그런 것밖에 없어요.

면접자: 그러면 그냥 너가 "맞다." 그러고 끝나?

S-5 : 네. (중략) 중학교 친구들은 몇 명 완전 친한 애들만 알고 초등학교 친구 친한
애들은 거의 다 알고.

면접자: 초등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알지?

S-5 : 공개수업 할 때 봤고, 그 전에도 본 애들도 있고 해서.

면접자: 그렇구나. 너는 혹시 엄마가 외국분이고 해서 신경 쓰이거나 하지 않았어? 공
개수업 할 때?

S-5 : 네.

면접자: 전혀? 조금도?

S-5 : 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문화가 워낙 사회적으로 떠들어대는 이슈라 자신의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인지 공개적으로 자신이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았는데 굳이 묻지도 않는데 먼저 나서서 알릴만큼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였다. S-21번이나 S-31번처럼 어머니가 동아시아 출신으로 외모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언어 또한 능숙한 경우 한국인이 아니라는 점이 거의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잘 모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굳이 말하지 않을 뿐 알려져도 상관없다는 반응이었다. 예를 들어, S-21번은 ‘다 같은 사람인데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알려져도 상관없다고 하였고 S-21번의 어머니 역시 자녀가 그런 문제에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였다. 외모에서 표시가 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주변에서 알게 되면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특별하다거나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알게 되더라도 상관없다, 신경 안 쓴다는 것이 대다수의 반응이었다.

면접자: 그 친구들은 혹시 너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인거 알고 있어?

S-11 : 저희 엄마가 다른 나라인거 몰라요. 아는 애들도 있고.

면접자: 아는 애들도 있고? 그럼 니가 말해줘서 아는거야? 어떻게 알려진거야?

S-11 : 물렸는데 알려진 것도 있고. 제가 말한 것도 있고.

면접자: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거리낌은 없어?

S-11 : 그냥 신경 안쓰고 살았어요.

면접자: 신경 안 쓰고 살았어?

S-11 : 신경 안 쓰고 사니까 그렇게 해가 되지 않던데. 그냥 인생이 재밌으니까.

면접자: 엄마가 중국에서 오셨지? 엄마가 중국에서 오신 게 ○○이는 언제?

S-21 : 별 생각 없어요.

면접자: 별 생각 없어? 친구들도 알아?

S-21 : 모를걸요.

면접자: 몰라? 초등학교 때도 물렸었어 애들?

S-21 : 네.

(중략)

면접자: 혹시 알려지는 게 좀 싫거나 이러진 않아?

S-21 : 네.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서.

면접자: 싫다기 보다는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

S-21 : 네.

면접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적 있어? 그럼 엄마랑 이야기 해보고 이러면 알지 않나?

S-21 : 그냥 한국사람 같아서 몰라요.

면접자: 모르는구나. 어머니가 한국어 잘 하시니까.

S-21 : 네.

정체성 드러내기의 불편함

S-12번은 몇몇 주변 친구들이 어머니가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연히 알게 된 것이지 본인이 직접 밝힌 것은 아니었다. 또한 굳이 밝히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S-12번은 특별히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해서 놀림을 받거나 불쾌한 경험을 한 적도 없었고 가정 경제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 사이가 좋고 가정도 매우 화목한 편이었다. 어머니가 다양한 국가 출신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학교에 다문화학생들이 꽤 있는 편이라 특별히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국과 필리핀이 반반인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친구들이 모두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면접자: 그렇구나. 학교에서는 엄마가 필리핀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니?

S-12 : 네.

면접자: 지금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S-12 : 네.

면접자: 어떻게 아신거야?

S-12 : 뭐 신청서 같은 거에 부모님 이름 적고 싸인하는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선생님이 너네 엄마 다른 외국분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 때 선생님이 알았는데.

면접자: 그거 면담 시간에 얘기한거야?

S-12 : 그건 따로.

면접자: 그건 따로 얘기했어? 애들 다 있는데서 한 건 아니고?

S-12 : 네.

면접자: 만약에 그런 얘기 애들 다 있는데서 한다면 ○○이는 어떨 것 같애?

S-12 :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면접자: 좋지는 않을 것 같애?

S-12 : 그냥 따로 하는게 좋은 것 같은데...

(9) 소결

본 연구에 참가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수의 다문화학생자녀들은 중학교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학교생활과는 별개로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 대한 의지나 동기 부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 생활의 만족도는 학업의 성취도와는 큰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대적으로 교우관계의 원활함이 학교생활 적응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는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불편한 경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발견되었으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중학생이 된 후에는 별다른 문제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차별과 편견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이 낮은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자녀들의 외국인 부모가 일본 또는 중국출신으로 외모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차별적인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정자녀의 정체성 공개의 문제이다. 많은 수의 자녀들이 자신이 다문화가정임을 당당하게 밝히거나 공개하는 것에 거리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이 공개되는 경우나 타인(선생님 또는 친구)에 의해 강제적으로 공개되는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 중학교 생활에 대체로 만족
- 중학교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은 넓고 깊어진 친구 관계, 가장 힘든 점은 어려워진 학업
-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적에 대해 크게 걱정하거나 불만을 드러내지 않음
- 성적에 관계없이 대체로 공부에 높은 관심을 보이지 않음
- 성적이나 학업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선생님과 상의함
- 부모님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학업 관련 내용을 상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대
- 통상적인 사회 분위기에 따라 대학진학을 희망하나 진로나 진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 없음
- 교우관계 원만함
- 성별로 친구들과 주로 하는 활동 다름: 여학생은 수다, 남학생은 게임과 운동
-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따돌림이나 불편한 경험을 당하는 경우 거의 없음
-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놀림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
- 한국말이 능숙하지 못한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한 놀림과 따돌림
- 중학교에서의 불편한 경험은 특이한 이름이나 외모에서 비롯되며, 다문화여서 놀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음
- 친구들과의 마찰은 성격이나 기질적인 문제, 가정형편 등으로 발생함
- 다문화라는 이유로 인한 자녀의 불편한 경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모님(생일파티 개최, 자신감 격려, 교사에게 도움 요청 등)
- 다문화라는 놀림이나 역사적 분쟁이 걱정되는 경우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알림
- 다문화에 대한 피해의식이 없고 한국인 정체성이 명확하면 공개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밝힘
- 굳이 먼저 다문화임을 밝히지 않지만 숨기지도 않으며, 비자발적으로 공개된 경우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음
- 일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매우 꺼려함
- 피부색 등 이국적인 외모에 대해 특별히 고민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음

3) 정책적 지원에 대한 태도

(1) 다문화에 대한 관심

사회적 관심에 무관심

일반인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상관 없다’ 또는 ‘관심 없다’, ‘생각해본 적 없다’라고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외모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다문화학생이나 중도입국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본 연구의 참여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중학생임을 고려할 때,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지가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다문화에 포함된다는 인식이 낮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거나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다문화 가정자녀 지원(프로그램)을 받고 그 경험에 대한 판단이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참가한 지원(프로그램)의 경험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괴롭고 힘든 경험이었다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면접자: 요새 사회적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 그런 것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S-15 : 다문화가 좋은 것.

면접자: 다문화에 관심 가져주면 부담스러운 것은 없어?

S-15 : 아니요.

면접자: 어떤 면에서 좋은 것 같아?

S-15 : 지원 같은 것 잘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체험도 많이 해주고.

면접자: 우리가 만난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거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

그런 관심은 너무 귀찮다거나 안 그래도 되는데 라거나 피곤하다거나 어떤 느낌이야?

S-22 :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온지 얼마 안 된 애들한테는 모르니까 상관없는데 너무 오래된 사람들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면접자: 뭘 안해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지?

S-22 : 체험 활동 같은 건 좋은데. 뭐라고 해야되지. 어쨌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면접자: 관심이 좀 과하다 라는 느낌이 있는건가?

S-22 : 네.

부정적인 관념에 대한 불쾌함과 지원에 대한 고마움, 역차별 논의에 대한 미안함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한 조사결과는 자녀들의 결과보다 그 층위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많이 나타난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특히, 다문화가 ‘부족한’, ‘못사는’, ‘도움이 필요한’ 등의 부정적 관념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자녀는 도움을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 불쾌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들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였다.

M-34: 살면서 그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도움 받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 다문화는 어떤 도움을 받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상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중략) (학교에서)이런 안내가 나왔는데 애들 좋은 일 하는 걸로 저소득 자녀 공부 도와주기던가? 다문화 친구 공부 도와주기, 그게 딱 생각이 나는데 다문화 친구 공부 도와주기, 그게 나온 거예요 우리애가 너무 웃기는 게 엄마 이거 봐 엄마 태도를 보고 있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애가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문화 친구라고 무조건 친구 공부를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다문화 친구 공부 도와주는 그때.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문화가정 지원 보다는 이용하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M-27: 제 생각은 하나는. 진짜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하든가 이용하든가 둘 중에 하나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또 다른 경우는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 역차별의 문제를 스스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 한국 원주민들의 시각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내에서도 경제적 수준의 격차가 있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매우 잘 사는데, 무조건 다문화가족이라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니 잘 살지 못하는 한국 원주민 가정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지원의 기준이 다문화가 아니라 경제적인 수준 등 뭔가 합리적인 것이 되어야 함을 다문화가정 내에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 지원의 방향을 통합지원으로 가야함을 다시 한 번 드러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M-16: 너무 해주다 보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점점 안 좋게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 해주니까. 우리들한테 안 해주는데. 더 힘든 사람들 있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닌가. 다문화 쪽에서도 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에서 맞춰서 해줘서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문화나 그렇게 하지 말고. 안 그래도 한국 사람도 힘든 사람도 많잖아요.

M-30: 왜냐하면 다문화 아이들 중에는 진짜 잘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사람들도 못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문화에 막 쓰다보니까 진짜 한국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가잖아요. 그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M-25: 글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나도 힘들지만 나 말고 힘든 이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또 바꿔서 생각하면 다문화라서 힘들게 아니고 한국인이라도 힘든 가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문화가정이니까, '널 위해서 뭘 해다오'. 난 그렇게 말은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대부분 다문화가정을 특별히 생각해주거나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있음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러한 사회적 지원이 한국에서의 삶에 동기와 의미를 부여해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였다.

M-11: (다문화에 대한 관심에)거부반응 없는데요. 그래도 참 나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막 신경써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게 고마워요. 좋더라구요. 이 나라에 와서. 다문화라고 많이 혜택을 주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 면이 참 고맙더라구요. 현실을 외면해 봤자 현실이 어디로 도망가는 건 아니잖아요. 좋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차피, 인정해야지. 제가 중국에서 시집왔고, 현실적인 건데.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인해 한국사회 전반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는데, 한국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 자녀들 사이에서도 다문화로 인한 따돌림이나 차별이 거의 없어지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M-24: 한국 사회, 정부에서도 많이 해주고 있고 생각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도 가르치잖아요. 그림책에 일부러 피부가 검은 친구가 나와요. 다문화를 의식해서 그렇게 해준 거구나. 좋더라고요. (중략) 특히 ○○초등학교는 다문화 애들이 더 많아지니까. 지금은 친한 마음으로 존경해주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물론 지금도 아베 정권이고 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일본 사람들 괜찮다. 사람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확실히 달라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도.

(2)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특별한 지원은 불필요

인터뷰에 응답한 다문화가정 자녀 대부분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보다는 ‘필요 없다.’ 또는 ‘관심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특히 경제력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이나 한국어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특별한 관심이나 대우가 필요하도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별로 상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S-29: 다문화 학생이라고 많은 관심을 받는다고 해도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관심이 없으면 이게 또 관심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힘들어할 때도 있고 주변의 도움이 하나도 없다 싶을 때는 공부도 어려운데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조금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하거나 ‘필요 없다’고 대답한 자녀들은 자신이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귀찮거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 필요 없다고 응답한 자녀도 있었다. 심지어 여타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 살고 있음에도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S-25: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그냥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학교에서 하고 싶어요. 특별한 거 없이. 저한테 시선을 주는 게 싫으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싫어요.

S-7 : 우리가 왜지 거기 같이 느껴지고 싫어요. 우리도 알아서 지원 안 해주고 잘 살고 있는 데. 뭐 하러 지원까지 하고. 우리를 마치 분리인 것처럼 보고.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 제공되는 지원

대부분의 지원은 초등학교 시절 제공받은 것으로, 중학교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이는 현행 지원 프로그램들이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현격히 줄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 대상 지원이 줄었다고 하여 그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인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즉, 중학교 대상 지원 자체가 줄어들었다면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지원이 일반 중학교 학생들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면 그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경험하거나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 중학 연령 시기의 다문화청소년의 요구 등이 분석된 바가 없다. 따라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출신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더 필요한 요구가 있다면 그 영역의 지원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청소년들과 함께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M-16: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많아요.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아요. 어디 데리고 가던지 학교에서 뭐 하든지. 많아서. 근데 중학교 가면 그걸 조금.

M-18: 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요. 중학교 애들은 거의 안 다녀요. 재미없다고 그래요. 이제 컸으니까. 거의 다 초등학교 아니면 유치원생.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식 선호

지원의 형태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다문화가정자녀는 별도 지원, 통합(비다문화 가정자녀 포함)지원, 상관 없음 등 다양한 의견이 수집되었다. 지원의 형태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자신이 다문화가정임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거나 이미 주변의 사람들이 본인이 다문화가정자녀임을 알고 있는 경우인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별도지원하면 특별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좋다는 반응도 있었다.

면접자: 그런데 지원을 할 때 다문화가정만 지원하는게 좋은 거 같애. 아니면 막 섞여가지고 지원하는게 좋은 거 같애?

S-11 : 음...다문화 가정이라고 주는 거니까 섞여서 주는 것 보단 낫겠죠.

S-30 : 저는 둘 다 상관없어요.

면접자: 어떤 게 더 좋다 싫다 하는 거 아니고?

S-30 : 네.

면접자: 그럼 그때는 한국애들하고 같이하는 걸 원해? 아니면 다문화 가정만 했으면 좋겠어?

S-30 : 저는 솔직히 그런 거 큰 상관없어요.

통합지원을 선호하는 경우는 본인이 다문화가정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거나 다문화가정인 것이 창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문화가정자녀만을 지원하는 것이 차별이며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M-21: 거기(기관에서) 다문화, 저소득층 무료로 중학교까지만 해줄 수 있대요. 만약에 대상자 되더라도 이제 (아이가) 싫대요 창피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중학교 때는 그런 애 주위에 없나 봐요. 그런 거 알게 되면, 제가 중국 사람인거 친구들은 모르나봐요. 저한테는 굳이 중국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숨기는 것 같았어요. 안 간다고 하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저도 좀 창피한 건 알지만 형편이 이러다보니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애들은 기분이 안 좋은거봐요. 다닌다는 그 자체. 창문에도 다 쓰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저기 다닌다고 하면 말 안해도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다니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면접자: 만약에 너는 지원을 받는다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만 모아 놓고 이야기 하는 게 좋아? 아니면 한국아이들하고 다 같이 있는 게 좋아?

S-34 : 다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면접자: 왜?

S-34 : 다문화 아이들하고만 있으면 별로... 이상할 것 같아요.

개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프로그램

본 연구의 인터뷰 응답자 중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자신이 받은 지원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 그저 그렇다거나, 귀찮다거나, 누군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면접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들어, 어때?

S-3 : 별로요.

면접자: 별로 도움이 안 돼?

S-3 : 네

면접자: 놀러 가는 거는 어때? 셋째 주 토요일 날?

S-3 : 가기가 귀찮아요.

면접자: 별로 흥미가 없었어? 좋기는 좋았어? 근데 왜 그만두게 되었어?

S-8 : 가기 귀찮아서.

면접자: 가기 귀찮아서? 니가 스스로 가지않기로 선택한 거야, 아니면 부모님들이...

S-8 : 나 혼자서. 빠지고.

면접자: 빠지는거야? 그럼 엄마는 자꾸 가라 그랬어?

S-8 : 몰랐죠.

면접자: 몰랐어? 나중에 알게 되셨어?

S-8 : 지금도 몰라요.

지원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다. 단순한 체험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서 재미있기는 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지는 않는다고 응답하거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다.

면접자: 공연 같은 것 있었고. 다른 것도 있었어?

S-13 :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면접자: 도움이 됐던 것 같아?

S-13 : 별로였어요.

면접자: 가서 뭐했는데?

S-13 : 공연만 봤어요.

면접자: 어떤 게 제일 도움이 안 됐어?

S-18 : 놀이동산.

면접자: 재미없어?

S-18 : 재미있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요. 복잡해요.

면접자: 어디 갔었어?

S-18 : 몰라요. 기억이 안나요.

면접자: 에버랜드 갔다 왔잖아.

S-18 : 그렇구나.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피곤해서 하고 싶지 않다거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지옥 같았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도 있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프로그램 참여 동기가 낮기 때문에 나타는 문제로 사전에 학생의 요구를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참여 후에는 멘토와 멘티의 상호간 라포형성시간을 만드는 등 초기 작업이 필요한 것에 비해 단순히 멘토와 멘티의 짝을 지어서 하라고 하니 목적의식도 없이 서로간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으로 멘토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매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바람직한 프로그램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서로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하는 몇 가지 굵직한 사업 중 멘토링은 매우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S-7 : 멘토도 공짜로 붙여주고, 그래 가지고 어디 놀러도 가고.

면접자: 대학생 멘토? 1대1로?

S-7 : 겁나 어색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붙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없는 시간쪼개 가지고 멘토 받은 건데.

면접자: 만나서 뭐 했는데?

S-7 : 만나면....수업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 가져와 가지고 나의 뇌를 그려 보세~ 이러거나. 여름 방학 때 그냥 방학 숙제 도와주거나. 그래서 거기 덕분에 나주 중원 골드스파를 가보긴 했어요.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생국이나 이주배경,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다문화 학생에게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는 학교와 현장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실무자의 다문화청소년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고,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고정관념에 근거한 프로그램들을 반복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내려온 예산을 쓰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고, 그 중 하나가 한국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을 ‘다문화가정출신’이라는 범주를 정해 놓고 한국어 수업을 듣게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면접자: 그런데 ○○이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잖아. 한국말 쓰는 게 어렵니?

S-12: 아니오.

면접자: 근데도 갔어?

S-12: 네. 그냥 하라고 해서 했는데.

면접자: 누가?

S-12: 선생님이랑 엄마가.

인터뷰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받고 있는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지원하는 기관만 다를 뿐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복적으로 제공되거나, 본인의 자녀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M-28: 체험 학습이 어디 구경 간다는 거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는..(중략)..관광객도 아니고 여태까지 어린이집에 다닐 때도 학교에서도 그런 데를 가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과정 학생이니까 한국의 역사를 알려줘야겠다거나 그런게 특별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다문화가정 애들이니까 뭐 인형극을 보러 가야한다거나 체험학습 가야한다거나, 캠프도 캠프 갔다 오면 좋지만 복지관 수련관 이런거 다니면 거기서도 캠프 몇 번이든 가거든요.

M-31: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서 겹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가지는 않을 것 같은 것 같은데요. 특별히 문제 있는 애들만 조금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애들이 다 문제가 있는게 아니에요. 다 문제는 아닌데 다 그렇게 해주려고 하니까 낭비하는 거죠.

(3) 다문화가정에게 필요한 지원

①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지원은 필요하지 않음

다문화가정자녀에게 중학교에 진학 후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자녀들은 다수가 지원의 실효성을 떠나서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친한 친구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S-34: 뭐 해봤자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다문화 캠프라고 해서 옛날에 프로그램 보니까 초등학생들 할 거 위주로.....

면접자: 만약에 중학교 때도 이런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S-33 : 아니요.

면접자: 왜?

S-33 : 내가 혼자 가서 외로워요.

면접자: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괜찮아?

S-33 : 네.

방과후수업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필요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지원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경우의 필요한 지원 내용은 방과후 수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원하는 취미활동 방과후 수업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S-26: 네. 제가 방과 후 활동 목공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무료로 시작했어요. 전기세 나간다고 해가지고 8천원하다가 저저번 달에 7천원 됐어요. 그러다가 이번

달에 7만 7천 40원 낸 거예요. 그래서 껌딱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됐지?'하고 놀랐는데 너무 비싸요 방과 후 활동 거의 다. 5만원, 7만원 그러니까. (중략) 다문화가정에서는 첫째로 방과 후가 아주 부족해요. 초등학교 때 승마교실을 했는데 엄청 비싸요. 그런데 엄청 재미있어요. 삼십 만원? 엄청 재미있는데 저는 비싸서 못했고 아쉽고 그래요. 다른 건 별로 없고 체험학습 같은 것도 많이 자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S-29: 멘토링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방과 후 수업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으면... 하고 싶은 것 하게 하는데 안에 있는 걸 하게 되는데 저도 하게 되었어요. 한번 하고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방과 후 아예 안하다가 6학년 때 뒤늦게 신청했었어요. 방과 후 하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일부 학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자녀들은 학업지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나 전체 응답자 대비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그 외의 의견으로는 진로상담이나 심리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소수가 있었다.

학습비와 학습지원 요구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자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자녀의 조사결과와는 상반되었다. 필요한 지원의 내용으로는 학습비 지원을 포함한 학습지원과 특기적성 교육지원, 다문화가족캠프지원 등이었다.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 또는 문화적인 차이로 어머니 자신이 자녀에게 원활하게 제공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M-25: 생활을 뽁뽁하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만큼의 돈이 턱 들어가야 하면 힘들죠. 초등학교 6년 내내 쓸 걸 중학교는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밀어넣는 기분. 경제적 여건만 되면 학원도 보내주고 남들이 해주는 것처럼 다 하고 싶죠....(중략)... 내 여건 상.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돼요.

M-31: 무료 해주는 사람 전혀 없어요. 내 돈이 들어가면 그거 부담이 가잖아요. 다문화 7월 달인가 6월 달에는 미술 사생대회에 나가는데 중등부 은상 받았거든요. 거기

상금은 얼마 안 되지만 일 년치 미술학원 다닐 수 있게끔 무료 해주는 거 있었어요. 일 년이 일주일에 한번이에요. 한 번도 아다 일주일에 한 번도 매달가면 10만원 넘는 거 같아요. (중략) 일 년에 애들 이런 거 있으면 이런 재능 있으면 그거에서 지원해 줬으면(좋겠어요)

②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필요한 지원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 지원

인터뷰에 참가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부모교육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한국의 교육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화적, 언어적 제약으로 인하여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녀의 진학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M-24: 한국 교육 쪽은 매년 바뀌잖아요. 한국 엄마들도 어려울 정도로....한국 사람들도 어려운 데 매년 바뀌는 교육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M-26: 필요하다기보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건 역시 아이들 교육에 관한 정보?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어떤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이런 게 있다가나 입시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 거의 없어요.

M-32: 제일 답답하냐면 애들 대학교 갈 때, 내가 뭐 무슨 과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왜 그러는데 내가 대학교 안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 대학 취업해 가지고 어느 과 가면 애한테 도움 되나 그런 거 자체를 내가 모르니까 그것 좀 답답하지.

자녀의 발달과정에 따른 적절한 양육방법 지원

또한 자녀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았다. 특히,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춘기에 접어드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이라서 발생한다기보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이주여성 어머니들의 경우에도 사춘기 자녀의 반항이나 문제행동에 대해 무반응 또는 폭력으로 대응하거나, 자녀의 지속적인 문제행동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생기는 등 사춘기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문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한국의 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어머니의 한국어 미숙이 자녀와의 소통에 장애물이 되면서 발생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줄 사람의 부재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 어머니가 사춘기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M-34: 부모를 교육 시켜주는거요. 부모가 일단 사춘기일 때의 애들의 그걸 알아야만 대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사춘기 때 애를 모르면 대처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면 어떤거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도 문화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결 해야할지 모르는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일이어서 그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큰일이 될 때가 있어요.

M-7: 딸이 점점 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무리 야단치고 싶어도 아무리 잔소리하고 싶어도 천천히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한국말도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딸한테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요. 어떻게 딸한테 가르쳐야 되는지, 친구한테 어떻게 친해지는지 설명하고 싶는데, 말하고 싶는데 근데 말을 못해요.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는 대로 이렇게 말이 나와요.

부모-자녀간 문화 차이 인정과 서로간의 의사소통 개선

사춘기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결혼이주민 어머니의 부모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자녀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한국에서 성장한 자녀와의 소통에 있어서 문화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하겠다. 일부 사례에서 언어적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M-7번). 그러나 다른 사례(M-15번)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자녀와의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서로만의 의사소통 방법을 찾는 것이 단순히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M-7: 저는 한국말도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딸한테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답답해요. 어떻게 딸한테 가르쳐야 되는지, 친구한테 어떻게 친해지는지 설명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근데 말을 못해요. 설명을 못해요.

M-15: 지난번에는 자기표현 하는 걸, 언어표현, 중학교에 전문선생님이 와서 부모 교육으로, 내 대화법이 아닌 너 대화법으로 하라고. 그런 교육하고, 독서클럽이 있어요. 부모들 도서관에서 모여서 작가 한분 초대해서 하고, 음악회도 하고, 도서관에서 오픈, 다문화에서 예를 들어 어디 연극 보러 가거나 이런 것. 가끔 있고, 부모로서 자식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가 오히려 마음에 와 닿죠.

5. 요약 및 소결

본 연구의 인터뷰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정의 지원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인이 받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특히 중학교 이상의 자녀대상 지원은 전무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받고 있는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낮은 참여 동기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낮은 참여 동기는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또는 설명회 등 참여자가 자신이 받고 있는 지원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참여 동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와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중학생을 비롯한 중등 교육과정에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의 시기와 관련하여 응답자 대부분이 자녀가 초등학교시기에 집중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분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의 60% 이상이 학령기 이전의 영유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령기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시일 안에 중학교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급증할 것은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예상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중학교 재학 이상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학교 재학 이상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일반 한국가정 출신 청소년들과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학교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그 외로 지인이나 이주민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부모 모임 등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활성화하고 이러한 제도 안에서 다문화가족의 어머니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문화관련 기관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가진 다문화가정 학부모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학부모 모임이나 자조모임 등에 보다 많은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참여할 수 있도록 늦은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모임을 갖는 등과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지원(프로그램) 효과성 검토와 수요자의 요구 반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인터뷰 응답자의 응답내용을 분석해보면, 지원받은 내용이 대부분 체험활동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체험활동은 단순한 ‘놀이’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놀이’도 ‘참가하지 지겹다’ 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한 기타의 지원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참여하기 싫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것으로 볼 때, 현재 다문화가정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검토와 더불어, 지원 수요자인 다문화가정의 요구 분석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머니	청소년
■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한 불쾌함 ■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당한다는 느낌 ■ 역차별 논란에 대한 불편한 마음 ■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비참함 ■ 다문화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동일한 프로그램의 반복적 제공) ■ 사회적 관심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의 부담스러움 ■ 다문화가정을 일반가정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 ■ 사춘기 자녀의 지원에 대한 수치심과 불쾌감으로 인한 지원 거부, 그러나 부모의 요구도는 여전히 존재 ■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상처와 통합지원의 필요성(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묵었던 경험에 대한 불쾌감) ■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관심의 절실함(단순지원보다는 내실 있는 학업지원의 필요) ■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과 학습관련 지원에 대한 강한 요구 ■ 자녀교육에 대한 적극적 관여의 어려움과 자녀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서운함, 부모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 ■ 자녀의 사춘기 변화와 대처의 어려움, 부모교육의 필요성 ■ 차별적 시선보다 더 급한 절대적 결핍과 지원의 필요성	■ 자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긍정적 마음 ■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러움 ■ 다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담스러움과 외부로부터의 구별짓기에 대한 괴로움 ■ 동일한 프로그램의 반복적 지원과 흥미감 상실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불쾌함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부정적 태도(예: 한국어수업, 어색한 멘토링,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하라는 내용) ■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차별감과 수치심: 통합지원의 필요성 ■ 중학생 대상 지원프로그램의 감소 ■ 지원에 대한 필요성의 약화 ■ 다문화 대상 지원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 않음. ■ 역차별 논란으로 인한 입장의 곤란함. ■ 방과후 수업 지원의 필요성: 형편이 어려운 경우 ■ 경제적 지원의 요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 어머니나라에 대한 무관심(가보고 싶은 생각 크지 않고, 어머니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할 생각 별로 없음) ■ 어머니 모국어에 대한 크지 않은 관심(어머니 모국어보다는 영어나 일어 등 활용성이 큰 언어에 대한 관심)

제 IX 장

요구분석

1. 요구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2. 요구분석의 내용 및 방법
3. 요구분석의 결과
4. 요약 및 소결

제 IX 장 요구분석¹³⁾

1. 요구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사회에 다문화 이슈가 등장한 이후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들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그 결과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한국 내 비(非)다문화 집단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막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을 일반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근거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취약함을 강조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지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상만 다문화청소년으로 바꾸어서 지원하는 방식이었고,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적 차이나 역량개발 측면의 지원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으며, 소수 역량개발을 내세운 정책들도 실제로 운영내용을 들여다보면 유명무실한 명목상 프로그램인 것들이 다수 존재하는 등 다문화청소년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연구와 경험을 통하여 다문화청소년들의 다양성과 요구 및 현실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파악이 이루어진 바 있고, 어느 정도 이들 당사자의 요구에 근거한 정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문가들의 주장이나 연구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산출된 결과 이외에 당사자들과 관련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요구의 분석이 매우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당사자들은 소외된 지원정책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글로벌 한국사회를 대비하는 측면의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및 지원방안들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3) 9장은 양계민이 작성함.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교사, 현장전문가 등 다문화청소년 당사자 및 그들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요구부합적인 정책제언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2. 요구분석의 내용 및 방법

요구분석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첫째는 패널설문조사의 내용에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된 결과이고, 둘째는 심층면접, 셋째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FGI(Focus Group Interview) 내용의 분석 결과이다. 각 요구분석의 방법별로 대상과 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표와 같다.

표 IX-1 요구조사 방법, 대상 및 내용

방법	대상	내용
설문조사	- 다문화청소년 1,384명 - 학부모 1,302명	- 다문화청소년 지원 수혜 정도 - 다문화청소년 지원 중복수혜 정도 - 지원에 대한 태도 - 지원의 필요성 - 지원내용의 요구 부합성 - 바라는 지원내용
	교사 301명	- 현재 학교에서 제공되는 지원프로그램 - 다문화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적정성 -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긍정, 부정적인 측면 - 다문화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향후 방향성
심층면접	- 다문화청소년 35명 - 학부모 35명	-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바라는 지원내용 - 현재의 지원방식에 대한 당사자의 느낌과 요구 - 현재 다문화청소년 지원방식의 문제 및 개선방안
FGI	- 초등학교 교사 2명 - 중학교 교사 5명	- 학교현장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의 현황, 문제점 - 학교현장의 요구 및 어려운 점
의견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청소년 사업현황, 한계 및 다문화청소년사업에 대한 실무자 의견 조사

3. 요구분석의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 다문화지원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부터 지원받았다는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에 입학한 시기인 2014년의 지원율은 31.7%로 대다수가 다문화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았다는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중학교 대상 지원이 없기 때문인지,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다문화’라는 것을 내세운 지원이 감소한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X-2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청소년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예	1,034(68.8)	794(54.9)	439(31.7)
아니오	468(31.2)	651(45.1)	945(68.3)
전체	1,502(100)	1,445(100)	1,384(100)

그렇다면 어떤 지원을 주로 받았는지 지원의 내용을 물어보았을 때, 초등학교 5학년시기에는 주로 문화체험을 많이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방과후지원을 꼽았으나 6학년이 되어서는 순위가 바뀌어 방과후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문화체험은 두 번째로 많이 지원받은 내용이었다. 중학생이 된 2014년의 경우는 비교적 중학생에게 적합한 방과후 수업료 지원이 가장 많고 대학생 멘토링이 두 번째로 많았으나 문화체험도 여전히 많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을 위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방과후 수업료 지원과 대학생 멘토링, 박물관이나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등의 문화체험활동, 뮤지컬이나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외 급식비 지원도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지원의 내용은 주로 청소년들의 학습지원과 체험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청소년기에 필요한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지원율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로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 다문화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심리적응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표 IX-3

학교나 기관에서 받은 지원 내용: 청소년(중복응답)

빈도(%)

내용	2012	2013	2014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활동	441(18.3)	260(16.0)	105(11.9)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396(16.4)	287(17.7)	152(17.3)
대학생 멘토링	318(13.2)	226(13.9)	144(16.4)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299(12.4)	175(10.8)	84(9.6)
놀이공원 방문	238(9.9)	131(8.1)	43(4.9)
급식비 지원	160(6.6)	141(8.7)	112(12.7)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129(5.4)	77(4.7)	38(4.3)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123(5.1)	102(6.3)	47(5.3)
학습지 지원	104(4.3)	58(3.6)	27(3.1)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52(2.2)	50(3.1)	31(3.5)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52(2.2)	26(1.6)	11(1.3)
이중언어교실	34(1.4)	36(2.2)	21(2.4)
한국어 교육 지원	23(1.0)	13(0.8)	5(.6)
진로지원 프로그램	-	-	22(2.5)
기타	41(1.7)	41(2.5)	37(4.2)
합계	2,410(100)	1,623(100)	842(100)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 하나는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중복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지원받고 있는지는 조사해 본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중복성 논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한 해에 동일한 프로그램이 여러 번 중복하여 지원이 된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것은 본인이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제공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에 비해 2013년 들어서 동일한 지원이 중복적으로 제공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4년 중학교 1학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급격히 증가하여 거의 42%가 중복제공이 있었다고 응답을 하였다.

표 IX-4 한해에 같은 지원이 중복되어 제공된 적이 있는지 여부: 청소년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예	295(28.5)	302(20.9)	184(42.0)
아니오	739(71.5)	1,143(79.1)	254(58.0)
전체	1,034(100)	1,445(100)	438(100)

중복적으로 제공된 지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질문한 결과 초등학교 시기까지는 방과후 수업료나 문화체험, 대학생멘토링 등이 중복적으로 제공된 반면, 중학교에 입학한 2014년에는 초등학교 때 중복적으로 지원된 프로그램이 그대로 중복이 되었고, 그 외에 급식비 지원도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크게 보아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표 IX-5 지난 한 해 동안 중복으로 제공된 지원 내용: 청소년(중복응답)

빈도(%)

내용	2012	2013	2014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32(24.4)	108(18.3)	68(20.6)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활동	85(15.7)	84(14.2)	36(10.9)
대학생 멘토링	78(14.4)	88(14.9)	63(19.1)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51(9.4)	67(11.3)	30(9.1)
놀이공원 방문	44(8.1)	39(6.6)	12(3.6)
급식비 지원	41(7.6)	51(8.6)	51(15.5)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32(5.9)	33(5.6)	10(3.0)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24(4.4)	41(6.9)	15(4.5)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4(2.6)	8(1.4)	4(1.2)
학습지 지원	13(2.4)	25(4.2)	12(3.6)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11(2.0)	22(3.7)	9(2.7)
이중언어교실	8(1.5)	10(1.7)	10(3.0)
한국어 교육 지원	3(.6)	7(1.2)	2(.6)
진로지원 프로그램	-	-	3(.9)
기타	5(.9)	8(1.4)	5(1.5)
합계	541(100)	591(100)	325(100)

그 중 자신이 중복적으로 제공을 받았던 것이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3년간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방과후 수업료 지원이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는 문화체험과 대학생 멘토링이었고, 6학년 시기에도 순서는 다르지만 역시 대학생 멘토링과 문화체험이었던 것에 비해 중학교 1학년 시기인 2014년에는 방과후 수업료, 대학생 멘토링 다음으로 높은 것이 급식비 지원이었다.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급식비 지원을 중복적으로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배 정도 되었다. 따라서 중학교 시기의 지원은 주로 방과후 수업료와 급식비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대학생 멘토링이 주를 이루고 있고 초등학교 때 많이 하던 문화체험활동은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사실상 중학생 대상의 지원으로 학습과 급식비 등은 크게 부적절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내용 등 심리적응프로그램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나 중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에 비해 학습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에게는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IX-6

지난 한 해 동안 중복으로 제공받은 내용: 청소년(중복응답)

빈도(%)

내용	2012	2013	2014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26(25.3)	93(18.6)	58(20.4)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활동	74(14.9)	63(12.6)	27(9.5)
대학생 멘토링	71(14.3)	78(15.6)	52(18.3)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45(9.0)	50(10.0)	23(8.1)
급식비 지원	38(7.6)	42(8.4)	47(16.5)
놀이공원 방문	35(7.0)	32(6.4)	11(3.9)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29(5.8)	19(3.8)	7(2.5)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22(4.4)	37(7.4)	13(4.6)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2(2.4)	5(1.0)	2(.7)
학습지 지원	10(2.0)	21(4.2)	11(3.9)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10(2.0)	10(2.0)	4(1.4)
이중언어교실	6(1.2)	8(1.6)	7(2.5)
한국어 교육 지원	3(.6)	4(0.8)	-
진로지원 프로그램	-	-	2(.7)
기타	5(1.0)	4(0.8)	5(1.8)
없음	12(2.4)	33(6.6)	15(5.3)
합계	498(100)	499(100)	284(100)

그렇다면 자신이 지원받았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지원받았던 것들이 필요한 것이었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7 지원받았던 프로그램의 필요성: 청소년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22(2.1)	14(1.7)	6(1.4)
필요하지 않은 편이었다	81(7.9)	70(8.6)	61(13.9)
나에게 필요한 편이다	658(63.8)	547(67.2)	263(59.9)
나에게 매우 필요했다	270(26.2)	183(22.5)	109(24.8)
전체	1,031(100)	814(100)	439(100)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청소년에게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IX-8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향: 청소년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1,146(76.6)	1,054(72.9)	887(64.1)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339(22.6)	374(25.9)	478(34.5)
기타	12(0.8)	17(1.2)	19(1.2)
전체	1,497(100)	1,445(100)	1,384(100)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놀이공연이나 문화공연관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으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요구도는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대신 학원비나 급식비 지원에 대한 요구도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다른 것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는 하였다.

표 IX-9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청소년(중복응답)

빈도(%)

내용	2012	2013	2014
놀이공원 방문	903(16.2)	775(15.7)	545(11.8)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685(12.3)	576(11.7)	478(10.3)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활동	664(11.9)	490(9.9)	372(8.0)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45(11.5)	554(11.2)	393(8.5)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491(8.8)	420(8.5)	349(7.5)
학원비 지원	468(8.4)	434(8.8)	458(9.9)
대학생 멘토링	349(6.2)	314(6.4)	270(5.8)
급식비 지원	307(5.5)	282(5.7)	329(7.1)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304(5.4)	269(5.5)	242(5.2)
학습지 지원	269(4.8)	237(4.8)	208(4.5)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139(2.5)	139(2.8)	182(3.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38(2.5)	99(2.0)	109(2.4)
이중언어교실	120(2.1)	128(2.6)	148(3.2)
한국어 교육 지원	68(1.2)	53(1.1)	41(.9)
진로지원 프로그램	-	-	298(6.4)
기타	38(.7)	20(0.4)	14(.3)
없음	-	137(2.8)	197(4.3)
합계	5,588(100)	4,927(100)	4,633(100)

(2) 다문화지원정책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두 번째로 어머니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유사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우선 첫째로 자녀가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학교나 기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인 초등학교 5학년 시기부터 점점 지원의 경험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4년도에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3%에 불과하여 중학생 대상 지원이 확연하게 감소됨을 보여주었다.

표 IX-10 자녀의 지원 경험 여부: 어머니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예	988(66.6)	731(51.3)	344(25.3)
아니오	496(33.4)	695(48.7)	1,017(74.7)
전체	1,484(100)	1,426(100)	1,361(100)

그렇다면 자녀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다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은 방과후수업료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문화체험이나 대학생멘토링, 문화공연관람 등을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여 청소년의 응답과 일관되었다. 2014년 들어서 눈에 띄이는 것이 급식비 지원으로 초등연령이 비해 거의 두 배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11 다문화가족으로써 지원받은 내용: 어머니(중복응답)

빈도(%)

내용	2012	2013	2014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475(18.4)	302(19.6)	115(17.9)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440(17.1)	217(14.1)	68(10.6)
대학생 멘토링	265(10.3)	180(11.7)	67(10.5)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260(10.1)	140(9.1)	60(9.4)
놀이공원 방문	249(9.7)	105(6.8)	24(3.7)
급식비 지원	186(7.2)	152(9.9)	114(17.8)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145(5.6)	80(5.2)	28(4.4)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144(5.6)	85(5.5)	45(7.0)
학습지 지원	130(5.0)	81(5.2)	18(2.8)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86(3.3)	52(3.4)	15(2.3)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72(2.8)	42(2.7)	15(2.3)
이중언어교실	48(1.9)	28(1.8)	14(2.2)
한국어 교육 지원	28(1.1)	16(1.0)	11(1.7)
진로지원 프로그램	-	-	15(2.3)
기타	50(1.9)	63(4.1)	32(5.0)
전체	2,578(100)	1,543(100)	641(100)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프로그램이 중복적으로 제공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머니의 응답도 비율 자체는 다르지만 양상은 청소년과 일치하였다. 즉,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급격히 줄었으나 2014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12 한해에 같은 지원이 중복된 적이 있는지 여부: 어머니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예	247(25.0)	198(13.9)	101(29.4)
아니오	741(75.0)	1,228(86.1)	243(70.6)
전체	988(100)	1,426(100)	344(100)

중복적으로 제공된 지원의 내용은 초등학교 때는 방과후수업료 지원과 문화체험이었던 것에 비해 중학교 시기에는 문화체험이 약간 감소하고 급식비 지원과 방과후수업료 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방과후수업료는 학기마다 지원해줄 수 있는 문제이고, 급식비 역시 저소득층의 경우 생존이 달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표 IX-13 중복지원 제시 내용: 어머니(중복응답)

빈도(%)

내용	2012	2013	2014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27(27.5)	84(22.8)	40(19.7)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68(14.8)	51(13.9)	25(12.3)
대학생 멘토링	41(8.9)	36(9.8)	15(7.4)
급식비 지원	36(7.8)	37(10.1)	43(21.2)
놀이공원 방문	33(7.2)	21(5.7)	10(4.9)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32(6.9)	34(9.2)	11(5.4)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31(6.7)	30(8.2)	17(8.4)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30(6.5)	21(5.7)	8(3.9)
학습지 지원	17(3.7)	19(5.2)	6(3.0)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14(3.0)	10(2.7)	6(3.0)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3(2.8)	9(2.4)	8(3.9)
이중언어교실	8(1.7)	4(1.1)	2(1.0)
한국어 교육 지원	5(1.1)	4(1.1)	5(2.5)
진로 지원 프로그램	—	—	4(2.0)
기타	6(1.3)	8(2.2)	3(1.5)
전체	461(100)	368(100)	203(100)

그 중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3년간 공통적으로 방과후수업료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문화체험이 다음으로 많았으나 중학교에 입학한 후인 2014년도에는 방과후수업료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급식비 지원, 다음이 문화체험이어서 지원의 양상이 달라졌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표 IX-14 중복지원 받은 내용: 어머니(중복응답)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20(28.7)	75(24.9)	39(20.7)
박물관, 역사탐방, 답사여행,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문화체험	58(13.9)	34(11.3)	24(12.8)
대학생 멘토링	35(8.4)	30(10.0)	15(8.0)
급식비 지원	31(7.4)	29(9.6)	36(19.1)
놀이공원 방문	30(7.2)	17(5.6)	10(5.3)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28(6.7)	20(6.6)	14(7.4)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26(6.2)	13(4.3)	6(3.2)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26(6.2)	25(8.3)	10(5.3)
학습지 지원	16(3.8)	13(4.3)	6(3.2)
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 프로그램	13(3.1)	8(2.7)	3(1.6)
없음	12(2.9)	22(7.3)	9(4.8)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2.4)	6(2.0)	7(3.7)
이중언어교실	5(1.2)	4(1.3)	2(1.1)
한국어 교육 지원	4(1.0)	1(.3)	4(2.1)
기타	4(1.0)	4(1.3)	3(1.6)
전체	418(100)	301(100)	188(100)

자녀가 지원을 받은 내용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자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들도 다문화가족을 위해 제공된 프로그램들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었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IX-15 지원받은 내용의 도움 정도: 어머니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자녀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8(.8)	4(.5)	3(.9)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은 편이었다	23(2.3)	24(3.3)	6(1.7)
자녀에게 필요한 편이다	537(54.4)	453(61.4)	170(49.4)
자녀에게 매우 필요했다	420(42.5)	257(34.8)	165(48.0)
전체	988(100)	738(100)	344(100)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향에 대해 어머니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해가 갈수록 점차 그 비율이 감소하여, 2014년의 경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응답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와 학부모 모두 한국사회의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IX-16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향: 어머니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932(62.7)	843(59.1)	678(49.8)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만	533(35.9)	570(40.0)	675(49.6)
기타	21(1.4)	13(.9)	8(.6)
전체	1,486(100)	1,426(100)	1,361(100)

다음으로 자녀를 위해 어떤 지원이 제공되면 좋겠는지에 대해 어머니들은 방과후 수업료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다음이 학원비 지원이었다. 어머니들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한국의 비(非)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보다 정보에서 떨어질 수 있으나 자녀의 교육을 위한 지원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인 한국의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것으로 생각되며, 가정형편상 지원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할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료나 학원비 등 자녀의 학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IX-17 희망하는 자녀 지원: 어머니(중복응답)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890(12.2)	730(11.8)	682(11.4)
문화체험(박물관, 역사탐방, 답사,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819(11.3)	641(10.3)	508(8.5)
학원비 지원	764(10.5)	756(12.2)	775(13.0)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686(9.4)	568(9.1)	479(8.0)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600(8.2)	497(8.0)	447(7.5)
대학생 멘토링	523(7.2)	451(7.3)	480(8.0)
놀이공원 방문	493(6.8)	356(5.7)	236(4.0)
학습지 지원	485(6.7)	401(6.5)	320(5.4)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440(6.0)	373(6.0)	328(5.5)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407(5.6)	333(5.4)	312(5.2)
급식비 지원	357(4.9)	370(6.0)	389(6.5)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352(4.8)	313(5.0)	233(3.9)
이중언어교실	278(3.8)	253(4.1)	229(3.8)
한국어 교육 지원	159(2.2)	135(2.2)	106(1.8)
진로지원 프로그램	—	—	420(7.0)
없음	—	18(.3)	21(.4)
기타	20(.3)	14(.2)	9(.2)
전체	7,273(100)	6,209(100)	5,974(100)

다음으로 어머니에게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 교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숙제지도나 시험준비와 같은 학습관련 부분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다음이 진로지도, 다음이 예절이나 인성교육과 같은 생활관련 부분이었고, 성교육과 가족관계교육에 대한 어려움도 일부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경우도 일반 한국가정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습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고, 이에 대한 요구도 많음을 나타내었다.

표 IX-18 자녀 지도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어머니(2014)(중복응답)

구 분	빈도(%)
학습 관련 부분(숙제, 시험 준비 등)	786(57.8)
진로 관련 부분(진로 선택 등)	333(24.5)
생활 관련 부분(예절 교육, 인성교육 등)	145(10.7)
성 관련 부분(2차 성장, 이성교제 등)	52(3.8)
가족 관련 부분(부모/형제/자매 관계 등)	23(1.7)
기타	22(1.6)
전체	1,361(100)

또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전체의 9.3%에 불과하였고 대다수는 잘 모르거나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X-19 학교 다문화가족 대상 학부모 교육 실시 여부: 어머니(2014)

빈도(%)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전체
빈도(%)	126(9.3)	1,033(76.0)	201(14.8)	1,360(100)

그러나 일단 교육에 참여한 경우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하여 향후 다문화가족 대상 학부모교육이 좀 더 많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표 IX-20 다문화가족 대상 학부모 교육의 도움 여부: 어머니(2014)

빈도(%)

구 분	예	아니오	참여 안함	전체
빈도(%)	98(77.8)	9(7.1)	19(15.1)	126(100)

(3) 다문화지원정책에 대한 교사의 태도

마지막으로 교사를 대상으로도 학교 현장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첫째로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고르도록 한 결과 방과후수업료지원과 대학생멘토링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문화체험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경우 비록 응답률은 낮지만 학년이 증가할수록 점차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X-21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중복응답): 교사 빈도(%)

내용	2012	2013	2014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26(15.1)	139(14.8)	112(17.4)
대학생 멘토링	107(12.8)	125(13.3)	88(13.7)
문화체험(박물관, 역사탐방, 답사,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106(12.7)	101(10.7)	77(12.0)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68(8.2)	84(8.9)	57(8.9)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53(6.4)	77(8.2)	67(10.4)
한국어 교육 지원	47(5.6)	62(6.6)	13(2.0)
이중언어교실	39(4.7)	56(5.9)	4(.6)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43(5.2)	52(5.5)	22(3.4)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54(6.5)	52(5.5)	49(7.6)
급식비 지원	50(6.0)	48(5.1)	47(7.3)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45(5.4)	42(4.5)	24(3.7)
놀이공원 방문	32(3.8)	37(3.9)	16(2.5)
학습지 지원	28(3.4)	34(3.6)	14(2.2)
진로지원	-	-	35(5.4)
기타	35(4.2)	33(3.5)	19(3.0)
합계	833(100)	942(100)	644(100)

두 번째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의 효과성에 대해 교사들은 학부모나 학생에 비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비교적 적었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 비해 교사가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효과성을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응답했을 수도 있고,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IX-22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교사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	1(0.3)	2(.7)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16(5.2)	11(3.6)	18(6.0)
보통이다	81(26.5)	82(26.5)	114(37.9)
도움이 되는 편이다	168(54.9)	183(59.2)	147(48.8)
매우 도움이 된다	40(13.1)	32(10.4)	20(6.6)
전체	306(100)	309(100)	301(100)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청소년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사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고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X-23 지원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 교사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156(51.0)	166(53.7)	112(37.2)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다	66(21.6)	43(13.9)	65(21.6)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	54(17.6)	69(22.3)	83(27.6)
건강한 심리발달에 도움이 된다	28(9.2)	30(9.7)	37(12.3)
기타	2(.7)	1(0.3)	4(1.3)
전체	306(100)	309(100)	301(100)

반대로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다문화가족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상처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청소년에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2012년도와 2013년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비율이 높았으나 해가 갈수록 점차 비율이 줄어들었고 2014년에는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교사들의 경우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의 방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IX-24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의 부정적인 측면: 교사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자신이 다문화가족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및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인 사실이 드러나서 상처가 될 수 있다	118(38.6)	112(36.2)	125(41.5)
학생과 학부모 모두 점점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	80(26.1)	55(17.8)	22(7.3)
프로그램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형식적이고 실제로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49(16.0)	59(19.1)	81(26.9)
본인의 필요와 상관없는 지원 및 참여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는 경우 반감이 생길 수 있다	28(9.2)	37(12.0)	35(11.6)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어 지원받는 것에 대해 자존심을 상할 수 있다	25(8.2)	38(12.3)	31(10.3)
기타	6(2.0)	8(2.6)	7(2.3)
전체	306(100)	309(100)	301(100)

그렇다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교사들의 경우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항에 대다수가 응답하였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은 대략 20% 내외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학부모들의 입장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다문화가족들이 대부분 저소득층과 겹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지원을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준을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교사들의 경우 일반국민의 입장에 더 가깝고 현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사자들과는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IX-25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방향: 교사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26(73.9)	218(70.6)	230(76.4)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3(17.3)	64(20.7)	67(22.3)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5(4.9)	18(5.8)	-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2(.7)	1(0.3)	-
기타	10(3.3)	8(2.6)	4(1.3)
전체	306(100)	309(100)	301(100)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와 달리 상담이나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심리적응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문화체험이나 방과후 수업료 지원, 학습지원 등도 모두 중요할 수 있지만 심리적응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임을 시사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IX-26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교사 빈도(%)

구 분	2012	2013	2014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180(17.5)	190(16.6)	199(13.9)
방과 후 수업료 지원(바우처 등)	118(11.4)	134(11.7)	145(10.1)
문화체험(박물관, 역사탐방, 답사, 한국문화체험, 농촌체험)	119(11.5)	124(10.8)	150(10.5)
한국어 교육 지원	104(10.1)	106(9.3)	110(7.7)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14(11.1)	103(9.0)	112(7.8)
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문화공연관람	91(8.8)	100(8.7)	104(7.2)
이중언어교실	74(7.2)	83(7.3)	119(8.3)
대학생 멘토링	62(6.0)	72(6.3)	93(6.5)
체육, 음악, 미술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57(5.5)	70(6.1)	93(6.5)
물적지원(책, 학용품 등 지원)	26(2.5)	42(3.7)	47(3.3)
학습비 지원	-	35(3.1)	-
급식비 지원	18(1.7)	31(2.7)	60(4.2)
학원비 지원	15(1.5)	23(2.0)	34(2.4)
놀이공원 방문	22(2.1)	22(1.9)	16(1.1)
진로지원 프로그램	-	-	113(7.9)
학습지 지원	19(1.8)	-	34(2.4)
기타	12(1.3)	8(0.7)	3(.2)
없음	-	1(0.1)	3(.2)
합계	1,031(100)	1,144(100)	1,435(100)

(4) 설문조사 결과 요약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지원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문화청소년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중학생 대상 지원이 줄었을 뿐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의 양은 줄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식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실제 중학교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감소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사례가 몇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두 가지 방향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만일 통합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라면 오히려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지원의 절대적인 양이 감소했다면 중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파악하여 집중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의 내용은 초등학교의 경우 문화체험, 방과후수업료 지원, 멘토링 등이었고, 중학생의 경우는 방과후수업료와 급식비, 그리고 멘토링이 주요 지원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정책의 대부분은 특기적성이나 체험, 청소년의 학업능력 증진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수 년 동안 교사들이 응답한 바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회적인 체험프로그램이나 학업능력 증진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응 및 상담프로그램이라는 것이었다.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현장의 요구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내려진 측면이 있고, 또 심리적응 및 상담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크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제 다문화청소년들이 점차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고,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확립과 함께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을 건전하게 가져가는 문제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학습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심리적응 및 상담, 더 나아가 심리치료를 위한 시스템 및 내용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다문화가정 당사자들과 외부사람의 지원에 대한 시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당사자들은 경제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이라면 모두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외부사람이자 관계자인 교사들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만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당사자와 교사의 입장차이를 드러낸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다수자집단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을 인식해야 한다. 만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논리적 근거가 일반 다수자 집단 국민들에게 설득적이지 않고, 다문화라는 이유로 무조건적 지원을 해준다면 다문화가정보다 더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다문화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지원방식과 지원가준

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국민 홍보를 펼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효과성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도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는 매우 필요하였고,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청소년 및 어머니집단보다 낮았다. 수혜 당사자의 경우는 일단 무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 나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경우는 그 프로그램이 비용과 시간 대비 내용이 훌륭했고,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현재 다문화청소년대상 지원 사업의 내용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다문화청소년이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차이를 보이는 변인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실제 아이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다섯째, 지원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원치 않는 정체성 드러내기 과정으로 상처를 받거나 소외되는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별지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통합지원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된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도 원치 않는 정체성 드러내기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이 숨겨야 할 것이 아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심층면접 결과

(1)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앞의 8장에 제시한 질적조사의 대상자인 다문화청소년들과 학부모 각각 35명씩 총 7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내용 중 정책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간략히 요약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의 입장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원의 방식과 내용의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불편감을 느끼고 나아가 불쾌감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었고, 아예 무관심하거나 다문화청소년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을 하기도 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개인적으로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고, 프로그램의 성격상 특별히 다문화청소년만 선별하여 참여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은 일반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통합적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는 청소년들도 기본적으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로서 느끼기에는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왜 다문화가정 아이들만 지원을 하느냐는 식의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까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원의 방식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할 때 자연스럽게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의 통합프로그램 속에서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임을 겉으로 드러내고, 성과를 내고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 지나친 관심이 집중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존재로 인식되고, 동시에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서 그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도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것들에 제공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제 필요한 것 보다는 다문화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한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서 참여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에게 한국어교실에 가서 한국어를 들으라고 한다거나, 원하지 않았는데 굳이 잘 알지 못하는 낯선 대학생과 멘토링을 하라고 해서 너무 어색했고, 심지어 그 순간 '죽고 싶었다'라고 까지 표현을 하였다. 이런 수준이면 지원이 아니라 폭력의 수준인 것이고 당사자의 선택이 아닌 강요에 의한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매 학년마다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비슷비슷한 지원들이 제공되다보니 매년 동일한 프로그램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흥미감을 상실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계층의 경우는 그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수업에 대한 지원이나 기타 경제적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불쾌함을 '견디어야' 하는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표 IX-27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 요약: 청소년

요인	내용
고마움과 곤란함	-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고마움 - 역차별 논란으로 인한 입장의 곤란함
지원 방식의 불편함	-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러움 - 다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담스러움 - 외부로부터의 구별짓기에 대한 괴로움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불쾌함 -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차별감과 수치심: 통합 지원의 필요성 - 다문화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의 부적절성	- 동일한 프로그램의 반복적 지원과 흥미감 상실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부정적 태도 (예: 한국어수업 참여의 강요) -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 강요(예: 어색한 멘토링) - 불필요하고 효과성 없는 프로그램의 제공 - 대상자 특성을 무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
지원 자체의 불필요	-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불필요 - 다문화 대상 지원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지 않음 -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에 관심 없음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 방과후 수업 지원의 필요성: 형편이 어려운 경우 -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2)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

다음으로 학부모들은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별도로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에 요약된 바와 같이 청소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였고, 그러나 감정의 강도는 어머니의 경우 더 강한 것으로 느껴졌다.

어머니의 경우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지나친 관심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사회적 역차별 논란에 대해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편하다는 입장을 표현하였다. 특히 지원에 대한 상처와 불쾌감의 경험이 어머니들의 경우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해 한국사회가 가지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다문화가족을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언급까지 있었다. 사춘기 자녀들의 경우 다문화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극히 꺼려하고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서 볼 때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비참하다는 느낌을 가지기도 하였다.

한 사례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묶어서 진행한 프로그램에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집단을 접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돕는 과정을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한 설명 없이 단순히 사회 소외계층과 묶어 놓으니,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한국사회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 소외계층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사례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당사자들에게 목적과 의도를 잘 이해시키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상처를 받게 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다문화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요구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실행해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공자의 편의대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참여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부모 역시 자녀와 마찬가지로 다문화청소년만을 위한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통합적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다문화청소년의 지원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지를 생각해보기 위하여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어머니들은 자녀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행동이 달라지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줄어들고, 학업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대하고 교육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자녀교육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지원을 해주고 싶으나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주지 못하고, 결국은 학습과 관련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학습적 부분 외에도 사춘기의 예민한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몰라서 이런 부분을 다루어 줄 부모교육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들은 지원으로 인하여 구별되고 상처를 받고 비참해지고, 자녀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 너무나 싫어하고 거부감을 드러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다.

표 IX-28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 요약: 어머니

요인	내용
고마움과 곤란함	■ 사회적 관심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의 부담스러움 ■ 역차별 논란에 대한 불편한 마음
지원으로 인한 상처와 불쾌함	■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 고정관념에 대한 불쾌함 ■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당한다는 느낌 ■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비참함 ■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상처 ■ 사춘기 자녀의 지원에 대한 수치심과 불쾌감으로 인한 지원 거부 ■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묶였던 경험에 대한 불쾌감)
프로그램의 부적절성	■ 다문화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 동일한 프로그램의 반복적 제공 ■ 단순 일회성 지원보다는 내실 있는 학습지원 필요
통합지원의 필요성	■ 다문화가정을 일반가정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 ■ 통합지원의 필요성
자녀교육의 어려움과 부모교육의 필요성	■ 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관심의 절실함 ■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과 학습관련 지원에 대한 강한 요구 ■ 자녀교육에 대한 적극적 관여의 어려움과 자녀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서운함 ■ 부모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 ■ 자녀의 사춘기 변화와 대처의 어려움 ■ 부모교육의 필요성
지원의 절실함	■ 차별적 시선은 싫지만 절대적 결핍으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 ■ 자녀는 매우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3) 심층면접 결과 요약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심층면접 결과를 요약하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역차별 이슈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문화지원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시선으로 인한 불쾌감과 상처,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식 때문이기도 하고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 내용의 부적절성 때문이기도 한데, 어떤 이유에서건 한국사회가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었고, 그런 시선들에 대해 너무나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매우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주제로, 한 집단이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당사자들로 하여금 비참함을 느끼게까지 한다면 그 것은 지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위의 두 번째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학부모와 다문화청소년 모두 지원프로그램이 통합적 프로그램이기를 원하고 있었다. 즉,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를 다문화청소년만 선별적으로 지원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그들의 정체감을 드러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본 연구진을 포함한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교사 및 현장전문가들이 강조해 온 부분으로 가능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합적 프로그램이 불가능하지만 다문화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선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는 지원프로그램의 부적절성이다. 지원프로그램의 부적절성은 설문지나 전문가 의견 또는 현장의 교사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실제 욕구는 반영하지 않고,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근거한 일회성 지원들을 선심 쓰듯 제공하고, 그들의 위해 뭔가를 한다는 생색을 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 사 등 당사자 관계자는 그 내용의 부적절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릇된 고정관념에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실에 들어가라고 강요를 하거나, 원하지 않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억지로 짝을 지어 제공하여 낯선 사람들 만나는 것이 힘든 청소년이 '죽고 싶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거나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이들이 '원할 경우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어교실이나 이중언어교실, 문화체험 등 다문화청소년들의 지속적 역량개발과는 상관이 크게 없는 일회성 사업보다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격차를 보이는 측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고 역량개발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변화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 번째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었다. 자녀들은 수치심과 불쾌감으로 강하게 지원을 거부하고자 하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아서 자녀의 교육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갈등적인 상황인 경우가 나타났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든 그 지원이 없으면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 중 취약계층에 속한 가족이 많고, 이들의 입장에서 지원은 절실한 부분이지만 지원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최대한 건강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FGI(Focus Group Interview)

(1) FGI의 개요

FGI는 일반 초등학교 교사 2명, 다문화중점 중학교 교사 2명, 일반중학교 교사 3명 등 7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FGI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학교장면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학교현장의 다문화사업의 한계는 무엇인지, 향후 다문화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필요한 요건들은 무엇인지 등이었다.

표 IX-29 FGI 실시 일시, 대상 및 내용

일시	참석자	면담내용
2014. 8. 11	■ 노○○(동○○교사) ■ 김○○(용○○교사)	■ 일반 초등학교의 다문화사업 현황과 한계 ■ 다문화가정 출신 중학생의 학교생활과 심리적응
2014. 8. 28	■ 방○○(시○○교사) ■ 채○○(부○○교사)	■ 다문화중점학교의 운영현황 및 한계 ■ 다문화가정 출신 중학생의 학교생활과 심리적응
2014. 9. 16	■ 신○○(봉○○교사) ■ 이○○(성○○교사) ■ 박○○(성○○중 상담교사)	■ 일반 중학교의 다문화사업 현황과 한계 ■ 다문화가정 출신 중학생의 학교생활과 심리적응

총 3회에 걸친 학교 교사 대상의 심층면접에서 다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크게 두 가지 영역을 다루었는데, 첫째는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의 실태와 생활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는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지원사업의 현황과 한계에 대한 내용이었다.

표 IX-30 FGI면담내용

범주	내용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교 내에서의 인식	■ 각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의 적응 실태(학업,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부모 특성 등) ■ 다문화아이들이 한국가정 아이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 ■ 초등학교 때 경험한 차별 등으로 중학교 때 영향을 미친 사례를 본 적이 있는지 여부 ■ 다문화청소년이 중학교에 가면 더 신경 써야 할 점 ■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교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다른 점 ■ 일반학생들과 학교 교사들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인식
학교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의 실태 및 한계, 개선방안	■ 재직 중인 학교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의 내용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 ■ 학교 현장의 다문화사업의 운영 및 진행과정 ■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의 운영방식(통합 또는 선별) ■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타당성, 문제점, 바람직한 지원방식 ■ 학교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2) FGI 결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FGI,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나쁜 마음을 먹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생각없이 던지는 말과 행동이 본인에게는 매우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특히 외모가 튀는 경우 다른 아이들이 ‘외국인’이라고 하거나 ‘영어를 해보라고’ 또는 ‘외국어 해보라고’하는 말에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중 외모가 서구적이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산층 이상이면서 학업성취수준도 높은 경우 자기주장을 하거나 하면 ‘잘난 척 하지 마라’라든가 ‘왜 이렇게 나대냐’라는 사회적 제지가 주어지고 왕따의 대상이 되어 심리적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초등학교 때의 이러한

경험은 중학교가 되어서 다른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중학교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 대해 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은 알기 때문에 심하게 다문화청소년을 대하지 않으나, 초등학교 때에는 아무 생각없이 자신의 고정관념을 드러내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의 다수자 대상 다문화교육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중학교에 다시 다루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전체 대상의 다문화교육은 단 한번만이어도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따라서 전체학생 대상의 다문화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

둘째, 학교의 다문화사업은 크게 보아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예산을 자발적으로 신청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내려오기도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자발적인 교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 잦은 전근과 이동으로 전임교사가 자발적인 좋은 의도로 신청을 했어도 다른 학교로 가버리면 다문화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교사가 담당을 하게 되고, 다문화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집행의 압력만 느끼고, 그러다 보니 천편일률적인 개성없는 프로그램들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사업의 경우 사업 담당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학교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야 예산낭비는 물론 형식적 사업운영의 결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을 통해 예산만 내려 보내고, 어떤 내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방향성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다문화 사업에 대한 교사들의 자의적 해석과 시행착오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예를 들면 다문화중점학교와 같은 경우 특정학교를 다문화중점학교로 지정을 하고 예산만 내려 보내었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다는 예시나 사업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해 처음 접하는 교사들의 경우는 매우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이것저것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할 뿐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위와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중점학교 운영매뉴얼 또는 운영가이드 등과 같이 학교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는 다문화사업의 방향과 프로그램 사례가 제작되어 보급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의견으로 이러한 것이 제작되어 보급된다면 다문화사업에 대한 오해로 이루어지는 많은 불필요한 사업들이 정리되어 예산낭비의 요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사들 역시 선별적 지원보다는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다문화의 경우

대다수 저소득층과 겹치기 때문에 굳이 다문화를 다시 지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있는데,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내려와서 다문화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받고 다시 다문화에 대한 예산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다보면 다문화청소년들은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예산 소모를 위하여 원하지 않아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선별적 지원이 다문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더 큰 이유였다.

여섯째,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적용될 필요가 있다. 교사들도 다문화프로그램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알지 못하고, 본인이 원해서 맡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다문화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전임자가 해오던 것이나 본인이 수행하기 용이한 것들, 겉으로 보기에 실적으로 내보이기 쉬운 것들 등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데, 아이의 수준에 맞지도 않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억지로 시키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정책에 아이들을 맞추다 보니 소위 다문화 아이들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밖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으로, 심층면접에서 한 어머니가 다문화지원정책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지원정책에 자신의 아이가 이용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이야기 한 것이 왜 그러한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일곱째, 다문화청소년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경우는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의 제 3의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에서 선별을 할 경우 아이가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는 결과를 낳고 본인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의 프로그램은 비(非)다문화청소년과 구별 없이 통합적 지원만을 하도록 하고 선별적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나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이는 매우 타당한 주장으로, 학교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교육적 지원과 전체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에 집중하고, 다문화청소년 개인이 처한 문제에 대한 사례관리나 각종 상담, 심리적응 프로그램, 청소년활동 등은 지역 내 청소년전문기관과 다문화전문기관으로 가서 지원을 받게 되면 지역 내에서 다문화사업이 적절한 연계를 통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원치 않는 구별을 당하는 일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다문화청소년 대상 심리적응 및 상담프로그램은 매우 필요하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볼 때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단순히 교육적 지원이나 체험활동이 아니라 심리적

응 및 상담프로그램 쪽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교사대상 설문조사를 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제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가 다루어야 할 대상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문화청소년들 중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경우도 많지만 한 사회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소수집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며, 특히 그 사회가 소수집단에 대한 다문화적 민감성이 떨어지는 경우 의도치 않는 상처로 심리적 건강에 저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 대상 심리적응 및 상담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급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일반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교사 대상 연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고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대다수의 교사가 다문화적 민감성을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있어서 교사가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다는 것이 현장에 있는 교사의 목소리였다. 외모가 일반 한국 사람과 다른 아이에게 ‘너는 외국에서 왔니?’라고 생각이 물어보았는데, 아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는 사례 등 일반 교사의 다문화적 민감성을 키우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장, 교감과 같은 관리자들의 마인드인데,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한 학교의 다문화사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학교 전체가 다문화적 감수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의견이었다. 관리자가 다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고 다문화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다문화담당 교사도 업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수월하고 어려움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지만, 관리자의 마인드가 다문화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면 아무리 다문화교사가 혼자서 애쓴다 해도 힘은 몇 배로 들고 성과는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일반 교사 및 관리자들과의 다문화교육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현장 담당교사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다문화청소년을 대할 때의 태도, 문제 발생시 대처요령 등 좀 더 실질적인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일반적인 다문화교육의 수준은 교사들이 모를 리 없고, 크게 와 닿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다 실질적인 교사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열 번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에 있다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큰 관심이 없어 보이고, 가정에서 받아야 할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한국의 교육구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여 한국가정 어머니들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어머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대한 교육도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부모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열 한번째, 교육청에서 일괄적 예산지원을 하기보다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현장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 보내는 다문화예산이라는 것이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담당교사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어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다문화 관련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향후 교사 대상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열 두 번째, 교사들은 이중언어 교육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사실상 이중언어교육을 학교에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국적은 매우 다양하고, 이들의 이중언어교육을 위해 부모나라 말을 각각 가르칠 만큼의 이중언어강사를 고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어머니 모국어는 베트남인데 그 학교에 우연히 러시아계 아이들이 많아서 이중언어강사를 러시아계로 고용을 하였고, 다른 아이들은 같이 러시아어를 배우는 일이 생기며, 실제로 이중언어강사의 업무가 언어를 가르치기 보다는 해당 국가 아이들의 학교생활 지원을 돕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잘 따라가지 못하면 옆에서 통역해주고 학습지원을 돕는 도우미와 같은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이중언어교육이 활성화 되어있고, 학교 내에서 수요가 많다면 과외로 그러한 일을 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을 학교에서 맡기는 이유는 월급을 받는 만큼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한 학교의 사례에서는 그 학교에 러시아 아이들이 다수 있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 러시아출신 다문화강사를 고용했는데, 다음 해에 그 러시아 아이들이 전원 귀국을 하여 그 강사가 불필요하게 되었고, 교육청에 문제를 설명했으나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니 그냥 학교에 데리고 있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있었다. 그야말로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이고, 현장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정책의 결과이다. 이 지적은 과거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사업이 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표 IX-31 FGI면담내용 결과 요약

범주	내용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교 내 인식	- 초등학교 때 주변 아이들의 생각없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음 - 외모가 튀는 경우 조금만 튀는 행동을 해도 왕따시키고 놀림 - 중학교 시기는 오히려 상처가 될만한 말을 하지 않음 - 초등학교 시기의 다문화교육이 매우 절실함 - 다문화정체성이 숨기고 싶은 것이 되고 부정적인 것이 되어서 다문화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아이들도 존재
학교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의 실태 및 한계, 개선방안	- 다문화 담당교사의 업무과중 - 다문화 담당교사의 잦은 변경으로 전문적 역량 키우기 어려움 - 단순한 체험학습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의 필요 - 일단 예산이 내려오고 예산을 쓰기 위해 사업을 벌이는 구조 - 다문화사업의 바람직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담당하고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하여 과거 다른 교사들의 프로그램을 답습하거나 다문화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운영 - 학교 내 다문화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의 필요성 - 다수자 대상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여 서로 끌고 가는 형태 - 저소득층 지원에 다문화가정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필요 - 최근 들어 저소득층 대상 사업에 포함된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 - 지원이 필요한 경우인지에 대한 선별과정이 필요함 -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지원방안이 이루어질 필요 - 모든 다문화를 일괄적으로 다루고 일괄적 지원하는 것인 매우 문제임 - 부모교육을 통한 자녀학교생활 지도 필요 - 외국출신 아버지에 대한 교육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 - 교사대상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관리자들 대상 의무교육) - 연 1회의 다문화교육이라도 효과적임. - 학교가 아닌 제 3의 기관을 통한 지원을 고려할 필요 - 이중언어 사업의 부적절성, 체계적 관리 및 제대로 된 학습방법 필요 - 다문화담당교사 대상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일괄적 예산지원보다는 학교별 상황에 따른 차등지원 필요 -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필요

(3) FGI결과 요약

현장의 교사 대상 FGI 결과를 몇 가지로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의도하지 않은 주변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심리적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교 때 특히 많은 상처를 받아서 중학교에 와서 더 큰 상처로 심화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가정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정과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취약한 상태를 보이기도 하는 등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 학습지원이나 경제적 지원이 아닌 심리적응 및 상담 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는 다문화교육의 전반적 확대이다. 즉,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인 다수자들을 위한 교육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다문화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다수자 학생, 일반교사, 담당교사 및 교장과 교감 등의 관리자 등 전방위적인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생만 다문화교육을 시키거나 교사만 시켜서는 안되고 학교 전체의 구성원들이 다문화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학교 전체를 다문화친화적 환경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시기에 아무 생각없이 던지는 차별적 언행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상처를 받고 위축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초등학교 다문화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셋째는 다문화청소년의 요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일률적인 지원과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억지로 참여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교사 역시 현재의 다문화사업 중 많은 부분이 실제 다문화청소년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의 사업을 억지로 하게 하는 등 비효율적 측면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구성에서 함께 다루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교사들 역시 다문화청소년들과 일반청소년들의 통합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굳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사업과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선별적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굳이 다문화청소년만을 위한 내용을 찾기도 어렵고, 일반 비(非)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내리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다문화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하는 상황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으로 향후 다문화청소년의 지원방향은 통합을 기본으로 하되 선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는 다문화사업 전달시스템의 문제로, 현장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내리는 시스템에서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그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만 예산을 할당하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었고, 담당교사가 자주 바뀌어서 다문화와 관련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어렵고 전임자의 업무를 단순히 이어받아서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문화담당교사의 경우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다른 업무에 비해 더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정책의 집행이 예산만 내릴 뿐 학교 다문화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처음 다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감을 잡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실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들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누가 다문화업무를 맡아도 정부에서 추구하는 다문화사업의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들을 학교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다문화청소년을 대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해 주면 다문화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FGI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와 관련한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안에서 교사들은 어떤 한계를 느끼는지, 그에 따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사들의 이야기는 현장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생생한 사실로 한 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을 입안하고 내려 보내는 것'은 예산 낭비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상처 등을 안기는 일로 제발 현장을 좀 보고 정책이 집행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다문화정책을 시작하기에 바빠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하기에 어려운 단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문화청소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화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의견수렴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견수렴의 개요

요구분석의 마지막 과정으로 다문화가족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청소년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청소년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점검해 봄으로써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의 전달체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능성을 접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춘천, 천안 등 총 7개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개방형 설문을 제공하고 이메일로 응답을 하도록 하여 수렴된 의견을 분석하였다.

표 IX-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 일시, 대상 및 내용

일시	참여자	조사내용
2014. 9. 15 ~ 9. 19	■ 전국 7개 다문화가정지원 센터(서울,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춘천, 천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사업운영의 현황 및 한계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의견수렴의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자유롭게 응답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현 재직기관의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의 실태이고 두 번째 영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향후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표 IX-3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견수렴을 위한 질문내용

영역	질문내용
현 재직기관의 다문화청소년대상 지원사업 실태	■ 현재 재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의 종류와 주요 대상연령층 ■ 현 기관에서 다문화 청소년대상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또는 문제점 ■ 현 기관에서 다문화 청소년대상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또는 문제점의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수행에 대한 태도	■ 다문화청소년들의 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한 의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장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단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 ■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는 기관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의견수렴 결과

① 현재 수행중인 사업

우선 첫째로 조사에 참여한 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표 IX-34 현재 재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중인 사업

구분	세부 내용
센터 기본 프로그램	- 언어발달지원사업 - 방문교육 자녀생활서비스 - 한국어교육
심리적응 및 상담	-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 청소년 상담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다독다독>: 다문화가정 청소년 심리 정서 지원프로그램
멘토링 관련사업	- 멘토링 - 자녀멘토링 - 교육나눔 봉사활동 1:1 멘토-멘티 학습지도
장학금	- 장학사업 - 청소년 장학금 지원
학습지도	- 청소년 진로지도 - 청소년 공부방 :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및 학습지도 - 가정 방문 학습지도
특기수업	- 공예프로그램 - 피아노수업연계(학생봉사자 1:1 레슨) - 영어교육프로그램 - 악기교육 - 어린이 합창단
문화체험	- 한국문화체험 행사 2회 (초등학교 3학년~6학년) - 문화강좌 연계사업
캠프 및 특강	- 엄마나라 알기 특강교실(방학특강) - 꿈동이 캠프(청소년 캠프) - 진로캠프 및 수련활동
기타	- 청소년 자조모임 - 가족 봉사단 - 아버지 자녀 함께 프로그램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상담사가 1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하여 가족상담과 사례 관리를 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같이 하고 있었고, 이주배경지원센터에서 하는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인 다톡다톡사업을 하는 곳도 있었다. 주 대상층은 초등학교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도 있긴 하였다.

② 현재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청소년의 발달특성 및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대상의 사업들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의 확보가 어렵고,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데, 굳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낙인을 받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역시 일반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나 학교 교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주제	세부내용
예산 및 인력확보의 어려움	- 예산확보를 위한 근거규정(매뉴얼)없음 - 센터 사업의 초점이 결혼이민자여성에 맞춰져 있다 보니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인력이나 예산의 여유가 없는 편임 - 센터 기본사업 진행과 함께 부가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한계가 있음
대상자 수요파악의 어려움	- 대상자 수요파악의 어려움 -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들이 아직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 자녀 수, 재학 현황 등은 있지만 욕구, 문제 등에 대하여 파악된 내용은 없음
다문화청소년 접근성의 어려움	- 유 초등학년 대상으로는 프로그램 진행하기가 용이하나 중등학년이 될수록 외부 노출을 꺼려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움 -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학교생활 이후 방과 후 수업이 있어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며, 주말 역시 방문하는 서비스가 아닌 이상 참여가 어려움 -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 또한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방과 후 수업과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센터 내 프로그램의 참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부족 및 계획의 어려움	- 전국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음 - 전문 프로그램 계획의 어려움 - 청소년 연령층이 초등학교 저학년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그 연령에 맞춰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부모의 경우 학업성취와 부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학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원함. 현실은 자녀들이 청소년이 갖는 어려움과 더불어 문화차이에 따른 많은 어려움 등을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요청됨
낙인에 대한 두려움	- 정작 다문화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다문화가정이라고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음 - 다문화청소년만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낙인효과가 염려되어 일반 아동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로써 낙인효과를 온전히 없애기는 어려워 보다 더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임 - 다문화가정이라는 구분이 되는 것을 아동들이 싫어하고 일반 아동들과 구분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에 대해 원하고 있는 것이 실정 - 다문화 아동과 일반 아동들이 구분 없이 운영하길 원함
부모의 문제인식태도능력 부족	-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문제행동이 드러나기 시작하나 부모상담시 자녀의 문제를 인식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다독 다독 프로그램을 홍보한 후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에서 상담 지원이 필요한 자녀들을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대개의 경우 부모들의 여러 문제가 겹쳐 있으나 특히 아버지들이 무관심이나 회피하고 있는 어려움
기타	-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들의 기본 의식 중에 모든 것이 무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가비나 활동비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많음

③ 현재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개선방안

그렇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기술하도

록 한 결과 가장 기본적으로 다문화청소년대상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뜻은 현재의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그 지역에 대상자가 많다고 한다면 그 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 때 센터의 필수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것은 청소년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지역의 교육청 등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었다.

표 IX-3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 대상 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

주제	세부내용
예산배정	- 자녀지원이 대부분 언어발달, 학습지도이므로(영·유아), 학령기(중·고)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업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안내,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할 것임 - 다문화 청소년사업이 진행된다면 수행 인력에 대한 지원과 예산의 확대 필요
프로그램 계획	- 대상 청소년의 특징에 맞는 프로그램 계획의 어려움 -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를 분리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지속적인 예산 확보 및 확충으로 기존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함
대상자 수요파악	- 대상 아동들의 특징에 맞는 대상자의 수요 파악에 대한 어려움 - 기관과의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연계로 많은 청소년과 접촉하는 것이 필요
인식개선교육 및 지원방향 모색	- 다문화가족의 상호문화이해교육을 통한 정서적·경제적 안정으로 행복한 가정 분위기 형성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진출과 더불어 다문화자녀의 한국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향 모색 -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적, 외모, 경제, 혈통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범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교육
지역네트워크 활용 및 자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	- 욕구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활동, 체험활동, 멘토활동, 개별 학습지도, 진로지도, 장학금 지원, 심리치료를 위한 병원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 - 청소년 문화지원, 학습지원 등이 교육청 등과 연계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래 집단과 융화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들이 한국사회 청소년 즉 또래집단과 어울려 지내는 것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집단을 대하기에는 그들의 특성이 세분화 되고, 다양해지고 있음
전문인력 채용	- 다양한 재원으로(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기아자동차와 같은 기업의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영역을 지원하며 부모상담과 가족통합서비스 등이 가능한 청소년전문상담원이 필요
기타	- 초·중·고 상급학교의 진학고려 및 성장발달단계까지 밀접하게 연계된 양질의 프로그램개발과 심리정서적인 지원프로그램이 필수로 센터사업이 되어야 함

⑤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한 의견

그렇다면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찬성을 하는 쪽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으므로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도 가능할 것이라는 점, 이미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 자녀의 성장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대상자 모집이 수월할 것이라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밀감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러나 지역 내에서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청소년상담센터 등 지역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표 IX-3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청소년 사업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찬성의견

주제	세부내용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성 및 접근성	-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지원사업을 하는 것에 찬성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대상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이미 제반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점. 따라서 대상자 모집이 용이하다는 것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 다문화센터는 지역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정보를 갖고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을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짐 - 자녀들의 성장과정을 지켜보았기에 자녀에게 접근이 용이함
부모와 연계교육 가능	- 다문화어머니나 아버지가 관리 가능, 다문화부모연계 교육 가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았거나 받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까지 아우를 수 있다면 가족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봄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한 센터지원	- 청소년지원기관과 연계 필요 - 지역의 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 전문기관과 협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함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문화센터만 독자적으로 했을 때 놓칠 수 있는 대상자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
대상자모집수월 및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가능	- 대상자 모집 수월 및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가능

반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성격과 불일치하고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 부재를 들고 있었다.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낫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도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과 다를 바가 없고 대상만 다문화가정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데 굳이 청소년사업까지 진행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표 IX-3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청소년 사업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

주제	세부내용
센터 기본사업의 성격과 불일치	- 센터 기본 사업의 성격을 정책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다문화청소년들의 지원 사업을 하기는 부적절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의 한국사회통합을 하는 기관이라는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면 그 사업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같이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과 별반 차이가 없고 그 대상만 다문화가정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지금 입장에서는 굳이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사업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
청소년 전문가 부재	- 청소년 전문가 없음 - 청소년전문가 부재로 다문화청소년들의 지원사업 수행 부적절
청소년 전문기관의 담당	- 전문적 기관에서 특성과 청소년의 욕구에 맞게 진행 - 다문화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은 또래 청소년들과 문제가 공존하고 있기에 청소년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전문가가 있는 지역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청소년문제 인식의 부재 및 프로그램 부족	- 전문적 기관에서 특성과 청소년의 욕구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하지만 청소년사업 진행에 있어 다문화이해 교육 및 체험에 대한 인식활동 및 교육활동이 사업 및 프로그램의 내용에 추가가 되어야 함. - 주 사업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나 다문화 이해인식에 대한 교육으로 청소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반 부재

⑥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수행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장점

만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을 수행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에 대해 기관 담당자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숙성과 전문성,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활용의 용이성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통번역사나 전문언어발달지도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용이하다는 점, 대상자를 수월하게 만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응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담당자들이 사실상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 다문화청소년들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이므로 특별히 통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문화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특성이 중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중도입국청소년을 머릿속에 떠올리거나 청소년의 발달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표 IX-3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점

주제	세부내용
통번역사 활용	- 전문언어발달지도사 및 통번역사 배치 - 통번역사 배치로 통역의 어려움 최소화 - 통번역사 배치로 통역사 활용가능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상담 및 사례관리사업을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다문화의 특성과 노하우가 반영 - 다문화에 맞는 교육이 가능해짐
부모-자녀연계교육	- 부모-자녀 연계교육 가능 - 가족에 대한 정보 및 연계성 가족 집단에 대한 교육 등이 가능
수월한 대상자 접촉	- 대상자를 쉽게 만날 수 있음 - 이주민 부모와 접촉이 쉬움 - 다양한 나라(국적)의 어머니들을 만날 수 있어 소외감이 적음

⑦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수행을 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반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을 수행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언급도 있으나, 여전히 이중언어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담당자들의 경우 주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다문화청소년 전반에 적용하고 있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대다수의 다문화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드러내었다. 이는 사실상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준비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가 청소년사업을 담당하게 될 경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고, 이는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 사업을 다년 간 맡아 온 기관들이 맡는 것에 비해 예산과 시간이 낭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X-40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주제	세부내용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 다문화청소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교육청과 대상자프로그램 연동의 필요 - 학교, 교육청 등의 지역사회네트워크가 필수 - 지역사회내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개발	- 우선순위 프로그램 개발과 매뉴얼 등의 전문적 지원 - 이중언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학생과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색이 요청됨.
전문인력 투입	-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인력이 필요 - 사업수행에 있어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설과 해당 전문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함
대상자 수요조사 및 욕구조사	- 부문별로 다문화청소년의 욕구조사 시행 - 내용별로 다문화청소년의 질적연구조사 시행 - 수요 대상자 조사를 통한 예산 확보와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청소년, 그들의 가족에 대한 욕구 파악
예산 투입	-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세심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필요 - 청소년 전문기관의 연계 및 인프라 구축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
실무자교육 및 역량강화의 필요성	- 센터장과 실무자들에게 청소년기를 이해하고 독특함을 인정하고 함께 하려는 마인드와 가치관이 있어야 함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방안 마련	- 지원사업수행의 타당성, 방향성이 우선 정립 -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방안 마련

⑧ 기타

그 외 기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청소년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청소년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다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고, 반대로 또는 반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문화청소년이 대상이면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가 있는 센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고 청소년들의 경우 다문화와 비(非)다문화간의 구분이 없는 통합적인 지원프로그램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견수렴 결과 요약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청소년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센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개방형 설문지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성과 친근함을 들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과 청소년들의 경우 구별하여 별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셋째, 만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사업을 맡는다 해도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당장 말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면 다문화적인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만 하고, 지역의 청소년기관이나 학교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 출신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만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직접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을 한다면, 당장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청소년을 다룰 수 있는 체계와 전문성이 구축된 이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요약 및 소결

지금까지 설문조사, 심층면접, FGI를 통해서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교사들이 경험하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러 방식으로 여러 대상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도출된 결과는 거의 일관되었다. 이는 이번 요구분석에서 도출된 내용들이 타당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문결과, 심층면접, FGI에 대한 요약을 제시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그에 따라 개선되거나 지향해야 할 정책적 지원의 방향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다.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부터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필요한 부분이며, 일회성 보다는 실제 역량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적응 및 상담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것, 그리고 부모대상 자녀지도 및 학습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심층면접도 거의 설문조사의 결과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역시 다문화가정은 기본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은 필요하지만 선별적 지원보다는 통합적 지원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차별로 느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당사자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실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이 청소년기에 성장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알고 싶고, 학습지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사 대상 FGI를 통해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요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심리사회적응 및 상담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고, 초등학교 수준의 다문화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학생 뿐 아니라 일반 교사와 교장교감 등 관리교사 대상 다문화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다문화사업을 학교에서 운영할 때 활용할 다문화사업 운영매뉴얼을 제작 및 보급할 필요가 있고, 다문화담당 교사의 업무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의견수렴 결과를 살펴보면, 담당자에 따라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점은 다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었고, 어려운 점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역량의 부재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이 비(非)다문화청소년과 구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적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단독으로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지역의 여러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를 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IX-41 요구조사 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 요약

방법	도출내용
설문조사	■ 다문화청소년 지원은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지속적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 적응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의 필요 ■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심층면접	■ 다문화청소년 지원은 필요함 ■ 선별적 지원보다는 통합적 지원의 방향 선호 ■ 당사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지원 필요 ■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의 필요(자녀교육 및 학습지도 관련)
FGI	■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지원 ■ 심리사회적응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 필요 ■ 초등학생 대상 다수자 다문화교육의 강화 및 확대 필요 ■ 다문화사업 운영매뉴얼 제작 및 보급 필요 ■ 다문화담당교사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보장 필요 ■ 일반교사, 관리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강화 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견수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근감과 전문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계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역량의 부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반프로그램에 다문화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 바람직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역 내 학교, 청소년기관,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 등 여러 기관이 연계하여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차별화 되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

제 X 장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 분석

1. 국가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2. 2014년 정부계획 성과계획평가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3. 지역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현황
4. 국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 X 장

다문화청소년지원정책 분석¹⁴⁾

1. 국가 기본계획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1)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3조의 2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제 1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이 2012년도에 종결된 후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년간의 기본계획으로 활용된다.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목표는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으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관련되는 과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영역의 다섯 가지 중점과제와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의 네 가지 중점과제라고 볼 수 있다.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각 사업별로 주요 소관 부처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타나 있는데,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담당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이다. 다문화청소년과 관련된 영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크게 이중언어교육 및 한국어교육과 같은 ‘언어교육’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학교입학 등 ‘공교육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또 한 부분이며, ‘일반청소년 대상의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이 또 하나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1에 제시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해서 건강정보문해력 향상, 언어발달진단 및 교육확대, 이중언어교육의 단계적 확대, 찾아가는 부모교육지원서비스 등을 들고 있는데, 이 내용 중 학령기 청소년들과 관련된 부분은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내용과 부모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언어교육은 이중언어교육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고, 부모교육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4) 10장 중 1, 2, 3장은 양계민이 작성하고 4장은 신현옥이 작성함.

표 X-1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다문화청소년관련 계획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명
2-1.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1-1. 건강정보문해력 향상	다문화 가족	◦ 기본적인 건강정보에 대한 문해력 향상 방안 실시 ◦ 다문화가정 건강검진 통번역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2-1-2.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 확대	다문화 가족자녀	◦ 언어발달 진단→언어교육→진전평가' 를 통해 언어교육 확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 관광부
	2-1-3. 이중언어교육 단계적 확대	다문화 가족자녀	◦ 이중언어 강사 양성 체계화(전담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 심화과정 신설) ◦ 기초 모국어 교재 보급 ◦ 다문화 이해교육 지도서 개발·보급 ◦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 언어영재교실사업	여성가족부 교육부
	2-1-4.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지원	다문화 가족	◦ 생애주기별(임신,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의 양육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서비스' 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제공 ◦ 다문화학부모 설명회, 간담회 개최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 학부모모임 활성화 ◦ 글로벌 맘스 운영 ◦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다문화 이해하기 자료 제작 및 보급	여성가족부 교육부
2-2. 한국어 능력 향상	2-2-1.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공유	다문화 가족자녀	◦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인터넷 공유	문화체육 관광부
	2-2-2. 다문화배경 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이주배경 청소년	◦ 한국어교육과정(KSL) 운영 ◦ KSL 표준교재 및 진단도구 개발 ◦ KSL 방송콘텐츠 개발 ◦ KSL 연구학교 운영 ◦ 특별학급과 일반학급에서의 교차 학습 ◦ 방과후학교 활용	교육부 문화체육 관광부
2-3. 학교 생활 초기 적응 지원	2-3-1. 초등학교 입학전 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다문화 가족자녀	◦ 초등학교 이하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확대 ◦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문화체육 관광부
	2-3-2. 예비학교 전국운영	다문화 청소년	◦ 학력인정 대안학교 확대(4개교) ◦ 예비학교 확대(50개교)	교육부
	2-3-3.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다문화 가족자녀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2-3-4. 초기적응프로그램 Rainbow School운영	이주배경 청소년	◦ Rainbow School 확대	여성가족부

표 X-1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 다문화청소년관련 계획 (계속)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명
2-4. 기초 학력 향상 및 진학 지도 강화	2-4-1.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다문화 가족자녀	◦ 학부모교육서비스 ◦ 기존의 글로벌선도학교, 다문화 연구학교, 예비학교를 글로벌선도학교(연구형, 예비형, 거점형, 집중형)으로 통합하여 다문화 친화적 학교 구축 ◦ 교사, 도래,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운영 및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 교육부
	2-4-2. 진로·진학지도강화	다문화 가족자녀	◦ 글로벌 브릿지 사업 운영 ◦ 다문화 직업교육 대안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대학 진학 기회 확대(사회적 배경대상자 전형에 다문화 학생 포함, 재직자 특별전형에 다문화학생 선발 권장)	교육부
2-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2-5-1. 입학절차 안내 및 학교 진입 유도	다문화 가족자녀	◦ 전담 코디네이터 및 입학절차 안내 자료(‘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배치 ◦ 학력심의위원회 구성 ◦ 다문화 친화적 정규학교 배정 ◦ 개인별 사례관리 강화 ◦ 시도교육청 다문화전담직원 역량강화	교육부 법무부
	2-5-2. 각종 위원회 등에 다문화가족 청소년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다문화 가족자녀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국제교류 등의 일정 비율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여성가족부
	2-5-3.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복지 포함	이주배경 청소년	◦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가 포함되도록 재구조화 방안 모색	여성가족부
5-4.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5-4-1. 일반학생-다문화 학생 간 상호 이해 교육 강화	일반 청소년	◦ 다문화 이해활동 지원 강화 ◦ 다문화 교육주간 실시	교육부
	5-4-2. 다문화 교육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	일반 청소년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에 ‘다문화교육’ 내용 반영 교과서와 지도서 개발 및 보급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5-4-3. 동영상 프로그램 개발 및 쌍방향 교류·체험 기회 확대	일반 청소년	◦ 학교에서 활용가능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 문화다양성 교구재 ‘다문화꾸러미’ 활용을 통한 쌍방향 교류·체험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5-4-4. 교원의 다문화 이해 역량 강화	다문화 담당교원	◦ 다문화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용 매뉴얼 발간 ◦ 교원 연수과정 체계화·의무화 ◦ 학교관리자 다문화교육 의무적 이수 추진 ◦ 신규교사 직무연수에 ‘다문화교육’ 포함 ◦ 교·사범대에 다문화 이해 강좌 운영	교육부

※ 양계민 외(2013), p. 240-242

두 번째 영역인 '2-2. 한국어 능력향상'은 한국에서 출생한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에게는 크게 관련되지 않는 영역이고, 세 번째 영역인 '2-3. 학교생활 초기적응지원' 역시 한국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이 아니라 이미 성장하여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학력인정이나 학교입학, 초기적응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영역인 기초학력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의 내용은 한국어 향상과 기초학력지원으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는 대학생 멘토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섯 번째 로 '2-5. 공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공' 중 입학절차 안내 및 학교 진입 유도도 국내출생 청소년보다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입학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각종 위원회 등에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일정 부분 포함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이 있으며,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복지를 포함하도록 재구조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직까지는 CYS-NET을 총괄하는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조차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고, 실제 현장에서 지역의 상담복지센터로 다문화청소년을 의뢰하고자 할 때,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등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4. 학교에서의 다문화이해제고'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학교 내에서 일반 다수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과 교원의 다문화이해 역량강화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문화교육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아직은 그러한 내용이 현실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제 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제 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다문화청소년 관련 내용은 반드시 다문화청소년만을 위한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 청소년 전체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 청소년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곧 사회 전반의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는 일이 되고, 나아가 다문화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글로벌다문화역량강화의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의 '글로벌·다문화역량강화'영역에서는 주로 일반 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증진사업과 국제교류사업, 한민족네트워크 사업, 남북한청소년 교류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반 청소년의 글로벌·다문화 역량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3-1의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영역 중 '3-1-1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는 다문화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한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 다문화가족 통합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부모자녀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자녀생활지원서비스,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력증진프로그램 지원 확대, 각종 청소년 주도적 위원회 및 회의에 다문화청소년의 일정비율을 포함시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3-1-2.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는 이주배경청소년 종합지원체계 확립, 다문화가정 학생 제도교육 지원 강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비진학 및 탈학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권리침해 보호를 위한 불법근로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전문상담서비스, 병영환경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은 제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크게 다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은 아직 강화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영역	과제명	대상	세부내용	부처명
1-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1-2-1.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일반 청소년	- 일반청소년 대상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 수련시설 등에 보급운영 -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성가족부, 문화체육 관광부
	1-2-2. 다문화프로젝트 추진	이주배경 청소년	- 국가 간 교류, 지자체 교류, 기관 및 단체 국제 교류 시 이주배경 청소년 인력을 활용하여 외부 인사 영접 및 통역 등의 역할 수행 - 청소년 친선대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풀 관리 운영 모델 개발	여성가족부
	1-2-3.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일반 청소년, 해외한인 청소년	-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테마형 해외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국제기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중·일 청소년간 교류 강화 등 추진) - 해외 한인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및 아동·청소년 지원 협약 - 해외한인청소년과 한국아동·청소년과의 교류 활성화 - 해외 한인 아동·청소년에게 모국 문화 및 모국어 지원 사업 추진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1-2-4.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일반 청소년	- 다수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보편적 국제교류 사업 추진 - 청소년 국제교류 전문가 양성 및 연령별수준별국가별 특성에 맞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교류센터」 조직 및 기능 확대 - 청소년 국제교류 사후관리 강화 및 성과활용 시스템 구축 - 저개발 국가 청소년들을 위한 개발협력(ODA) 확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1-2-5.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 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상호이해 증진	일반 청소년	- 남북공동 청소년 현황조사 및 「북한 바로 알기」 교육 실시 - 남북한 청소년 대표단 상호 교환 방문, 남북한 청소년분야 대표자 회의 정례회	통일부
3-1.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3-1-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 원 확대	다문화 가족자녀	-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실시(다문화 이해 교육, 가족 교육, 부모자녀 교육 등) - 이중언어교육 강화(이중언어강사 양성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지원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국제교류 등에 일정 비율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여성가족부, 교육부
	3-1-2.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 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 응 강화	이주배경 청소년	- 이주배경청소년 종합 지원체계 확립 - 다문화가정 학생 제도교육 진입지원 강화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비진학 및 탈학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 이주배경 청소년의 권리침해 보호를 위해 불법근로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 이주배경 청소년 입영연령 도달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국방부

2. 2014년 정부계획 성과계획평가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2014년 정부계획 성과계획 평가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부분은 2013년 이미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나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화, 저출산 등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의 대처는 매우 신속하다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매우 짧은 시간에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에서 결혼이민자의 출입국 및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과 자격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은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및 제정되었다(한길수, 2013, p. 182-183).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 7: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국정과제 50>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 전부터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은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2009년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도에는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세움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게 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무위원회를 두어 다문화가족정책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특히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주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담당을 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지원,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반면,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평가에 나타난 「2014년 부처별 다문화가족 예산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이 중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되었거나 관련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보면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다문화가족 대국민 인식개선」, 「이주 배경청소년 초기지원프로그램」, 교육부의 「중앙다문화교육센터운영」, 「다문화대학생멘토링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등이 대표적이고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의 경우 청소년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콘텐츠 개발」, 「다문화교육 및 공연프로

그램 운영」, 「상방향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가정 미술관 소풍」, 「다문화꾸러미 개발운영」 등을 들 수 있는데, 2014년 예산안의 증감비율을 보면 대부분 감소하였거나 5%미만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가장 많이 확대된 예산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전년대비 928%나 증가하였고, 역시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항목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 증감의 변화는 전체적으로는 보았을 때 다문화청소년의 교육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나, 당사자들이 많은 불만을 표현한 대학생 멘토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서 향후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평가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앞의 연구결과에서 나온 심리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의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양계민 외, 2013)''.

표 X-3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회계	사업명	예산		2014 예산안 (B)	증감	
			2012	2013 (A)		금액 (B-A)	비율 (B-A)/A
합계			96,288	100,727	109,884	9,157	9.1
여 성 가 족 부	여성 발전 기금	다문화가족사회통합기반구축	4,123	4,481	4,500	19	0.4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1726	-	344	344	순증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51,808	58,370	85,600	230	0.4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4,901	5,251	5,300	49	0.9
		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	1,400	1,400	-	-1,400	-
	일반회계	다문화가족 대국민 인식개선	300	-	-	-	-
	청소년기금	이주배경청소년 초기지원 프로그램	1,397	1,667	1,667	0	0
	소계		65,655	71,169	70,411	-758	-0.9
교 육 부	복권기금	중앙다문화교육센터운영	600	540	600	20	3.7
	일반회계	다문화대학생멘토링 지원	5,000	7,000	13,500	65,000	92.8
	지방비, 특별교부금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12,500	8,000	10,000	2,000	25
	소계		18,100	15,540	24,100	8,520	54.5
법 무 부	일반회계	외국인사회통합지원	241	277	277	0	0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	5,290	5,252	5,224	-28	-0.5
	소계		5,531	5,529	5,501	-28	-0.5
안 전 행 정 부	일반회계	결혼이주여성지도자양성교육	348	348	348	0	0
		외국인주민집거지 환경개선사업	700	1,000	700	-300	-30
		부처합동 지자체 공무원 교육	14	14	14	0	0
		다문화정착 우수사례 확산	20	20	10	-10	-50
		외국인주민현황조사	18	18	16	-2	-11
	소계		1,100	1,400	1,088	-312	-22.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일반회계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원양성	83	140	183	43	23.5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지원	618	780	780	0	0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콘텐츠 개발	500	400	200	-200	-50
		다문화교육 및 공연프로그램 운영	33	33	33	0	0
		디브러리포털 다문화지식정보구축	98	78	78	0	0
		문화다양성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1,970	2,780	4,500	1630	56.8
		한국어교원양성 및 교육자료	348	290	381	91	31.4
		쌍방향 문화다양성프로그램 확대	50	40	20	-20	-50
		다문화가정 미술관 소품	47	47	60	13	22
		다문화꾸러미 개발·운영	286	260	258	-2	-0.8
	소계		4,033	4,938	6,493	1555	31.5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특회계	이주여성농업인 지원	1,176	1326	1526	200	15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교육	300	300	240	-60	-20
소계			1,476	1,626	1,766	140	8.6
고 용 노 동 부	고용기금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393	525	525	0	0
	소계		393	525	525	0	0

※ 출처: 국회예산처(2013), 2014년도 정부성과계획평가, p. 186-187.

3. 지역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현황

다음은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시도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및 사업별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자료는 각 지자체에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자료는 빠져있고, 작성에 대한 약간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일부 누락된 자료들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전국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계획인원과 참여인원이 지자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아마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 중요하게 다루는 사업이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일반인 대상의 인식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 참여한 대상자 수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X-4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
총 계획인원 및 참여인원

(단위: 명)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	2014	소계	2013	2014	소계	2013	2014	소계
총 계획인원	39,487	46,071	85,558	1,791,169	1,157,297	2,948,466	102,426	78,839	181,265
총 참여인원	33,616	34,752	68,368	1,694,610	1,130,396	2,825,006	124,025	76,772	200,797

※ 출처: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예산을 국비, 지방비, 민간 등 다양한 재원별로 조사한 결과 지자체는 지방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교육청 역시 지방비의 비율이 높았으나 국비도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편이었고,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X-5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원별 예산총액(2013~2014)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	2014	소계	2013	2014	소계	2013	2014	소계
국비	5.54	10.84	16.38	6,554.00	6,063.40	12,617.40	301.94	222.86	524.80
지방비	2,441.02	2,530.58	4,971.60	16,393.45	19,319.93	35,713.35	1,260.98	1,249.35	2,510.33
민간	724.27	878.93	1,603.20	38.00	32.00	70.00	858.27	921.32	1,779.59
기타	-	-	-	-	-	-	36.86	183.36	220.22
총액	3,170.89	3,420.41	6,591.3	22,985.45	25,415.33	48,400.78	2,458.05	2,576.89	5,034.94

※ 출처: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예산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중 많은 비율이 비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2013년 사업의 경우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사업의 40.8%는 비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나머지 59.2%만이 국비 또는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었다(민간과 기타는 제외함). 2014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41.1%가 비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이 상당부분 지역의 민간단체나 기업과 연계하여 비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표 X-6 다문화청소년지원사업 예산의 재원: 전체 (단위: 사업수(%))

구분	2013 빈도(%)	구분	빈도(%)
비예산	496(40.8)	비예산	462(41.1)
국비 + 지방비	721(59.2)	국비 + 지방비	662(58.9)
합 계	1,217(100)	합 계	1,124(100)

각 기관별 사업의 평균 사업수행 개월 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교육청 사업의 수행기간이 길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들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소 1개월 단위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1개월 이내의 사업들은 주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과 같은 행사성 프로그램이었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은

24개월 간 진행된 KSL(한국어 교육과정)프로그램이었다. 교육청의 경우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이나 다문화이해교육 등과 같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다문화중점학교 등과 같이 1년 단위의 사업을 기준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큰 단위의 사업 내에서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한 사업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X-7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 평균 사업수행 개월 수 평균(표준편차)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F
2013	6.37(4.47)b	9.28(3.98)a	5.11(4.19)c	98.12***
2014	6.22(4.34)b	8.53(3.95)a	5.69(4.08)b	43.33***

*** $p < .001$, Duncan: a)b)c

각 사업별로 다문화청소년을 선별해서 수행했는지, 일반 청소년들과 함께 통합하여 수행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선별적 프로그램이 많았다. 특히 지자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문화청소년만을 선별하여 수행한 프로그램이었고, 교육청의 경우 선별프로그램의 비율이 지자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교육청의 사업에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이 큰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대상이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X-8 프로그램별 다문화청소년 선별 여부 빈도(%)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선 별	198(85.7)	218(86.2)	168(63.4)	159(65.2)	626(88.9)	510(83.6)
통 합	38(16.5)	39(15.4)	120(45.3)	107(43.9)	122(17.3)	148(24.3)
전 체	231(100)	253(100)	265(100)	244(100)	704(100)	610(100)

※ 출처: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대상을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국내출생다문화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지자체의 경우는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았고, 그 외 중도입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대상 사업들이 있었다. 이에 비해 교육청의 사업들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이 많은 사업의 대상이었으나 그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등이 대상이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지자체와 비슷한 양상으로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학부모, 일반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의 순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두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1개에서 많아야 3개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X-9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자(중복응답)**

(단위: 사업수)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	195(84.1)	212(83.8)	183(66.8)	162(64.0)	582(82.3)	505(82.5)
중도입국 청소년	46(19.8)	66(26.1)	186(67.9)	170(67.2)	114(16.1)	132(21.6)
일반 청소년	43(18.5)	45(17.8)	104(38.0)	90(35.6)	134(19.0)	146(23.9)
다문화청소년의 학부모	95(40.9)	93(36.8)	92(33.6)	83(32.8)	274(38.8)	193(31.5)
학교교사	5(2.2)	8(3.2)	75(27.4)	62(24.5)	20(2.8)	18(2.9)
청소년지도자	1(.4)	3(1.2)	2(.7)	3(1.2)	3(.4)	3(.5)
기타	6(2.6)	6(2.4)	21(7.7)	30(11.9)	27(3.8)	34(5.6)
전체	232	253	274	253	707	612

※ 출처: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각 기관별 사업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자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사업을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었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사업은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자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는 수행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지자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두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과 고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점차 높은 연령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표 X-10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별 대상연령(중복응답)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미취학아동	97(41.8)	91(36.0)	23(8.4)	22(8.8)	323(45.7)	253(41.3)
초등학생	204(87.9)	218(86.2)	204(74.5)	185(73.7)	574(81.2)	501(81.7)
중학생	67(28.9)	95(37.5)	165(60.2)	155(61.8)	180(25.5)	191(31.2)
고등학생	48(20.7)	68(26.9)	125(45.6)	121(48.2)	87(12.3)	87(14.2)
대학생	11(4.7)	17(6.7)	11(4.0)	18(7.2)	29(4.1)	20(3.3)
성인	66(28.4)	76(30.0)	102(37.2)	98(39.0)	232(32.8)	161(26.3)
기타	-	-	-	-	3(.4)	1(.2)
전체	232	253	274	251	707	613

※ 출처: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다음으로 각 기관별로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장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교육청은 다문화인식개선사업과 이중언어, 멘토링, 글로벌선도학교, 중점학교, 예비학교 등 소수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각 기관별 사업이 대상별로 어떻게 분포되는지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가장 많고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갈수록 사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X-11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종류: 전체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물적지원(경제적, 물적지원)	10(4.3)	14(5.5)	2(.7)	1(.4)	20(2.8)	18(2.9)	32(2.6)	33(2.9)
체험활동(공연, 답사 등)	24(10.3)	27(10.7)	3(1.1)	2(.8)	72(10.2)	51(8.3)	99(8.1)	80(7.1)
엄마나라방문, 초청 및 교류	4(1.7)	6(2.4)	4(1.4)	1(.4)	3(.4)	5(.8)	11(.9)	12(1.1)
캠프	16(6.9)	12(4.7)	4(1.4)	1(.4)	39(5.5)	26(4.2)	59(4.8)	39(3.5)
특기적성교육	16(6.9)	17(6.7)	2(.7)	4(1.6)	84(11.9)	73(11.9)	102(8.4)	94(8.4)
독서프로그램	8(3.4)	8(3.2)	1(.4)	1(.4)	21(3.0)	22(3.6)	30(2.5)	31(2.8)
인재양성 및 글로벌역량강화	2(.9)	1(.4)	4(1.4)	8(3.1)	5(.7)	2(.3)	11(.9)	11(1.0)
학습지원	21(9.1)	25(9.9)	6(2.2)	7(2.8)	55(7.8)	59(9.6)	82(6.7)	91(8.1)
심리적응프로그램	9(3.9)	9(3.6)	3(1.1)	2(.8)	26(3.7)	18(2.9)	38(3.1)	29(2.6)
다문화인식개선	13(5.6)	20(7.9)	33(11.9)	31(12.2)	62(8.8)	61(10.0)	108(8.9)	112(10.0)
기타 교육(경제, 건강, 인문 등)	6(2.6)	6(2.4)	-	-	14(2.0)	17(2.8)	20(1.6)	23(2.1)
중도입국 청소년 적응지원	4(1.7)	8(3.2)	7(2.5)	7(2.8)	11(1.6)	15(2.4)	22(1.8)	30(2.7)
주말통합프로그램	4(1.7)	1(.4)	-	-	16(2.3)	9(1.5)	20(1.6)	10(.9)
진로 및 직업교육	3(1.3)	6(2.4)	6(2.2)	8(3.1)	7(1.0)	11(1.8)	16(1.3)	25(2.2)
멘토링	16(6.9)	25(9.9)	20(7.2)	25(9.8)	53(7.5)	59(9.6)	89(7.3)	109(9.7)
이중언어	6(2.6)	9(3.6)	24(8.6)	20(7.9)	23(3.3)	19(3.1)	53(4.4)	48(4.3)
한국어	7(3.0)	5(2.0)	9(3.2)	7(2.8)	9(1.3)	12(2.0)	25(2.1)	24(2.1)
다문화 축제 및 행사	5(2.2)	5(2.0)	4(1.4)	2(.8)	19(2.7)	10(1.6)	28(2.3)	17(1.5)
각종센터운영	1(.4)	1(.4)	5(1.8)	9(3.5)	-	-	6(.5)	10(.9)
글로벌선도학교, 중점학교, 예비학교 등	-	-	56(20.1)	52(20.5)	-	-	56(4.6)	52(4.6)
부모자녀관계	17(7.3)	17(6.7)	-	-	74(10.5)	53(8.6)	91(7.5)	70(6.2)
부모교육	25(10.8)	20(7.9)	7(2.5)	10(3.9)	74(10.5)	45(7.3)	106(8.7)	75(6.7)
학부모동아리지원	-	1(.4)	15(5.4)	14(5.5)	-	1(.2)	15(1.2)	16(1.4)
취학지원(설명회, 예비과정운영 등)	-	-	11(4.0)	3(1.2)	-	-	11(.9)	3(.3)
홈페이지구축 및 소식지 발간	-	-	6(2.2)	3(1.2)	-	-	6(.5)	3(.3)
교원연수	-	-	22(7.9)	18(7.1)	-	-	22(1.8)	18(1.6)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	-	-	8(2.9)	4(1.6)	-	-	8(.7)	4(.4)
지역네트워크 및 연계	1(.4)	-	5(1.8)	7(2.8)	-	-	6(.5)	7(.6)
봉사활동	2(.9)	1(.4)	1(.4)	1(.4)	7(1.0)	13(2.1)	10(.8)	15(1.3)
기타	12(5.2)	9(3.6)	10(3.6)	6(2.4)	13(1.8)	14(2.3)	35(2.9)	29(2.6)
전체	232(100)	253(100)	278(100)	254(100)	707(100)	613(100)	1,217(100)	1,120(100)

※ 출처: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표 X-12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종류: 초등학생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물적지원(경제적, 물적지원)	10(4.9)	13(6.0)	2(1.0)	1(.5)	17(3.0)	14(2.8)	29(3.0)	28(3.1)
체험활동(공연, 답사 등)	24(11.8)	21(9.6)	3(1.5)	2(1.1)	69(12.0)	47(9.4)	96(9.8)	70(7.7)
엄마나라방문, 초청 및 교류	4(2.0)	4(1.8)	4(2.0)	1(.5)	1(.2)	3(.6)	9(.9)	8(.9)
캠프	16(7.8)	12(5.5)	4(2.0)	1(.5)	37(6.4)	25(5.0)	57(5.8)	38(4.2)
특기적성교육	16(7.8)	17(7.8)	2(1.0)	4(2.2)	78(13.6)	71(14.2)	96(9.8)	92(10.2)
독서프로그램	7(3.4)	7(3.2)	1(.5)	1(.5)	17(3.0)	17(3.4)	25(2.5)	25(2.8)
인재양성 및 글로벌역량강화	2(1.0)	1(.5)	4(2.0)	8(4.3)	5(.9)	2(.4)	11(1.1)	11(1.2)
학습지원	20(9.8)	24(11.0)	6(2.9)	6(3.2)	51(8.9)	50(10.0)	77(7.8)	80(8.8)
심리적응프로그램	8(3.9)	9(4.1)	3(1.5)	2(1.1)	21(3.7)	17(3.4)	32(3.3)	28(3.1)
다문화인식개선	11(5.4)	15(6.9)	21(10.3)	20(10.8)	51(8.9)	49(9.8)	83(8.5)	84(9.3)
기타 교육(경제, 건강, 인문 등)	5(2.5)	3(1.4)	-	-	9(1.6)	10(2.0)	14(1.4)	13(1.4)
중도입국 청소년 적응지원	4(2.0)	7(3.2)	7(3.4)	7(3.8)	5(.9)	9(1.8)	16(1.6)	23(2.5)
주말통합프로그램	4(2.0)	1(.5)	-	-	16(2.8)	8(1.6)	20(2.0)	9(1.0)
진로 및 직업교육	3(1.5)	5(2.3)	-	2(1.1)	6(1.0)	7(1.4)	9(.9)	14(1.5)
멘토링	14(6.9)	23(10.6)	20(9.8)	25(13.5)	52(9.1)	58(11.6)	86(8.8)	106(11.7)
이중언어	6(2.9)	9(4.1)	17(8.3)	14(7.6)	19(3.3)	18(3.6)	42(4.3)	41(4.5)
한국어	5(2.5)	4(1.8)	7(3.4)	4(2.2)	2(.3)	2(.4)	14(1.4)	10(1.1)
다문화 축제 및 행사	5(2.5)	4(1.8)	4(2.0)	2(1.1)	18(3.1)	8(1.6)	27(2.7)	14(1.5)
각종센터운영	1(.5)	1(.5)	5(2.5)	9(4.9)	-	-	6(.6)	10(1.1)
글로벌선도학교, 중점학교, 예비학교 등	-	-	54(26.5)	50(27.0)	-	-	54(5.5)	50(5.5)
부모자녀관계	15(7.4)	16(7.3)	-	-	62(10.8)	44(8.8)	77(7.8)	60(6.6)
부모교육	10(4.9)	12(5.5)	3(1.5)	2(1.1)	22(3.8)	20(4.0)	35(3.6)	34(3.8)
학부모동아리지원	-	-	6(2.9)	4(2.2)	-	-	6(.6)	4(.4)
취학지원(설명회, 예비과정운영 등)	-	-	5(2.5)	2(1.1)	-	-	5(.5)	2(.2)
홈페이지구축 및 소식지 발간	-	-	5(2.5)	2(1.1)	-	-	5(.5)	2(.2)
교원연수	-	-	3(1.5)	4(2.2)	-	-	3(.3)	4(.4)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	-	-	7(3.4)	3(1.6)	-	-	7(.7)	3(.3)
지역네트워크 및 연계	1(.5)	-	2(1.0)	3(1.6)	-	-	3(.3)	3(.3)
봉사활동	2(1.0)	1(.5)	-	-	6(1.0)	11(2.2)	8(.8)	12(1.3)
기타	11(5.4)	9(4.1)	9(4.4)	6(3.2)	10(1.7)	11(2.2)	30(3.1)	26(2.9)
전체	204(100)	218(100)	204(100)	185(100)	574(100)	501(100)	982(100)	904(100)

※ 출처: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표 X-13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종류: 중학생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물적지원(경제적, 물적지원)	6(9.0)	8(8.4)	2(1.2)	1(.6)	6(3.3)	12(6.3)	14(3.4)	21(4.8)
체험활동(공연, 답사 등)	8(11.9)	12(12.6)	3(1.8)	2(1.3)	16(8.9)	18(9.4)	27(6.6)	32(7.3)
엄마나라방문, 초청 및 교류	2(3.0)	3(3.2)	4(2.4)	1(.6)	1(.6)	2(1.0)	7(1.7)	6(1.4)
캠프	3(4.5)	7(7.4)	4(2.4)	1(.6)	12(6.7)	12(6.3)	19(4.6)	20(4.5)
특기적성교육	2(3.0)	4(4.2)	1(.6)	1(.6)	14(7.8)	16(8.4)	17(4.1)	21(4.8)
독서프로그램	3(4.5)	2(2.1)	-	1(.6)	3(1.7)	4(2.1)	6(1.5)	7(1.6)
인재양성 및 글로벌역량강화	2(3.0)	-	4(2.4)	8(5.2)	1(.6)	-	7(1.7)	8(1.8)
학습지원	6(9.0)	7(7.4)	3(1.8)	3(1.9)	11(6.1)	10(5.2)	20(4.9)	20(4.5)
심리적응프로그램	2(3.0)	3(3.2)	3(1.8)	2(1.3)	9(5.0)	7(3.7)	14(3.4)	12(2.7)
다문화인식개선	5(7.5)	7(7.4)	19(11.5)	17(11.0)	30(16.7)	28(14.7)	54(13.1)	52(11.8)
기타 교육(경제, 건강, 인문 등)	2(3.0)	2(2.1)	-	-	4(2.2)	2(1.0)	6(1.5)	4(.9)
중도입국 청소년 적응지원	2(3.0)	6(6.3)	7(4.2)	7(4.5)	10(5.6)	13(6.8)	19(4.6)	26(5.9)
주말통합프로그램	-	-	-	-	2(1.1)	2(1.0)	2(.5)	2(.5)
진로 및 직업교육	1(1.5)	3(3.2)	3(1.8)	5(3.2)	1(.6)	7(3.7)	5(1.2)	15(3.4)
멘토링	6(9.0)	10(10.5)	18(10.9)	24(15.5)	23(12.8)	22(11.5)	47(11.4)	56(12.7)
이중언어	1(1.5)	1(1.1)	12(7.3)	13(8.4)	4(2.2)	2(1.0)	17(4.1)	16(3.6)
한국어	3(4.5)	3(3.2)	4(2.4)	2(1.3)	2(1.1)	5(2.6)	9(2.2)	10(2.3)
다문화 축제 및 행사	2(3.0)	3(3.2)	4(2.4)	2(1.3)	8(4.4)	4(2.1)	14(3.4)	9(2.0)
각종센터운영	1(1.5)	1(1.1)	4(2.4)	8(5.2)	-	-	5(1.2)	9(2.0)
글로벌선도학교, 중점학교, 예비학교 등	-	-	36(21.8)	36(23.2)	-	-	36(8.7)	36(8.2)
부모자녀관계	1(1.5)	4(4.2)	-	-	8(4.4)	5(2.6)	9(2.2)	9(2.0)
부모교육	6(9.0)	7(7.4)	3(1.8)	2(1.3)	10(5.6)	11(5.8)	19(4.6)	20(4.5)
학부모동아리지원	-	-	3(1.8)	3(1.9)	-	-	3(.7)	3(.7)
취학지원(설명회, 예비과정운영 등)	-	-	6(3.6)	2(1.3)	-	-	6(1.5)	2(.5)
홈페이지구축 및 소식지 발간	-	-	4(2.4)	2(1.3)	-	-	4(1.0)	2(.5)
교원연수	-	-	3(1.8)	4(2.6)	-	-	3(.7)	4(.9)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	-	-	7(4.2)	3(1.9)	-	-	7(1.7)	3(.7)
지역네트워크 및 연계	1(1.5)	-	-	1(.6)	-	-	1(.2)	1(.2)
봉사활동	-	-	-	-	2(1.1)	6(3.1)	2(.5)	6(1.4)
기타	2(3.0)	2(2.1)	8(4.8)	4(2.6)	3(1.7)	3(1.6)	13(3.2)	9(2.0)
전체	67(100)	95(100)	165(100)	155(100)	180(100)	191(100)	412(100)	441(100)

※ 출처: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표 X-14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종류: 고등학생

구 분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물적지원(경제적, 물적지원)	6(12.5)	8(11.8)	2(1.6)	1(.8)	5(5.7)	7(8.0)	13(5.0)	16(5.8)
체험활동(공연, 답사 등)	5(10.4)	8(11.8)	1(.8)	1(.8)	5(5.7)	9(10.3)	11(4.2)	18(6.5)
엄마나라방문, 초청 및 교류	3(6.2)	3(4.4)	3(2.4)	1(.8)	1(1.1)	2(2.3)	7(2.7)	6(2.2)
캠프	3(6.2)	3(4.4)	3(2.4)	1(.8)	3(3.4)	4(4.6)	9(3.5)	8(2.9)
특기적성교육	-	2(2.9)	-	-	5(5.7)	3(3.4)	5(1.9)	5(1.8)
독서프로그램	2(4.2)	1(1.5)	-	-	2(2.3)	2(2.3)	4(1.5)	3(1.1)
인재양성 및 글로벌역량강화	-	-	3(2.4)	5(4.1)	-	-	3(1.2)	5(1.8)
학습지원	3(6.2)	4(5.9)	2(1.6)	2(1.7)	2(2.3)	2(2.3)	7(2.7)	8(2.9)
심리적응프로그램	1(2.1)	2(2.9)	3(2.4)	2(1.7)	6(6.9)	2(2.3)	10(3.8)	6(2.2)
다문화인식개선	5(10.4)	7(10.3)	13(10.4)	14(11.6)	18(20.7)	17(19.5)	36(13.8)	38(13.8)
기타 교육(경제, 건강, 인문 등)	-	2(2.9)	-	-	-	1(1.1)	-	3(1.1)
중도입국 청소년 적응지원	2(4.2)	5(7.4)	6(4.8)	7(5.8)	9(10.3)	11(12.6)	17(6.5)	23(8.3)
주말통합프로그램	-	-	-	-	1(1.1)	-	1(.4)	-
진로 및 직업교육	-	2(2.9)	5(4.0)	7(5.8)	-	3(3.4)	5(1.9)	12(4.3)
멘토링	4(8.3)	4(5.9)	16(12.8)	21(17.4)	6(6.9)	7(8.0)	26(10.0)	32(11.6)
이중언어	1(2.1)	1(1.5)	9(7.2)	8(6.6)	1(1.1)	-	11(4.2)	9(3.3)
한국어	3(6.2)	3(4.4)	3(2.4)	2(1.7)	1(1.1)	1(1.1)	7(2.7)	6(2.2)
다문화 축제 및 행사	1(2.1)	3(4.4)	4(3.2)	2(1.7)	6(6.9)	3(3.4)	11(4.2)	8(2.9)
각종센터운영	1(2.1)	1(1.5)	4(3.2)	8(6.6)	-	-	5(1.9)	9(3.3)
글로벌선도학교, 중점학교, 예비학교 등	-	-	19(15.2)	19(15.7)	-	-	19(7.3)	19(6.9)
부모자녀관계	1(2.1)	2(2.9)	-	-	5(5.7)	2(2.3)	6(2.3)	4(1.4)
부모교육	6(12.5)	5(7.4)	3(2.4)	2(1.7)	7(8.0)	6(6.9)	16(6.2)	13(4.7)
학부모동아리지원	-	-	3(2.4)	3(2.5)	-	-	3(1.2)	3(1.1)
취학지원(설명회, 예비과정운영 등)	-	-	1(.8)	-	-	-	1(.4)	-
홈페이지구축 및 소식지 발간	-	-	4(3.2)	2(1.7)	-	-	4(1.5)	2(.7)
교원연수	-	-	3(2.4)	4(3.3)	-	-	3(1.2)	4(1.4)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	-	-	7(5.6)	3(2.5)	-	-	7(2.7)	3(1.1)
지역네트워크 및 연계	-	-	-	1(.8)	-	-	-	1(.4)
봉사활동	-	-	1(.8)	1(.8)	2(2.3)	4(4.6)	3(1.2)	5(1.8)
기타	1(2.1)	2(2.9)	7(5.6)	4(3.3)	2(2.3)	1(1.1)	10(3.8)	7(2.5)
전체	48(100)	68(100)	125(100)	121(100)	87(100)	87(100)	260(100)	276(100)

※ 출처: 국회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2014)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내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은 주로 국내에서 출생한 초등학생을 선별적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비예산 사업도 4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국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각계 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쏟아졌다. 그 결과 과거 다문화사회를 경험했던 그 어떤 나라들 보다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확립되었다. 그 결과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고 반면 한계도 나타나 향후 한국사회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지금까지 다소 급하게 수행되었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 그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한 단계 나아가 보다 선진적이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을 정립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1)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성과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성과를 꼽자면 무엇보다 그동안 공교육으로 진입이 어려웠던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편입학이 가능해지면서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합법적인 거주자인 반면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는 부모 혹은 부모 중 한명이 한국에 먼저 들어오고 나서 자녀를 입국시키거나 한국에서 체류 중 출산한 경우로서 대다수는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교육권, 의료권의 기본적인 권리 획득이 어려운 처지였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전혼자녀인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어머니(또는 아버지)의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편입학의 문제도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2006년 6월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하여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간소화하였고, 2008년 2월 개정을 통해서 초·중학교 전입학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까운 사람의 보증서만 있어도 할 수 있게 하였다. 2010년에는 학칙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중학교 전입학 절차를 없애고 초등학교에 전입학 절차를 중학교까지 적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에 진학에 어려움을 겪던 외국인 청소년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었다. 법적인 개정과 함께 중도입국청소년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위해 교육청, 출입국관리소에 다문화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하고, 정규학교 배치 전에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 운영, 학교내 한국어 교육과정(KSL)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학생 교육선진화 방안’을 수립한 점은 이주청소년의 교육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 자녀생활지도, 부모교육 등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다양한 자녀양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 영유아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의 200여개가 넘는 다문화가족 서비스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다문화자녀대상, 부모대상, 가족단위 등 다양한 대상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착초기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와 주로 영유아기 단계의 자녀양육을 집중 지원해왔다.

표 X-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자녀 지원서비스 성과(2013년 기준)

	언어발달서비스	언어영재교실	방문자녀생활 서비스	방문부모교육 서비스	방문한국어교육 서비스
대상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	만12세 이하 다문화가정 및 비다문화가정 아동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	만12세 이하 자 녀를 둔 결혼이 민자	중도입국자녀 (만19세 미만)
내용	언어발달 평가, 언어교육(어휘· 구문발달, 대화· 의사소통 능력향상, 읽기 및 이야기 하기 등)	결혼이민자 부모 의 출신국 언어 수업	인지영역: 독서 코치, 숙제지도, 자아정서사회영역, 문화역량강화영역, 시민교육영역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부모성장 부모-자녀 관계형성, 영양· 건강관리, 학교가 정생활지도)	한국어교육: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방법	개별수업(1:1) 모둠수업(2인 이상), 주 2회, 회당 40분 원칙	1개반 당 5~10명 내외(10개월) ※ 수강생 중 다 문화가족비율이 60% 이상이 되 도록 운영	주2회, 회당 2시간 1회(10개월까지) 원칙	주2회, 회당2시간 1회(5개월) 원칙, 생애주기별 3회 지원	주2회, 회당2시간 1회(10개월까지) 원칙
실적	평가 8,864명, 교육 5,452명	5,754명	4,346명	6,220명	480명

특히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는 연로한 부모 혹은 어린 자녀가 있거나 교통사정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에게도 자녀돌봄과 교육서비스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방문교육서비스는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되는데 첫째,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서비스, 둘째는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서비스, 셋째는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특히 자녀생활서비스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 내용은 학령 전에는 놀이를 통한 단어 익히기, 큰소리로 책읽기를 해주며, 초등학생의 경우 국어·수학공부, 알림장 해석 및 숙제 봐주기 등을 해주었다. 방문 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의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다문화가정의 주양육자인 결혼이민자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부분을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금순외, 2014)

셋째,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달리 부모(부 또는 모)의 이주로 인해 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시기에 한국으로 입국해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해 한국어교육 등 초기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빠른 대응방안을 강구한 점이다. 그 외에도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제18조)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근거(제30조)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중 상대적으로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취약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브릿지 프로그램인 ‘레인보우 스쿨(Rainbow School)’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9-24세)의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생활정보, 문화체험, 사회적 관계 향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2013년에는 서울, 경기(수원, 안산, 평택, 부천),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북(익산), 부산 등 10개소에 운영되었으며,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전일제, 여름학교, 주간·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신현옥외, 2013). 무엇보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공교육으로의 진입을 위한 디딤돌 기능과 함께 정서적 지지 및 한국생활에 대한 자신감 향상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었고, 향후 과제로 학교밖 후기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 사회적응 교육과 진로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2)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한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앞에서 논의한 측면에서 성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성급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면서 학교현장에서 통합보다는 다문화청소년을 구별, 분리해내거나 다문화청소년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의도하지 않는 낙인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측면에서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멘토링 등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추진하거나 연령적으로는 주로 영유아거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집중되고 중고등학생연령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 다문화청소년 정책이 수립, 시행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1) 의도하지 않은 낙인 효과

우선 다문화청소년 대상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면서 다문화학생의 내부적 다양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면 모두를 포괄하는 방식의 지원을 하다보니 '다문화학생', '다문화청소년'을 다른 학생들과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의도하지 않은 낙인 효과를 가져왔다. 다문화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특별학급'의 설치,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 다문화청소년 대상 캠프 등 다문화학생 학생 지원방식은 정책의도와는 다르게 다문화청소년을 비(非)다문화청소년과 구별, 구분하거나 다문화청소년은 무엇인가를 지원받아야 할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을 낳게 하기도 하였다(양계민 외, 2013). 이와 더불어 사회전반의 다문화인식개선, 친다문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적고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교육전문가 양성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내에서 다수자를 위한 다문화인식교육은 아직은 일회적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학교 내 교과서에 다문화적인 요소들을 반영하는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2014년부터 그러한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는 일부 과목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역량증진보다는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거나 복지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문화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양계민 외, 2013).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잘 하지 못하는 한국어, 학습지원 등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 외에도 다문화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일 수 있는, 청소년들이 리더십과 주도성을 기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 가운데에는 매우 적응적이고 우수한 인재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점이 부각될 수 있는, 그들의 우수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지원프로그램의 일률성

둘째,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 이중언어 등 언어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프로그램은 부족한 편이다(양계민외, 2013). 사실상 언어발달이라는 것은 향후 학업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한국어를 원활하게 사용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매우 유리한 역량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접근 방법에 있어서 한국어교육을 지나치게 ‘공부’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학 전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조기에 언어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지만 초등학교에 이르러서는 보다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학교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실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학교 내 독서클럽이나 지역사회 청소년시설 또는 각 지역의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독서모임,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 등을 개설하여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한국어 능력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언어의 경우, 2012년도 보고서에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명목상 이중언어이고,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파견되느냐에 따라 배우는 언어가 달라지는 일이 많아, 어머니는 일본출신인데 학교에 파견된 강사가 몽골사람이어서 몽골어를 배운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몽골어를 제 2외국어로 배우고 싶은 사람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원래 이중언어교육의 목적이 어머니나라 말을 배움으로써 어머니와 소통을 하고,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이해를 함으로써 이중문화수용성을 넓히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에서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하면, 제 2외국어를 배우도록 강요하는 것은 기본적인 학업도 어려운 청소년에게 추가로 부담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이므로 당연히 외국어를 잘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가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에게만

이중언어를 가르치기 보다는 일반 비(非)다문화청소년들도 모두 함께 특정한 제 2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라는 이유로 이중언어를 배우라고 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양계민 외, 2013).

(3) 대상연령의 편중

연령별로 보면, 주로 초등학생 대상의 정책들이고, 중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상당비율 취학전 연령대 아동이지만 점차 학교에 입학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은 대다수가 초등학생 대상이다. 학부모들의 경우 중학생이 되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이중 문화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급히 중고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점차 중고등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수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심리적응 촉진 프로그램의 부족

다른 한편,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증진과 같은 심리적응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학부모나 정책입안자들은 청소년의 학업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아정체감이나 자아존중감 강화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도의 연구결과(양계민외, 2012)와 2013년도 연구결과(양계민외, 2013)에서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 프로그램이었다. 실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이나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 문제를 이 시기에 제대로 해결하지 않게 되면 발달상 방황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드문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시범사업인 ‘다톡다톡’ 프로젝트는 눈여겨 볼만한 사업이다. 현대자동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억원을 지정 기탁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가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청소년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다톡다톡 사업)은

2013년은 6월에 시작하여 2014년 5월까지 1차년도 사업이 수행되었고, 현재 2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의 목적은 이주배경청소년의 다각적인 심리, 정서적 지원 및 전문적 개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청소년기에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을 돕는 것에 있다. 청소년상담전문기관, 이주청소년전담기관, 다문화지원 전문기관 등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관을 사업협력 파트너를 선정하였다는 점이 독특하다. 사업은 상담실 사례관리와 심리치료 지원으로 진행되는데, 상담실 사례관리는 초기상담, 상담진행, 종결, 사후관리로 진행되며 내담자와 상담 진행 중 필요시 심리진단 및 심리치료로 연결한다. 심리치료비 지원은 사례관리 대상자 중 보다 전문적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례판정 회의를 통해서 치료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병원 등 치료기관에 의뢰하여 치료비를 지원한다.

표 X-16 다독다독 사업의 개요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서비스 대상자	9-24세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치료지원 14-19세)	9-24세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치료지원 10-19세)
서비스내용	진로진학상담, 심리상담, 사례관리, 심리 검사 및 치료비 지원 ※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진로진학상담, 심리상담, 사례관리,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개소	4개소	5개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부산
위탁기관	■ 이주배경청소년센터 ■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인천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주배경청소년센터 ■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인천 계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광주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셋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은 전국에서 몇 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부처간 연계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는 중앙 차원에서 여가부가 설치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서울, 1개소), 전국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있는 안산시가 운영하는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로, 국공립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전국에 2개소뿐이다. 그 외에 기업이 재원을 지원하여 민관 협력방식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삼성이 지원하는 ‘위스타트 글로벌 다문화아동센터’ 2개소(수원시, 강진군), 현대자동차가 재정지원하고 서울시와 협력운영하는 ‘서울온드림센터’ 1개소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화된 기관도 필요하지만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기관인 학교, 기존의 다문화가족 서비스 전달체계인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서비스 전달체계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의 문화의 집 등 청소년활동 기관, 지역에서 아동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들은 각 부처에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에서는 학교는 학교대로, 지역사회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대로 각각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별도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 다문화청소년 대상자를 모집해서 다문화청소년 사업을 해야 하다 보니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수혜자의 중복성 문제가 노정되고 있고, 한국문화체험 등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에서 진행되다보니 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피로감도 느끼게 된다. 또한 교육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중도에 탈락하는 청소년을 학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부처간 연계 협력사업들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긍정적인 발달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탈학교 청소년들의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런 경우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을 필요가 있다.

결국 유사한 사업과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수준에서의 부처간 업무협의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도 네트워킹을 통한 업무 협력, 사업조정, 사업간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역내 네트워크,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부처별 사업 중복성의 문제제기도 해결될 수 있다.

표 X-17 다문화청소년 지원 전문기관 현황

구분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안산이주 아동청소년센터	서울온드림센터	We start 글로벌아동센터
재원	여성가족부	안산시	현대자동차(서울시)	삼성 위스타트운동본부 (수원시, 강진군)
서비스 대상	만9~24세 다문화청 소년, 탈북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	만 18세 이하 이주 아동청소년	만 9~24세 중도입 국청소년	만12세 이하 다문 화아동청소년
주요 서비스	중도입국청소년 초기 적응교육, 상담, 멘토 링, 지역네트워킹	상담 및 사례관리, 중도입국청소년초기 적응교육	중도입국청소년초기 적응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학습지원
기관성격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프 로그램지원을 통해 지 역 기관과 협력운영 (예:rainbow school)	기초자치단체가 운 영하는 다문화청소 년 전문서비스 기관	민관 협력 방식 (기업: 운영비 서울시: 공간 지원)	민관 협력방식
지역	서울	안산	서울	수원시, 강진군

넷째로, 정책과정에 수요자의 요구분석과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수요자의 요구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오히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당사자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거나 지원에 대해 거부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친 것이겠지만, 현장에서 수요자들이 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 정책이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이 실제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평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양계민외, 2013).

또한 사업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많은 사업들이 효과성 검증 없이 예산들이 증가 또는 감소되고 있다. 2014년 예산이 대폭 증가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의 경우는 대학생들이 처음에 봉사점수로 또는 선의에서 시작을 하나 끝까지 멘토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간에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바쁘다고 갑자기 오지 않는다고 하는 일이 벌어져 다문화청소년들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양계민외, 2013). 이는 중간에 멘토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효과성 검증을 통해서 사업의 재구성이나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선진적인 다문화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XI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의 의의
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의 결론
3. 다문화청소년 정책 개발의 과정
4.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제언 개발
절차
5.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개발
절차별 내용 및 함의
6. 정책제언

제 XI 장 결론 및 정책제언¹⁵⁾

1.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2010년도의 예비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까지 총 4년간의 중단연구를 수행해 왔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추적하는 종단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패널연구로 기초적인 성격의 연구이나, 동시에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해야 하는 정책연구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분야의 연구를 하나의 연구로 녹여서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닌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와 정책연구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이 분야의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차원에서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 의의를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각각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이론적 측면의 의의

본 연구의 이론적 측면의 의의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국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취약한 측면을 강조한 결과를 산출한 결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있던 시점에, 본 연구가 시작되면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이 객관적인지 경험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다문화청소년 내에 다양한 집단이 있고, 그들의 배경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발달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가정의 소득수준이나 부모의 학력수준과 같이 사회경제적인 계층이 청소년들의 발달을 설명하여 결국 다문화청소년이 보이는 다양한 문제는 ‘다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계층’의 문제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15) 11장은 양계민과 신현옥이 작성함.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자료를 비(非)다문화청소년의 패널자료인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의 자료와 비교를 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발달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소득수준별로 각각 비교했을 때는 그 결과가 다름을 나타내었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는 다문화청소년이 뒤떨어지지만 소득수준이 중, 상으로 올라갈수록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소득수준이 똑같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음을 보여 모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동질적 시각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한 두 변인을 가지고 횡단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보다 이론적으로 한 단계 나아간 결과를 도출하였고, 다문화청소년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의 연구에서는 3년간의 발달양상을 미국의 Carola Suarez-Orozco, Marcelo Suarez-Orozco, 그리고 Irina Toddorova 의 “Learning a New Land: Immigrant Students in American Society(2010)”에서 이주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추적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고-고(High Achiever), 고-저(Declining Achiever), 저-고(Improver), 저-저(Low Achiever)로 나누어서 집단 간 발달특성을 발견함으로써 한국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서도 유사한 특성들이 나타남을 분석하여 비교문화적인 타당성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2014년 연구 결과 다문화청소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일반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학습활동 및 학업성취의 측면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보여 학령기 이행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일반적 경향성을 다문화청소년에게서도 나타남을 확인하여 역시 이론적 측면에서 작은 함의를 더하였고, 초등학교 연령 시기의 발달특성이 중학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시기의 적절한 발달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나타내었다.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볼 때 향후 본 연구가 지속되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본 연구의 현실적 측면의 의의

본 연구가 지니는 현실적 측면의 의의도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문에 답을 제공해 준다. 첫째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특별지원이 필요한가? 의 질문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일반 국민이 느끼는 생활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지원을 받는 대상은 비난의 타겟이 되기 쉽다. 따라서 특정한 대상들이 지원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설득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지원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점차 증대될 뿐 아니라 지원의 대상이 사회적으로 편견과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며 사회적 부담의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의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수준별로 비교했을 때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다문화청소년들은 똑같이 소득수준이 ‘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한국가정 출신의 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발달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다문화가정인 경우는 단순히 소득수준이 낮은 것에 더하여 다문화가정이라는 요인이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고, 이러한 현상이 교정없이 지속될 경우 향후 다문화청소년들이 사회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문화라는 요인 자체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이 지니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 때문인데, 이들의 특수한 배경을 고려하여 적어도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의 저소득층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은 사회적 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가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지금 현재는 모두 일률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에 상관없이 지원이 주어지고 있고, 심지어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은 매우 다양하고, 특히 3년간의 발달양상을 비교했을 때 지속적으로 잘 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모든 면에서 잘 자라고 있어서 전혀 문제되지 않고, 처음에는 적응 수준이 낮았으나 점차 상승하는 집단의 경우는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적응수준이 낮은 아이들이나 점차 나빠지는 아이들은 가장 취약하고 모든 발달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원의 대상은 가장 취약한, 또는 점차 취약해지는 집단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이다. 연구에 따르면 모든 다문화청소년이 취약한 것이 아니며 주로 저소득층에 속한 청소년들이 취약하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속한 청소년들의 경우는 저소득층 지원에 이미 포함이 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기 보다는 현재의 저소득층 지원 시스템이 예산을 포함하여 일회성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연구를 통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측면의 의의에 더하여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더욱 의미 있는 결과들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의 결론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의 결론은 최종적으로 본 패널이 종료된 후 더 가치 있는 결론들이 도출되겠지만 현재의 시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집단이며, 다문화청소년 전체가 결핍되고 부족하며 취약한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와 비교했을 때 모든 변인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취약하지 않고, 오히려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오히려 역전되어 중학생이 되어서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수준이 더 높은 것도 있었다. 향후 지속적 추적을 하게 되면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의 격차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급격히 줄어드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회성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 이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그들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지원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낙인감을 유발하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

넷째, 기본적으로는 다문화청소년과 비(非)다문화청소년이 통합적인 프로그램 내에서 자연스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청소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가능한 어린 연령부터, 학생을 둘러싼 친구, 교사, 관리자 등 광범위한 다문화인식개선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일곱째,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으로 이루어지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실제 효과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다문화청소년 정책 개발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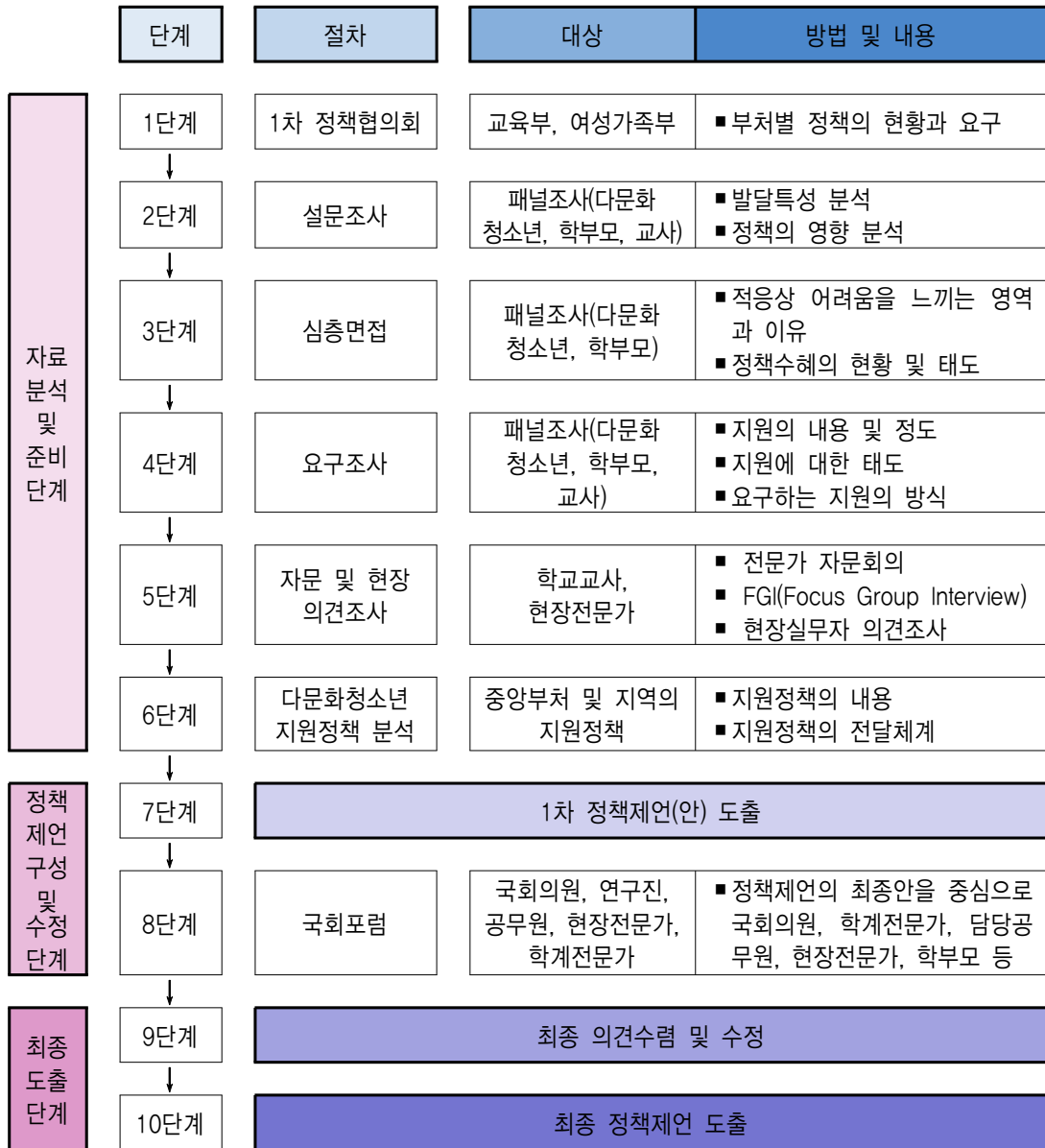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는 측면에서 기초연구이지만 패널조사와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연구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데 종단연구라는 본 연구의 특성상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올해의 연구결과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한 해의 단기적 연구를 통해 제언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제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총 4년 동안 수행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설문조사의 경우 4년간의 발달과정을 추적하였고, 횡단적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2013년도의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내용과 2014년도에 도출된 내용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순 설문조사에 근거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설문조사 외에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 현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내용 및 한계, 현장전문가의 의견조사,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방법과 방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2013년도에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과 큰 틀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의 연속선상에 2013년에 제시했던 틀을 근거로 보다 세부적인 정책제언과 추진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XI-1 2013년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제언의 기본 방향 및 10대 핵심과제였다. 2013년도에는 정책의 큰 방향과 과제를 정하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러나 올 해는 2013년도 제언을 수정·보완하고 각 핵심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개발하는 것으로 발전 및 확장시켰다.

4.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제언 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총 10단계의 과정을 밟았다. 각 단계별 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기술하였다.



【그림 XI-1】 본 연구의 정책제언 도출 절차

5.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개발 절차별 내용 및 함의

1) 정책협의회

단계	절차	대상	방법 및 내용
1단계	1차 정책협의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부처별 정책의 현황과 요구

정책협의회는 총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는데 다문화청소년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두 개의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담당자를 면담하고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다문화청소년 사업에 대한 소개와 향후 방향, 필요한 정책제언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에서도 향후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이 있고, 특히 다문화청소년들의 정체성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상담 매뉴얼 개발 등 구체적인 내용이 추진될 예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경우 다문화청소년 중 학교밖 청소년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다룰 계획이 있으므로 학교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점차 탈학교 청소년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학교밖 청소년들의 발달을 추적할 수 있는 설문 문항에 새로이 포함하는 등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와는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자세한 통계정보를 제공해주기로 하여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다문화학생 통계정보를 협조받았다.

표 XI-1 정책협의회 일시 및 면담자

일시	부처 면담자
2014. 3. 3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과장
2014. 4. 4	교육부 학생복지지원과 과장
2014. 4. 9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장

표 XI-2 정책협의회 결과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청소년 정체성을 다루기 위한 심리프로그램 개발 등 계획 확인
- 학교밖 다문화청소년의 문제를 다룰 필요성에 근거, 학업중단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 포함시킴
- 교육부의 전국 다문화학생 통계에 대한 지원 협조 도출
- 교육부 사업에 대한 이해

2) 설문조사

(1) 절차, 대상, 방법 및 내용

단계	절차	대상	방법 및 내용
2단계	설문조사	패널조사(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교사)	■ 발달특성 분석 ■ 정책의 영향 분석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는 2014년의 연구결과 뿐 아니라 다문화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연령대였던 2011년부터 2013년의 연구결과의 함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 도출결과

표 XI-3 2011~2014 설문조사 결과

년도	핵심주제	결과
2011년도	가정의 배경특성에 따른 발달차이 검증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은 다문화가정 또는 특정국가 출신의 어머니를 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능력, 학교의 성적, 이중문화수용 및 다양한 이중문화경험, 자존감이나 성취동기와 같은 심리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 적응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냄. ■ 부모의 배경적 심리적 특성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심리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 어머니의 학교행사 및 활동참여, 아버지의 교육수준 등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및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및 차별인식 등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년도	핵심주제	결과
2012년도	다문화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차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	■ 다문화패널 집단은 일반패널 집단에 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향성이 있음. ■ 다문화패널 집단이 일반패널 집단에 비해 발달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소득수준별로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차이는 주로 저소득층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일반패널과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 ■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며, 다문화패널 집단의 경우 가정 소득수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2013년도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양상별 특성 비교	■ 고-고(HA)집단: 일관되게 높은 학교생활적응수준을 보임. 학교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이고 그 외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집단임. ■ 저-고(IM)집단: 처음에는 학교생활수준이 낮았으나 점차 상승. 두 번째로 적응적인 집단임. ■ 고-저(DA)집단: 처음에는 학교생활수준이 높다가 점차 낮아짐 ■ 저-저(LA)집단: 지속적으로 낮은 학교생활적응수준을 보임.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가장 취약하고 부적응적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4년도	4년간 발달 과정 추적,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 및 가정, 학교, 지역환경의 영향 분석	■ 4년간의 발달양상을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음. ■ 일반 패널과 비교했을 때, 학교생활 적응 중 학습활동, 성적수준, 성적에 대한 만족도 등 주로 학업성취와 관련된 변인과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중학교 입학시기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동일하게 보임. ■ 비행행동의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다문화패널이 일반패널보다 많았으나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일반패널에 포함된 비(非)다문화청소년의 비행이 높아졌고, 자아탄력성의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일반패널이 더 높았는데, 중학교에 가서는 역전되어 다문화패널의 평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때의 발달양상이 중학교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초등연령 시기의 건강한 발달의 중요성을 시사함.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요인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다름. 저소득층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중요한 반면, 고소득층은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환경 요인 중 중요한 것은 교우관계와 학습활동이 대표적인데, 저소득층의 경우 교우관계가 더 중요하고 고소득층은 학습활동이 더 중요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학교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중요한 요인으로 산출됨 ■ 학교의 다문화정책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따라서 현재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역환경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의 총예산과 1인당 예산 모두에서 예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즉, 예산이 많은 지역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볼 수 없음. ■ 지역의 규모나 지역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오히려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예산이 직접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만큼 예산이 많다는 것은 관심이 많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이므로 현재 다문화청소년정책을 위한 예산들이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 있음.

3) 심층면접

(1) 절차, 대상, 방법 및 내용

단계	절차	대상	방법 및 내용
3단계	심층면접	패널조사(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 적응상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과 이유 ■ 정책수혜의 현황 및 태도

심층면접은 다문화중단패널에 참여중인 청소년과 학부모 각각 35명씩 총 70명을 대상을 1인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의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부모의 국적은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중앙아시아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새로이 구축된 몇몇 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는 2012년도부터 구축해 온 질적조사의 대상자들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부모자녀관계 또는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같이 가정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질문하고 분석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를 근거로 정책제언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 도출결과

표 XI-4 심층면접 결과

- 심리적으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어 심리·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지
- 사춘기 반항이나 폭력적 행동을 방지하는 사례 발견, 적절한 교육방법에 대한 학부모 교육 필요
-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려 하지 않는 등 일반 청소년들과의 유사한 발달과정을 보임.
- 자녀들의 반항이나 변화한 모습에 대해 학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소외감 느낌
- 자녀들의 학교수준이 올라가면서 더더욱 학습에 대해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어 부모로서 자신감과 권위 상실
- 부모대상 자녀지도 및 학습지도와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 절실
- 학업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모의 공부에 대한 잔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 선별적 지원에 대한 강한 거부감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반복과 식상함
- 다문화집단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적 시각에 대한 불편함
- 역차별 논란에 대한 불편한 마음
-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 특별한 관심의 부담스러움
-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특히 지원은 자녀의 성장발달에 필수적임

4) 요구조사

(1) 절차, 대상, 방법 및 내용

단계	절차	대상	방법 및 내용
4단계	요구조사	패널조사(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교사)	■ 지원의 내용 및 정도 ■ 지원에 대한 태도 ■ 요구하는 지원의 방식

요구조사는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분과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하나의 부분이고, 아래의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장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한 부분이 모두 포함되지만 각각 나누어서 제시하기로 한다. 요구조사는 현재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의 내용, 중복성, 필요한 것, 지원의 방식, 지원의 긍정적인 면, 지원의 부정적인 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도출결과

표 XI-5 요구조사 결과

방법	도출내용
설문조사	■ 다문화청소년 지원은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지속적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 적응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의 필요 ■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학생, 학부모와 교사간 차이가 있음 ■ 청소년과 학부모는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다문화가족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학년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에게만 지원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점차 많아짐. ■ 교사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 교사들의 의견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원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다문화정체성이 드러나고 그러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
심층면접	■ 다문화청소년 지원은 필요함 ■ 선별적 지원보다는 통합적 지원의 방향 선호 ■ 당사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 지원 필요 ■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의 필요(자녀교육 및 학습지도 관련)

5) 자문 및 현장의견조사

(1) 절차, 대상, 방법 및 내용

단계	절차	대상	방법 및 내용
5단계	자문 및 의견조사	학교교사, 현장전문가	■ 전문가 자문회의 ■ FGI(Focus Group Interview) ■ 현장실무자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 및 현장의견조사에서는 학교교사, 현장에서 다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 전문가와 중앙의 정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현장전문가,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7개소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사업업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표 XI-6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일시	참석자	자문회의 내용
2014. 9. 1	강○○(안산○○청소년센터)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지원현황과 전달체계 개선방안
2014. 9. 4	김○○(중앙○○센터)	교육부 사업의 현황과 한계, 개선방안
2014. 9. 18	김○○(서울○○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청소년 사업의 현황과 한계, 개선방안

표 XI-7 현장의견조사의 개요

집단	대상	일시	조사방법
교사	일반초등학교 교사 2명	2014. 8. 8	■ FGI(Focus Group Interview)
	다문화교육중점학교 2명	2014. 8. 28	
	일반중학교 교사 3명	2014. 9. 16	
현장 전문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7명	2014. 9. 15 ~ 9.19	■ 개방형 설문조사

(2) 도출결과

표 XI-8 요구조사(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방법	도출내용
FGI	■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지원 ■ 심리사회적응 및 상담프로그램 지원 필요 ■ 초등학생 대상 다수자 다문화교육의 강화 및 확대 필요 ■ 다문화사업 운영매뉴얼 제작 및 보급 필요 ■ 다문화담당교사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보장 필요 ■ 일반교사, 관리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강화 필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의견수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친근감과 전문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계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역량의 부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반프로그램에 다문화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 바람직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역 내 학교, 청소년기관,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 등 여러 기관이 연계하여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차별화 되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

6) 국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업 분석

(1) 절차, 대상, 방법 및 내용

단계	절차	대상	방법 및 내용
6단계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분석	중앙부처 및 지역의 지원정책	■ 지원정책의 내용 ■ 지원정책의 전달체계

국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업분석은 첫째로 다문화청소년지원과 관련된 각종 기본계획을 분석하였고, 둘째로 중앙부처의 지원정책과 지역의 지원사업을 분석하였다. 각종 기본계획은 제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제 5차 청소년기본계획을 분석하였고, 중앙부처는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여성가족부의 지원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군구의 지자체,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도출 결과

표 XI-9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및 사업 분석결과와의 합의

- 정부에서 다문화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낸 측면은 있음.
- 정부 부처의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은 주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학습멘토링, 공교육 진입 등 학업이나 언어관련 정책을 주로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문화체험 등 일회적 내용들이 여전히 상당부분 중복적으로 실행되고 있음.
- 중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의 내용은 감소하고 있음.
- 다문화청소년들이 사춘기에 도달할 것을 대비한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대상선정에 있어 상당프로그램이 여전히 통합보다는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었고,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가 주로 하는 것으로 제 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되어 있는데, 실제 많은 경우 학교에서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연구 결과 약 50%정도는 학교에서 다문화인식개선을 수업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정책지원으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함

7) 국회 포럼

(1) 절차, 대상, 방법 및 내용

단계	절차	대상	방법 및 내용
8단계	국회포럼	국회의원, 연구진, 공무원,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 정책제언의 최종안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학계전문가, 담당공무원, 현장전문가, 학부모 등

본 연구에서 제안된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정책제언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다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7일(금) 오전 10시 ~ 12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자스민실과 공동으로 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정부관계자와 교수, 교사, 현장전문가, 결혼이주여성 학부모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다문화청소년의 정책현실에 대해 논의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2) 도출 결과

표 XI-10 전문가 포럼 결과

- 교육부는 향후 학교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기초과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예비학교와 중점학교를 확대하는 방안, 지역 시·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지역 다문화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지역에 적합한 다문화교육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방안, 범부처 학교 다문화교육 지원대책 수립을 통한 학교 다문화교육 확대 등의 계획을 발표함. 다문화청소년이 재학중인 지역의 학교와 기관에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함.
-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일회성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며, 이중언어 등 다문화가족이 가지는 장점을 중심으로 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함.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현재 이미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정책과 사업운영의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을 자립지원과에서 다문화가족정책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만 별도로 떼어서 운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간의 원활한 연계로 효율적인 정책전달과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국내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중학교 이상 되는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도 개발되어야 함.
- 청소년의 배경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심리·사회 적응 프로그램 하나만으로는 역부족임. 다문화청소년의 문제는 그들을 둘러싼 환경의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아이의 생활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례관리가 필요함.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개발되어야 하고 전문성이 유지 및 발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일반 청소년과 통합적 지원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아갈 방향이지만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과 인식을 지닌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에 천천히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문제이지 갑자기 기관의 통합 등을 의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학교현장에서는 다문화교육의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다문화교육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일반 비(非)다문화학생과의 통합적 프로그램 운영과 다수자를 위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의 확산임
- 다문화교육은 의식적으로 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교과서나 수업자료 등에서 다문화적인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작업이 필요함
- 다문화사업의 방향이나 방법에 대한 교육 없이 학교에 예산만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 올바른 방향을 다문화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다문화사업의 방향, 학교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운영매뉴얼이 제작되고 배포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와 일반교사들의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이 매우 중요함.
-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다문화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한국식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있음. 따라서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이 필요함.

지금까지 정책제언 도출을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어떤 내용이 도출되었는지에 대해 단계마다 기술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6.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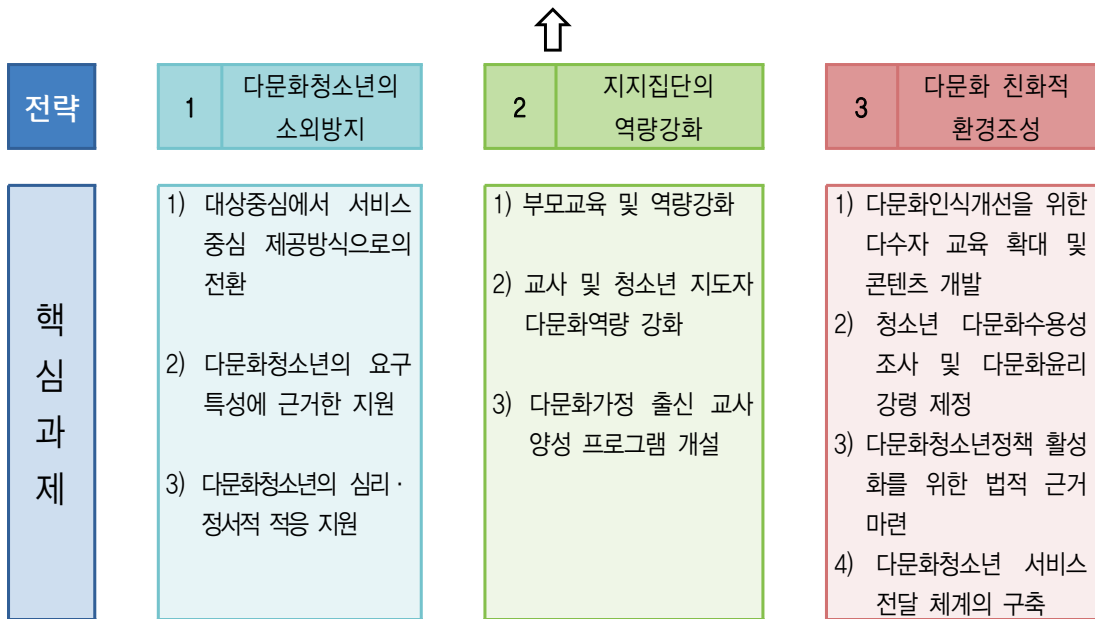
1)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과제

(1)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의 개요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문화사회의 가치인 다양성에 대한 존중, 보편적·통합적 지원을 통한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청소년의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실행이 이루어지고, 다문화청소년의 지원이 특별한 복지서비스를 강조하기보다는 교육복지의 차원과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보편적 서비스가 지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정책수혜자가 지나치게 부각되어 다문화청소년들이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책 공급자 중심이 아닌 정책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을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분리·낙인되지 않도록, 소외 및 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강구하는 것이고, 둘째, 다문화청소년들을 둘러싼 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사 등 지지집단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다수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추진전략별로 총 10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보다 자세히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의 방향과 전략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다문화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
다양성의 존중, 보편적 · 통합적 지원을 통한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그림 XI-2】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전략 및 핵심과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 그리고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올 해는 작년도 제안을 수정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2013년 보다 한 단계 발전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

다양성의 존중, 보편적·통합적 지원을 통한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전략	핵심과제
1	다문화청소년의 소외 및 차별방지	핵심과제 1: 대상중심에서 서비스중심 제공방식으로의 전환 핵심과제 2: 다문화청소년의 요구특성에 근거한 지원 핵심과제 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2	지지집단의 역량강화	핵심과제 4: 부모 교육 및 역량강화 핵심과제 5: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 다문화역량 강화 핵심과제 6: 다문화가정 출신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3	다문화 친화적 환경조성	핵심과제 7: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다수자 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개발 핵심과제 8: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조사 및 다문화윤리강령 제정 핵심과제 9: 다문화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핵심과제 10: 다문화청소년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2)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전략과 핵심과제별 정책추진계획

위에서 제시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전략과 핵심과제별로 추진계획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즉,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소외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상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요구특성에 근거한 지원,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등의 핵심과제를 정하고 각각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두 번째로 지지집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3가지 핵심과제는 부모교육 및 역량강화,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 다문화역량강화, 다문화가정 출신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 되었고 각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이 역시 각각 수립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문화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다수자 교육확대 및 콘텐츠 개발,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조사 및 다문화윤리강령 제정, 다문화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다문화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등 총 10가지에 대하여 23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XI-12 다문화청소년 정책 핵심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핵심과제	추진계획	담당부처
다문화청소년의 소외 및 차별 방지	1. 대상중심에서 서비스 중심 제공방식으로의 전환	1-1.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 제정 보급	여가부
		1-2. 다문화학생 통합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교육부
	2. 다문화청소년의 요구특성에 근거한 지원	2-1. 다문화청소년의 주도성 및 리더십 역량 강화	여가부 교육부
		2-2. 다문화청소년의 청소년 친선대사 양성	여가부
		2-3. 후기 청소년의 진로지도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여가부 고용노동부
	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3-1. 다문화청소년 자아정체성 발달 프로그램 추진	여가부
		3-2. 다문화청소년 상담매뉴얼 제작 및 보급	여가부
		3-3. 다문화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모형 개발과 정책방안 추진	여가부
지지 집단의 역량 강화	4. 부모 교육 및 역량 강화	4-1.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부모 상담·정보의 제공	여가부 교육부
		4-2.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 역량 강화	여가부
	5. 교사 및 청소년 지도자 다문화역량 강화	5-1. 교사 및 학교 관리자의 다문화역량 강화방안 마련	교육부
		5-2. 다문화교육 전문 교사의 양성과 다문화 역량의 지속적 축적	교육부
		5-3. 학교다문화사업의 운영지침, 매뉴얼 제작 및 제공	교육부
		5-4. 청소년기관 종사자의 다문화감수성 워크숍 및 다문화역량 강화	여가부
	6. 다문화가정 출신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설	6-1. 이주배경청소년,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대, 사범대 입학 장려 방안 검토	교육부
다문화친화적 환경 조성	7.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다수자 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개발	7-1.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강사인력 양성	여가부
		7-2. 다문화교육지원 포털사이트 구축 및 관리	교육부
	8. 청소년다문화수용성 조사 및 다문화윤리 강령 제정	8-1. 국민대상 정기적인 다문화 수용성 조사 실시 및 모니터링	여가부
		8-2. 청소년 관련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다문화윤리강령 등 제정	여가부
	9. 다문화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9-1. 청소년다문화정책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	여가부
		9-2. 학교내 다문화교육 체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10. 다문화청소년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1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지원 시범사업 실시	여가부
		10-2. 지역사회 다문화기관-청소년기관-학교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	여가부 지자체

전략 1	다문화청소년의 소외 및 차별방지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관련 내용 및 제언의 근거
설문조사	■ 중학교 시기에 들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짐 ■ 중학교 시기에 들어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증가함 ■ 학습의 대한 어려움 ■ 초등연령때 적응을 잘 하지 못한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중학교에서도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다양한 심리사회적응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득계층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름.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도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제공되어야 함.
심층면접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 고정관념에 불쾌함 ■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인하여 비참함을 느낌 ■ 다문화가정을 일반가정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함 ■ 단순지원보다는 내실 있는 학업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 ■ 선별적 지원으로 인한 차별감과 수치심: 통합지원의 필요성 ■ 사소한 갈등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과 분노조절의 어려움 등 심리적 문제 ■ 사춘기 반항과 갈등으로 부모와 관계 소원
요구분석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적응 및 상담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함 ■ 다문화사업 운영의 원칙이나 행동수칙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초등학교 다수자 대상 다문화교육의 강화 및 확대 필요
정책분석	■ 정부 부처의 사업은 주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학습멘토링, 공교육 진입 등 학업이나 언어관련 정책과 관련되고 있고, 심리사회적응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음. ■ 정부부처 사업 분석 결과 여전히 통합보다는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음.
정책포럼	■ 다문화가족에 대한 무료지원에 대한 일반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함 점차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정책을 시작함. ■ 청소년의 배경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핵심과제 1: 대상중심에서 서비스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

기존의 방식과 같이 다문화청소년들을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다문화청소년을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다른 존재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지원의 내용을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동일한 지원 내에서 하되, 선별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지원하는 이중적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양계민 외, 2013) 현재 교육부의 학생복지지원 대책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사업, 탈북학생 교육지원사업, 저소득층 가정 학생 지원인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등으로 대상별 지원방식으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대상별 지원방식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저소득층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구분되거나 분리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취약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분명 필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은 대상자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방식을 전환하여 다문화청소년, 탈북청소년 등 학교 내 소수자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거나 강요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다양한 교육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추진계획 1-1: 다문화학생 교육 및 지원방식 운영 원칙 및 가이드라인 제정 보급

내용 및 방법	-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학생에 대한 선별적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통합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학생 교육 및 지원방식에 대한 운영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주체에게 제공 -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이 구별없이 자연스럽게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의 제공방식으로 전환 . 단 다문화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추가로 지원을 더 하는 방안 검토 - 예)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실이 아니라 한국어가 취약한 학생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한글교실, 독서교실 등으로, 다문화청소년만을 위한 문화체험 활동이 아니라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이 함께 하는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전환 (※ 예시: 다문화특별학급, 무지개학급 => 한국어교실, 독서교실, 학업증진반 등)
예산	연구용역 50,000천원, 매뉴얼 보급 30,000천원
추진시기	단기과제
추진체계	교육부 →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 학교

• 추진계획 1-2: 다문화학생 통합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내용 및 방법	- 통합프로그램 운영시 교사나 멘토 등의 진행자들이 참가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이해 교육이나 유의할 점 등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 보급 - 참가하는 다문화청소년이나 소수자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전 기획이 필요함. - 다문화학생 통합 프로그램 우수사례 수집 및 분석 - 통합 프로그램 운영시 유의점, 고려해야 할 요소와 지침 등 포함
예산	연구용역 50,000천원, 매뉴얼 보급 30,000천원
추진시기	단기과제
추진체계	교육부(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지청 → 학교

■ 핵심과제 2: 다문화청소년의 요구특성에 근거한 지원

다문화청소년의 발달특성별로, 연령별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발달 및 적응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의 경우는 환경 및 심리적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고등교육과정에서 중도탈락 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주로 부족한 측면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발달 및 적응수준이 지속적으로 높거나 점차 향상되는 집단의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역량강화 및 리더십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양계민외, 2013).

• 추진계획 2-1: 다문화청소년의 주도성 및 리더십 역량 강화

내용 및 방법	○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주도성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리더십 프로그램, 이중언어교육, 문화예술활동, 동아리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 ○ 기존의 청소년육성 정책에 다문화청소년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실천적 지침 마련 -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예산	비예산 사업
추진시기	단기과제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시·도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지청 → 학교

● 추진계획 2-2: 다문화청소년의 청소년 친선대사 양성	
내용 및 방법	○ 국가간 교류, 자치체 교류, 기관 및 단체 국제교류 시 다문화청소년을 활용하여 외부 인사 영접 및 통역 등의 역할 수행 - 청소년 친선대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풀 관리 운영 모델 개발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중점과제 1-2 글로벌·다문화 역량강화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이나 미추진되고 있음.
예산	프로그램 및 관리운영 모델 개발비 50,000천원
추진시기	중기과제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시·도

● 추진계획 2-3: 후기 청소년의 진로지도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내용 및 방법	○ 현재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취학률이 낮은 상황이고, 특히 중도입국청소년들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진로지도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었거나 학교밖에 머물고 있는 중등학교 단계 학령기 청소년들 가운데는 학교에 진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다양하고 폭 넓은 진로지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중도입국 청소년에 적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두드림존’ 개발, - ‘무지개 JOB아라’ 프로그램의 확대 - 각 지역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과 인턴십, 직장체험 프로그램과 연계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대상에 중도입국청소년도 포함 -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경우 공공립 기술교육기관과의 연계하여 직업훈련교육 제공
예산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1개소) 50,000천원 무지개JOB아라 확대(20,000천원 * 10개소) 200,000천원
추진시기	단기과제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고용노동부, 시·도

■ 핵심과제 3: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은 주로 한국어와 이중언어에 관한 내용이 많고 그 외에는 일회성 캠프나 멘토링, 학습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다. 점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춘기에 이르게 되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학교나 지역사회

회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이나 따돌림 등을 경험할 때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미약하다. 향후 초등 고학년, 중학교 학령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한부모 다문화가족 및 재혼 다문화가족, 조손가족이 점차 많아질 전망이다.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무배우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자들은 유배우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차별·편견 경험 등의 문제가 크고, 자녀들 또한 차별경험과 우울감, 정체성, 부모관계 만족도 등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민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경우 차별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등이 높고 우울경험도 높아 심리적 측면과 사회성 발달에 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외, 2014, 교사 및 전문가인터뷰 결과). 이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사이에서도 성장배경에 따라 그 성격과 서비스 요구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지원에 있어서 부모의 배경, 자녀의 출신과 성장 배경을 고려한 심리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 다문화청소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다문화청소년의 통합적 사례관리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추진계획 3-1:다문화청소년 자아정체성 발달 프로그램 추진	
내용 및 방법	- 정체성, 심리적 위축, 친구관계, 한부모 아이들의 경우 이들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방안, 차별시 대응하는 방법 등 심리적 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함. - 연령대별(초등 고학년, 중학년,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차별 피해 아동, 청소년의 치유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예산	연구용역비(30,000천원 * 4종) 120,000 천원 시범사업비(40,000천원 * 2개) 80,000 천원
추진시기	단기, 중기과제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추진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시범사업 추진

● 추진계획 3-2: 다문화청소년 상담매뉴얼 제작 및 보급	
내용 및 방법	- 청소년상담사,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에게 다문화청소년을 상담, 지도하면서 필요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상담 방법, 상담 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담매뉴얼을 제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 등에 보급함. - 다문화청소년 상담 매뉴얼 개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예산	50,000천원
추진시기	단기과제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추진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추진계획 3-3 다문화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모형 개발과 정착방안 추진	
내용 및 방법	○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추진되는 시범사업의 성격인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파일럿 프로젝트(다독다독사업, 3개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함. ※ 다독다독 사업은 상담과 사례관리, 심리진단과 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 현재 5개 지역에서 성격이 다른 기관인 다문화 청소년 전문기관(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광주북구, 인천계양구), 청소년기관(부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음. 각 기관별 추진방식, 장단점 분석, 지역적 특성,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방식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향후 사회의 모델 개발과 정착 방안을 강구
예산	연구용역비 30,000천원
추진시기	단기 과제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전략 2	지지집단의 역량강화
------	------------

연구방법	연구결과와 관련 내용 및 제언의 근거
설문조사	■ 중학교 시기에 들어서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줄어들 ■ 가정환경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는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중요한 요인인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 학교 다문화학생 지원정책은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과정 및 현장모니터링이 필요함. ■ 학부모 대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매우 적으나, 일단 받은 경우에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
심층면접	■ 어머니의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자녀로부터 소외되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낌 ■ 부모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 ■ 부모로부터 듣기 싫은 말은 공부하라는 잔소리와 강요 ■ 사춘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요구분석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 아무 생각 없는 교사의 질문으로 학생들이 상처를 받게 됨 ■ 교사, 관리자 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 ■ 다문화사업 운영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담당 교사의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필요 있음.
정책포럼	■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인력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보유한 전문성을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핵심과제 4: 부모교육 및 역량강화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자녀를 중심으로 부모-자녀관계, 부모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심리적 실질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 역량강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은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질적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어떤 지도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청소년이 점차 고학년으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 더욱 더 불안감만 커지고,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 단절, 결혼이민자 어머니에 대한 무시, 자녀의 교육방법과 진로지도의 어려움 등 부모로서의 역량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외, 2013).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 하여 예비학부모 프로그램, 학교의 교육방침과 한국 학교의 진로 정보 제공, 학습지도와 다양한 학습지원 방안 등 다양한 학부모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부부 중 한쪽 혹은 양쪽이 재혼한 재혼가족이 전체 다문화가족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기 자녀 가운데서 부모가 재혼한 경우가 45%에 이를 정도로 재혼가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이선 외, 2014). 이질적인 출신-성장배경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재혼가족에서는 이민자 어머니의 전혼자녀(중도입국청소년)와 한국인 양아버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심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있다. 반대로 재혼가족에는 한국인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버지의 전혼자녀와 결혼이민자 양어머니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 청소년기 자녀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위한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가족구성에 따른 부모 역량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추진될 것을 제안한다.

• 추진계획 4-1: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부모 상담·정보의 제공	
내용 및 방법	○ 현재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서비스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주로 미취학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미미한 상태임. 또한 특히 자녀가 학교를 중단하거나 학교 밖에서 머물고 있는 경우 자녀의 진로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진로상담이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이 필요함. - 초등학생자녀를 둔 외국출신 부모의 예비 학부모 프로그램 -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진로 지도 정보제공 - 자녀의 성장, 부모-자녀관계, 부모 역할 등에 대한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 학부모 활동 프로그램
예산	비예산 사업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통합교육에 학령기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개편하고, 가족상담외에 학부모 자녀교육 상담 기능을 보완하여 추진 - 시도교육청 산하 지역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코디네이터의 기능 강화
추진시기	단기, 중기 과제
추진체계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시·도 → 시·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부 → 시도교육청(지역다문화교육센터) → 학교 지역다문화교육센터- 학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협력

• 추진계획 4-2: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 역량 강화	
내용 및 방법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통합교육의 일환으로 부모교육,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재혼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가족구성에 따른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가족관계상 직면하고 있는 핵심과제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향후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세부 집단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아버지 교육과 아버지 참여를 강화할 수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함. - 가족구성에 따른 세부 집단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재혼가족, 한부모 가족 부모대상 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가족 아버지 교육, 아버지-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사업 추진 * 아버지-청소년기 자녀 공동활동 프로그램, 아빠와 함께 하는 놀이 프로그램, 아버지 자조모임
예산	세부 집단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비(20,000천원 * 5종), 100,000천원
추진시기	단기, 중기 과제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핵심과제 5: 교사 및 청소년지도사의 다문화역량 강화

다문화아동청소년 종단 연구 결과에서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교사들의 경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다문화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외, 2013).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들을 접촉 빈도가 가장 많은 학교교사와 청소년 지도자의 다문화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추진계획 5-1: 교사 및 학교 관리자의 다문화역량 강화방안 마련	
내용 및 방법	(교육부) ○ 다문화청소년의 원활한 적응과 성장을 위해서는 교사, 학교관리자의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도 역량이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있는 관리자, 다문화담당교사, 일반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은 빈약한 편임. 교사의 다문화직무 연수강화와 다문화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세분화된 연수가 필요함. 맞춤형 교육으로 관리자를 위한 연수, 다문화 담당교사를 위한 연수, 일반교사의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연수 - 다문화관련 교사 연구회 지원, 다문화관련 교과목 지도서 개발 지원
예산	기존 사업비(연수, 교사연구회 지원사업 등)내에서 다문화관련 항목의 비중을 확대하여 추진함.
추진시기	중장기 과제
추진체계	교육부 → 시·도 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 학교

● 추진계획 5-2: 다문화교육 전문 교사의 양성과 다문화 역량의 지속적 축적	
내용 및 방법	(교육부) ○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지도의 경험이 풍부한 교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전문 교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다문화청소년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타학교로 전근을 갈 경우, 청소년 지도경험을 통해 길러진 경험과 노하우 등이 고스란히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음. - 다년간 다문화청소년을 교육한 경험이 있는 우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심화 연수과정을 진행하여 전문교원으로 양성 배치 - 업무의 연속성을 통해 다문화교육 역량을 축적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다문화 중점학교, 예비학교 등을 중심으로 인사교류 방안 검토
예산	비예산사업
추진시기	중기과제
추진체계	교육부 → 시·도 교육청 → 지역교육지원청 → 학교

• 추진계획 5-3: 청소년기관 종사자의 다문화감수성 워크숍 및 다문화역량 강화	
내용 및 방법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의 직무 연수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실제 상담사례, 진로지도, 활동프로그램 사례 등이 포함된 교육 실시 - 청소년기관 종사자 대상 다문화감수성 워크숍 개최 - 청소년상담사 대상 다문화청소년 상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청소년지도사 대상 다문화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예산	여가부 산하 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
추진시기	단기, 중기 과제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핵심과제 6: 다문화가정 출신 교사 양성

청소년의 주변에 있는 지지집단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로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을 교사로 양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제 다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정책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이주배경을 가진 교사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범대학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교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줌으로써 교직으로의 입문을 돕고 있다(양계민외, 2013). 그 결과 이주배경을 가진 교사들이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 추진계획 6-1: 이주배경청소년,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대, 사범대 입학 장려 방안 검토	
내용 및 방법	○ 사범대나 교육대의 입학, 교육과정 및 교직 안내를 포함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입학 시 우대 가산점 도입,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등 사범대 및 교육대 입학을 장려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이 교사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예산	연구용역 20,000천원
추진시기	중장기 과제
추진체계	교육부

전략 3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

연구방법	연구결과와 관련 내용 및 제언의 근거
설문조사	■ 지역 내 투입되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예산은 지역 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거주지의 규모가 클수록 심리·사회적응의 수준이 떨어지고 읍면지역 거주자의 심리·사회적응수준이 양호함. ■ 설문조사 결과 학교에서 다수자 대상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한 학교는 대략 50% 정도임.
심층면접	■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놀림은 초등학교 때 일어남. ■ 한국말이 능숙하지 못한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놀림과 따돌림이 발생함.
요구분석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교육은 초등학교 때 강하게 시켜야 함.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결코 다문화로 인한 차별이 나타나지 않으나 어린 시기에 생각없이 한 말과 행동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상처를 받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청소년사업을 하는 데 있어 다문화에 대한 민감성과 친근감, 전문성은 강점이지만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고려할 문제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보다는 지역 내 학교, 청소년기관,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 등이 연계하여 다문화청소년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포럼	■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을 자립지원과에서 다문화가족정책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일회성 전시성 사업을 지양할 계획임.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간의 원활한 연계로 효율적인 정책전달과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심리·사회적응 프로그램 만으로는 부족함. 한 아이의 생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사례관리가 필요하고이를 위해서는 여러 전문기관이 연계를 해야 함. ■ 일반청소년과 통합으로 가야한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갖춘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성급히 통합하려고 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핵심과제 7: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다수자 교육강화와 콘텐츠 개발

지금까지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한국사회에 사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소수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나 통합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 한국인들의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될 전망이다(김이선외, 2011).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유치원부터 대학단계에 이르기까지 학교급별 다문화 이해교육의 프로그램이 확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해외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경우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단순 정보 제공 수준의 다문화교육에서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개발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과 교수학습 전략, 생활지도나 상담지도 자료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고 다문화관련 모든 교육 자료 및 정보들이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교육 및 활동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 추진계획 7-1: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강사인력 양성

내용 및 방법	- 강의자 중심의 정보 및 지식 전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교육, 토론, 학생주도 프로젝트 및 워크숍을 통한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시범운영 후 확대, 강사인력 양성 및 워크숍 개최 - 기 개발된 청소년감수성 증진 프로그램('다가감')의 현장 적합성 보완,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 지속적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노력 : 교사연구회의 조직, 자료의 공유 - 전문강사 훈련 및 파견 - 해외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워크숍 개최
예산	연구개발비 50,000천원, 교육 및 워크숍 50,000천원
추진시기	단기, 중기 과제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청소년수련관, 학교 등

• 추진계획 7-2: 다문화교육지원 포털사이트 구축 및 관리

내용 및 방법	(교육부) ○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자료를 만들거나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미 기존의 개발된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부담감을 많이 줄여서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음. 따라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공유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이를 위해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다문화수업 교재 및 자료, 생활지도나 상담지도 자료 매뉴얼과 지침서, 다문화교육 우수 사례분석 등을 수집, 축적 - 이 자료를 탑재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지원 포털 사이트의 개설 - 지속적인 자료의 업데이트와 관리
예산	100,000천원
추진시기	단기, 중기 과제
추진체계	교육부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핵심과제 8: 다문화수용성의 정기적 실태조사 및 다문화윤리 강령 등 제정

다문화청소년을 비롯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증가, 외국인 및 결혼이주자를 고용하거나 이들에게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증가하면서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다문화 친화성을 높이고 동시에 종사자들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나 언어 및 행동에 대한 유의가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 수용성이나 민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대상 정기적인 다문화수용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지도, 또는 상담할 때 유의점, 가이드라인 및 반차별 지침, 다문화윤리강령 등을 정하여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사, 교사, 등 각 전문영역에서 인종, 문화 등을 고려한 전문가의 가치와 태도를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는 지침과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양승주외, 2014).

• 추진계획 8-1: 국민대상 정기적인 다문화 수용성 조사 실시 및 모니터링	
내용 및 방법	(여가부) ○ 국민대상 인식, 태도, 행동 측면 등 다각도의 다문화수용성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연령별, 집단별, 지역별 차이를 발표하고, 시계열적인 추이 분석 등 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2011년),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2012년) 되었으나 이후 조사 연구되지 않고 있음.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함께 3년마다 정기적인 다문화수용성 조사 및 결과를 다문화정책위원회에 보고 (성인대상, 청소년대상 구분하여 실시)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문제영역에 개선
예산	100,000천원
추진시기	단기, 중기 과제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추진계획 8-2: 청소년 관련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다문화윤리강령 등 제정	
내용 및 방법	(여가부) ○ 청소년들과 접촉의 빈도가 높은 청소년기관과 종사자들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가지고 다문화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문화 민감성이 반영된 기관운영의 가이드 라인이거나 다문화 윤리 강령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다문화윤리 강령(표 참조) 등 사례 연구 및 예시안 작성 - 전문 종사자 직업윤리서의 강령, 서비스 대상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서비스 헌장, 기관의 윤리 경영 등 다양한 유형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행동지침(action plan)을 만드는 것을 유도함. - 다문화윤리강령 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예산	30,000천원
추진시기	중기 과제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1.03 동의

- (b) 클라이언트가 문맹이거나 실천 장에 사용된 주요 용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세한 언어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 또는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자격있는 통역사 또는 번역가를 준비하는 것이 포함된다

1.05 문화적 능력과 사회적 다양성

- (a)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관한 문화 및 문화의 기능을 이해하여,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강점을 인식해야 한다
- (b)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화에 관한 지식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문화에 민감하고 사람간, 그리고 문화 집단간의 차이에 민감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자신이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c)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다양성의 특징,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성별, 성적 성향, 연령, 혼인상태, 정치적 믿음, 종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에 따른 차별의 특징에 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동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 (b)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나 다른 전문직 종사자에게 동료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 비판에는 동료의 능력 또는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성별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동료를 격하시키는 언사가 포함된다

4.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4.02 차별

사회복지사는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성별, 성적 성향, 연령, 혼인상태, 정치적 믿음, 종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어떠한 유형의 차별도 행하거나 이를 묵과, 조장,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

※ 출처: 양승주, 신현옥(2014), 114쪽에서 인용함.

■ 핵심과제 9: 다문화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다문화청소년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이 있으나 다문화가족의 자녀 지원,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기회 제공, 취약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복지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 청소년의 다문화적 감수성 제고, 다문화이해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법 내의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 추진계획 9-1: 청소년다문화정책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

내용 및 방법	(여가부)		
	○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에 따라 다문화이해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또한 다문화사회의 청소년의 다문화적 역량은 미래 청소년의 자질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나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는 더욱 빈약한 편임. 따라서 청소년 정책에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전반의 다문화이해교육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법 제정을 검토함. - 청소년기본법 개정시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강화, 다문화청소년 시책추진 근거조항 신설 - 다문화이해교육 지원법(안) 연구 및 제정 검토 *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예시		
	청소년기본법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2항	4.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4. 민주, 복지, 다문화사회 ,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없음	조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청소년의 소외방지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없음	다문화이해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
예산	비예산		
추진시기	단기, 중기		
추진체계	여가부		

• 추진계획 9-2: 학교내 다문화교육 체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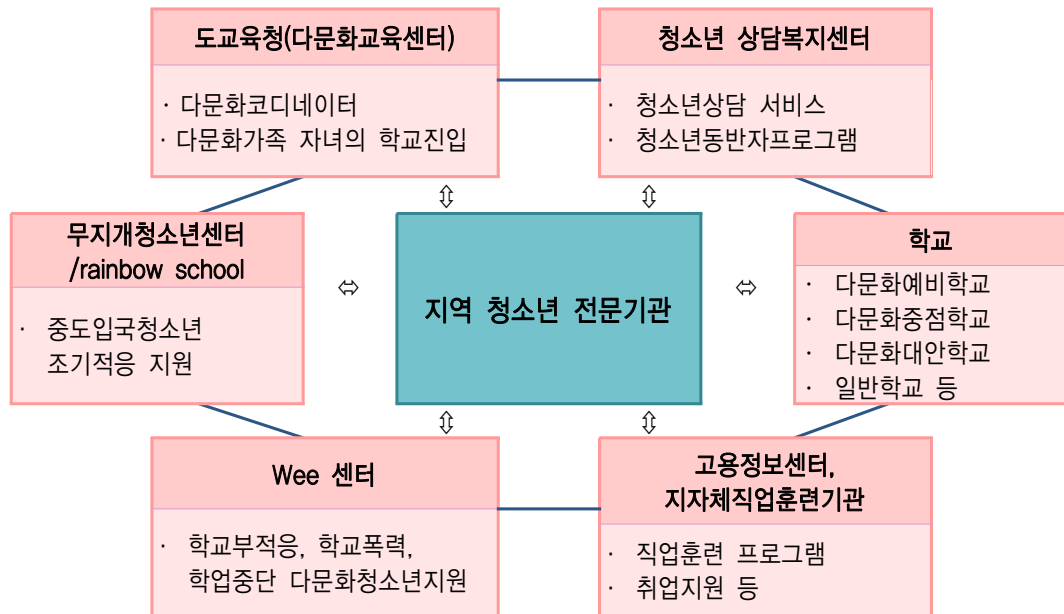
내용 및 방법	○ 교육부는 다문화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다문화학생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매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에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약한 상황임. 따라서 다문화교육지원을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교사의 다문화 직무연수, 교육과정에 다문화적 관점 반영,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및 지역다문화 교육센터 설치근거 마련 - 초·중·고등교육법 개정 또는 별도의 학교다문화교육지원법 제정 검토
예산	비예산 사업
추진시기	단기, 중기
추진체계	교육부

■ 핵심과제 10: 다문화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주로 학령기 이전의 자녀에 대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청소년기 자녀와 학부모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의 부족, 다문화적 감수성이나 언어적 문제 등이 있어서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상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 등은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에 종합적 접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소년지원기관이 각기 핵심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부터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 추진계획10-1: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지원 시범사업 실시	
내용 및 방법	(여가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성격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결혼이민자와의 원활한 소통, 통번역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강점을 통해서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아버지교육, 가족캠프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전담인력(가칭 ‘청소년기 자녀지원 코디네이터’)을 배치하여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와 학부모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기획, 수행하고 지역기관과의 연계 업무 담당 * 학부모 상담 및 교육, 부모자녀 관계 프로그램, 가족캠프, 지역 네트워킹 업무 등 - 우선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산	40,000천원 * 5개소, 200,000천원
추진시기	단기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추진계획10-2:지역사회 다문화기관-청소년기관-학교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	
내용 및 방법	(여가부,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내 지역특화형 다문화청소년지원 서비스 개발하고, 지역내 서비스 수요자 발굴, 지역내 서비스 기관-학교간 연계 협력을 지원하는 데 향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기청소년이나 학업중단,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We 프로젝트, 등에 있어서 다문화 청소년(특히 중도입국청소년 포함)이 배제되지 않고 안전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 협력이 중요함. - 지역의 다문화청소년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도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무지개 청소년센터, 일반 학교, Wee센터, 고용성보센터 및 지자체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
예산	비예산사업
추진시기	단기, 중기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



【그림 XI-3】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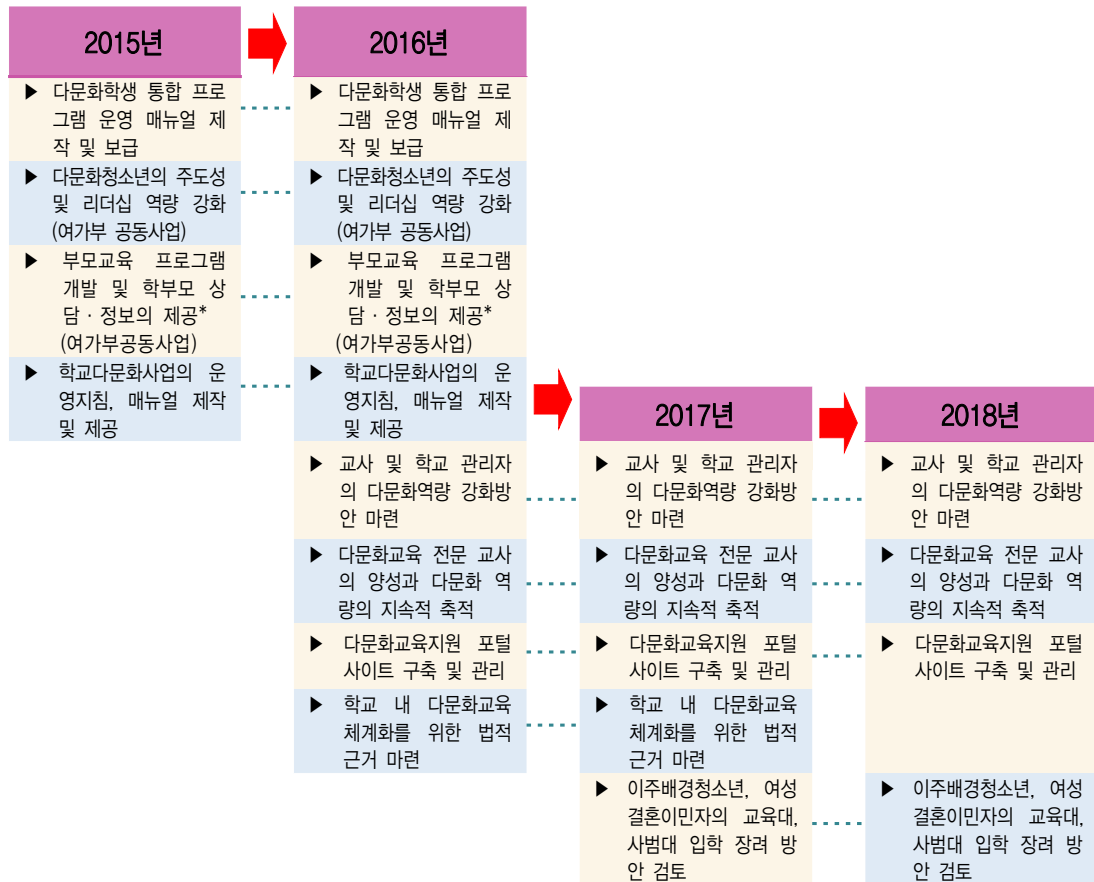
(3) 추진로드맵

표 XI-13 다문화청소년 정책 핵심과제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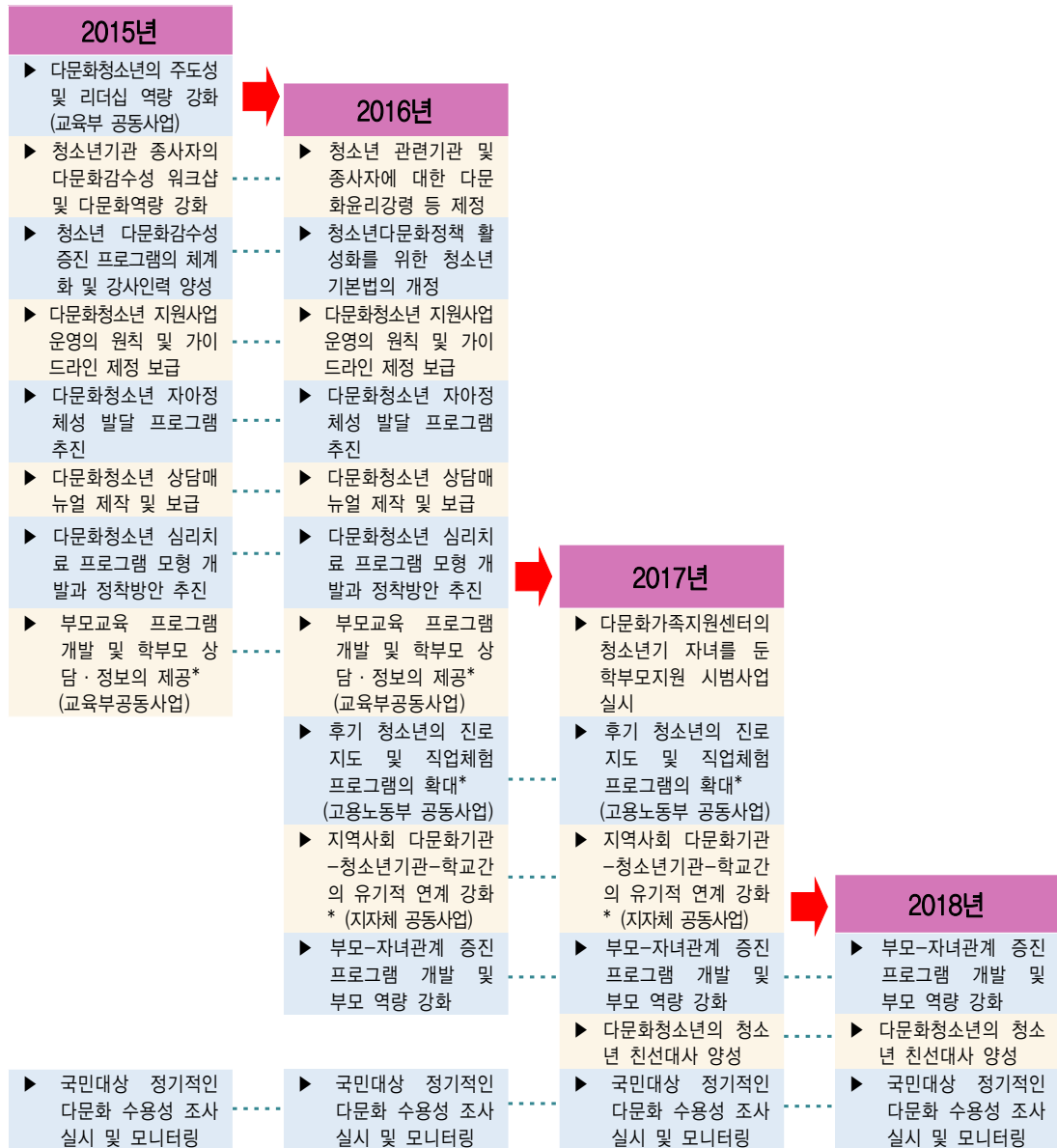
추진계획	예산 (단위:천원)	2015	2016	2017	2018	담당 부처
1-1. 다문화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 제정 보급	80,000	○	○			여가부
1-2. 다문화학생 통합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80,000	○	○			교육부
2-1. 다문화청소년의 주도성 및 리더십 역량 강화	30,000	○				여가부 교육부
2-2. 다문화청소년의 청소년 친선대사 양성	50,000			○	○	여가부
2-3. 후기 청소년의 진로지도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250,000	○	○	○		여가부 고용노동부
3-1. 다문화청소년 자아정체성 발달 프로그램 추진	200,000	○	○			여가부
3-2. 다문화청소년 상담매뉴얼 제작 및 보급	50,000	○	○			여가부
3-3. 다문화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모형 개발과 정착방안 추진	30,000	○	○			여가부

표 XI-13 다문화청소년 정책 핵심과제별 추진계획(계속)

추진계획	예산 (단위:천원)	2015	2016	2017	2018	담당 부처
4-1.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부모 상담·정보의 제공	비예산	○	○			여가부 교육부
4-2.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 역량 강화	100,000		○	○	○	여가부
5-1. 교사 및 학교 관리자의 다문화역량 강화방안 마련	비예산		○	○	○	교육부
5-2. 다문화교육 전문 교사의 양성과 다문화 역량의 지속적 축적	비예산		○	○	○	교육부
5-3. 학교다문화사업의 운영지침, 매뉴얼 제작 및 제공	비예산	○	○			교육부
5-4. 청소년기관 종사자의 다문화감수성 워크숍 및 다문화역량 강화	비예산	○	○			여가부
6-1. 이주배경청소년,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대, 사범대 입학 장려 방안 검토	20,000			○	○	교육부
7-1.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강사인력 양성	100,000	○	○			여가부
7-2. 다문화교육지원 포털사이트 구축 및 관리	100,000		○	○	○	교육부
8-1. 국민대상 정기적인 다문화 수용성 조사 실시 및 모니터링	100,000	○	○	○	○	여가부
8-2. 청소년 관련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다문화윤리강령 등 제정	30,000		○			여가부
9-1. 청소년다문화정책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	비예산		○			여가부
9-2. 학교내 다문화교육 체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비예산		○	○		교육부
1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지원 시범사업 실시	240,000			○		여가부
10-2. 지역사회 다문화기관-청소년기관-학교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	비예산		○	○		여가부 지자체



【그림 XI-4】 교육부의 다문화청소년 정책 추진 로드맵(*공동사업 포함)



【그림 XI-5】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청소년 정책 추진 로드맵(*공동사업 포함)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3). **2014년도 정부성과계획평가**. 국회예산처.
- 금명자, 권해수, 이자영, 이수림, 김상수 (2004). **학교밖청소년 종합지원체제구축운영연구** (2004 청소년상담연구-109).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순규 (2002).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논집**, 28, 21-39.
- 김이선, 황정임, 주유선 (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장기발전방향 및 실행계획 연구안**. 여성가족부.
- 김이선, 정혜숙, 손현민, 신현옥 (2014).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강화방안**.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I** (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미애 (2006). **학교밖 청소년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방안**. 사회과학논문집, 24(2), 147-196.
- 설동훈 (2008). **결혼이민자 자녀 양육과 교육: 현황과 과제**.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실태와 향후 대책, 정책토론회 자료집.(2008. 11. 27). 원희목 의원실.
- 신현옥, 양계민 (2013).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 무지개청소년센터.
- 신현옥, 윤상석, 이슬기, 김도혜, 이향규, 오수연 (2012).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안전행정부 (2014).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서울: 안전행정부.
- 양계민, 김승경 (2010).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 (연구보고 10-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김승경, 김윤영 (20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II**. (연구보고 12-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I**. (연구보고 11-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박주희 (2013).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 13-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승주, 신현옥 (20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부협력자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오현애 (2002). **학교중퇴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 학교중퇴 청소년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 (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 조사** (연구보고 CR2002-0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3-R18).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금순, 안혜영, 김인숙 (2014) **방문교육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자스민의원실 내부자료 (2014).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 이자영 (2010). **부모-자녀의사소통양식, 가족응집력,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에 미치는 영향-다문화가정과 일문화가정의 비교**.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정, 조윤주 (2010).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17), 253-278.
- 통계청 (2014a). **2014년 국가통계품질관리매뉴얼**. 통계청,
- 통계청 (2014b).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 통계청 (2014c).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통계품질진단 최종보고서**. 통계청(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0724-10).
- 홍봉선, 남미애 (1998). 복교를 원하는 부산지역 중퇴청소년 부모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 141-179.
- 홍상황, 황순택 (2004). 한국아동인성검사 개정판의 아동보고형(KPI-C-R-CRF)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3(2), 483-501.
- Suarez-Orozco, C., Suarez-Orozco, M, M., and Todorova, I. (2010). *Learning a New Land: Immigrant students in American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 Woolley, M. E., & Grogan-Kaylor, A (2006). Protective Family Factors in the Context of Neighborhood: Promoting Positive School Outcomes. *Family Relations*, 55(1), 93-104.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for finding factors influencing the differences between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developmental processes, and for generating adequate support policies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order to do this, we explored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fou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developmental processes, by analysing longitudinal data. The purposes of the 2014 study are 1) to trace developmental chang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during 4 years, 2) to understand the influences of education transition, their entering middle schools, on psychosocial adaptative behaviors and behavioral problems, and 3) to analyse the impacts of school, home, and policies on the psycho-social adaptative behaviors and behavioral problem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rough these, we tried to find specific solutions to improve multicultural adolescents' adaptation and to propose support policies more efficient and adequate to the need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follows. First, the trend of longitudinal changes about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life adaptation for 4 years showed that their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schoolmates, teachers' and friends' social support, physical satisfaction, self-resilience,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were improved, as they were getting older. On the other hand, their levels of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were increased, while their academic achievement related areas such as learning activities, their academic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ith their academic performance withered. Second, their developmental/adaptive level in the elementary school period led to similar levels of development/adaptation after entering middle schools, which suggests the importance of proper developmental supports in the elementary school period: The high-high (HA) group that had a continuously high level of school adaptation in various areas in elementary school period showed positive development in almost every area

measured after entering middle schools, while the low-low (LA) group were vulnerable in almost every area. Third, the comparison between our data and those of Korean Council of Youth Panel revealed that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life related factors of the both of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decreased rapidly in middle school, and that the discrepancy of development between multicultural and non-multicultural adolescents decreased more and more as they became older. Fourth, the most important factors among familial factors influencing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psychosocial adaptation were parents' support and their childrearing attitudes, which implicate the important parental education. Finally, the school environment factors influencing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psychosocial adaptation were schoolmate relationship, learning activities, academic performance. The important factor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income level: Schoolmate relationship was very important for psychosocial adaptation in the low income group, whereas learning activities were more important in the high income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10 core tasks and policy solutions for preventing isolation and discrimin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mproving capabilities of support groups, and establishing multiculture friendly environments.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adolescent development, longitudinal study, social integra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 임희진·송병국
-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Ⅱ / 이경상·박선영·조남익
-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훈·강지명
-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손병덕
-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유나
-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호균·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김희진
-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현주·김옥태
-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임영식·김민
-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옥·박주희
-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오해섭·맹영임
-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문은옥·이영화
-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0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 · 김지연 · 김정주
-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 · 김혁진 · 김범구 · 정다정
-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 · 하시연
-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 · 이종원 · 김희진
-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 · 이경상
-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 · 황여정 · 김승경 · 맹영임
-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 · 강태훈 · 류성창 · 변수용
-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김경준
-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 · 오해섭 · 백혜정 · 김희진
-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 · 백혜정 · 김희진 · 황여정
-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 · 김동일 · 김태완 · 윤철경
-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 · 윤철경 · 최금해 · 김옥태
- 14-R49 2014년 또래조정사업 / 서정아 · 김영한 · 이유진
-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 · 조혜영 · 김용훈
- 14-R52 신고 · 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 · 김민
-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 · 왕석순
-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 · 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Ⅰ (1/6~10)
-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Ⅱ (1/13~17)
-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 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5/8)
-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 14-S18 시군구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7)
- 14-S19 지역사회 지표를 통한 청소년 정책개발 및 정책의 실제 활용 (5/26)
- 14-S20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플릿터닝의 적용 가능성 (5/26)
- 14-S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워크숍 (5/30)
- 14-S22 위기청소년을 위한 숲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 (5/30)
- 14-S23 청소년 통일 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Action Learning의 적용가능성 (5/29)
- 14-S2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모색 (6/13)
- 14-S25 Mplus를 활용한 자료분석 (7/4)
- 14-S26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7/11)
- 14-S27 질적연구방법론 : CQR (7/21)
- 14-S28 가정폭력사건의 회복적사법 도입가능성 (7/29)
- 14-S29 2014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자격 하계합숙연수 (7/22~25)
- 14-S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중등) 발표 워크숍 (8/7, 8/10)
- 14-S31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8/29)
- 14-S32 표본조사의 올바른 모수 추정법 (8/14)
- 14-S33 학업중단 다수발생 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8/21)
- 14-S34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담당자 2차 워크숍 (8/28~29)
- 14-S35 대안교실 담당 교원 심화연수 (8/18~22)
- 14-S36 질적연구방법론 : 근거이론 (8/29)
- 14-S37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영역별 정책방안 도출 (9/19)
- 14-S38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9/19)
- 14-S39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역량 강화 방안 (9/30)
- 14-S40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4 대안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향 : 정책과 실천 (9/25~26)
- 14-S41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방안 탐색 공동세미나 (9/25)
- 14-S42 학교 사이버불링 실태와 대책방안 토론회 (11/3)
- 14-S43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30)
- 14-S4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11/12)
- 14-S45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1/7)
- 14-S46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11/17)
- 14-S47 국회다정다감포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11/07)
- 14-S48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워크숍 (11/29)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7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2호(통권 제7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7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4호(통권 제75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1호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2호 :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강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3호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4호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5호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6호 :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3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4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5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6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7호 :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8호 : 한중일미 4개국 청소년의 과학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연구결과

연구보고 14-R16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 : 총괄보고서

인 쇄 2014년 12월 24일

발 행 2014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31-1 94330

979-11-5654-030-4(세트)